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황여정

공동연구원 변정현

N

Y

P

I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변정현(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 사회에 저출산·고령화의 파고(波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을 배태시키는데, 세대 간 갈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들은 세대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우려가 무척 깊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이 지역적,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세대갈등이 향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간 세대갈등, 세대통합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대통합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대응 방안은 주로 노년층에 집중되었고, 청소년은 세대 논의에서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경로효친(敬老孝親)과 같은 도덕적 가치의 회복에서 찾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온 세대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세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덕적·당위적 차원에서 찾는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문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연계된 현실의 문제이며, 일상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질’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세대 간에 일방적 공여나 전승은 지양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로 세대관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을 적용하여,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고, 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거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역별로 세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연구진을 비롯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소중한 도움을 주신 현장, 학계, 정책담당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대 간, 사회구성원 간 신뢰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안전망이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이 같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세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세대통합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통합을 증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및 국제 비교,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의 기본 관점을 설정하였다. 또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세대문제에 대한 청소년, 중장년 및 노년 등 다양한 세대의 인식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세대통합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된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영국, 미국과 국내 사례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국제적인 세대통합 활동을 검토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세대통합 역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인식,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 세대통합역량 수준,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연구내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대통합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세대갈등, 세대통합, 세대통합역량, 세대통합프로그램, 상호 호혜적 세대 관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통합을 증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지원하고자,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의 기본 관점 설정 및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2차자료 분석 및 국제 비교
 - 가용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 진단
-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세대통합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case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영국, 미국의 주요 사례와 한국 사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국제적인 활동을 검토

○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인식을 파악하고,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조사 내용에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인식,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역량 수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이 포함되었음.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및 면담,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 도출

2) 연구방법

- 상술한 연구내용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사례 분석, 양적 연구(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

- 그간 세대갈등은 대부분 문화적 혹은 관념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나, 최근의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배분적 갈등의 양상을 나타냄.
-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돕는 데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세대통합교육이 세대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또한, 2차 자료 분석 결과, 한국 사회 구성원 다수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현재 심각한 편이며 앞으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수준에

대한 비교 결과, 청소년과 노인 세대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를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도덕적 당위 등을 근거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음.

2)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 법령 분석 결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세대통합역량에 관해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실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과 직결되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상당 부분 명시되어 있음. 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범부처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등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발표된 다양한 정책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들이 광범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정책적 기반은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구체적인 정책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정책대상, 전달체계, 전달방식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노인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향후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들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음.

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분석 결과

- 영국 뉴캐슬언더라임지역에서 실시된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메모로(MEMORO)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에서 실시된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단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임. 둘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세대 간 문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었음. 셋째,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4)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자료는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기본 실태분석과, 세대통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모형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통합역량 수준은 평균 72.2점을 나타내 청소년들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소통·협력하는 역량이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영역별로는 공감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고, 이해와 소통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의 특징, 노인세대가 살아온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노인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이해부터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7.2%에 불과했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또한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8%로 파악되었음. 프로그램(활동)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그 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예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것이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함.
- 또한 노인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이 무척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아울러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기 보다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경험이 청소년 세대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마음 등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걸림돌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모 세대의 노년 준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올바른 가족관계 정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정책제언

1)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통해 광범하게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정책이 확산·시행되고 평가 및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함.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아울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시함.
-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또는 기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 활용 방안을 제안함.

3)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가칭)세대통합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지역사회 자원을 여러 세대가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접촉 기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공유 방안을 제안하고,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방안을 제안함.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의 세대문제에 대한 감수성 제고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을 위해, 유관 학과 대학(원)생을 세대교류기획자로 양성하여,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등에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5)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결정 환경 조성

- 정책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함.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3
1) 문제 제기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3) 연구 개관	7
2. 용어의 정의	8
3. 연구내용	9
1)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9
2) 2차 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	10
3)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0
4)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11
5)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11
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12
4. 연구방법	13
1) 문헌연구	13
2) 전문가 자문	13
3) 사례 분석	14
4) 양적 연구	14
5) 관계부처와의 협의	15
5. 연구추진체계	15

II. 논의의 배경	17
1.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	19
1) 세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19
2) 세대갈등	21
3) 세대통합	24
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영향요인	25
1) 세대갈등 영향요인	25
2) 세대통합 영향요인	30
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32
4. 세대통합에 관한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34
5.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	37
1) 분석의 개요	37
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39
3)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비교	46
4)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수준 국제 비교	56
6. 요약 및 시사점	61
III.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65
1. 분석의 개요	67
2. 세대통합 관련 법령 분석	68
1)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68
2) 「인성교육진흥법」	70
3) 법령 분석의 시사점	75

3.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77
1) 범부처 종합계획	77
2)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정책의 구체적 사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102
4. 요약 및 시사점	115
IV.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117
1. 사례 분석의 개요	119
2.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Intergenerational Community Action)」 프로그램	123
1) 배경	123
2) 주요 내용	124
3) 성과 및 시사점	127
3.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131
1) 배경	131
2) 주요 내용	132
3) 시사점	140
4. 동영상상을 활용한 세대공감활동, 메모로(MEMORO) 프로그램	141
1) 배경 및 개요	141
2) 운영 방법: 기억동영상의 수집 과정	143
3) 메모로 프로그램의 특징	149
4) 국내 메모로 활동 사례	150
5) 성과 및 시사점	155

5.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세대 공감 활동, 「동네한바퀴in중로구」	159
1) 배경 및 목적	159
2) 주요 내용	160
3) 성과 및 시사점	167
6. 요약 및 시사점	170

V.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177

1. 조사 개요	179
1) 조사 대상	179
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179
3) 표본 설계	190
2. 분석 결과	193
1)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194
2) 한국사회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207
3)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경험	213
4)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221
5) 세대통합역량 실태 분석	237
6)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인식	255
7)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257
8) 요약 및 시사점	270

VI.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279
1.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관점과 방향	281
1) 기본 관점	281
2) 기본 방향	282
2. 정책과제	287
1)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87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292
3)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304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311
5)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결정 환경 조성	319
참고문헌	325
부 록	339
1.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	341
2.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344

표 목차

〈표 Ⅰ-1〉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12
〈표 Ⅰ-2〉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성과	13
〈표 Ⅱ-1〉 2차 자료 분석 항목 및 분석 자료	38
〈표 Ⅱ-2〉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비교에 사용된 KEDI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설문 문항	47
〈표 Ⅱ-3〉 젊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48
〈표 Ⅱ-4〉 중장년 이상 세대의 생각 및 언행에 대한 이해	49
〈표 Ⅱ-5〉 젊은 세대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49
〈표 Ⅱ-6〉 노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인정	50
〈표 Ⅱ-7〉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52
〈표 Ⅱ-8〉 SNS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수준	52
〈표 Ⅱ-9〉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	53
〈표 Ⅱ-10〉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	54
〈표 Ⅱ-11〉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에 따른 세대 간 인식 비교	55
〈표 Ⅲ-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76
〈표 Ⅲ-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고령세대통합 관련 정책과제	79
〈표 Ⅲ-3〉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83
〈표 Ⅲ-4〉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88
〈표 Ⅲ-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3-1.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89
〈표 Ⅲ-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95

〈표 III-7〉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나눔교실’ 정책에 내재된 세대통합역량 증진 활동	98
〈표 III-8〉 청소년 세대통합 관련 주요 종합계획의 개요와 특징	100
〈표 III-9〉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 세대통합 관련 정책 현황(2013~2016년) ..	105
〈표 III-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세대통합 관련 정책 현황(2013~2016년)	109
〈표 IV-1〉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122
〈표 IV-2〉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통합 워크숍 프로그램	126
〈표 IV-3〉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128
〈표 IV-4〉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부 영역	132
〈표 IV-5〉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	134
〈표 IV-6〉 「세대통합을 위한 야외 학교(Intergenerational Outdoor School)」 프로그램	135
〈표 IV-7〉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는 「헤리티지 서클(Heritage Circle)」 프로그램	136
〈표 IV-8〉 메모로 동영상 촬영과 투고의 순서	144
〈표 IV-9〉 메모로 이야기 거리의 범위	146
〈표 IV-10〉 메모로 촬영물 배포 동의서	147
〈표 IV-11〉 메모로 ‘기억의 은행’ 촬영 메모지	148
〈표 IV-12〉 서울S여고 2015학년도 고교2학년 ‘윤리와 사상’ 교과와 연계한 메모로 운영 사례	151
〈표 IV-13〉 메모로 활동에 대한 학생 소감	156
〈표 IV-14〉 메모로 활동에 대한 교사 소감	156
〈표 IV-15〉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업목적	159
〈표 IV-16〉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가자	161

〈표 IV-17〉 「동네한바퀴in종로구」 프로그램 구성	163
〈표 IV-18〉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가자 인터뷰 내용	168
〈표 IV-19〉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171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182
〈표 V-2〉 KEDI 세대통합성 측정 문항 및 본 연구의 세대통합역량 측정 문항 비교	184
〈표 V-3〉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	188
〈표 V-4〉 표본설계를 위한 고등학교 유형 구분	190
〈표 V-5〉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수 및 학생수	192
〈표 V-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92
〈표 V-7〉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	194
〈표 V-8〉 노인에 대한 친밀감 인식 수준	196
〈표 V-9〉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1)노인은 건강하다	197
〈표 V-10〉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2)노인은 지혜롭다	198
〈표 V-11〉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3)노인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 ·	199
〈표 V-1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4)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199
〈표 V-13〉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	200
〈표 V-1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201
〈표 V-1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3)노인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202
〈표 V-16〉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4)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203
〈표 V-17〉 대중교통 자리양보에 대한 인식	206

〈표 V-18〉 일자리 배분,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 전망	210
〈표 V-19〉 부모 부양 및 노인복지비용 증대로 인한 세대갈등 전망	211
〈표 V-20〉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1순위)	213
〈표 V-21〉 부모와 세대 차이를 느낄 때 대응 방법	215
〈표 V-2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216
〈표 V-23〉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217
〈표 V-24〉 (친/외)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소통이나 교류 수준	219
〈표 V-25〉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의 대화나 활동 기회	220
〈표 V-26〉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26
〈표 V-27〉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내용 흥미도에 대한 인식	232
〈표 V-28〉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1)	233
〈표 V-29〉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2)	234
〈표 V-30〉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의사	237
〈표 V-31〉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이해역량 차이 검증	239
〈표 V-32〉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이해역량 차이 검증	241
〈표 V-33〉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공감역량 차이 검증	244
〈표 V-34〉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공감역량 차이 검증	245
〈표 V-35〉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소통역량 차이 검증	247
〈표 V-36〉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소통역량 차이 검증	249
〈표 V-37〉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협력역량 차이 검증	253

〈표 V-38〉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협력역량 차이 검증	254
〈표 V-39〉 투입 변인의 구성	258
〈표 V-40〉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종속변인)	261
〈표 V-41〉 투입변인의 기술통계치	261
〈표 V-42〉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266
〈표 V-4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하위역량별 다층모형 분석 결과	268
〈표 V-44〉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72
〈표 VI-1〉 정책과제의 도출 근거	284
〈표 VI-2〉 세대 간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289
〈표 VI-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반영 방안	290
〈표 VI-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개정안	291
〈표 VI-5〉 교과수업과 메모로 활동을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모델	295
〈표 VI-6〉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300
〈표 VI-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예시)	306
〈표 VI-8〉 (가칭)세대통합포럼 운영 방안(안)	309
〈표 VI-9〉 중학교 교원 대상 인성교육연수 중 세대통합 내용 구성(안)	314
〈표 VI-10〉 2016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연간일정	316
〈표 VI-1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32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16
【그림 Ⅱ-1】 1960-2060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25
【그림 Ⅱ-2】 1970-2015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25
【그림 Ⅱ-3】 메가폰형 확산과정	28
【그림 Ⅱ-4】 청년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5-2015)	29
【그림 Ⅱ-5】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5-2015)	29
【그림 Ⅱ-6】 세대갈등의 인지 및 심각성 인식 수준	39
【그림 Ⅱ-7】 연령대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40
【그림 Ⅱ-8】 한국 사회의 갈등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41
【그림 Ⅱ-9】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41
【그림 Ⅱ-10】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인식 수준	42
【그림 Ⅱ-11】 세대별 세대갈등 이유	43
【그림 Ⅱ-12】 연령대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 갈등 발생 이유	44
【그림 Ⅱ-13】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	45
【그림 Ⅱ-14】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주제	45
【그림 Ⅱ-15】 세대별 향후 세대갈등의 추세에 대한 전망	46
【그림 Ⅱ-16】 세대 간 공감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51
【그림 Ⅱ-17】 ‘요즘에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국가별 응답 비율	57
【그림 Ⅱ-18】 ‘요즘에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58
【그림 Ⅱ-19】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국가별 응답 비율	59
【그림 Ⅱ-20】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59
【그림 Ⅱ-21】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 국가별 응답 비율 ..	60

【그림 II-22】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61
【그림 II-23】 선행연구 및 2차 자료 분석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63
【그림 III-1】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의 대상	68
【그림 III-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78
【그림 III-3】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추진 체계도	82
【그림 III-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 및 과제	87
【그림 III-5】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비전 및 정책과제	94
【그림 III-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틀 ...	102
【그림 IV-1】 분석 대상 사례 선정의 기준	121
【그림 IV-2】 메모로 코리아 사이트	142
【그림 IV-3】 만안청소년수련관 2016년 MEMORO 홍보 리플렛	153
【그림 IV-4】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과정 모집 공고문	154
【그림 IV-5】 2016 전국 청소년 UCC 콘테스트 메모로 특별부문 편성 리플렛	157
【그림 IV-6】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전참가자 관리	162
【그림 IV-7】 「동네한바퀴in종로구」 ‘주사위를 던져라’ 활동 사례	165
【그림 IV-8】 커뮤니티 매핑 실습 사례	166
【그림 IV-9】 커뮤니티 매핑 결과물	166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180
【그림 V-2】 설문 내용의 구성	181
【그림 V-3】 설문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193

【그림 V-4】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친밀감	195
【그림 V-5】 노인에 대한 이미지	204
【그림 V-6】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204
【그림 V-7】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205
【그림 V-8】 세대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	207
【그림 V-9】 세대갈등의 원인	209
【그림 V-10】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212
【그림 V-11】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중복응답)	214
【그림 V-12】 부모에게 세대 차이를 느낀 경험	215
【그림 V-13】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불만족한 이유	218
【그림 V-14】 조부모 및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소통 및 교류	220
【그림 V-15】 학교에서의 세대통합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비교	222
【그림 V-16】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시기(중복응답)	222
【그림 V-17】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중복응답)	223
【그림 V-18】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효과	224
【그림 V-19】 교육방식에 따른 세대통합교육 효과 평균 비교	225
【그림 V-20】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227
【그림 V-21】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관(중복응답)	228
【그림 V-22】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내용	228
【그림 V-23】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방식(중복응답)	230
【그림 V-24】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	231
【그림 V-25】 운영 방식에 따른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 평균 비교	235
【그림 V-26】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1)세대이해역량	238

【그림 V-27】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이해역량 수준 비교	242
【그림 V-28】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2)공감역량	243
【그림 V-29】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공감역량 수준 비교	246
【그림 V-30】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3)소통역량	247
【그림 V-31】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소통역량 수준 비교	251
【그림 V-32】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4)협력역량	252
【그림 V-33】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협력역량 수준 비교	255
【그림 V-34】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	257
【그림 V-35】 청소년에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모형의 단계별 구성	263
【그림 V-3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역별 비교	270
【그림 V-3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	271
【그림 VI-1】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대비 본 연구의 관점	282
【그림 VI-2】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방향	283
【그림 VI-3】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286
【그림 VI-4】 정규 교육과정과 세대통합 프로그램 단계별 연계 방안	297
【그림 VI-5】 자유학기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세대통합역량 반영 방안	299
【그림 VI-6】 세대통합 교수·학습자료 공유 가능 사이트	303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2. 용어의 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제 | 장

연구의 개요*

1.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1) 문제 제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의 쾌거를 이룬 한국사회의 이면에는 지역공동체의 붕괴, 민주意識 약화, 연고주의의 강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만연해 있다(김미숙 외, 2012: 27). 이 같은 사회갈등은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인종, 종교 등 제반 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나타난다(김미숙 외, 2012).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이 지역적,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으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분석(서용석·전상진, 2013: 2)도 제기된다.

실제로 세대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우려는 무척 깊다. 지난 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50.1%를 차지했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2.30.).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에 갈등이 많다는 응답이 84.8%에 달했다(정경희, 2013). 이 같은 조사결과는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세대갈등을 체감하며,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거부운동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된 논쟁도 모두 세대갈등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이념적 성향의 편차도 커서, 세대갈등은 이념갈등과도 관련이 깊다(여유진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외, 2013: 91). 이 같은 연유로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세대갈등이 계층, 이념, 노사, 지역갈등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여유진 외, 2013: 11).

더욱 우려할만한 대목은 이러한 세대갈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변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 그리고 경제의 저성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9명 선에 머물러 있는 저출산 문제와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37%에 달하게 되는 고령화 문제는 ‘세대’ 이슈와 직결되어 있다(한겨레, 2015.2.10.; 홍영란 외, 2015: 3에서 재인용).

고령화로 인한 인구 비율의 변화가 세대 갈등으로 비화된 단적인 예는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렉시트 결과를 둘러싸고 고령화로 인해 다수 집단이 된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8%가 영국에서 목도된 세대갈등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며, 10명 중 6명은 브렉시트는 실버세대가 청년세대의 미래를 결정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세계일보, 2016.9.23.). 이 같은 일련의 현상은 고령화가 더 이상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 즉 세대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허새나, 2016: 2).

한편, 눈부신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도 세대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에 힘입어 요즘의 젊은 세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렵던 사회정치적 파워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과거 기성세대가 누리던 권력과 권위의 기반은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그들이 누리던 권력과 권위를 전면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함인희, 2013: 47). 아울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실증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50세 이상 장년·노년층 취업자가 30대 이하 청년층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한국경제, 2015.12.1.)는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세대갈등의 표상(表象)으로 만든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서용석·전상진, 2013: 2). 그렇지만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홍영란 외, 2015: 4). 이러한 연유로 다양한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사회구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미숙 외, 2012).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세대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세대통합이란 갈등을 부정하거나 모든 세대가 획일화·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다양한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McClusky, 1990; 홍영란 외, 2015: 9에서 재인용),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상태를 지칭한다(홍영란 외, 2013, 2014; 홍영란 외, 2015: 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세대통합은 다원화 된 현대 사회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도출(김미숙 외, 2012)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들어 사회 각계에서 세대 간 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 설립된 ‘사회통합위원회’ 내에 세대분과를 설치하고 세대통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통합위원회가 해산되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4년 발표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국민대통합위원회, 2014.7)의 12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소통역량 강화’를 반영하고, 중점 과제로 ‘세대소통의 장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세대통합에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또한 2015년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령사회 대책 중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의 주요 과제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제시한 바 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12.9.).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세대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방증한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과 주제, 대상, 범위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세대통합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세대격차가 주로 기성세대인 아날로그 세대와 신세대인 디지털 세대 사이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의 부재에서 유발된다(홍영란 외, 2015: 4)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큰 틀에서 세대 간 갈등과 세대통합에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고령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고(홍영란 외, 2015: 4), 노령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여가 및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강조점을 두어 왔다(홍영란 외, 2013; 홍영란 외, 2015: 4). 이러한 연유로 일각에서는 그간 수행된 고령화 문제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관한 연구들이 ‘제한된 접근방법’을 취했다고 지적한다(홍영란 외, 2015: 4).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정책대상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영란 외(2015: 4)는 최근 들어 부각되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노인 세대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세대단절과 세대충돌이 발생하는 시기에 세대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이질성에 대한 포용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함인희, 2009; 홍영란 외, 2015: 4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에 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노년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의 간극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세대통합의 주요한 중심축인 젊은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삼아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실제로 청소년은 세대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박재홍(2005: 58)은 개인의 의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의 시간대는 대략 10세 경부터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세대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술한 견지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 형성한 세대인식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연구범위 측면에서 세대통합역량 증진의 방안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OECD(2011)는 세대 간 강력한 연대(solidarity)가 이루어지려면 세대 간 공통의 이해관계 등 목표가 일치해야 하고, 세대 간 기여와 보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최유석, 2014:65에서 재인용). 세대 간 정서적 친밀감의 증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이전이 균형을 유지해야 세대 간 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최유석, 2014:65에서 재인용). 예컨대 복지정책에서 세대 간 자원의 일방적인 이전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연대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바, 세대 간 자원의 쌍방향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대 간 재정적·정서적 자원교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세대 간 연대를 굳건히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다(OECD, 2011; 최유석, 2014: 65에서 재인용).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최근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 지급,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 경제 성장률의 하락 등과 맞물려 벌어지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경쟁적 이해관계의 상충과 관련이 깊다(홍영란 외, 2015: 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대통합을 증진하는 데 주효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성세대의 권위의식을 낮추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실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성적 측면(hard infrastructure)에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개선과 연성적 측면(soft infrastructure)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강화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 배분 문제의 개선,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의식 완화,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아울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연성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세대통합을 이루는 데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기회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지금(허세나, 2016: 34), 세대 간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이 같은 태도와 역량이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연구 개관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틀을 견고히 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정책의 체계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괄하고 범부처 추진 정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했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고 세대통합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근거에 바탕을 둔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고령화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된 지금, 세대문제는 더 이상 경로효친(敬老孝親)과 같은 도덕적·당위적 수준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세대문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연계된 현실의 문제이며(김희삼 편, 2015), 일상적 삶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세대 간, 사회구성원 간 신뢰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안전망이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밑바탕이다(허새나, 2016: 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이 같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세대통합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세대²⁾

‘세대’ 개념에는 친족계보, 코호트,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정 역사적 시기를 공유한 사람들 등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사회·역사적 세대),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 연령집단으로서의 세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침투적 관계에 있다는 박재홍(2005: 94)의 관점을 준용하였다. 그리하여 홍영란 외(2013, 2014, 2015)의 연구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대’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세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보고서 제II장의 제1절에 제시하였다.

○ 세대갈등

세대갈등이란 세대 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념적 갈등뿐만 아니라,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함하는 개념(Riley, 1985; 박재홍, 2010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관념적 갈등은 세대갈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이미지로서, 세대 간의 가치관과 목표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의미하고, 권력 갈등은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 갈등이며,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몫을 둘러싼 갈등을 일컫는다(Riley, 1985; 홍영란 외, 2015:9에서 재인용).

○ 세대통합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McClusky, 1990; 홍영란 외, 2013:17에서 재인용). 이때 유의할 점은 세대통합은 획일화 된 상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통합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요구한다(함인희, 2013).

○ 세대통합역량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은 홍영란 외(2014)에서 정의한 세대통합성의 개념³⁾을 준용하여,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3. 연구내용

1)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개념인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또한

3) 세대통합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 II 장의 제3절에 제시하였다.

세대통합 영향요인 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정책연구과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

(1)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제Ⅱ장의 5절에서는 가용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특히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10~70대에 이르는 전(全) 연령대 응답자 3,345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국제 비교

세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들과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3)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 법령 분석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세대통합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인성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검토하였다.

(2) 정책 분석

정책 분석은 포괄하는 범위가 큰 범부처 종합계획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자체 시행계획까지 광범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범부처 종합계획의 경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4.1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인성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세대통합 관련 정책 파악을 위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내용, 정책대상, 전달체계, 전달방식의 4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본 연구의 제Ⅳ장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 있는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국제적인 활동을 검토하였다.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계 18개국에서 실천되는 메모로(MEMORO)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 등이 제Ⅳ장에서 검토되었다.

5)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본 연구의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인식을 파악하고,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Ⅴ장에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에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인식,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역량 수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심도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등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본 연구의 제Ⅶ장에서는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및 면담,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상술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에 <표 Ⅰ-1>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표 Ⅰ-1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 내용	보고서 구성	주요 내용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Ⅱ장 1-4절	•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 •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영향요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 세대통합에 관한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2차 자료 분석 및 국제 비교	제Ⅱ장 5절	•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문제에 대한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인식 비교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국제비교
세대통합 및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법령 분석 및 정책 분석	제Ⅲ장	• 세대통합 관련 청소년 분야 및 교육 분야 법령 분석 • 범부처 종합계획 및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통합 및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정책 분석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사례 수집·분석	제Ⅳ장	•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검토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검토 • 메모로(MEMORO) 프로그램 검토 • 한국 「동네한바퀴in종로구」사례 검토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제Ⅴ장	•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경험 •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세대통합역량 실태 분석 •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인식 •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제Ⅵ장	• 선행연구 검토, 2차 자료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및 면담, 정부 부처 자문 및 협의 등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 관련 이론적 배경 검토, 세대통합역량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세대통합역량 프로그램 사례 수집,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등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 세대통합역량의 개념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유사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 수집 및 검토를 통해 설문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정책분석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자료, 문건 등을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을 보유한 학계 전문가, 세대갈등 완화 및 세대통합 이슈에 관해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연구 진행 방향 설정, 국내·외 정책 및 해외 사례 수집, 설문지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논의, 정책제안의 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성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성과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1차	연구방향 설정	•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청소년지도사 등) • 대학 교수 • 초·중·고 교사
2차	국내외 정책 및 해외 사례 동향 파악	
3차	설문도구 타당성 검토	
4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모색	
5차	정책제안 타당성 검토	

3) 사례 분석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 분석(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방법, 성과, 한계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양적 연구

(1)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수준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고자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동일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를 점검해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세대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을 개관하고, 세대별로 교차 분석(χ^2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통해 연령대 별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2) 설문 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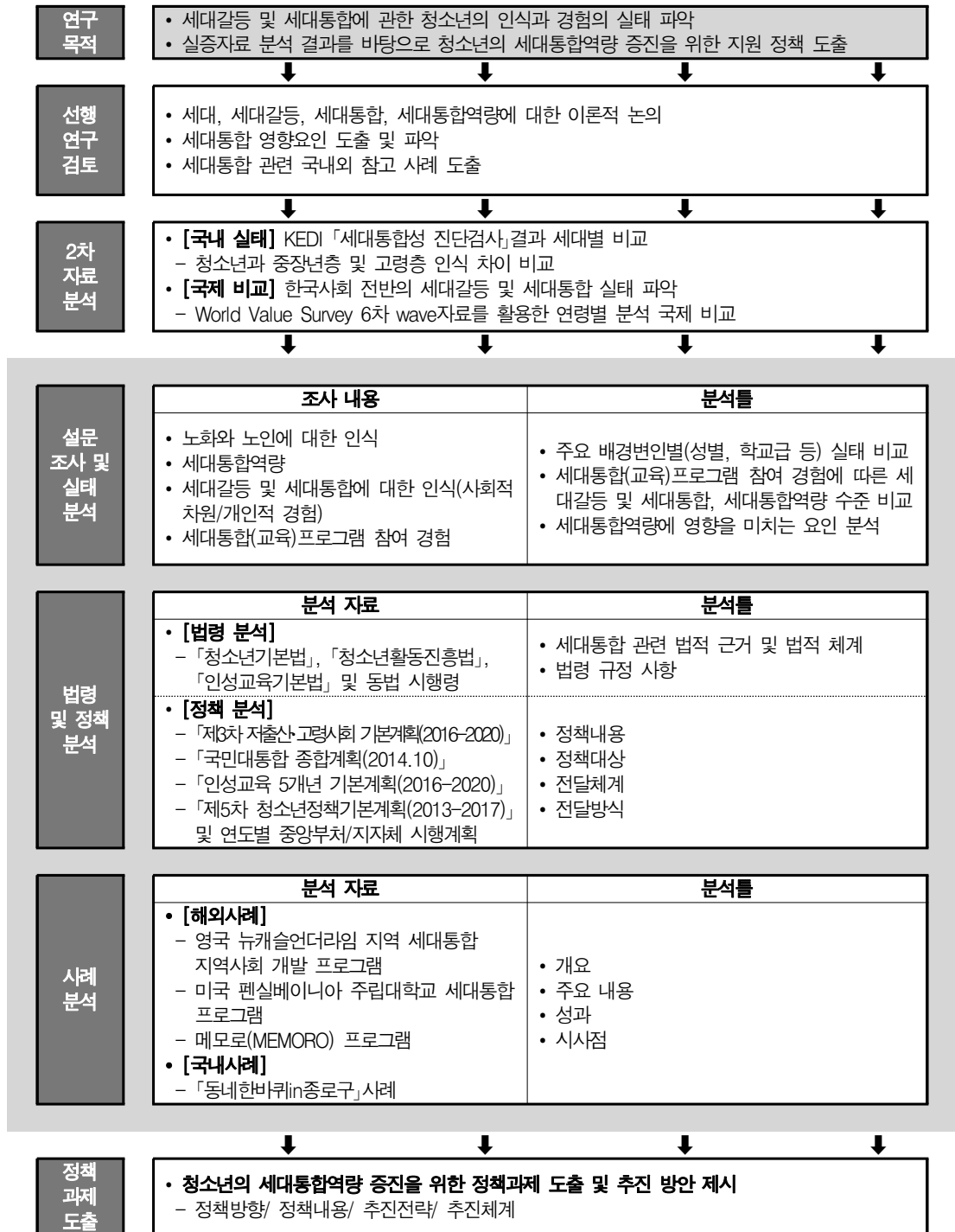
양적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관련 경험과 인식, 세대통합역량 수준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역량,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효과적인 세대통합 증진 방안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수요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은 χ^2 검증, t-test, F-test 등 기본적인 실태분석 외에, 데이터의 수집 구조를 반영하면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 관계부처와의 협의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정책협의를 실시하였다. 협의의 목적은 연구 초·중반에는 연구 방향 수립, 정책 추진의 성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연구의 후반부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의 세대통합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 연구추진체계

상술한 연구내용 및 방법, 체계를 반영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I -1]과 같다.



【그림 I -1】 연구 추진 체계

제 II 장

논의의 배경

1.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영향요인
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4. 세대통합에 관한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5.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
6. 요약 및 시사점

제 II 장

논의의 배경*

1.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세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세대 논의를 선도한 K. Mannheim(1952)은 세대(generation)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고 보았다(홍영란 외, 2013:4에서 재인용). 이 같은 ‘세대’ 개념에 대해 Kertzer는 4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친족계보(kinship)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는 입장이 있고, 둘째,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 시기의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셋째,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방식이다(박시내·심규호, 2010: 170-171).

이 방식들을 비교해보면 생애주기단계로서의 세대와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가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는 반면, 친족계보적인 용법은 대비된다(박재홍, 2001; 류현숙, 2012: 55-56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세대 개념을 친족계보적인 의미로 한정할지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개념도 설정할지에 대한 명료화 논쟁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논의에서 사용하는 세대 개념은 코호트적 세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현숙, 2012: 56). 코호트가 갖는 함의를 포함하는 세대란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으로 인도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재홍, 2001; 류현숙, 2012: 56에서 재인용).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6절을 집필하였고, 백병부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5절의 내용 중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조사」 자료 분석에 관한 부분을 집필하였다.

한편, 시간 단위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코호트나 세대뿐만 아니라 연령계층(age strata), 연령계급(age grades), 연령집단(age groups), 연령군(age sets) 등이 있다. 우선, ‘연령계층’ 혹은 ‘연령계급’이란 나이나 생애주기 단계로 표현되는 일정한 연령층을 의미한다(Riley, Johnson & Foner, 1972; 박재홍, 2003:7에서 재인용). 연령계층화(age stratification) 이론에 따르면, 연령이란 계급이나 성, 인종과 같이 구조화 된 사회 불평등의 한 기반이다(박재홍, 2003:7에서 재인용).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권리, 의무, 특전 등이 차등화 된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늙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 코호트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박재홍, 2003:7에서 재인용). 요컨대, ‘연령계층’(혹은 ‘연령계급’)이란 어느 세대나 코호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통과하게 되는 생애 경로의 각 단계들이라고 볼 수 있다(박재홍, 2003: 7에서 재인용).

연령계층화와 관련하여, Riley, Kahn, Foner & Mack(1994)은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유홍준·김기현·오병돈, 2014에서 재인용).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면서 개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구조적 지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지체는 변화하는 개인의 삶과 변화하는 사회구조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연령분절적 구조를 연령통합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지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유홍준·김기현·오병돈, 2014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처럼 연령과 코호트를 개념적 수준에서 위와 같이 구분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로 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연령과 코호트 개념의 사용을 애써 피해야 하는 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홍(2003: 8)은 이들 개념을 뒤섞어 혼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서 규정한 의미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대현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함께 나이를 먹고 늙어가며 세대가 교체된다는 생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이는 세대 개념이 연령과 코호트 개념에 기초를 두며, 세대 현상이 노화와 코호트 흐름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연령과 코호트 개념이 세대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배제하고 세대 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세대 개념은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사회역사적 세대),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 연령집단으로서의 세대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침투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박재홍, 2005: 94).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준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홍영란 외(2013, 2014, 2015)의 연구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대’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세대의 형성 과정에서 만하임은 청소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하임에 따르면, 동일한 출생 코호트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경험들의 목록을 공유하는데, 이것이 세대형성의 기반이 되고, 특히 청소년기 경험이 이후 경험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Manheim, 1952: 298; 박재홍, 2005: 58에서 재인용). 즉 이 같은 경험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의 층 가운데 최하층에 위치한 청소년기의 기층경험(primary stratum of experience)이 그 이후 경험들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박재홍, 2005:1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의 “모든 경험들은 이들이 의미를 부여받는 기층경험과의 관련 아래 특정한 의미와 형태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경험들 간에 작용하는 ‘내적 변증법(inner dialectic)’의 결과 특정한 의식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Manheim, 1952: 298; 박재홍, 2005: 109에서 재인용).

2) 세대갈등

(1) 세대갈등의 개념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세대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세대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박재홍, 2005: 3-4장; 박재홍, 2010: 76에서 재인용).

세대갈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대차이, 세대격차 등이 있다. 이들 개념은 흔히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대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와 세대격차(generational gap)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세대차이가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박재홍, 2005:124). 박재홍(2005:124)에 따르면, ‘세대차이’란 세대 간의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세대차이’가 서로 다른 코호트 또는 연령집단 간의 의식과 행위 측면에서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데 비해, ‘세대격차’는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주로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세대격차 개념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함의가

있다(박재홍, 2005: 124).

그에 비해 ‘세대갈등’은 세대차이(혹은 세대격차), 즉 세대 간의 의식과 행위 측면에서의 차이가 야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박재홍, 2005: 124). 물론 세대차이나 세대격차가 필연적으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의식과 행위양식에서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경우 이를 세대갈등(generation conflict)으로 이해할 수 있다(Kertzer, 1983; 정현숙, 2013: 16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차이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이라는 외현화 된 모습으로 표출될 경우, 세대갈등은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논쟁이나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정현숙, 2013: 16). 이러한 연유로 최원기(2006)는 세대갈등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정현숙, 2013: 16에서 재인용).

세대갈등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현재적(顯在的, manifest) 세대갈등’과 ‘잠재적(潛在的, latent) 세대갈등’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박재홍, 1995; 박재홍, 2005: 125에서 재인용). ‘현재적 세대갈등’은 세대차이의 결과로 야기된 세대 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 세대갈등’은 갈등이 잠복해 있지만 다양한 억압기제에 의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박재홍, 2005: 125).

(2) 세대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사고방식이나 행위양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전통적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사회의 진보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은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진통일 수 있다(박재홍, 2005: 313). 앞선 세대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전통의 신성함이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통사회의 특성이다(Weber, 1968; 박재홍, 2005: 3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기성 세대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사회를 회춘(回春)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볼 수 있다(박재홍, 2005: 313).

반면, 세대갈등은 세대 간 반목과 물이해로 인해 상호불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호 간의 교류와 공동의 활동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재홍, 2005: 314). 상호불신과 오해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저해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 교류와 공동활동의 축소는 공동목표의 추구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화와 문화전승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박재홍, 2005: 314-31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홍영란 외(2015: 4)는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세대갈등의 표출 지점

세대갈등은 전형적으로 문화적 혹은 관념적 갈등의 성격을 지녀왔지만, 후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고령화로 인해 노년이 길어짐에 따라 생산영역에서의 은퇴시기를 결정하거나 은퇴 이후 부양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협약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원의 할당과 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갈등들이 표출하게 되었다(이삼식 외, 2011: 111).

이와 관련하여, Riley(1985)는 세대 간 갈등을 ‘관념적(ideational)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으로 구분한다. 관념적 갈등은 기본가치와 목표의 충돌에 기인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충돌은 연령계층간 표준(standards), 이데올로기, 태도 측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기존질서나 기성세대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운동이 관념적 갈등의 구체적 예에 해당한다(박재홍, 2005: 122에서 재인용). 1960~70년대 청년 학생들의 군부독재 반대 투쟁이나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그 예이며, 부모-자녀 관계나 교사-학생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대부분 관념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박재홍, 2009: 26).

둘째, ‘권력 갈등’은 어떤 연령계층이 특정 연령계층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정년단축 시도에 대한 집단적 반발과 그에 따른 연령계층 간 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박재홍, 2005: 122). 중·고등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권력 갈등 유형으로 볼 수 있다(박재홍, 2009: 26).

마지막으로,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을 지칭한다(박재홍, 2005: 123). 각 연령계층은 보상의 몫은 늘리되 사회(혹은 다른 연령계층)에 대한 기여는 축소하려는 성향을 갖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배분적 갈등이다(박재홍, 2005: 123). 예를 들면, 연공서열제나 성과급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노인복지비 증액과 관련한 갈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박재홍, 2005: 123). 이러한 배분적 갈등은 2002년 즈음 세대갈등의 주요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2007년 ‘88만원세대 담론’이 제기한 세대갈등 또한 배분적 갈등이다(박재홍, 2009:26). 이때의 세대갈등은 권력이 아니라 취업 기회, 즉 소수의 괜찮은 직장(decent job)을 놓고 서로 인접한 연령계층 간에 벌어지는 배분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박재홍, 2009: 26-27). ‘88만원세대 담론’은 한국 현대사에서 취업 기회의 연령계층별 배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문제 제기이다(박재홍, 2009: 27).

3) 세대통합

세대통합에 대해서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홍영란 외, 2014: 13),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통합을 모색하려면 세대통합을 둘러싼 개념부터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함인희, 2013: 62). 일반적으로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McClusky, 1990; 홍영란 외, 2013: 17에서 재인용).

그런데 세대통합을 이해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통합이 ‘획일화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함인희(2013)에 따르면, 세대 간 다양성 및 이질성이 혼란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통합의 기준을 일사분란함이나 획일성에 둘 때 야기되는 문제이다. 진정한 통합은 사회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전제로 공정한 물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하며, 따라서 세대통합 역시 서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가치를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포용력과 유연성이 필히 요구된다(함인희, 2013).

이러한 논의를 따라 홍영란 외(2013: 17)는 세대통합을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인 세대공감 능력(generation literacy)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상태”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세대통합의 개념에 근거하여, 세대통합성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홍영란 외, 2014: 1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홍영란 외(2013, 2014, 2015)의 논의를 준용하여 세대통합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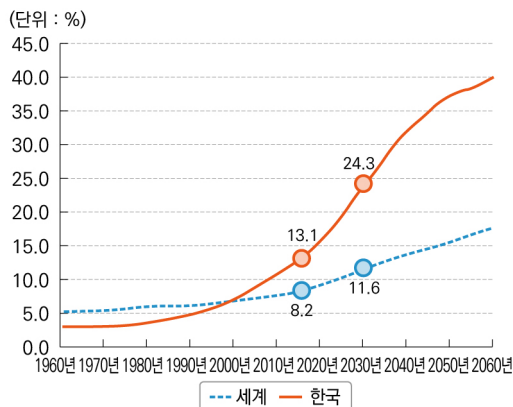
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영향요인

세대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제도적 요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경제의 저성장 등은 대개 세대통합을 억제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가족주의나 세대통합교육 등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 세대갈등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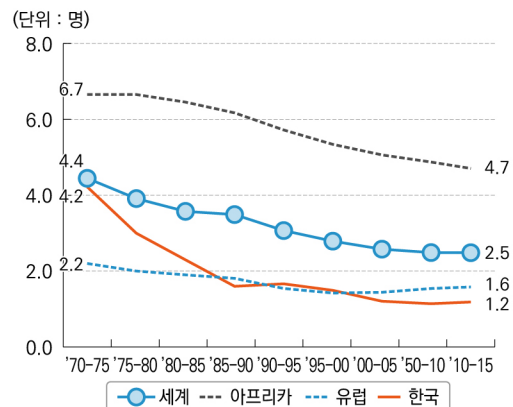
(1)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출산율 변동 추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이삼식 외, 2011: 10).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단기간에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계 최저수준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출산율 추이로 세대 간 인구규모의 차이가 커지며, 그로 인해 인구구조는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이삼식 외, 2011: 10).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5.7.8.), 2쪽.

【그림 II-1】 1960-2060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5.7.8.), 3쪽.

【그림 II-2】 1970-2015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인구감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징후가 나타나거나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삼식 외, 2011: 11). 즉, 한국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기존의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사회갈등을 생성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간의 인과론적 연계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갈등들이 출현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정에서도 기존의 사회갈등이 증폭되거나 새롭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이삼식 외, 2011: 11).

세대갈등도 저출산·고령화로부터 증폭될 우려가 큰 대표적인 사회갈등 유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연구자 Bengston(1993)은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추세가 새로운 유형의 세대갈등을 출현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재홍, 2005: 123).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복지예산이 노년인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는데, 그에 대한 연령집단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집단 간 갈등이 첨예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재홍, 2005: 123). 이러한 견지에서 Bengston은 ‘세대격차’의 문제가 더 이상 청년층 대 노년층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년층 대 청·중년층의 문제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재홍, 2005: 123).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박재홍, 2005: 123), 그것이 세대 간 갈등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

(2)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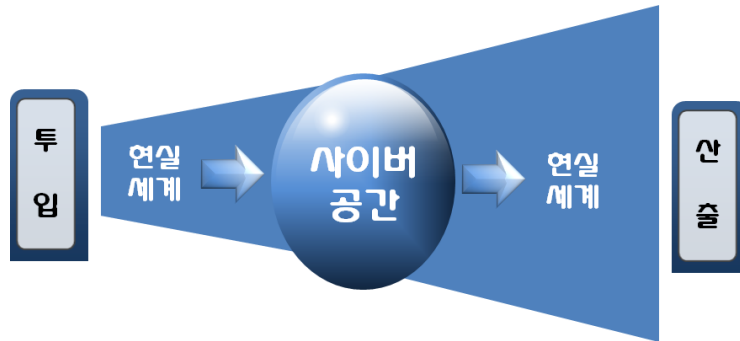
정보화는 세대 갈등 및 교류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한다(이삼식 외, 2011: 112).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는 일상적 삶의 방식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사회관계와 소통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는데, 질적으로 판이한 생활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세대들은 젊은 세대로부터의 전면적 재사회화에 필적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투해야 하는 세대경쟁의 새로운 장(場)으로 작동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112).

실제로 인터넷 공간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11: 144). 인터넷 공간에서 ‘나이’와 ‘세대’ 차이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내집단/외집단을 구분 짓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144). 현실의

연령주의(ageism)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다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인터넷 공간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를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제로 작동한다(이삼식 외, 2011: 144).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인 연령주의가 확산되는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11:144). 우선, 나이를 중시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억제된 심성을 온라인에서 해소하려는 욕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11:144). 과거에 비해 연령에 따른 위계의 정도는 약화되고 있지만 개인적 관계나 조직적 상황에서 연령은 여전히 권위적 속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연유로 ‘노화’와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이삼식 외, 2011: 144). 다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연령적 동질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이삼식 외, 2011: 144). 중년과 고령층은 신문 등의 전통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 비해, 젊은 세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이삼식 외, 2011: 145). 최근에는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다중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유로 인터넷 공간에서 고령자는 소수자(minorities)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이삼식 외, 2011: 145).

박길성·김선업·김상용(2009)은 사이버 공간을 거치면서 세대갈등이 증폭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 모델’을 적용한 바 있는데, 투입→처리(경과)→산출의 일반적 경로를 따르는 시스템 모델에서 투입과 산출은 현실세계의 요소를, 경과 과정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과 기능을 의미한다(이삼식 외, 2011: 145에서 재인용). 즉, 사이버 공간이 현실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이 ‘투입’이라면, ‘산출’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이삼식 외, 2011: 145). 이러한 모델을 적용해보면, 현실세계의 연령주의, 세대갈등 요소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어 다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소위 ‘메가폰 형(megaphone type)’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11: 145). 즉, 현실에서 확산된 가치나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거치면서 현실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11: 145).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에서 세대갈등을 억제하는 제약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측면들이 더욱 증폭되거나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11: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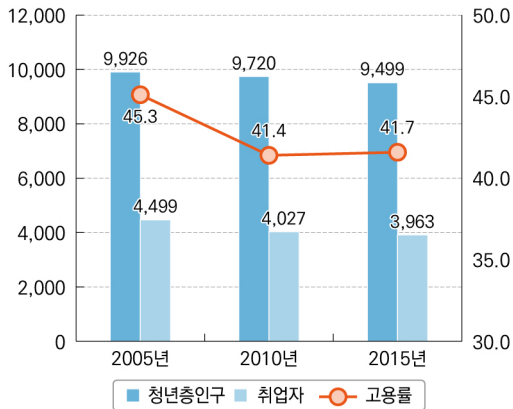
출처: 이삼식 외(2011). 146쪽.

【그림 II-3】 메가폰형 확산과정

(3) 경제의 저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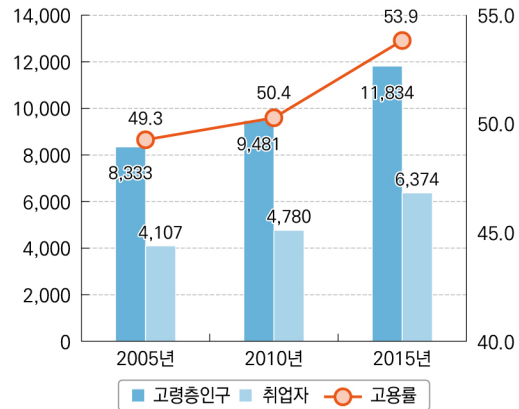
정치, 경제, 복지 등의 영역에서 각 세대가 차지하는 위치 또는 기회구조는 해당 세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을 야기한다(박재홍, 2009; 박길성, 2011; Binstock, 2010; 최유석, 2014: 6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저성장 시대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 격화될 새로운 국면이다(최유석, 2014: 61).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할 몫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 근로계층이 감당해야 하는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면 세대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이해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홍, 2009; 최유석, 2014: 61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서 41.7%로 3.6%p 감소한 반면,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은 49.3%에서 53.9%로 4.6%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II-4] 및 [그림 II-5] 참조).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에 노동시장에서 취업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브레이크뉴스, 2016.6.15.), 이에 대해 불만을 갖는 청년층의 목소리도 확산된다.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7.21.) 1쪽 그림을 재구성.

【그림 II-4】 청년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5-2015) (단위: 천명,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7.21.) 3쪽 그림을 재구성.

【그림 II-5】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5-2015) (단위: 천명, %)

이와 관련하여 김문조(2003)는 미래 생활에 대한 전망에서 상호 공유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사한 세대의식을 지닐 경향이 높아진다는 “공동운명체 가설(common fate hypothesis)”을 토대로, 악화되는 취업상황, 과열된 교육경쟁, 경기침체·고용축소 등으로 인한 실직위험, 경력단절로 인한 생계압박,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문화생활의 위축, 사회안전망 부실로 인한 노후 불안 등 생애과정 다방면에 걸쳐 젊은 세대의 지위공포가 관찰된다고 하였다(함인희, 2013: 59에서 재인용). 한국사회가 양극화(polarization)와 단절(disruption) 경향을 동시에 내포한 2:8 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젊은 층은 한편에서는 계급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지위하락의 위기를 체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구조의 단절로 인해 상류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희의를 품게 되면서 이들의 지위공포가 응결된 것이 지금 목도되는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의 헤게모니라는 것이다(김문조, 2003; 함인희, 2013: 59에서 재인용).

특히 한국사회가 경험한 유례없는 압축적 성장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세대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에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압축 성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수준을 폭발시켰으나,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이 같은 기대수준을 사회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지만 더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구성원들의 무한상승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로부터 야기되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세대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인 바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2.).

2) 세대통합 영향요인

(1) 가족주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항상 세대갈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세대집단이 지닌 가치관이 세대갈등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가족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유석, 2014: 64). 박경숙 외(2013)는 한국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세대 간 정치, 경제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세대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주의적 연대가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이를 테면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부족 등 닫힌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해법을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가족은 세대의식의 형성과 변화에서도 다른 세대와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중요한 영역이다(Goerres & Tape, 2010; 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개인들은 다른 연령대의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게 되며, 개인의 가족경험은 아동, 청년, 노인 등 다른 세대의 복리증진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Goerres & Tape, 2010; 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족관계도 다른 세대에 관한 인식과 세대 간 연대와 갈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박경숙 외, 2013; Goerres & Tape, 2010; 최유석, 2014: 62에서 재인용). 예컨대 서구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효 의식 또는 부모부양의식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가치관인데, 이러한 효 의식은 가족관계를 통해 재생산되어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연대 또는 세대통합의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최유석, 2014: 62).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사회에서 세대 간 연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가족안전망을 통한 응급처방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박경숙 외, 2013; 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그 결과 가족주의, 효 의식, 부모부양의식 등 가족의 역할이 세대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박경숙 외, 2013; 최유석, 2014: 64에서 재인용).

(2) 세대통합교육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은 세대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선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자체에 따라 세대통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eg. 홍영란 외, 2013, 2014, 2015)은 대체로 세대통합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세대통합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기실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홍영란 외, 2013: 47).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다양한 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세대 간 형평과 통합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홍영란 외, 2013: 47).

구체적으로, 노인 세대는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들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경험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되찾으며,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한정란, 2005; 홍영란 외, 2013: 47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인들은 보다 성공적으로 노화 과정을 거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성취감이 제고되며, 고독감과 소외감은 줄이고, 독립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증대시킬 수 있다(홍영란 외, 2013: 47에서 재인용).

한편 세대통합교육은 젊은 세대에게도 무척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는 노인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홍영란 외, 2013: 47).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설정하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습하며,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개발하게 된다고 보고한다(홍영란 외, 2013: 47).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이 증대되고,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지적으로 학업성취가 향상되고, 노화에 관한 지식이 증진되며, 창의성과 협동 기술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영란 외, 2013: 47-48). 뿐만 아니라 평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 약물이나 알코올, 학교중퇴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cCrea & Smith, 1997; 홍영란 외, 2013: 48에서 재인용).

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세대통합역량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청소년 역량에 관한 연구 중 세대통합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역량의 개념적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로 역량(competency)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뜻한다(성은모·백혜정·진성희, 2014: 16). 최근 들어 수행된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구성원이 지녀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가 추진한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들 수 있다(성은모 외, 2014:3). DeSeCo 프로젝트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안했다(성은모 외, 2014: 34). 여기에는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등 3가지 영역이 포함된다(성은모 외, 2014: 18). 이 가운데 세대통합역량과 관련이 있는 영역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원화 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현 외, 2010: 25).

한편,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로는 김기현 외(2010)가 수행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eSeCo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성은모 외, 2014: 16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DeSeCo의 체계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등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DeSeCo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세대통합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구체적으로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김기현 외, 2010).

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인 성은모 외(2014)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및 국제비교 연구 I」에서

청소년 역량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으로서 현재 삶과 미래 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구분하였다(성은모 외, 2014). 이 가운데 대인관계역량이 세대통합역량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역량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하여 타인과 협동하고 집단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성은모 외, 2014: 35-36). 대인관계역량에는 하위요소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는데(성은모 외, 2014: 38-43), 이 가운데 관계형성과 협동이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서 관계형성이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지칭하며,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일컫는다(성은모·최창욱, 2014: 59-65; 성은모 외, 2014: 38에서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를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핵심역량을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했는데(김창환 외, 2013), 이 가운데 대인관계역량이 세대통합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김창환 외, 2013).

앞서 살펴본 청소년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세대통합과 관련된 역량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회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인관계역량 또는 사회적 역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역량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보다 최근에 수행된 홍영란 외(2014)의 연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한 역량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성’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에 관한 진단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성’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홍영란 외, 2014: 178-179). 그리고 세대통합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인식’과 ‘행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뒤, 인식에서는 ‘이해’와 ‘공감’을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 행동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홍영란 외, 2014: 179).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영란 외(2014)에서 정의한 세대통합성의 개념을 준용하여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은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대통합에 관한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세대통합을 다룬 연구로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2011)」,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2012)」를 들 수 있다. 이삼식 외(2011)가 수행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2011)」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갈등을 세대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세대갈등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폭넓게 검토해 이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세대통합에 집중하여 수행된 연구가 아니며 사회갈등에 관한 초창기 연구로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보다는 거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김미숙 외(2012)가 수행한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2012)」는 사회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념, 계층(소득, 보건, 교육), 세대·다문화, 지역 등 총 4개 영역을 선별하여, 영역별로 사회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여건을 전망한 후,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목표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김미숙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대 간 상호이해와 상생제도 구축’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세대공감문화 조성’과 ‘세대형평적 일자리 및 복지 구현’을 제시하였다(김미숙 외, 2012: 18).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거시적 차원에서 과제를 제안했던 데 비해 이 연구는 [중장기 목표][중점 추진과제][세부 시행과제]로 이어지는 체계적 틀을 적용하여, 세대 영역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정책을 추진·확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나 지원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세대갈등/세대통합에 보다 집중한 연구로는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2010)」,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2013-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2010)」는 노인세대와 타세대 간의 갈등을 조사·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족 내 세대갈등, 문화적 세대갈등, 잠재적 세대갈등을 분석하고,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과 집단 차이를 검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층이 주로 세대 간 갈등에 직면하는 영역을 선별하여 세대갈등의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영역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세대 통합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제외한 여타 정책대안들이 모두 고령층 중심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세대통합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젊은 세대를 정책대상에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2015)」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을 점검하였다. 연령통합지표는 구체적으로 3개의 구성요소(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에 각각 3개의 하위영역을 배치하여, 총 9개(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가족, 일터, 지역사회/ 건강, 교육·정보화, 소득·주거)의 영역을 포함한다(정경희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표별로 일목요연하게 세대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주된 목적이 지표개발에 있기 때문에, 세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여러 세대를 아우르다보니, 청소년 집단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2013-2015)」가 있다. 이 연구는 2013~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된 과제로, 국가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홍영란 외, 2015).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교육 및 정보체제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런 다음 마지막 3차년도 연구에서는 1-2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적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세대통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제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과 추진전략,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계속연구라는 점에서, 여타 연구에 비해 심층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대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정보 분야를 연구의 주된 영역으로 포섭하고, 세대갈등 해소의 주효한 방안인 세대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체제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언론기사 분석, 국내외 해외사례 분석, 디스커션 그룹 운영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해 실천적인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중장년, 고령층 등 전체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상정하다보니,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대통합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경험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경험에 주목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세대통합 관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5.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⁵⁾

1) 분석의 개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특정 세대의 의견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세대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 조사 결과를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세대갈등의 심각성, 주된 원인,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국내·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세대별·연령별로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아울러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세대갈등의 심각성과 원인,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을 개괄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조사 결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수집한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4)」결과,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수집한 「노인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 분석」결과 등이 인용되었다.

다음으로, 2차 자료 분석에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조사」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이 조사는 내용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을 주제로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 외에, 조사 대상 측면에서 청소년부터 노년 세대까지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중·고생) 945명, 20대 청년 400명, 30~50대 중·장년 1,200명, 60~70대 이상의 노년 800명 등 총 3,34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홍영란 외, 2015: 169-17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문제에 대해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이 부분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백병부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집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한국인들의 인식이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 6차 웨이브 자료는 약 60여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주요 국가를 선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II-1>에는 본 절에서 선행연구 조사 결과 및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분석 항목, 활용한 자료, 그리고 해당 자료의 특징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표 II-1 2차 자료 분석 항목 및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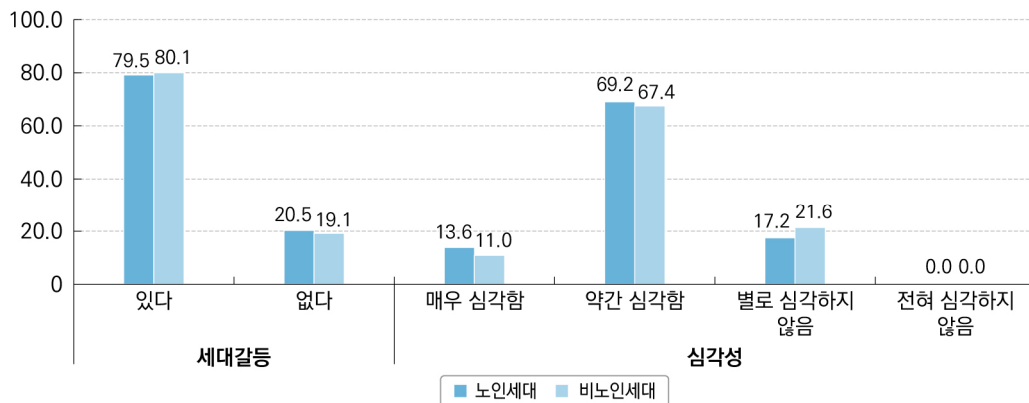
분석 항목	자료	자료 특징
- 한국 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 세대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세대 간 소통 수준에 대한 인식	- 선행연구 검토 및 종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연령통합지표 개발과 적용. -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노인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 분석.	조사 대상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며, 체계적으로 설계된 조사 자료로서 개괄적 수준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 파악이 가능
- 세대 간 인식과 상호 이해 - 세대 간 ‘이해’ 수준 - 세대 간 ‘공감’ 수준 - 세대 간 ‘소통’ 수준 - 세대 간 ‘협력’ 수준	2차 자료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2015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세대통합성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된 설문 문항으로, 동일 항목을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숏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세대 간 인식 비교가 가능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국제 비교	2차 자료 분석 -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	8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로, 6차 웨이브에는 약 60개국이 참여하여, 주요 국가들 간 국제 비교 가능

2)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⁶⁾

(1) 세대갈등 수준 및 심각성

아래에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세대갈등 인식 수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조사 시기와 대상은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 노인세대 775명과 비노인세대 773명 등 총 1,5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인 세대의 79.5%, 비노인세대의 80.1%가 우리 사회에 세대갈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노인세대의 82.8%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13.6%+약간 심각 69.2%)고 답했고, 비노인세대의 경우에도 78.4%(매우 심각 11.0%+약간 심각 67.4%)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수연 외, 2010: 166). 이 같은 결과는 전 세대에 걸쳐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세대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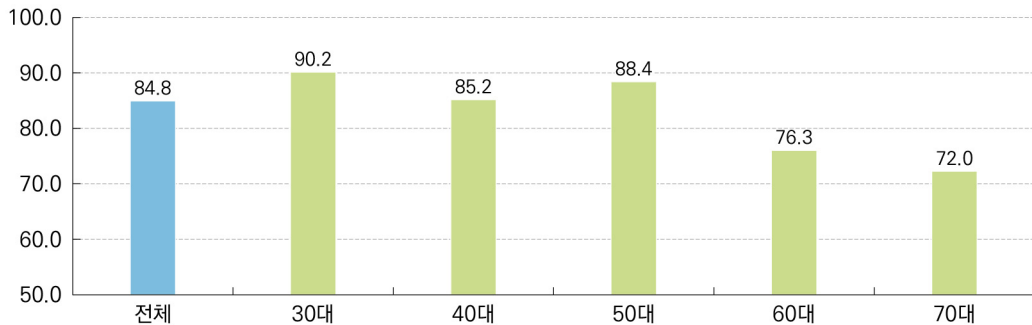


출처: 이수연 외(2010). 166쪽 <표 III-112> 및 <표 III-113>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6】 세대갈등의 인지 및 심각성 인식 수준

6) 이 부분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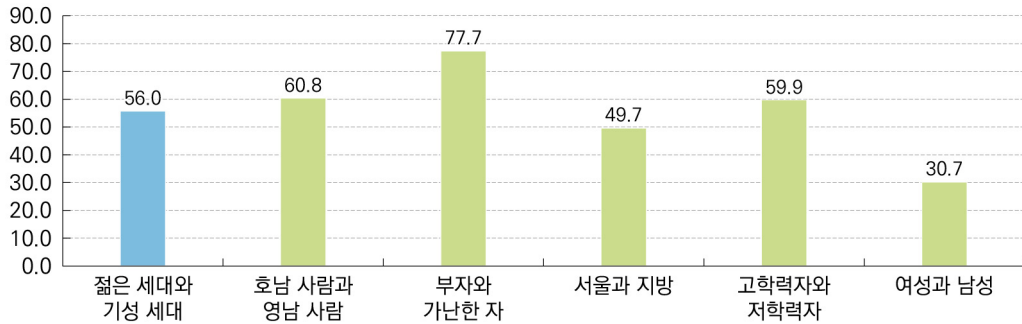
[그림 II-7]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연령 통합과 고령친화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노인세대와 비(非)노인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갈등이 많다(매우 많다+많은 편이다)는 응답이 84.8%로 나타나, 갈등이 없다(없는 편이다+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15.2%) 보다 약 6배 가량 높게 파악되었다(정경희, 2013).



출처: 정경희(2013). 35쪽 <표 21>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7】 연령대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2014년 6월 실시한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갈등이 심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0%로 과반을 차지해, ‘보통이다’(38.4%) 또는 ‘갈등이 없는 편이다’(5.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파악되었다(강원택 외, 2014: 1).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사회갈등인 지역갈등(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 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비율(60.8%)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세대 갈등에 대해 비교적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II-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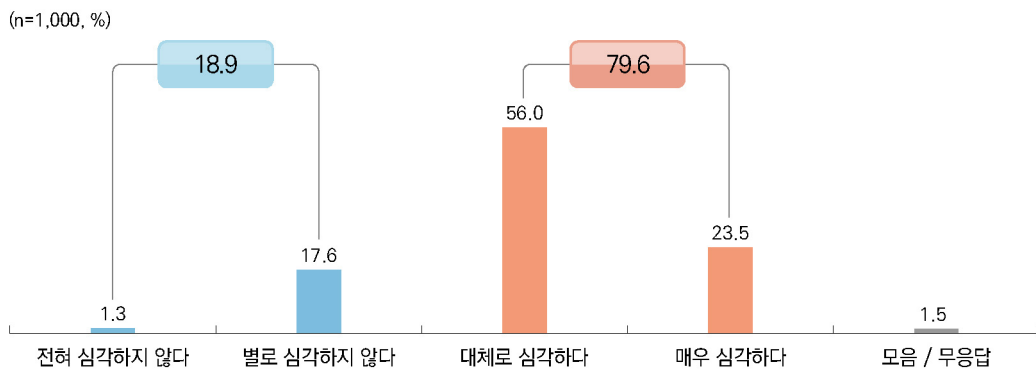


출처: 강원택 외(2014). 1-2쪽 <표 1-1>의 내용을 발췌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주: 제시된 수치는 '갈등이 심한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그림 II-8】 한국 사회의 갈등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림 II-9]에는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국 만 13세 이상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79.6%로 나타나,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18.9%)보다 4배 이상 높게 도출된 바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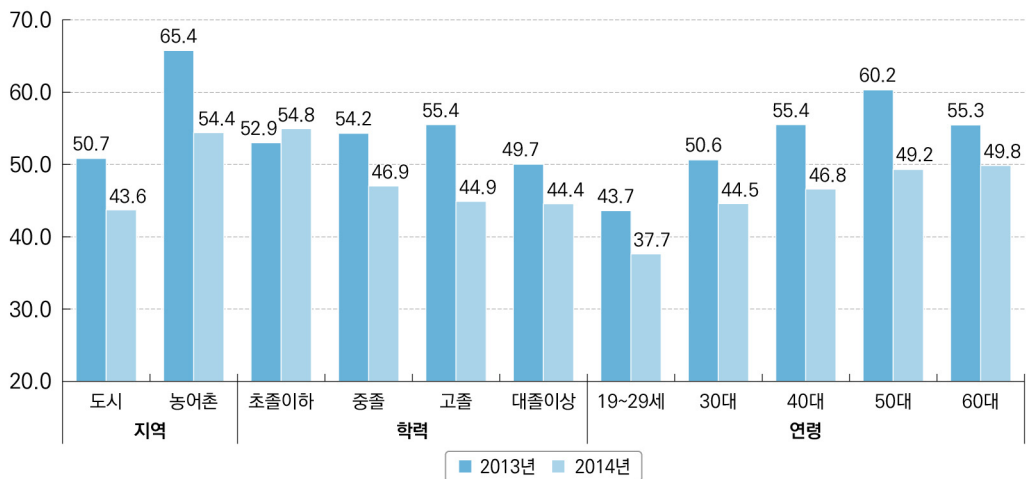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1.). 57쪽.

【그림 II-9】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한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 및 통합 수준을 확인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013년에는 53.0%(약간 이루어진다 43.3%+매우 잘 이루어진다 9.7%)로 절반을 상회했으나, 2014년에는 45.5%(약간 이루어진다 38.0%+매우 잘 이루어진다 7.5%)로 7.5%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 연령대별로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세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2013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65.4%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답한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50.7%에 그쳤고, 2014년에는 농어촌 지역 54.4%에 비해 도시 지역은 43.6%로 약 10%p 가량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집단 간 응답률의 차이는 연령대별 비교에서도 감지된다. 그리하여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젊은 층일수록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II-10] 참조).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14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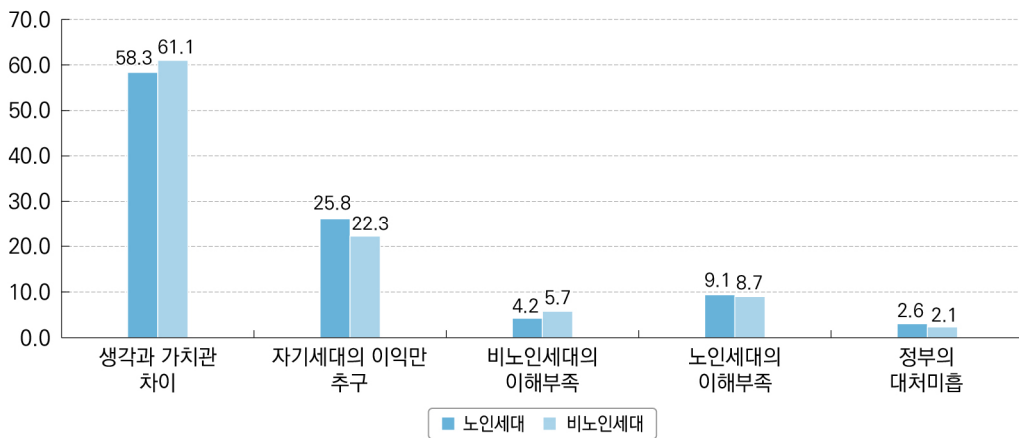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_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에서 2016.05.23. 인출.

주: 제시된 수치는 세대 간에 소통이 '약간 이루어진다' 및 '매우 잘 이루어진다'고 답한 응답자를 합한 비율임.

【그림 II-10】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인식 수준

(2) 세대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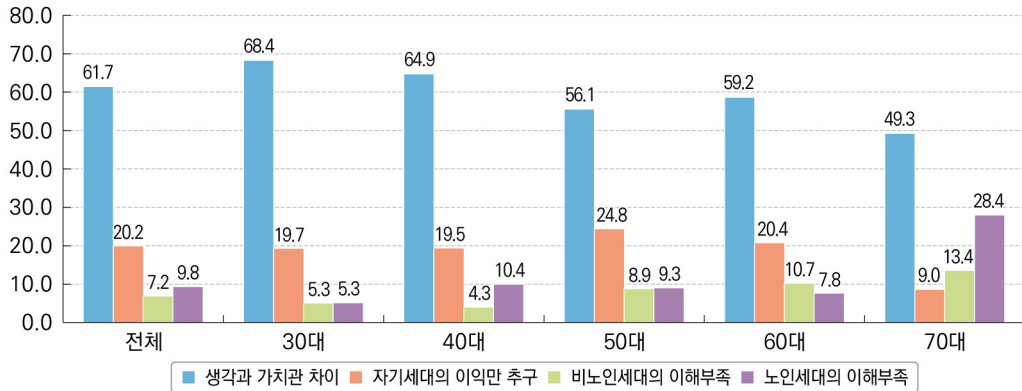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가 갈등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세대 간에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연 외(2010)의 조사에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는 응답이 노인세대 58.3%, 비노인세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이익만 추구해서’라는 응답이 노인세대 25.8%, 비노인세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상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II-11] 참조).



출처: 이수연 외(2010). 168쪽 <표 III-116>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11】 세대별 세대갈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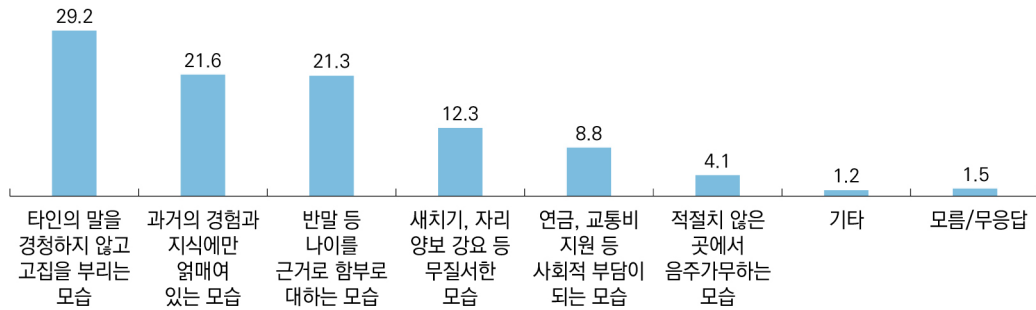
이러한 응답 경향은 보다 최근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3년 실시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7%가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서’라고 답했고,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20.2%, ‘비노인세대가 노인세대를 잘 몰라서’ 9.8%, ‘노인세대가 비노인세대를 잘 몰라서’ 7.2%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3: 46).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응답자들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이 다른 세대를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정경희, 2013: 46).



출처: 정경희(2013). 36쪽 <표 22>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12】 연령대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 갈등 발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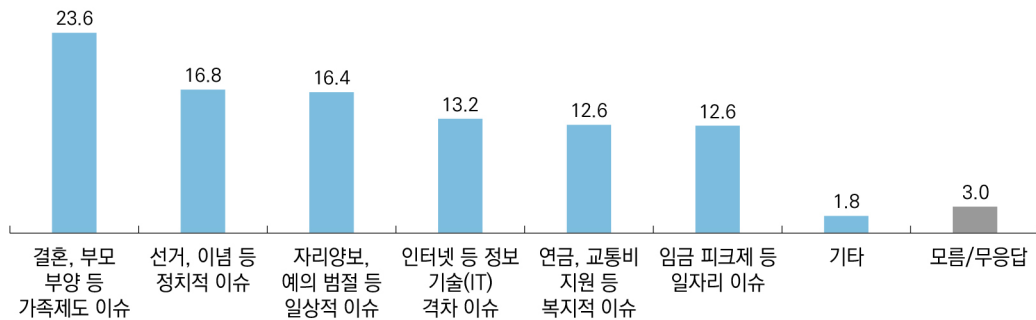
한편,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노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느끼는 이유와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4.1%로 과반을 차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42.7%)보다 높게 나타났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1).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 때문이라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만 얽매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1.6%, ‘반말 등 나이를 근거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의견이 21.3%로 그 뒤를 이었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1). 그 밖에 ‘새치기, 자리양보 강요 등 무질서한 모습’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12.3%를 차지하였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1, [그림 II-13] 참조).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1.). 56쪽.

【그림 II-13】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

또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슈로는 ‘결혼, 부모 부양 등 가족제도 이슈’가 23.6%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선거, 이념 등 정치적 이슈’가 16.8%, ‘자리양보, 예의 등 일상적 이슈’가 16.4%, ‘인터넷 등 정보 기술 격차 이슈’ 13.2%, ‘연금, 교통비 지원 등 복지 이슈’와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이슈’가 12.6%로 나타났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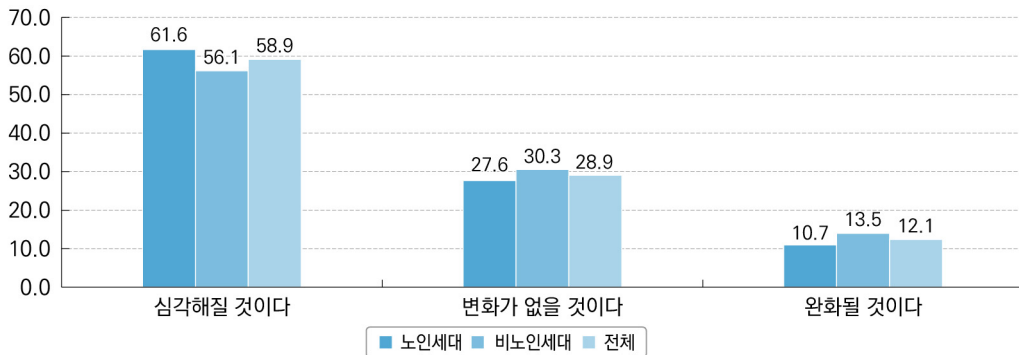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1.). 58쪽.

【그림 II-14】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주제

(3) 세대갈등 전망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세대갈등의 추세에 대해서는 세대갈등이 완화되리라는 예측보다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이수연 외(2010)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8.9%가 향후 세대갈등이 심각해질 것(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15.6%+약간 심각해질 것이다 43.3%)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변화가 없을 것(28.9%)이라거나 완화될 것(12.1%)이라는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그림 II-15] 참조).



출처: 이수연 외(2010). 169쪽 <표 III-117>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15】 세대별 향후 세대갈등의 추세에 대한 전망

3)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비교⁷⁾

여기에서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 노인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5년 수행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I)」의 일환으로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일부 문항에 대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세대통합성을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30개 문항을 활용해 이를 측정하였다(홍영란 외, 2015).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세대 간 상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통 질문을 선별해 이에 대해 세대 간 비교를 진행했다.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문항은 <표 II-2>와 같다.

7) 이 부분은 백병부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수정하였다.

표 II-2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비교에 사용된 KEDI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설문 문항

영역	항목	조사 대상	설문 문항
이해	• 젊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청소년	○ 나는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중장년/노년	○ 나는 우리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중장년 이상 세대의 생각 및 언행에 대한 이해	청소년	○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장년/노년	○ 우리 자식/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	• 젊은 세대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청소년	○ (공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중장년/노년	
	• 노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공감	청소년	○ (공통)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중장년/노년	
소통	•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청소년./중장년	○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노년	○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SNS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수준	청소년	○ 나는 SNS에서 노인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중장년/노년	○ 나는 SNS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협력	•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	청소년/중장년	○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년	○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청소년	○ (공통) 나는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중장년/노년	

출처: 홍영란 외(2015). 세대별 설문지 pp.381~406.

(1) 세대 간 이해

청소년과 중장년, 고령자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본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II-3>에는 젊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혹은 “나는 우리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에 대해, ‘(다른 세대를) 이해한다(‘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청소년과 중장년층은 각각 52.5%와 65.4%로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 노년층은 42%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청소년과 중장년은 20.3%와 15.1%인 반면 노년은 8.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중장년 이상 세대를, 중장년은 청소년들의 언행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3 젊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해한다 ¹⁾	합계(명)	χ^2
청소년	2.2	16.2	29.1	32.2	20.3	52.5	100(945)	324.161*** (df=8)
중장년	0.8	7.3	26.6	50.3	15.1	65.4	100(1,200)	
노년	4.8	32.6	20.6	34.0	8.0	42.0	100(800)	
합계	2.6	18.4	26.5	38.8	13.8	52.6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담당하다(청소년)’, ‘나는 우리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중장년, 노년)’임.

<표 II-4>에는 중장년 이상 세대의 생각이나 언행에 대한 이해 수준이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식/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해한다(‘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 세대와 중장년 이상 세대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이 문항에 대해 ‘이해한다(‘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은 55%에 달한 반면, 중장년과 노년은 각각 29.8%와 27.9%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은 16.8%인 반면 중장년과 노년은 2.8%와 3.3%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세대는 중장년 이상 세대의 언행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장년 이상 세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호 모순된 인식의 간극을 보여준다.

표 II-4 중장년 이상 세대의 생각 및 언행에 대한 이해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해한다 ¹⁾	합계(명)	χ^2
청소년	1.8	10.2	33.0	38.2	16.8	55.0	100(945)	409.521*** (df=8)
중장년	1.8	23.3	45.2	27.0	2.8	29.8	100(1,200)	
노년	6.4	36.4	29.4	24.6	3.3	27.9	100(800)	
합계	2.8	21.5	36.9	31.2	7.5	38.7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청소년)', '우리 자식/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중장년, 노년)'임.

(2) 세대 간 공감

청소년, 중장년,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비교한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II-5>는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경우, 안타깝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76.5%로 나타나, 노년층의 응답 비율 78.2%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사자인 노인들 못지않게 청소년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결과는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5 젊은 세대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감한다 ¹⁾	합계(명)	χ^2
청소년	30.2	46.3	19.6	2.9	1.1	76.5	100(945)	160.293*** (df=8)
중장년	13.7	47.7	27.5	9.8	1.3	61.4	100(1,200)	
노년	26.6	51.6	13.8	7.5	0.5	78.2	100(800)	
합계	21.7	48.3	21.8	7.1	1.1	70.0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청소년, 중장년, 노년)'임.

그에 비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세대의 공감 수준이 낮게 파악되었다(<표 II-6> 참조). 구체적으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0.6%에 불과해, 중장년(55.8%)이나 노년층(57.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표 II-6 노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인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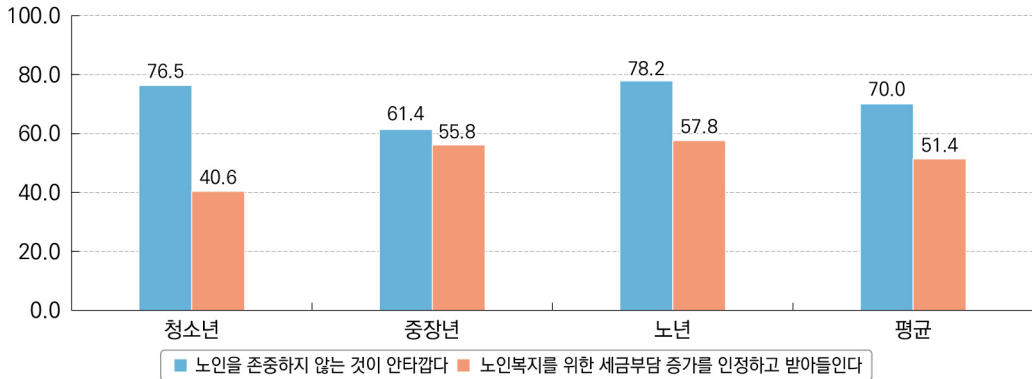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감한다 ¹⁾	합계(명)	χ^2
청소년	8.3	32.3	47.7	9.7	2.0	40.6	100(945)	177,239*** (df=8)
중장년	4.7	51.1	32.3	10.5	1.4	55.8	100(1,200)	
노년	11.0	46.8	23.1	17.5	1.6	57.8	100(800)	
합계	7.5	43.9	34.8	12.2	1.7	51.4	100(3,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청소년, 중장년, 노년)’임.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앞서 살펴본 ‘노인세대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응답 결과와 연계해서 해석해보면,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에게 갖는 인식은 당위적·도덕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현실적·실천적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들은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노인들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세금 부담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면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젊은 층과 노년층 간에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젊은 층은 공감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며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5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그림 II-16】 세대 간 공감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3) 세대 간 소통

청소년, 중장년, 노인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세대별로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9.1%로 나타났다. 노인 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2%로, ‘어려움을 느낀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핵가족화가 보편화 된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다. 즉, 소통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기회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대적 경험을 공유한 정도나 일상적인 소통 경험이 청소년보다 많은 중장년이 청소년보다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려워한다는 응답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모든 세대에 걸쳐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세대 간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7> 참조).

표 II-7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통이 원활하다 ¹⁾	합계(명)	χ^2
청소년	2.1	13.1	35.7	34.5	14.6	49.1	100(945)	158.454*** (df=8)
중장년	1.8	15.9	39.0	36.8	6.4	43.2	100(1,200)	
노년	3.6	29.4	22.8	36.6	7.6	44.2	100(800)	
합계	2.4	19.0	34.6	35.3	8.8	44.1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청소년, 중장년)',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노년)'임.

서로 다른 세대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NS에서 다른 세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도에 대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II-8>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나는 SNS에서 노인들과(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청소년의 경우 5.4%에 불과했고, 노년층 또한 9.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손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SNS에서도 세대 간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방증한다(<표 II-8> 참조).

표 II-8 SNS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수준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통 한다	합계(명)	χ^2
청소년	2.2	3.2	12.5	37.8	44.3	5.4	100(945)	133.585*** (df=8)
중장년	4.9	23.5	42.3	23.5	5.8	28.4	100(1,200)	
노년	2.3	7.0	7.0	9.0	74.8	9.3	100(800)	
합계	3.3	12.5	23.2	24.1	36.9	30.3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2) 측정문항은 '나는 SNS에서 노인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청소년)', '나는 SNS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중장년, 노년)'임.

(4) 세대 간 협력

마지막으로, 세대 간에 얼마나 협력하는지 혹은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가 <표 II-9>와 <표 II-10>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년층의 경우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7.9%로 나타나, 다른 세대에 비해 응답 비율이 무척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경우,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이 청소년은 22.4%, 중장년층은 2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세대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9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합계(명)	χ^2
청소년	5.9	16.5	55.4	18.2	3.9	22.4	100(945)	221.099*** (df=8)
중장년	3.8	25.3	55.7	13.3	1.9	29.1	100(1,200)	
노년	10.9	37.0	28.5	19.8	3.9	47.9	100(800)	
합계	6.0	24.3	49.3	17.1	3.3	30.3	100(3,34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측정문항은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청소년, 중장년)',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노년)'임.

한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상술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31.3% 수준에 머물렀다. 중장년층에서도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8.1%에 불과했지만, 청소년들은 현재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보다도 응답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당위적·도덕적 견지에서 노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10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합계(명)	χ^2
청소년	5.7	25.6	50.3	14.2	4.2	31.3	100(945)	204.847*** (df=8)
중장년	4.4	33.7	39.3	18.6	4.1	38.1	100(1,200)	
노년	6.8	35.5	19.8	29.1	8.9	42.3	100(800)	
합계	5.5	31.6	37.5	20.0	5.4	37.1	100(3,345)	

* $p<.05$, ** $p<.01$, *** $p<.001$

주: 1) 측정문항은 '나는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임.

(5)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에 관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청소년들은 노인 세대에게 당위적·도덕적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인식은 여러 세대가 어울리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함께하는 경험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덕적인 인식을 실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에 따라 앞서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II-11>에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세대 간 '이해'나 '공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감지되지 않지만, 세대 간 '소통' 및 '협력'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세대 간 '이해'의 경우, 여기에서 선택한 2개 문항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이 청소년과 노인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세대 간 '공감'에 관한 문항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공감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8.0%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38.1%)보다

10%p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 간 교류·소통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당위적·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실천적인 차원의 세대통합적 태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세대 간 ‘소통’과 ‘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노인 세대 모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서로 다른 세대가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른 세대와 의사소통하는 데 덜 어려움을 느끼고, SNS를 통한 소통도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대 간 협력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이 같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노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도 더 높고,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1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에 따른 세대 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이해		공감	
		젊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기성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공감
청소년 ¹⁾	참여경험 있음	55.9	58.5	76.8	48.0
	참여경험 없음	51.4	53.9	76.4	38.1
	χ^2	2.626 (d.f=4)	5.105 (d.f=4)	2.099 (d.f=4)	22.325*** (d.f=4)
노년층 ²⁾	참여경험 있음	53.2	28.1	71.9	71.9
	참여경험 없음	41.1	27.8	78.8	56.5
	χ^2	3.737 (d.f=4)	.819 (d.f=4)	3.739 (d.f=4)	6.162 (d.f=4)

구분		소통		협력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	SNS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청소년 ¹⁾	참여경험 있음	58.1	11.8	35.4	39.7
	참여경험 없음	46.3	3.4	18.3	28.6
	χ^2	17.446** (d.f=4)	47.918*** (d.f=4)	44.298*** (d.f=4)	15.745 (d.f=4)**
노년층 ²⁾	참여경험 있음	59.4	37.5	70.3	56.3
	참여경험 없음	42.9	6.8	45.9	41.0
	χ^2	12.121* (d.f=4)	75.059*** (d.f=4)	17.815** (d.f=4)	6.892 (d.f=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청소년 중에서 노인세대와 함께 교류·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참여한 경험이 매우 많
다+어느 정도 있다)은 응답자 945명 중 229명(24.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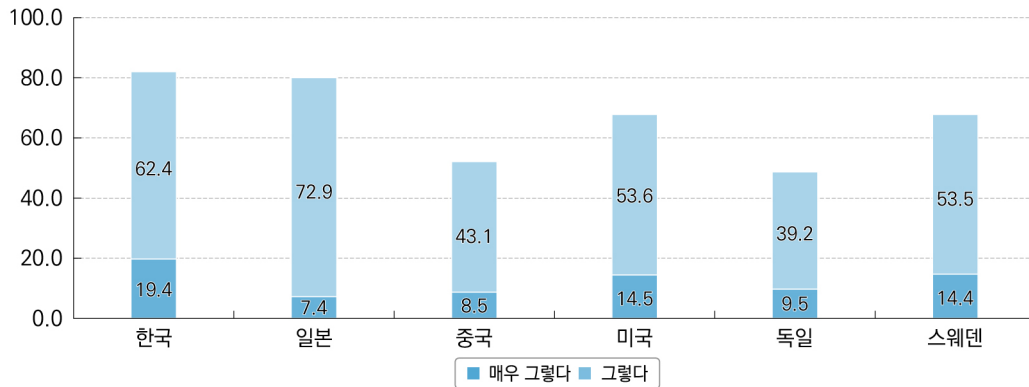
2) 노년층 중에서 나이 어린 세대와 함께 교류·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참여한 경험이
매우 많다+어느 정도 있다)은 응답자 800명 중 64명(8%)임.

4)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수준 국제 비교⁸⁾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문항이 포함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자료를 활용해,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WVS는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국제수준의 비교 조사로, 1981년 시작된 이래 2016년 현재 7차 웨이브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는 2010-2014년까지 진행된 6차 웨이브 조사 자료이다. 6차 조사에는 약 60개 국가에서 약 85,000여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는데(WVS 웹사이트, 2016.09.30. 검색), 우리나라는 201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WVS 6차 웨이브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았다.

8) 이 부분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먼저, 노인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요즘에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존경받지 못한다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한국(81.8%)과 일본(8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국 68.1%, 스웨덴 67.9%, 중국 51.6%, 독일 48.7% 순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보다 한국, 일본 등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데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부담 증가가 이들 나라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존경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II-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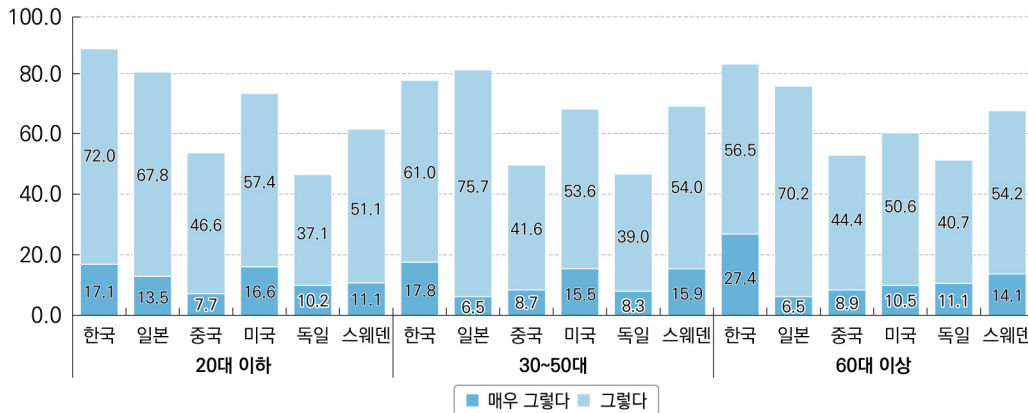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17】 ‘요즘에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국가별 응답 비율

[그림 II-18]에는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20대 이하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에서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데 대해 한국의 20대 이하 젊은이의 89.1%가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반응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본(81.3%), 미국(74.0%)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중국(54.3%), 독일(47.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0-5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한국(78.8%)과 일본(82.2%)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한국(83.9%)과 일본(76.7%)에서 이러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도출된 결과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년층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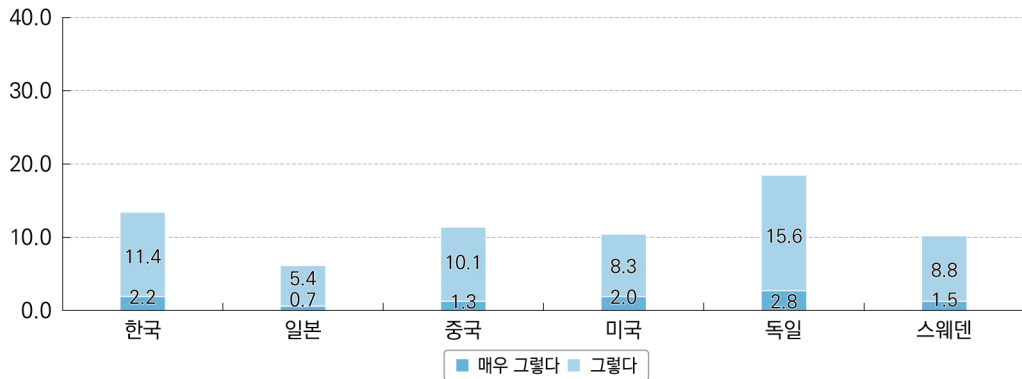
세대가 제대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젊은 층에서도 노인 세대에 대한 존경 수준이 낮음을 시사한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더 먼저 경험한 일본보다 한국에서 이 같은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 대단히 광범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18】 ‘요즘에는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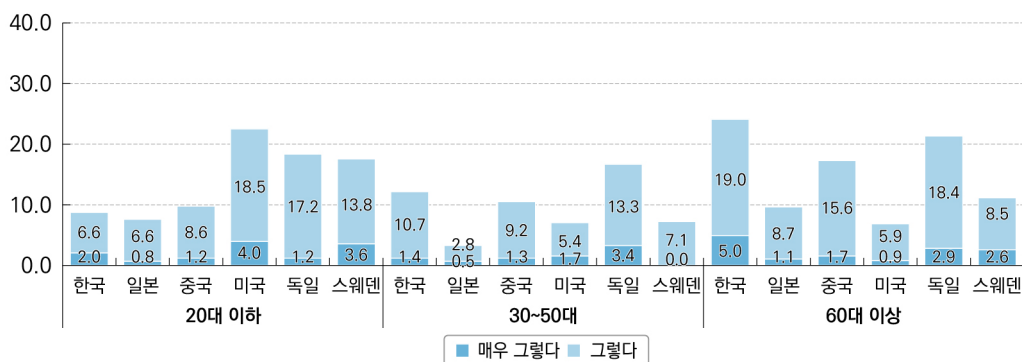
[그림 II-19]와 [그림 II-20]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독일이 18.4%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13.6%), 중국(11.4%), 미국(10.3%), 스웨덴(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19】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국가별 응답 비율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무척 흥미롭다. 2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사회에서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 이 같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60대 이상 전체 응답자의 24.0%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한국은 노인 4명 가운데 1명 비율로 스스로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비율은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 상술한 결과는 급격히 진행된 고령화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에 비해 빈약한 노인복지제도 등 한국의 노인 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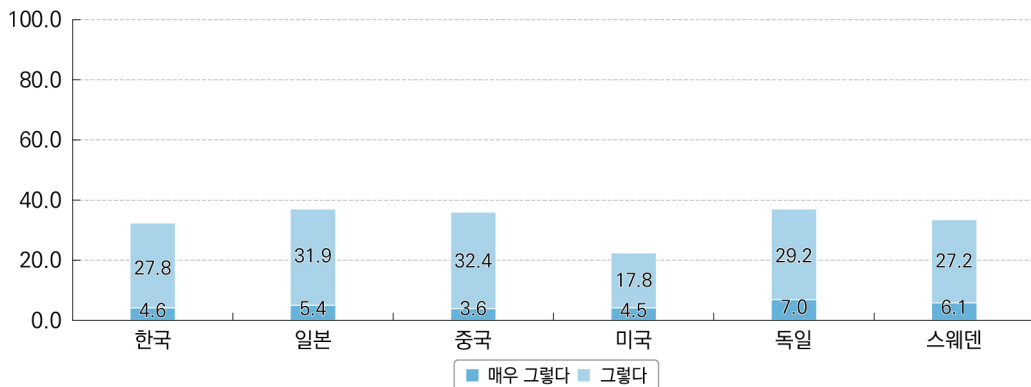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20】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은 정치적 이슈를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는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선거 직후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동아일보, 2016.1.5). 2016년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유럽에서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조선일보, 2016.6.27.).

선거나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세대의 유권자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표심(票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결국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WVS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 가운데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해보았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중에서 미국(22.3%)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32~37%가 동의하는 응답 비율을 나타내,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 3명 가운데 1명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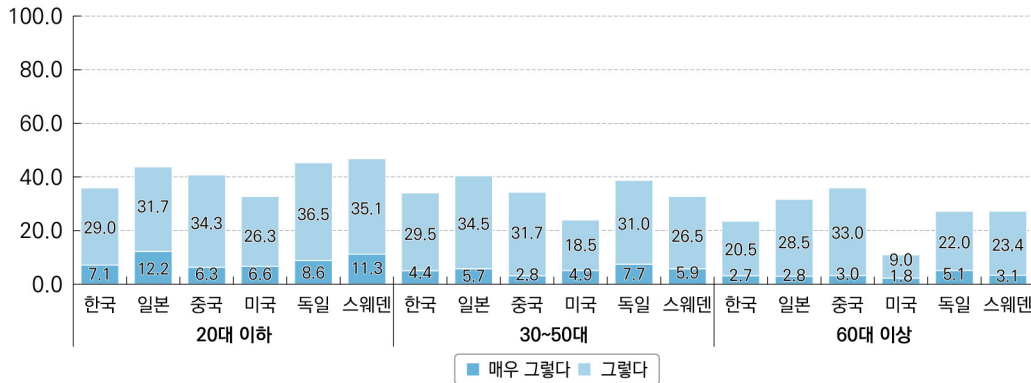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21】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 국가별 응답 비율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20대 이하에서는 40% 안팎의 응답자들이 동의한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20~30%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응답자의 10.8%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우,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20대 이하 젊은층의 36.1%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23.2%가 동의하는 반응을 나타냈다([그림 II-22] 참조).



자료: World Value Survey 6차 웨이브(2010~2014) 원 자료.

【그림 II-22】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 국가별·연령대별 응답 비율

6. 요약 및 시사점

이 장(章)에서는 이론적 입장에서 세대, 세대갈등, 세대통합,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등 주요 개념들을 검토하고,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을 유발 혹은 저지하는 원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런 다음,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조사결과, 국내·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를 점검해보았다. 여기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그간 세대갈등은 대부분 문화적 혹은 관념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나, 최근의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배분적 갈등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경로효친 사상이 약화된 데서 세대갈등의 원인이나 세대통합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현실적인 이유로 갈등을 느끼는데, 여기에 도덕적 차원의 해법을 처방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생하는

길임을 체득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공간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 간극을 확대하고 연령차별주의를 확산시키는 주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에서 세대갈등을 억제하는 제약요인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더욱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이삼식 외, 2011: 145).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된 이미지가 현실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전반의 세대통합 수준을 높이는 데 ‘가족’이 지니는 가치와 역할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실 ‘가족’은 세대통합에서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는 다른 세대의 복리증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친밀한 가족관계는 노부모 부양 문제처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억제시킨다는 점에서(최유석, 2014: 62-64), 세대통합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부모-자녀세대의 사적 이전을 둘러싼 문제는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넷째,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돕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 결과는 대단히 일관되게 세대통합교육이 세대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통합교육은 젊은 세대는 물론 나이든 세대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입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는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실증자료 검토와 2차 자료 분석, 그리고 WVS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첫째,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현재 심각한 편이며 앞으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처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수준에 대한 비교 결과, 청소년과 노인 세대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를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도덕적 당위 등을 근거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지점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이 자신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급변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기회나 복지의 축소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젊은 세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인식이나 태도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세대갈등이 배분적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기성 세대나 고령 세대가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세대 간 협력을 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잠재해 있던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ㄷ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자료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세대통합교육이나 세대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이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청소년과 기성 세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 소통·교류는 일방의 헌신이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호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방의 헌신이나 희생은 상황이 악화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주요 결과 •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세대갈등이 심각한 편이며, 향후에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주된 원인은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한국사의 세대갈등 수준	시사점 •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으로 광범한 공감대 형성 •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 제공 필요
주요 결과 • 2차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이 노인에게 갖는 인식은 실제 경험보다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도덕적 당위 측면이 강함	세대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시사점 • 젊은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면 급변할 가능성 • 호혜적 관점의 세대통합 해법이 요구됨
주요 결과 • 세대 간 갈등은 과거의 문화적, 관념적 형태에서 최근에는 배분적 갈등으로 변화	세대갈등의 표출지점	시사점 • 세대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진단으로 과거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의 한계 → 현실적 자원의 접근 필요
주요 결과 • 인터넷 공간이 젊은 세대와 나이트 세대 간 간극을 확대하고 연령차별주의를 확산시키는 주된 통로로 작용할 우려	세대갈등의 확산	시사점 • 사이버 공간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록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
주요 결과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모두 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도출	세대갈등 완화 기제	시사점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의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산 필요

【그림 II-23】 선행연구 및 2차 자료 분석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제 Ⅲ 장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세대통합 관련 법령 분석
3.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 III 장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세대통합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법령 분석은 청소년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누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정책 분석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4.1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처럼 상위 수준의 범부처 종합계획부터 개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포괄한다.

구체적인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검토한 자료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다. 청소년기본법¹⁰⁾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¹¹⁾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문서로 발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간된 시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그간 추진된 청소년정책 중에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시간 범위는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적용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그림 III-1] 참조).

* 이 절은 변정현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다.

10) 본 장에서 인용된 청소년기본법의 법률 조항은 2016년 3월 2일 개정된 법률 제14066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인출하였다. 이하 같다.

11) 본 장에서 인용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조항은 2015년 5월 1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6223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인출하였다. 이하 같다.



【그림 III-1】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의 대상

2. 세대통합 관련 법령 분석

1)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¹²⁾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4066호]은 청소년과 관련한 제반 법률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동법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한 법조항 및 법적 근거에

12) 본 장에서 인용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16년 3월 2일 개정된 법률 제14068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인출하였다. 이하 같다.

관한 내용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첫째, 청소년의 참여 보장,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셋째,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넷째,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정해 두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볼 때,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구성 변화의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는 가정과 사회, 중앙 및 정부는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규정은 당위적·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세대 간 갈등과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최근의 상황은 청소년들이 세대 간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이에 대응할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근거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4068호, 여성가족부 소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과 접목한 세대통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하고, 청소년 교류활동은 청소년이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활동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이 청소년활동으로서 추진·운영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법률이나,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76호, 2015.5.14., 일부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지자체는 자치법규를 활용해,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시책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부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예산을 마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진흥법」¹³⁾

본 보고서 제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제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부 소관의 법률이다. 이 법은 인성교육의 기본방향과 국가 등의 책무,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학교의 인성교육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문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기관이 아닌, 학교를 통해 실시되는 세대통합교육은 바로 이 인성교육진흥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 내용을 법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의 법적 정의

첫째, 인성교육진흥법이 정한 ‘인성교육’ 및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세대통합역량을 포함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호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동법 동조 2호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동법 동조 3호에서는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본 장에서 인용된 인성교육진흥법은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법률 제13004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출하였다. 이하 같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반 용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이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중과 배려, 소통, 협동 등을 강조하는 세대통합역량, 그리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세대통합교육은 인성교육의 개념에 정확하게 포섭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18. 인출.

(2)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세대통합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달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정책 홍보,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5항은 지자체의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부가 발표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각급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18. 인출.

(3) 단위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실시

앞서 세대통합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성교육’의 범주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여 시달하고, 제10조 제2항에는 학교장이 그에 따라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3항은 학교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제4항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상술한 조항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맞추어,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학교의 인성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의무규정으로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단위학교는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실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3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자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18. 인출.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다음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및 인증하고 보급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에 근거하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시행 중인 다양한 세대통합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인증을 거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주체를 중앙 및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의사가 있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얼마든지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18. 인출.

(5)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확산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해 보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세대통합역량증진을 위한 인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질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확산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받은 자는 이에 대해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중략) ……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18. 인출.

(6) 지자체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 근거

인성교육진흥법은 지자체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로도 작용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별도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조례 등 별도의 자치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167호]를 제정하여, 지자체 장의 책무, 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동법을 근거로 지역에 특화된 인성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지자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법령 분석의 시사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마련한 뒤, 지자체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을 통해 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한 정책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할 수 있고, 현행 법령에서 별도의 시수를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활동 프로그램부터 장시간 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청소년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 10차시 이상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인증 및 학교에 보급하여, 청소년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교육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령(<표 Ⅲ-1> 참조)에 정해진 구성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한 경우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표 Ⅲ-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영역	항목	세부 구성요소
1. 프로그램 구성 (구성기준)	가. 프로그램 목차	1) 프로그램의 제목, 목표 및 기대효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대상,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강의·실습 시간, 장소, 인원, 일정표, 진행 방법·과정, 준비물 및 진행의 유의사항이 기술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 실행 사례, 효과성 검증 방법 및 자체평가 결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나. 프로그램 시간	1) 단일 프로그램이 최소 10차시(1시간 1차시)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동일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 내용 (내용기준)	가. 프로그램 목표	1)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및 효과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 2) 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
	나.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1)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2) 교수·학습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3) 교사와 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것 4) 프로그램 내용 간 체계성이 있을 것 5) 프로그램 내용이 독창적일 것 6)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일 것 7) 실천·체험 활동 중심의 내용일 것 8) 교수·학습자의 성찰에 도움을 주는 내용일 것 9) 효율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할 것
	다. 프로그램 효과	1) 제시된 프로그램 실행 사례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방법이 신뢰성을 갖출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할 것

영역	항목	세부 구성요소
	라.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 관련	1) 프로그램 시행 설명이 읽기 쉽고, 명확하며 체계적일 것 2)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 3) 그 밖에 사용자의 프로그램 시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출 것

출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2015.12.10. 제정, 교육부령 제81호). [별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3.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1) 범부처 종합계획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¹⁴⁾

① 개요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문제를 반영한 범부처 종합계획은 그 수준과 범위, 법적 근거, 정책추진력 등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포괄 범위가 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15년 12월 10일 심의·확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대표적인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그림 III-2] 참조).

1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내용은 2015년 발간된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국민대통합위원회 http://precap.go.kr/poli_basi1.lo 에서 2016.10.24.인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출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9.).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4쪽. http://precap.go.kr/news_repo_vw.lo?idx=747 에서 2016.10.24.인출.

【그림 Ⅲ-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②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크게 ‘Ⅰ. 저출산 대책’과 ‘Ⅱ. 고령사회 대책’,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세대통합 문제는 ‘Ⅱ.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이 깊다. 이 가운데 ‘Ⅱ. 고령사회 대책’은 다시 노후소득 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의 세부 정책과제인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해당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세대 간 이해증진’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세부과제 ‘2-3-가. 세대 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에는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날 운영’, ‘고령자와 유·아동 간 접촉·소통기회 확대’,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대 간 소통 강화’ 등 3개의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이 정책들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된 정책 목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다음으로, ‘2-3-나.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과제는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유대가 약화되고, 예와 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후퇴했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132). 그리하여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과 효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정책방향을 두었다(대한민국정부, 2015: 132). 이를 위해 ‘인성회복을 통한 효행·예절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강화 및 밥상머리 교육 활성화’,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발굴 포상,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효행장려 풍토 조성’ 등이 세부 추진계획으로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5: 133). 여기에 속한 과제는 교육부가 소관부처이므로,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도 추진될 수 있다.

표 Ⅲ-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고령세대통합 관련 정책과제

과제명 및 세부 추진계획	소관부처	과제번호
Ⅱ. 고령사회 대책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①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②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③ 세대 간 이해 증진		
가. 세대 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	2-3-가
•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날’운영		
– (학교) 학생은 가족이 정한 날은 체험학습의 날로 인정 – (경제·사회단체) 회원사 및 직원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고령자와 유·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간 접촉·소통기회 확대		

과제명 및 세부 추진계획	소관부처	과제번호
- 실버 문화·예술 공연, 학교 앞 교통지도 및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교육부	2-3-나
•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대 간 소통 강화 - 초·중·고 학생 가정과 무연고 독거노인과의 1:1 결연 등을 통해 효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1·3세대가 함께 문화재·역사유적 탐방 등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세대공감콘서트 확대		
나.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 인성회복을 통한 효행·예절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강화 및 밥상머리 교육 활성화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2015년 147개교) 확대 •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발굴 포상,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효행장려 풍토 조성		
④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 고령자 안전 및 권익 보장		

출처: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133 및 p.197 내용을 재구성.

(2) 「국민대통합 종합계획」¹⁵⁾

① 개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도 광범한 수준에서 세대 간 갈등완화 및 세대통합 문제를 다룬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대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 간 갈등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 소관)에 의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해당 규정 제2조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을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국민대통합위원회(2014.7), 「국민대통합 종합계획」(http://www.pcnc.go.kr/content.do?cmsid=118&sf_cat1=&cat1_0=&searchField=title&searchValue=%EA%B3%84%ED%9A%8D&y=0&x=0&mode=view&page=1&cid=3942 에서 2016.9.7. 인출)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대통합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서 2016.10.24.인출.

② 주요 내용

상술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4년 7월 「국민대통합 종합계획」(국민대통합 위원회, 2014)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 4대 갈등으로 ‘세대·노사·계층·문화갈등’을 제시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통합 및 갈등실태 진단, 국민통합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소통기반 구축 및 소통문화 조성, 소통역량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와 12대 정책방향을 담아 세부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그림 III-3] 참조).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종합계획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과 국민통합에 관한 범부처 정책과제와 협업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4대 정책 목표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12대 정책 방향

① 국민통합 및
갈등상태 진단

② 국민통합 계획
수립 및 지원
체계 구축

③ 국민통합정책
과제 점검·평가

④ 갈등예방·조정
제도기반 구축

⑤ 갈등 예방·
조정역량 강화

⑥ 격차 완화를
통한 갈등예방

⑦ 국민통합가치
정립 및 확산
(국민 안전 등)

⑧ 과거사
치유와 화해

⑨ 상생 정책
수립 및 실천

⑩ 소통기반 구축

⑪ 소통문화 조성

⑫ 소통역량 강화

추진 체계

국민·시민단체·기업·지자체·중앙부처·위원회·민관 통합추진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2014.07),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11쪽.

【그림 Ⅲ-3】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추진 체계도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정책 목표인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모두 세대갈등 완화 및 세대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목표들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대 정책방향 중에서는 ‘[7]국민통합가치 정립 및 확산’, ‘[10]소통기반 구축’, ‘[11]소통문화 조성’, ‘[12]소통역량 강화’가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상술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31개의 정책과제를, 중앙부처는 109건의 정책과제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34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방대한 양의 정책과제들 가운데, 청소년의 세대통합 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 및 중앙부처의 세부 시행과제만을 선별해보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정책방향	중점과제	세부 과제 중 ‘세대통합’ 관련 과제
[7]통합가치 창출 및 확산	㉑국민대통합가치 정립	• 통합가치 발굴 및 확산 •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㉒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성교육 프로그램 • 역사교육 프로그램 • 법교육 프로그램 •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 현충시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 통일교육 프로그램 •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㉓통합가치 확산 캠페인 (안전·질서 세우기)	• 국민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사회 캠페인 •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 선플운동
[10]소통기반 구축	㉔나눔 문화 확산	• 기부·자원봉사 등 나눔 문화 확산 • 문화 나눔 확산
[11]소통문화 조성	㉕정부-국민 간 소통 활성화	• 소셜미디어 활용 국민 공감 릴레이 •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 • 국민대토론회 개최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㉖다차원적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 구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12]소통역량 강화	㉗세대소통의 장 확대	• 세대 공감 프로젝트 추진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2014.07).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서 발췌하여 구성.

- 세대통합을 위한 가치 창출 및 확산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서는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7]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이라는 정책방향 하에 중점과제로 설정된 ‘국민대통합가치 정립,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통합가치 확산 캠페인’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7).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민통합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교원연수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토대로 역사교육 강화,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를 위한 선플 운동 등 민·관 협력 캠페인 및 초·중·고 대상 인터넷 드림단원 선발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7).

이 같은 정책과제는 세대통합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초·중등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세대통합교육 실시,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사용 순화 등과 연계되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로 환원될 수 있다.

- 세대 간 소통기반 구축

‘[10] 소통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 중 ‘나눔문화 확산’도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다. 세대 간 이해와 상생을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 시행과제로 지속가능한 나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나눔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문화·여행·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세대 간 이해와 공감 및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 및 노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세대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세대통합역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세대 간 소통문화 조성

[11]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국민 간 소통 활성화’와 ‘다차원적 네트워크 활성화’ 역시 세대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3주간 세대갈등 및 통합과 관련하여 ‘세대상생, 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6.10.23.). 이처럼 세대 간 이해와 공감,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민대토론회의 개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마련 및 운영,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과 같은 시행과제는 세대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 이슈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국민 공감 스토리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국민공감릴레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통합 역량 증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의 세대통합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은 지역단위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이 주요 전달체계가 된다. 따라서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등의 세부 시행과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대 간 소통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12 소통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 현황 및 소통방안을 연구하고 세대 공감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은 세대통합 역량 증진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시행 과제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세대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문화갈등'을 4대 갈등으로 명시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등과 같은 정책과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 역량을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토론회 등이 별도로 추진되는 과제이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과 같은 시행과제는 부처별로 시행되는 다른 정책방향의 내용에도 포함되는 중복 과제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전문에는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성교육의 주제로서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세대 간 이해와 공감, 세대 간 소통 효율화와 협력 등에 관련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제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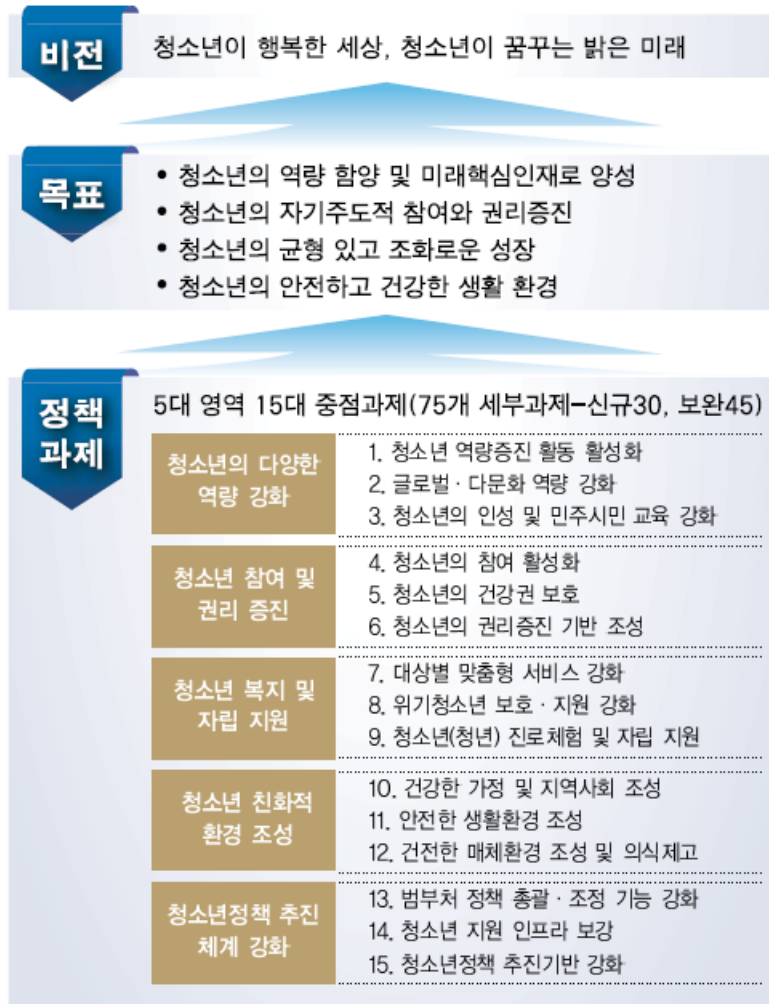
(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¹⁶⁾

① 개요

다음으로 살펴볼 범부처 종합계획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13조).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장기 로드맵에 해당하는 바, 현행 청소년정책에서 세대통합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12년 12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이 같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계획으로,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 역량증진 등을 포함한 과제를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그림 III-4] 참조).

16)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9&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0117(2016.10.3. 인출) 의 내용 가운데 세대통합역량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재구성한 것이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2.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33.

【그림 Ⅲ-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 및 과제

② 주요 내용

제5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 75개의 세부과제 가운데, 청소년의 세대통합 역량 증진과 관련 있는 중앙부처의 세부과제만을 별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4> 참조).

표 III-4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정책방향	중점과제	세부 과제 중 '세대통합' 관련 과제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1-1-3.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1-3-1.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1-2.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2.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발췌하여 구성.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강화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들이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1-1)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과제가 청소년의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이해 및 공감, 세대소통과 협력 등에 관련한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과제(1-1-3)'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과제들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을 세부 시행과제로 삼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학교에 시범 배치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또한 교육부는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 강화를 시행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초중고 학생이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전 부처와 지자체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이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의 내용은 각 부처가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하여 체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청소년시설 및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과제(1-1-5)’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실시에 따라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를 확대하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토요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또한 해당 부처에서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우수 교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초·중고 학교와 노인시설 등에 전문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등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세대가 교육기부, 재능기부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세대통합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사업 확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청소년 세대통합 역량 증진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역량의 증진

제5차 기본계획은 1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세부과제 중 ‘1-3-1.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는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세대통합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표 III-5>와 같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지원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개발·확산, ‘배려’ 등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은 모두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III-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3-1.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자녀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연수 강화	교육부
•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성교육 기능 강화 및 언어·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 광고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추진	여성가족부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 효과적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개발 및 프로그램 확산 추진	교육부

세부 과제	소관부처
-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선정 운영	
• 분노조절, 정직, 배려, 자기조절, 사회적 책무 등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품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품성개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및 관련 기관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산	교육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인성함양 지원 강화 - 청소년 체험학습과 연계한 건전한 사회성 함양 및 사회적응력 제고 등	여성가족부
•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방통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2.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50.

•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과 세대통합역량

제5차 기본계획 내용가운데 '2-1. 청소년 참여 활성화' 중점과제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2015)은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연구를 통해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충분히 예상된 후세대의 문제도 간과한 정책결정 사례들은 현재의 정책 거버넌스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취약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김희삼·김순희, 2016: 1).

따라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성장·고령화 환경에서 증가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선결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김희삼·김순희, 2016: 1).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임의 숙의과정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미래세대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과 청(소)년의 높은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이용하여 직접민주주의적인 온라인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희삼·김순희, 2016: 7).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미래세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논의의 장(場)을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깊다. 제5차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청소년 세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도록 지원하는 세부정책과

제로는 ‘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와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의견 및 청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 개발·운영 계획을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트위터, SNS,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계획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and 세대통합

제5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4-1.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세부추진과제로 ‘4-1-2.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과제에 “세대 간 이해 증진 도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동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고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할 것을 계획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또한 교육부는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 공유시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정책과제로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상술한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통해 가정 내 세대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4-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포함된 내용도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세대통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부처 협동과제로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단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12). 이와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의 내용은 청소년이 부모 혹은 가정 내의 다른 세대와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5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함양과

관련이 있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인성 계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 계발과 세대통합역량 함양이 상당 부분 교집합을 이룬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시설 등 학교 밖 공간과 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증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이해와 공감 및 소통과 협력 역량 강화, 밥상머리 교육 캠페인 등과 같은 인성함양 캠페인 등의 시행과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는 정책과제들이다.

다음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5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의 실천과제로 볼 수 있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앞으로의 의사 결정이 현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대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제5차 기본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같은 제도들은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4)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¹⁷⁾

① 개요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과제를 담은 것이 바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이하 인성교육 종합계획)이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주관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한 교육 분야 범부처 계획이다. 앞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세대통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단히 접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나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도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주요 국정 계획이 반영된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세대통합 정책 분석을

17)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교육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및 “교육부(2016.2.5.),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정책들이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인데, 여기에서 ‘인성역량’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일컫는다(교육부, 2016.1.19.). 여기에서는 인성교육이 개인-대인관계-공동체 차원의 연결선 상에서 자기관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갈등관리역량, 공동체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가정·학교·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교육부, 2016.1.19.). 또한 학교에서의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 외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체계적·통합적으로 실행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6.1.19.).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6.1.19.).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5대 영역에 걸쳐 13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2016년 이후 반영할 과제를 포함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 사항을 담고 있다([그림 III-5] 참조).

비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표	◆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실현

추진 과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생태계 조성 ▪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 학교 인성교육 자원체계 활성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지원 ▪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 ▪ 교사 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 조성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 지역사회와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대(對)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	

변화 방향	현재 ▪ 인성교육의 체계성 부족 ▪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 ▪ 가정·사회의 지원 미흡	➡	변화방향 ▪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인성교육 구현 ▪ 체험·실천 중심의 교육 ▪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

출처: 교육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p.7.

【그림 III-5】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비전 및 정책과제

② 주요 내용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이 지향하는 가치가 세대통합과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다수가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이 깊다. <표 Ⅲ-6>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 내용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된 세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중 세대통합역량 증진 관련 세부 과제

정책방향	중점과제	세부 과제 중 ‘세대통합’ 관련 과제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1-1.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학교 생태계조성	1-1-2.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1-1-3.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1-2.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착	1-2-1. 인성교육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1-2-2.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정착
2. 학생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2-1.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2-1-1.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1-2.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정착
	2-2.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2-3-1.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2-3-2. 예술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감성 및 정서함양
		2-3-3. 인문소양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4.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지원 체제 구축	4-1.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4-1-1. 가정-학교 연계 및 소통 강화
		4-1-2.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 확산
	4-2. 지역사회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4-2-1.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지원체계 구축
		4-2-2. 민간, 대학 등의 인성교육 지원 활성화
	4-3.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4-3-1. 범부처의 인성교육 지원 체계화
		4-3-2. 부처별 인성교육사업 협업과제 발굴
5. 대(對) 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5-1.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5-2.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	

출처: 교육부(2016.2.5.),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p.5 ‘II. 추진과제별 방안 및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 인성 친화적 학교교육과 세대통합교육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인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교육부, 2016.1.19.). 이를 위해 제시된 세부과제 가운데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특히 관련이 깊은 것으로는 ‘1-1-2.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1-1-3.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1-2-1. 인성교육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1-2-2.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정착’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1-1-2.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갈등해결 프로그램, 상호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하고, ‘1-1-3.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개인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6.1.19.). 이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단위학교에서 도덕, 사회, 보건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교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6.1.19.).

‘1-2.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착’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법률 제13004호, 2015.1.20.제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에 인성교육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인성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1-2-2.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정착’에서는 도덕과·사회과 등의 수업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주도록 재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교육부, 2016.1.19.). 이 같은 인성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은 모두 세대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학생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표방하는 두 번째 정책방향은 ‘학생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이다(교육부, 2016.1.19.). 이를 뒷받침하는 ‘2-1.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2-2.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 테마별 교육 활성화’ 등의 중점과제들은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2-1-1.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급별로 핵심가치·덕목을 반영한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하고, 실천·사례중심의 인성역량별 지도자료 개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6.1.19.). 이 같은 내용은 세대이해와 세대공감, 세대소통 및 세대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추진과 연계될 수 있다.

한편, '2-1-2.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정착'과제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분야와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6.1.19.). 이 같은 정책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적용되면,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도 단순한 일회성 체험 수준에 머물지 않고, 10차시 이상의 체계화·구조화 된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로(MEMORO) 활동도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2016년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한 바 있다(메모로코리아 밴드 공지사항, 2016.9.6.).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과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인성교육에 적합하게 운영할 것을 권한다(교육부, 2016.1.19.).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세대 간 소통과 교류 등 세대통합적 요소가 포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과제는 예술체육 및 인문 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세대이해와 공감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에 관련된 지식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토대가 된다.

•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4-1.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4-2.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 '4-3.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등을 유관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세부과제의 내용 중에서 '4-1-1. 가정-학교 연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거나, '4-1-2.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효행실천을 기본 인성교육으로 실시하고, 3대가 함께하는 공감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은 세대통합역량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4-2-1.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지원체제 구축', '4-2-2. 민간, 대학 등의 인성교육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추진(교육부, 2016.1.19.)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자체, 청소년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세대통합교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4-3-2. 범부처 인성교육 협업과제'는

정부 부처별로 인성교육 사업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교육부, 2016.1.19.)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생나눔교실’을 들 수 있다.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정서적 공감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사업 중 하나이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5.4.1., <표 III-7> 참조). 특히 이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 협업을 통해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통·교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충청지역에서는 대전지역 5개 중학교(둔산중, 용운중, 만년중, 갑천중, 충남여중)와 충북지역 5개 중학교(청천중, 연풍중, 단성중, 금천중, 주덕중)에서 인생나눔교실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중학교 멘토링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충청일보, 2016.9.8.).

표 III-7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나눔교실’ 정책에 내재된 세대통합역량 증진 활동

정책사업 명칭	목적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인생나눔교실 (문화체육관광부)	세대 간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이해하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 멘토봉사단: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인 250여명 - 멘티대상: 군장병 및 청소년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 분야 희망자들이 병영, 학교 등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나눔과 배려, 소통의 인문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5.4.1.), pp.1-3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표로 재구성.

• 대국민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성교육 포럼, 실천적인 인성교육 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이 포함되는데, 이때 사업내용의 일부 주제로 세대 간 갈등완화 및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52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실천 토론회, 인성실천 페스티벌을 운영한 학생들의 실천사례 공유 및 전파,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UCC 및 웹툰 공모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교육부, 2016.1.19.), 이 같은 사업은 세대 간 이해와 공감, 소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MBC가 주최하는 「전국청소년 UCC 콘테스트」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콘테스트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프로그램, 세대 간 공감, 또래활동, 동아리 등을 주제로 UCC 동영상상을 공모하는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기억이나 경험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메모로’ 활동을 특별부문으로 별도 공모하고 있다(부산MBC 전국 청소년 UCC 공모전 홈페이지, 2016.10.19.인출).

③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정의하는 ‘인성’, ‘인성역량’ 등은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이 지향하는 바와 접점이 많다. 따라서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세대통합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그에 근거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교교육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분명해지고,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환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를 통해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 학교 외 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던 데 비해, 학교를 통한 세대통합교육은 접근성을 확대하고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세대통합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범부처 종합계획 분석의 시사점

이 절에서는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한 정책분석을 위해, 범부처 종합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대통합종합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등을 개관하였다(<표 III-8> 참조).

표 Ⅲ-8 청소년 세대통합 관련 주요 종합계획의 개요와 특징

명칭	주관부처 (발표시기)	근거 법령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¹⁾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 개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계획을 포괄하는 광범한 종합계획 • 특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핵심키워드: 저출산, 고령사회, 노후, 사회통합, 고령친화경제, 세대 간 이해 등 • 세대통합 관련성: 세대 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의 날'운영, 고령자와 유·아동 간 접촉·소통기회 확대,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대 간 소통 강화,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등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²⁾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 위원회 (2014.7)	국민대통합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 개관: 갈등예방 및 관리와 국민통합을 위한 종합계획 • 특징: 세대갈등의 예방과 관리 및 세대이해 및 소통역량 증진 등 세대통합역량 강화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안임.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다른 정책계획안에 포함된 과제일지라도 갈등관리 및 국민'통합'의 관점을 수용한 정책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핵심키워드: 국민통합, 갈등예방, 소통공감역량, 상생 • 세대통합 관련성: 국민대토론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세대공감프로젝트의 추진 등의 시행 과제가 세대통합과 관련한 이슈를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함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 ~2017) ³⁾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2.12)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4066호)	• 개관: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청소년관련 과제를 포괄한 기본계획 • 특징: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 복지와 자립지원,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범부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총괄하여 청소년을 정책초점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 자료임 • 핵심키워드: 청소년, 역량강화, 참여, 체험, 교육 • 세대통합 관련성: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체험활동 강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인성함양 캠페인 등의 시행과제가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세대통합 관련 역량을 증진하는 기초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

명칭	주관부처 (발표시기)	근거 법령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6 ~2020) ⁴⁾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합동) (2016.1)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3004호)	• 개관: 공교육체제(유치원, 초·중·고) 내에서 인성 역량을 길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 종합계획 • 특징: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외 활동 등을 통해 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련한 현행 정책과제와 향후 시도교육청 추진 사항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핵심키워드: 학교, 교육과정,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 세대통합 관련성: 인성역량이란 예, 효,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칭하므로 제반 사항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관련한 교육적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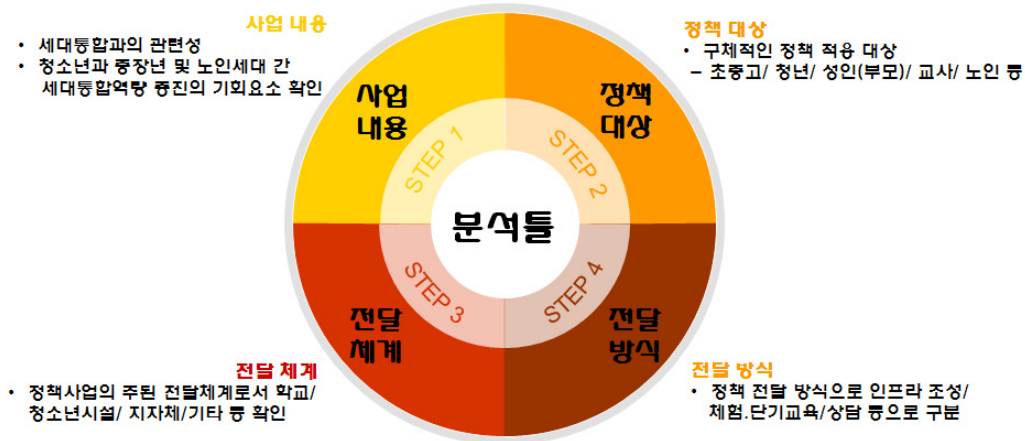
출처: 1)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국민대통합위원회(2014.7).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3) 관계부처 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4) 교육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2차 계획에 비해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계획들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데 세대 간 이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정책계획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4대 갈등으로 세대갈등을 거론하고,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관련 정책이 광범하게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험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소년과 노인세대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세대통합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들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을 활용한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최근 강조되는 인성교육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이

망라된 종합계획으로서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세대통합교육을 비롯한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2)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정책의 구체적 사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앞 절에서는 범부처 종합계획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앞서 살펴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을 일컫는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어떻게 정책화되어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 여기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의 적용기간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2013년 이후 발표된 최근 4년 간의 시행계획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시행계획 내용 가운데 세대통합과 관련 있는 정책 사업들을 선별하고, 각 사업의 세부내용과 정책대상, 정책 전달체계와 전달방식 등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각 정책 추진 사항에 청소년과 중장년 및 노인세대 간 상호 소통·교류할 기회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III-6]에는 분석에 사용한 분석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틀

(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¹⁸⁾

2013년~2016년까지 4년 간 발표된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가운데 세대통합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가 수립·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중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정책 24건을 선별하여 검토한 결과,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중·고등학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학생을 정책대상으로 상정한 과제는 16건, 고등학생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제는 18건이었다. 그에 비해 초등학생은 1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청년은 6건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모세대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학부모가 포함된 정책과제는 11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시행된 대부분의 정책이 청소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거나, 기성세대와 교류하는 경우에도 부모-자녀 간 세대차이 및 세대갈등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청소년과 노인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돕는 본격적인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세대와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향후 세대통합 정책 개발 시,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 등 하위 정부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파악되었다. 반면, 학교를 전달체제로 활용하는 세대통합 정책은 분석대상으로 삼은 24건 가운데 총 4건에 불과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다수는 학교에 다니며,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확대하는 데는 공교육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교육은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향후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달 방식에 대한 분석은 체험이나 단기교육의 형태로 전달되는지, 혹은 상담의 형태를 보이는지, 아니면 인력이나 공간 확보 등 세대통합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방식을 보이는지를

18)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각 년도(2013a, 2014a, 2015a, 2016a) 자료이다. 각 년도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에서 2016.8.3. 인출하였다.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조성이 15건, 체험/단기교육이 14건, 상담 5건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아직까지는 세대통합과 관련한 청소년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들이 중장년이나 노인세대와 직접 접촉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성 체험이나 단기교육이 주를 이룬다. 인프라 조성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세대통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 확보, 언어순화 등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룬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세대통합정책은 양적 측면에서도 증가해야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도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표 III-9> 참조).

표 III-9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 세대통합 관련 정책 현황(2013~2016년)

연번	시행 연도	중앙 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 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성인	교원	노인	소외 계층	공무원	학 교	청소년		지자체	기타
1	2013-2016	문체부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박물관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	○	○	○	○								박물관 등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	2013-2016	여기부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문화예술놀이체험 토요문화학교,			○	○				○						○	
3	2013-2016	문체부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창의예술캠프 등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	○	○	○					○				토요문화 학교 등	○	
4	2013-2016	여기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건강한 언어생활 도모 및 바른 인성 함양			○	○									방송사	○	
5	2013-2016	여기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확대, 민주시민교육 강화			○	○				○						○	
6	2013-2015	교육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인성교육을 위한 학무모교육 및 연수					○	○							교육청	○	
7	2016	교육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	○	○								교육청	○	
8	2013	문체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존경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확산하여 언어 환경 개선				○	○								온라인	○	
9	2014	문체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공공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소통 촉진, 언어 환경 개선, 언어문화 조성				○	○								국립국어원	○	
10	2015	문체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존경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확산하여 언어 환경 개선				○	○	○							국립국어원 등	○	
11	2015	문체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청소년 언어 인성 육성		○	○	○					○	○				○	
12	2013-2016	여기부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온라인 및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	○	○	○								온라인	○	

연번	시행 연도	중앙 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 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성인	교원	노소외계층	공무원	학 교	청소년 시설		자자체	기타	인프라 조성	체험/ 단기교육	상 담	
13	2013-2016	여가부	청소년의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토론과 활동을 통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 발굴, 개인적 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 성장 도모	○	○	○	○	○				○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							
14	2013	고용부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	○	○					고용부, 민간단체	○							
15	2013-2016	여가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이혼가정 등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6	2013-2016	교육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교육청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7	2013-2016	법무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청소년과 부모와의 가족관계 회복	○	○	○	○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8	2013-2016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간접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청소년의 재범 방지						○				보호관찰소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9	2013-2014	행정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 휴가제 활성화)									○	중앙부처, 공공기관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0	2015-2016	인사혁신처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	중앙부처, 공공기관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1	2013	문체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	○	○	○	○			○	국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2	2013	여가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	중앙부처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3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문화 정착									○	중앙부처, 공공기관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4	2015-201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및 아동 청소년 문제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가정기능 확립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소 계					1	10	16	18	6	11	5	1	0	4	2	4	3	7	15	14	5	11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4a, 2015a, 2016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각년도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진이 작성.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¹⁹⁾

앞서 살펴본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틀을 적용하여, 2013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정책사업 가운데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집을 통해 파악 가능한 사업들로서,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각 년도 세부과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별된 정책을 대상으로 세부 내용과 정책 대상, 전달 체계와 전달 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중장년, 노인세대 간 소통·교류 등 세대통합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단,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는 연속과제는 하나의 과제로 간주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총 76건의 사업들이 선별되었다(<표 III-10> 참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고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76건의 정책사업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60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59건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는 부모-자녀 세대 간 관계회복과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도 40건에 달했다. 한편, 중앙부처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 사업 중에는 청소년과 노인 세대 간 소통·교류에 기여하는 사업도 확인되었다. 2014년도 서울시 마포구에서 추진한 ‘따뜻한 봉사활동 따봉 프로젝트’는 노인과 마포구내 고등학생이 함께 하는 세대공감 봉사활동으로,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이 연간 총 8회 규모로 추진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4b).

둘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추진하는 사례는 38건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학교가 전달체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교와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각 년도(2013b, 2014b, 2015b, 2016b) 자료이다. 각 년도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에서 2016.8.3. 인출하였다.

셋째, 전달방식의 경우에는 체험/단기교육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프라 조성이 20건, 상담이 7건으로 파악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프라 조성이 더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지자체에서는 체험/단기교육이 3배 이상 높게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예산 규모와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보다는 청소년과 중장년, 노인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반복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 번	시행 연도	지방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성인	교원	노인	소외 계층	학 교	청소년 시설	지 자 체		기 타	인프라 조성
1	2013	서울시	가족·이웃과 함께하는 대안학교 조성	대안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발하여, 친구, 가족, 이웃 등 마을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는 봉사과 참여 마당으로 조성		○	○	○		○					○	○			
2	2014-2015	서울시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어린이문화를 만들어 세대 간 관계회복 및 소통과 어울림의 성장환경 조성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3	2014	서울시 중구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도모		○	○						○				○		
4	2014	서울시 마포구	따뜻한 봉사활동 마당 프로젝트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세대공감봉사활동				○						○					청소년-노인 간 세대통합
5	2014	서울시 양천구	가기호통	농촌봉사활동을 통한 자녀와 부모간의 소통 증진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	2014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 휴카페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소통 및 연대 강화			○	○		○						시민 연대		○	
7	2015	서울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 복지의 형평성 제고			○	○										○	○
8	2015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 휴카페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소통 및 연대 강화			○	○		○									○
9	2016	서울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 복지의 형평성 제고			○	○										○	○
10	2016	서울시 광진구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놀 거리, 즐길 거리 제공		○	○	○								○			○
11	2013	대구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속적인 문화예술놀이 체험활동 참여확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 문화형성 조성			○	○										○	○
12	2013	대구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취약계층 가정의 학교수업 후 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한 자립 역량 지원			○	○										○	○

연 번	시행 연도	지법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 아	초	중	고	청 년	부 모	성 인	교 원	노 인	소외 계층	공무원	학 교		청 소년 사설	지 자 체	기 타	인프라 조성
13	2015-2016	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 마련			○	○										○	○		
14	2015-2016	대구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우리 마을교육 나눔 및 컨설팅 지원)	마을지원과 학교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 인성 체험교육 지원 및 청소년 보호			○	○		○								○	○		
15	2015-2016	대구시 달서구	스마일링 가족사랑 동요 한마당	동요 부르기를 통하여 가족, 세대 간 소통 및 지역사회의 건강한 분위기 조성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6	2016	대구시 달서구	세대 공감 청소년 온통(溫通)교실	예절교실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7	2013-2016	인천시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건전한 문화육성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8	2013-2016	인천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협력학교관리·지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해소의 기회 마련						○	○						교육청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19	2013-2016	인천시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꿈과 미래를 향한 마인드업)	수능 후 고3청소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시간 활동을 위한 진로 및 인성 특강				○									○	○			
20	2013	인천시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세대공감학부모특강)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양육방법 제시를 통한 부모 역할과 기능 강화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1	2014	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청소년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는 활동의 장 제공			○	○										○	○		
22	2014	인천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교육 제공			○	○	○		○								○		
23	2014-2015	인천시 부평구	부모교육	부모 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습득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연 번	시행 연도	지법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 아	초	중	고	청 년	성 모	교 원	교 노 소	학 공 무 원	학 교	지 자		기 타	인프라 조성
24	2015	인천시 중구	부모 자녀 소통법	부모 특강을 통한 청소년 및 인성교육 제공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5	2015	인천시	하모니 실천단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축제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6	2015	인천시	가족예절캠프	가족 간의 예절알기, 세대 간 문화 이해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7	2013	광주시	청소년동아리 지원	동아리활동을 통한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소질과 능력 발휘 기회 제공			○	○								○		
28	2015-2016	광주시 동구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29	2014	대전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만남과 소통, 문화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동아리 활동 지원			○	○								○		
30	2016	대전시 유성구	청소년가족캠프개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31	2013-2016	세종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청소년시설의 진정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도모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32	2016	세종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소통, 나눔, 공감, 배려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권 친화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				○			
33	2013	경기도	국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및 국내외 차세대 리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학문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			○	○										
34	2013	경기도 성남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가족소통과 화합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35	2013	경기도 성남시	부모 교육 및 세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강화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자녀의 발달 특성에 맞는 양육방법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36	2013	경기도 성남시	청소년 미디어 특화	미디어 활동을 통한 청소년 공동체 의식 부여			○	○								○		
37	2014	경기도 용인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관교류활동, 워크샵, 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활성화			○	○								○		
38	2015-2016	경기도 용인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성발달 및 리더십 함양교육, 세대교류를 통한이해 증진 및 역사체험			○	○								○		

연 번	시행 연도	지정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부모	성인	교원	노인	소외계층	공무원	학교	청소년시설	지자체		기타
39	2013-2016	경기도 구리시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운영	부모 자녀 간 체험을 통한 세대 간 격차 해소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40	2013-2015	경기도 부천시	세대 간 소통마당 락(ROCK)엔락(樂)	청소년 밴드 및 시민 밴드 간의 소통 및 통합			○			○								○		
41	2016	경기도 부천시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교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		○									○	
42	2016	경기도 시흥시	청소년 소통 공간(휴카페) 운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소통 공간 운영			○	○										○		
43	2015-2016	경기도 안성시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참의미를 새기며 전통문화 계승 및 세대 간 소통의 계기 마련					○								청소년 선도 위원회		○	
44	2015-2016	경기도 양주시	부모-자녀 소통 검기대회	검기대회를 통한 부모, 자녀 간 소통 도모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45	2013	강원도 철원군	세대 공감 "소통"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공감 만들기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46	2014-2016	강원도 홍천군	가족소통캠프	중학생(남)과 아버지가 참여하는 가족소통 캠프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47	2014	충청북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문화, 예술, 관광자원과 효율적 연계 및 결합을 통한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			○	○											○	
48	2013	충청남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49	2013	전라북도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힐링 캠프를 통해 각 가족에게 부모-자녀 유대관계형성 방법을 모색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가정을 도모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0	2014	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지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 개발			○	○										○		
51	2013	전라남도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세대 공감을 위한 부모-자녀한미음교육)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양육방법 제시를 통한 부모 역할과 기능 강화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연 번	시행 연도	지법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부모	성인	교원	노인	소외계층	공무원	학 교	청소년자		지자체	기타
52	2014-2016	전라남도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세대 공감을 위한 부모-청소년함미음교육)	학부모 특강을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 제고 청소년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3	2014	경상북도 구미시	청소년 지역소통 프로젝트	심리검사를 통한 부모와 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										○		
54	2014	경상북도 청도군	부모교육	부모와 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5	2015-2016	경상북도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활동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문화 활성화			○	○							○	○				
56	2015-2016	경상북도 성주군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7	2016	경상북도 포항시	세대 공감 창조문화 콘서트	세대 간 소통하는 창조교육 및 문화공연			○	○		○							지역 신문사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8	2013	경상남도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및 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한 가족강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59	2013-2014	경상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호연지기 함양			○	○							○				○	
60	2013-2016	경상남도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1	2013	경상남도 창원시	부모-자녀 함께하는 가족캠프	위기가정을 위한 가족대화법 및 의사소통 도모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2	2014-2016	경상남도 창원시	희망 주는 부모 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습득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3	2014	경상남도 창원시	치정인을 위한 부모교육특강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사춘기 자녀의 발달 이해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4	2013	경상남도 진주시	가족소통캠프	아빠와 자녀 캠프를 통한 가족 소통 촉진 및 도모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65	2014	경상남도 진주시	청소년 토요일당	다양한 캠프를 통한 주말 청소년 활동 도모			○	○									체육시설센터		○	
66	2013	경상남도 양산시	가족의사소통캠프	미니올림픽,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의 소통 및 관계 개선			○	○		○									○	부모-자녀 간 세대통합

연 번	시행 연도	지법정부	정책 과제 명칭	시행 내용	정책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전달방식		비고		
					유아	초	중	고	청년	성인	노년	노년	소외계층	학	청소년	지	기	인프라	체험/단기	상			
67	2014	경상남도 사천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주민이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 제공			○	○		○							○	○					
68	2016	경상남도 사천시	행복플러스가족캠프	가족 사랑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및 가족 캠프	○					○								○					
69	2015	경상남도 남해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지도를 위한 자녀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						○								○					
70	2015	경상남도 거창군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자녀이해하기, 의사소통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									○				
71	2016	경상남도 함안군	직장인 부모를 위한 자녀소통 집단상담	자신과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72	2013	제주도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지원	전통문화경연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 및 청소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		○							○						
73	2013-2014	제주도	제주시 청소년 제주사랑 아영대회 지원	캠프 참여를 통해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 기회 제공			○	○	○									○	○				
74	2014	제주도	제주시 주5일 수업제 대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										○		○			
75	2013-2014	제주도	제주시 청소년 통 큰 페스티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활동 증진 및 시설 운영 활성화			○	○		○									○				
76	2013-2016	제주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청소년들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			○	○		○								○					
소 계					0	7	60	59	2	40	15	2	1	3	0	8	38	49	6	20	65	7	41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4b, 2015b, 2016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각년도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진이 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세대통합 및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정책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법령 분석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실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과 직결되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성(人性)을 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은 범부처 종합계획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되어 실시하였다. 먼저 범부처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발표된 다양한 정책에 광범하게 세대통합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될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정책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사업내용, 정책대상, 전달체계, 전달방식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노인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들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대통합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달 방식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정책 사업들은 일회성 체험이나 단기교육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 IV 장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의 개요
2.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3.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4. 동영상을 활용한 세대공감활동,
메모로 프로그램
5.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세대공감활동,
「동네한바퀴in종로구」
6. 요약 및 시사점

제 IV 장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례들이 무척 다양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령화 및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대 공감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은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홍영란 외, 2013: 105). 이들 프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관 기관이나 인접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룬다(홍영란 외, 2013: 105).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내용이나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 중 다수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인형극, 음악회 같은 공연 행사를 어린이·청소년과 나이든 세대가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나 1·2·3 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혹은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젊은 세대가 노인시설에 방문해서 몸이 편찮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돌보는 프로그램도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시행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한편,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세대통합교육 사례 중에는 효(孝) 사상 회복의 관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세대통합교육이

* 이 장의 1절, 2절, 5절, 6절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신혜연(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4절은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다.

전통적인 경로사상이나 효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프로그램들도 서로 다른 세대와의 접촉·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세대와의 접촉기회를 갖는 것은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제고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확대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사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 선정에 위해 고려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단순 접촉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나 교·강사 등 전문가의 강의 중심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대 간 활동의 내용으로 특정 세대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사례는 제외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세대통합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이든 세대에게 무조건 젊은 세대의 방식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정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접근 방식은 세대통합이 마치 공여자와 수혜자가 구분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례 선정에서 제외했다.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특정 세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 내에서 세대 간 특성을 고려해 적절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했다. 세대 간 역학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갖는 데 광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특정 세대가 주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청소년수련관, 지자체 등 기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그림 IV-1] 참조).



【그림 IV-1】 분석 대상 사례 선정의 기준

상술한 기준을 적용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에서 실시된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intergenerational community actio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 및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온 영국의 베스존슨 재단(Beth Johnson Foundation)에서 운영한 사업으로,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간 연계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례로 판단되었다. 둘째,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추진해 온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정부, 대학,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메모로(Memoro) 활동이다. 메모로는 해외에서 시작되어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의 접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국내에서 실시된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례는 민간영역에서 추진된 사례로서, 주니어와 시니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사례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및 실천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보다 최근에 실시된 국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각 사례별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도입·운영의 배경 또는 개요를 개괄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 후,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 검토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사례가 <표 IV-1>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1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번호	대상 국가	사례명	주요 특징
1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노인문제 및 고령화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베스존슨재단에서 운영
2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 • 대학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3	세계 18개국	메모로(MEMORO)	•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하게 시행 • 기업과의 연계 용이 • 한국에서도 시행 중이며,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수련관과 연계 운영
4	한국	‘동네한바퀴in종로구’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주니어와 시니어 세대의 교류 • 서로 다른 세대가 대등한 역할 분담 •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2.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Intergenerational Community Action)」 프로그램²¹⁾

1) 배경

뉴캐슬언더라임(Newcastle-under-Lyme)은 영국의 스태퍼드셔 주(州)에 위치한 작은 도시다(위키백과, 2016.10.15.검색).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6년 925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200만 명, 2061년에는 1,4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16세 미만 인구는 1996년 1,200만 명에서 2061년 1,000만 명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Hatton-Yeo & Watkins, 2004: 5). 고령화로 인한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Hatton-Yeo & Watkins, 2004: 5).

영국의 세대 간 갈등은 인구학적 변화 외에 사회적·경제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붕괴하고, 지역사회 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 특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에 긍정적인 접촉을 경험할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중공업이 크게 위축되어 실업이 증가했다(Hatton-Yeo & Watkins, 2004: 5). 이 같은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안겨주었는데, 일례로, 최근에는 노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여전히 사회에 부담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Hatton-Yeo & Watkins, 2004: 5).

이에 영국에서는 사회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을 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대 간 관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해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Hatton-Yeo & Watkins, 2004: 5).

21) 여기에서 소개된 내용은 “Hatton-Yeo, A. & Watkins, C.(2004). Intergener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A Practice Guide, Stoke-on-Trent, U.K.: Beth Johnson Foundation.”의 내용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이 자료는 <http://www.ifa-fiv.org/wp-content/uploads/2015/03/6-Beth-Johnson-Foundation.pdf> 에서 2016.09.11. 인출하였음.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에서 실시된 세대 간 활동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캐슬언더라임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세대 간 활동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탐색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내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베스존슨 재단(Beth Johnson Foundation)이 프로젝트 관리의 역할을 맡았다(Hatton-Yeo & Watkins, 2004: 9-10).

2) 주요 내용

(1) 사전 준비

① 지역사회 정보 수집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 지리, 경제를 비롯해 기존의 지역사회 사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전,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이들 집단을 만났는데, 이러한 역할도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업무로 설정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 또 세대 간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프로그램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었다(Hatton-Yeo & Watkins, 2004:11).

②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달리 추진되었다. 먼저,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인지 요양 시설에 있는 노인인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인지 여부에 따라 모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Hatton-Yeo & Watkins, 2004:12). 단, 이 프로그램이 학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시니어와 주니어, 양 세대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학교 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Hatton-Yeo & Watkins, 2004:12). 아울러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Hatton-Yeo & Watkins, 2004:9)

- 참가자들의 배경을 고려하고, 그러한 배경이 프로그램 참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인지한다.
- 참가자 모집을 위해 적절한 프로모션과 홍보물을 활용한다.
-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 그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에 관해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 예상되는 참가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워크숍 횟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현실적으로 관련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지 접근 가능성을 비롯해, 여타 프로그램 지원 수단에 대해 고려한다.
- 참가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려한다.

출처: Hatton-Yeo & Watkins(2004). p.9의 "Recruiting and Valuing Participants" 내용을 번역하여 제시.

○ 청소년 모집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12~16세 청소년들이 주된 참여자였고, 기본적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에 대한 참가자 모집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일단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에는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확인한다. 이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청소년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청소년들은 1개 그룹 당 1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Hatton-Yeo & Watkins, 2004:12).

○ 시니어 모집

프로그램에 참가할 노인 세대는 다양한 통로를 거쳐 모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주요한 활동가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운동이나 프로그램은 소수의 활동가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 사정이나 여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하는 것이 참여자 모집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제 모집은 상점 교회, 친목 모임, 노인 시설 등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청소년 모집과 마찬가지로, 워크숍의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는 등 프로그램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주효했다(Hatton-Yeo & Watkins, 2004:12-13).

(2) 프로그램 운영

① 워크숍 전 세대별 모임

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함께 모이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모임을 갖는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세대에게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을 알아본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제시되는 의견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Hatton-Yeo & Watkins, 2004:13).

② 워크숍

각 세대 간 모임을 가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세대 간 워크숍은 격주로 개최되었으며, 1회당 1시간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와 같다(Hatton-Yeo & Watkins, 2004:13-14).

표 IV-2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통합 워크숍 프로그램

회차	주요 내용	설명
1	노인 참여자들과의 만남	- 프로그램 소개 -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 탐색
2	청소년 참여자들과의 만남	프로그램 소개 및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 탐색
3	세대 간 첫 만남	- 그룹 약속 정하기 -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논의
4	우리 마을의 좋은 점, 마을지도 그리기	친구 만날 때 가는 곳, 햇볕이 좋을 때 가는 곳,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 등 지역사회 장소에 대해 논의
5	마을 사진 찍기	지역사회에서 좋아하는 것들, 변화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
6	사진 탐구하기	사진 찍은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
7	투표하기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우리 마을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고, 우선순위 매기기 (예: 마을 시설에 쓰인 낙서, 쓰레기 등)
8	문제점의 원인과 결과 탐구	선정된 문제들에 대해 탐구
9	인력자원 확보	선정된 문제들에 대한 변화/해결책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탐색 및 협력 가능성 타진
10	기관 간 협업	관련 기관들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협업

회차	주요 내용	설명
11	참여형 평가	•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 방법들을 목록화 하고, 예상되는 효과에 따라 순위 매기기
12	전시회 준비	• 환경과 조건을 고려할 때, 전시회 초청 가능한 사람들 리스트업
13	전시회 준비	• 전시회 개최 준비
14	전시회 개최 및 기념행사	• 전시회 및 기념행사(동료, 가족, 친구, 지역사회 활동가, 교사,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기념행사)
15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	• 그룹 전체의 최종 평가 시간 • 일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일대일 면접 실시

출처: Hatton-Yeo & Watkins(2004). pp.13-14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① 세대 간 이해 증진

Hatton-Yeo & Watkins(2004: 14-15)에 따르면, 세대 간 프로그램은 연령차별주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다른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학습 수단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으로 보고한다.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안 쓴다”거나, “노인들은 성격이 안 좋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 상호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워크숍이 진행되고 실제로 교류·협력하는 경험이 거듭됨에 따라, 긍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Hatton-Yeo & Watkins, 2004: 14). 아울러 워크숍 내용 중 하나로 실시된 ‘지도그리기’ 같은 활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Hatton-Yeo & Watkins, 2004:14). <표 IV-3>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소감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3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소 감
•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딱딱거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노인들도 재미있을 수 있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어르신들도 모두 젊은 시절이 있었다.” • “그들은 무척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노인 이름]와 함께 한 것이 좋았다.” • “열세 살짜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아이들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우리를 비난하지 않은 젊은이들과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이 워크숍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다.”

출처: Hatton-Yeo & Watkins(2004), p.15.

②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들이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4). 또한 청소년과 노인처럼 기존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던 이들도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6).

(2) 시사점

① 지역사회 중심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접점을 기반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니어 세대 역시 마을 포럼에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6).

이처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데 서로 다른 세대가 협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기 때문에, 두 세대는 단순히 ‘접촉’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세대 간 교류·협력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을 중심에 둬으로써, 세대 간 교류·협력을 단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공경해야

한다는 도덕적·당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생활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② 학교와 연계한 운영

학교 현장과 연계해서 운영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협조가 요구되었다. 학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들에 내재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중 한 곳은 이미 노인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 기회가 된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2). 이 같은 학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준비 단계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atton-Yeo & Watkins, 2004: 12).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주변 자원과의 연계·협력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에서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활동가를 비롯해 지역 내 공공기관 등 유관 자원들과 연계·협력했던 점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주효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2).

아울러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일부 시니어 참가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는데, 이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Hatton-Yeo & Watkins, 2004: 16).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유사한 프로그램 참여나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지역사회 내 인력이나 기관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④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

뉴캐슬언더라임 지역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디네이터는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갖는 등 참가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Hatton-Yeo & Watkins, 2004: 11). 또한 이전에 수행된 여타 사업을 통해 이미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해 실무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Hatton-Yeo & Watkins, 2004: 11).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적정 규모의 그룹 인원수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실무적 차원의 개선점으로 시니어-주니어로 구성된 활동그룹의 적정 규모에 관해 각별히 언급하고 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는 1개 그룹 당 구성원을 10명으로 설정했으나, 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Hatton-Yeo & Watkins, 2004: 15). 그룹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그룹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례연구 보고서에서는 가장 적정한 그룹 크기를 4~5명으로 제안하고 있다(Hatton-Yeo & Watkins, 2004: 15-16). 이 같은 정보는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 구안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²²⁾²³⁾

1) 배경²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이하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PSU가 추진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홍영란 외, 2013: 158). PSU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및 지역 카운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데(홍영란 외, 2013: 158), 펜실베이니아 주의 67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PennState Extension 홈페이지, 2016.8.30.인출). PSU는 펜실베이니아 주 전역에 걸쳐 다수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과 카운티 단위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의 자원을 활용해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ennState Extension 홈페이지, 2016.8.30.인출).

PSU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①축산(Animals), ②식물 및 방제(Plants & Pests), ③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④지역사회 및 비즈니스(Community & Business), ⑤식품 및 건강(Food & Health), ⑥청소년 및 가정(Youth & Family)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은 ‘청소년 및 가정’ 분야를 구성하는 4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PennState Extension 홈페이지, 2016.8.30.인출).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세대 간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의 사회적·지역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PennState Extension 홈페이지, 2016.8.30.인출).

22) 이 절은 신혜연(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이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다.

23) 이 내용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 내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홈페이지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 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24) 프로그램 배경에 관한 내용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 홈페이지 <http://extension.psu.edu>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총 8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V-4> 참조).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교류를 통한 환경교육', '지역사회계획', '기술을 이용한 세대 간 교류' 등 3가지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표 IV-4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부 영역

프로그램	주요 목적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 환경에 대한 이해 • 건강한 삶과 야외 활동
지역사회 계획 (Community planning/visioning)	•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 이슈에 관한 발전적 토론 참여
농가 전수 계획 (Farm families continuity planning)	• 농가의 소유권 이전 계획 수립 • 농촌지역 가정의 가족관계 이슈 등 가족 간 대화 증진
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 노화 및 생애발달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 증진 • 노인들이 유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제고
영양 및 건강 (Nutrition & Health)	• 영양에 대한 지식 제고 • 건강한 생활양식 향유
손자녀 양육 지원 (Support for kinship care families)	• 손자녀를 비롯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지지 제공
세대 간 교류를 통한 ESL교육 (An intergenerational approach to ESL education)	•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자격증을 보유한 노인세대와 영어실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소)년 세대를 연계하여, 외국어 실력 향상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도모
기술을 이용한 세대 간 교류 (Using technology to connect generations)	• 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출처: PSU 사회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에서 2016.8.30. 인출하였으며, 웹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1) 세대 간 교류를 통한 환경교육²⁵⁾

① 프로그램 개요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외부기관인 ‘Generation United²⁶⁾’와 PSU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청소년 등 젊은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PSU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과 은퇴 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인구 증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협력하는 기회를 갖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참여 가능하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 어린 세대와 노인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

• 협업 기관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PSU에서 예시로 제안하는 협업기관으로는 환경단체, 건강관련 단체,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학교, 청소년 관련 조직(예: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시설, 스카우트 등), 성인교육단체(예: 로터리클럽 등),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민회관, 노인시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프로그램 구성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주요활동을 포함한다(<표 IV-5> 참조). 이들 3가지 주요 활동들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25) 여기 제시된 내용은 PSU 사회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Kaplan & Liu (2004)의 “Generations United fo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과 Generation United(2006)의 “Fact Sheet: Environmental Health for All Generations”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26) ‘Generation United’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 간 전략,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100개 이상의 세대통합 관련 기관·단체(연방, 주, 지역 단체 등)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Generation United’는 정책 입안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http://www.gu.org>에서 2016.08.25.검색)

표 IV-5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주요 내용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취 (promoting awareness)	• 환경 문제에 관한 대화 나누기 •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증진을 위한 소셜마케팅 캠페인 •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술 프로젝트 •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하는 각종 이벤트/행사
조사 실시 (conducting research)	•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자연자원에 관한 지도 그리기 • 수질 모니터링/ 곤충 채집 • 지역사회 토양의 산도(pH)와 배수 상태 측정 • 정부 담당자와의 회의 또는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 환경운동가 대상 인터뷰
실행 (taking action)	• 봉사학습 및 자원봉사 실시(예: 산책로 재건, 개울가 청소 등) • 특별 이벤트 실시(예: 지구의 날 행사 등) • 멸종 위기 및 희귀 동식물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 마련 • 집회나 시위 등 공개 행사 개최 • 관심 있는 사람들 결집 및 조직화(예: 포럼 개최, 입법 추진, 청원 등)

출처: Kaplan, M., & Liu, S. (2004). Generations United fo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 Washington, DC: Generations United, 9쪽의 Table.1.

• 운영 사례

그 동안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운영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PSU에서 적용한 모델로 ‘세대통합을 위한 야외 학교(Intergenerational Outdoor School)’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환경단체와 PSU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과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총 4일 동안 실시되었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노인 참가자 모집을 위해 지역사회 내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활용했다. 프로그램 참가에 관심이 있는 노인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으며, 참가를 확정지은 사람들로 대상으로는 환경교육 커리큘럼, 진행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추가 워크숍을 2-3차례 진행하였다.

<표 IV-6>에는 실제 진행되었던 ‘세대통합을 위한 야외 학교(Intergenerational Outdoor School)’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각 회 차마다 참가자들이 자연환경을 주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팀의 리더 혹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토론을 이끌고,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요체이다.

표 IV-6 「세대통합을 위한 야외 학교(Intergenerational Outdoor School)」 프로그램

회차	일정	주제
1회차: 호수 걷기(Lake walk)	1일차 오후	• 팀 구성 및 주변의 자연환경 탐색
2회차: 자원(Resources)	2일차 오전	• 다양한 자연자원 탐색(예: 땅, 햇빛, 물 등)
3회차: 생물 탐색(Living things)	2일차 오후	• 다양한 동물 탐색(예: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
4회차: 순환 (Cycles)	3일차 오전	• 자연자원의 순환(예: 물의 순환, 질소의 순환 등)
5회차: 내가 사는 지역	3일차 오후	• 지역 내 자연의 역사 탐색
6회차: 지역사회 모임 (Community meeting)	4일차 오전	• 시민 참여

출처: Kaplan, M., & Liu, S. (2004). Generations United fo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 Washington, DC: Generations United, 38쪽.

• 세대통합 효과

PSU에 따르면, 상술한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봉사자들 덕분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노인 참가자들 역시, 봉사를 하는 보람 외에, 학습자로서, 롤 모델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Generation United, 2004).

(2) 지역사회계획(community planning)²⁷⁾

① 프로그램 개요

지역사회계획(community planning)이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철수 외, 2009;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2016.10.18.인출). 여기에는 목표설정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욕구의 파악, 목표의 설정, 소요 기간, 각종 사회자원의 활용방법,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 마련 등이 포함된다(이철수 외, 2009;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2016.10.18.인출). PSU의 세대통합을 위한 지역사회계획 프로그램은 이 같은 활동을

27) 여기 제시된 내용은 PSU 사회교육 홈페이지의 지역사회 계획 및 비저닝 웹페이지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세대통합과 접목시킨 것이다. PSU의 세대통합적 지역사회계획은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지역과 지역개발에 관한 이슈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PSU에서는 세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Case 1: 헤리티지 서클(Heritage Circles)²⁸⁾

헤리티지 서클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과 역사공부를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참가자들은 지역의 고유한 유산에 대해 알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며, 노인 참가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삶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소통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헤리티지 서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운영된다(<표 IV-7> 참조).

표 IV-7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는 「헤리티지 서클(Heritage Circle)」 프로그램

단계	주요 내용	설명
기획	어르신 참가자 모집	•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르신 모집
	사전 기획 회의	• 여러 차례의 사전 기획 회의를 통해, 지역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 목록 작성 • 선정된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및 교육자료 수집 방안 검토 • 개인별 관심사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역사 및 문화유산 주제 배분
운영	참가자 자리 배치	• 어린이와 노인 참가자 자리 배치 - 이때, 어린이와 노인 참가자 수가 동일할 경우 원형으로 1:1배치 - 어린이 참가자 수가 노인 참가자 수보다 많을 경우, 원형이 아니라 한 줄 형태로 서서 서클 운영
	어르신들의 설명	• 노인참가자가 준비한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설명
	서클 이동	• 설명이 끝나면, 어린이가 옆 자리 노인참가자에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서클 이동 실시

28) 여기 제시된 내용은 PSU 사회교육(Extension Program) 내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홈페이지 헤리티지 서클에 관한 내용으로,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heritage-circles> 에서 2016.8.30. 인출하였음.

단계	주요 내용	설명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경우, 이들의 도움을 받아 참가자별로 서클 운영에 대해 비구조화 된 방식으로 인터뷰 또는 토론 진행

출처: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heritage-circles>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으며, 2016.08.30. 검색하였음.

• Case 2: 세대통합포럼(Intergenerational Unity Forums)²⁹⁾

세대통합포럼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needs)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 노인 단체, 지자체, 시민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와 집단,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포럼을 구성한다. 세대통합포럼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포럼 구성] 세대통합포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내 단체/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술한 단체나 기관들을 비롯해, 은퇴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이 포럼의 참가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할수록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보다 풍부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의 다양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포럼 진행] 세대통합포럼을 통해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주요 이슈들(예: 여가 기회의 불균형, 지역경제 침체, 인구 변화, 사라져가는 문화와 전통, 약물중독·범죄, 교육 문제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 같이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그런 다음,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세대통합적 접근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세대통합 전략은 서로 다른 세대들 간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노인 세대에게 모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성과 산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여기에 적용할

29) 여기 제시된 내용은 PSU 사회교육(Extension Program) 내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홈페이지에 소개된 세대통합포럼에 관한 내용으로,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intergenerational-unity-forums/intergenerational-forums>에서 2016.8.30. 인출하였음.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산출이 포럼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권장된다.

(3) 기술을 이용한 세대 간 교류³⁰⁾

① 개요

정보·기술은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IT를 비롯한 최신 기술 활용에 능숙한 반면, 나이드 세대는 관심 수준이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기술(technology)은 세대 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구성원들을 결집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Kaplan et al., 2013). PSU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바로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기술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대통합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Kaplan et al., 2013). 이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술을 접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비교적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46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서 PSU 사회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³¹⁾ 이 같은 내용은 유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 운영 방법

기술을 이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IT 기술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1개국의 46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들 프로그램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46개 프로그램 중 43개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되었다(Kaplan et al., 2013).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 비디오 및 오디오 제작 소프트웨어 사용, 태블릿PC와 같은 디바이스나 전자 칠판 등도 사용되었다(Kaplan et al., 2013). 그 밖에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나 온라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예: Dropbox, Google docs, Google hangout 등)도 활용되었다.

30) 여기 제시된 내용은 PSU 사회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Kaplan, M., Sanchez, M., Shelton, C., & Bradley, L.(2013)의 “Using Technology to Connect Generations”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31) 상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technology/using-technology-to-connect-generations-profiles>를 참고하기 바란다.

- 운영 주기

프로그램 운영 주기는 매주 운영되는 사례가 26개 중 13개로 28.3%를 차지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1달에 2~3회가 19.6%, 연간 6~11회가 15.2%, 매일 운영하는 사례가 15.2% 등으로 파악되었다(Kaplan et al., 2013: 16).

- 운영 시 주의사항 : 세대 간 역학관계의 균형 유지

IT 기술을 이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할 점은 세대 간 역학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보다 기술에 더 민감하고, 일상생활에서 각종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IT 기술을 이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젊은 세대가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PSU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선별된 46개 프로그램 중 30%가 젊은 세대가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고, 노인 세대가 선생님이로 참여한 사례는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술을 사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습득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술을 매개로 서로 다른 세대가 협력하는 경험이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다수의 프로그램 들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지 않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리하여 각자 보유한 능력을 활용해, 전자책, 동영상 등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는 자칫하면 젊은 세대가 프로그램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프로그램에서 노인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③ 성과

기술을 활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기술사용에 관한 지식 획득은 물론,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세대통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대 간 소통이 증진되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참가자들은 서로의 능력과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관계가 돈독해졌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해소의 기회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보다 존중하고 되고,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연령차별적인 메시지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세대 간 이해가 증진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으로 세대 간 유대감이 강화되고, 어린이나 젊은 세대는 노인들에게 인터넷 사용기술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알려주면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을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 함께 협력하며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세대 간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PSU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8개 프로그램 중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3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 간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주 정부 및 카운티 정부를 비롯해,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기관들과 연계·협력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Generation United’와 협력하였고, 세대통합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PSU 내 유아교육센터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다. 세대통합포럼 역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가 포럼 운영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한 PSU의 사례는 무척 좋은 모델로 볼 수 있다. 대학 내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안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에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평생교육시설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학은 이미 강의실 등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PSU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시작되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PSU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은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및 관련 카운티 정부들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다. 정부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허브가

구축되고 축적된 자료나 프로그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될 수 있었다.

셋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기저에 ‘지역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가 협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탐색하고 문제점을 고민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지역사회 모임(community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션도 포함되어 있다. 헤리티지 서클 프로그램 역시 노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어린 세대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돌아보도록 구성되었고, 세대통합포럼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가 단순히 만나고 접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는 자연스럽게 협업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은 세대 간 협력을 일상적 삶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세대 간 교류·협력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세대통합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큰 담론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 동영상 활용한 세대공감활동, 메모로(MEMORO) 프로그램³²⁾

1) 배경 및 개요³³⁾

메모로는 앞 세대의 기억을 ‘사회적·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비영리 단체 활동이다(이상준 외, 2015: 32). 2007년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시작된 메모로는 라틴어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제작된 어르신들의 기억이 주제나 유형에 따라 보관되고 축적된다는 의미에서 ‘기억의

32) 이 절은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추가·보완하였다.

33) 여기 제시된 내용은 이상준 외(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pp.31-37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은행'으로 불리고 있다(이상준 외, 2015: 33). 2008년 6월 메모로 활동의 결과물인 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2009년 9월부터 이탈리아의 비영리 단체인 '기억의 은행'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메모로는 해당 사업의 공식성을 인정받아,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하에 인터넷 서버 운영과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상준 외, 2015: 32-33).

메모로 활동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이탈리아 본부를 비롯해 2008년 스페인, 카탈루냐, 독일, 2009년 일본, 프랑스,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이 합류하였고, 2010년에는 베네수엘라, 카메룬, 푸에르토리코가, 2012년에는 그리스, 폴란드, 2013년에는 핀란드, 벨기에, 칠레 등이 가입하여 현재 가입국은 총 17개국에 이른다(이상준 외, 2015: 35).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메모로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41,600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위트니스(witness)의 평균 연령은 81세이며, 그 수는 2,547명이고, 참가자의 성별은 남자가 59.13%로 여자의 40.87% 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40~60대가 약 40%를 차지한다(이상준 외, 2015: 34-36).

각국에서 지금까지 메모로 활동을 통해 총 4,500편 정도의 동영상과 사진이 제작되었는데, 2008년 6월 이후 2,547명의 어르신으로부터 축적된 기억의 총 분량은 약 8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준 외, 2015: 34-35). 2008년 6월 이후 페이지 뷰 수는 11,859,246에 달한다(이상준 외, 2015: 36).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2013년부터 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에 한국에 시범 도입된 이래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메모로 코리아 사이트가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이상준 외, 2015: 37, [그림 IV-2] 참조).



출처: <http://www.memoro.org/kr-kr/> 에서 2016.10.13. 인출.

【그림 IV-2】 메모로 코리아 사이트

기존의 세대 간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취약하고 소극적·피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많았던 반면, 메모로 활동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존중의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모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메모로 활동을 위한 제작 방법과 투고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각국에서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런 다음 메모로 활동의 성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운영 방법: 기억동영상의 수집 과정³⁴⁾

(1) 기억 수집가(Memory Seeker)의 투고 단계

메모로 활동의 요체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가진 젊은 세대가 인터뷰어(interviewer)인 ‘기억 수집가(Memory Seeker)’가 되어 어르신들의 과거 삶의 기억을 5분 정도의 인터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메모로 사이트(<http://www.memoro.org>)에 탑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억동영상의 수집과 축적은 기억 수집가의 동영상 투고로부터 시작된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누구나 기억수집가가 되어 어르신들의 기억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투고할 수 있다. 투고한 동영상, 음성, 사진 및 기억을 구술해 준 어르신은 기억 수집가에게 부여되는 전용페이지에 표시된다. 또한 모든 기억수집가는 각 기억수집가의 관리페이지에서 투고한 기억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억수집가는 자신이 관심 있는 테마를 작성하여 테마에 맞는 기억을 등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기억을 발표하게 된다. 메모로 동영상 촬영과 투고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표 IV-8> 참조).

34) 여기 제시된 내용은 이상준 외(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pp.38-45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표 IV-8 메모로 동영상 촬영과 투고의 순서

단계	내용
1단계 유저(User) 등록	• 메모로 코리아 사이트(http://www.memoro.org/kr-kr)에서 실명으로 가입 (본인 사진 포함) • 유저로 등록한 후 사이트에 기억 동영상 투고
↓ ↓ ↓	
2단계 촬영 약속	• 메모로 활동에 대해 설명,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듣는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 부탁 • 촬영 일자와 시간 결정(약 2시간 권장) • 촬영 장소 결정 -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 권장(자택 등) • 사전 설명할 때 이야기 해 두면 좋을 것들 - ‘촬영물 배포동의서’를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함 - 1개 주제에 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촬영. 여러 개의 주제도 가능함을 설명 - 생년월일 확인 → 촬영 메모지 활용(〈표 IV-11〉 참조) -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지, 무엇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지 확인
↓ ↓ ↓	
3단계 촬영 당일 준비물	•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화기능이 있는 노트북, 기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음성녹음의 경우는 음성 레코더 등 음성 녹음이 가능한 것) • 삼각대를 활용하면 안정된 동영상 촬영에 유리함(없다면 책상 위에 책을 쌓아놓고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함) • 촬영물 배포동의서 • 촬영 메모지 혹은 메모 노트
↓ ↓ ↓	
4단계 녹화	• 사전에 대본을 준비하고 리허설 촬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촬영 가능 i) 카메라 위치 설정 -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카메라 설치. 특히 외부 마이크의 경우 카메라를 뒤편에 둘 수 있는 한 인터뷰 대상자 1미터 이내에 가까이 설치 - 방안의 조명이나 창문 밝기를 확인. 인터뷰 대상자의 뒤쪽이 너무 밝으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창문의 위치를 고려하여 촬영 - 삼각대 등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고정시켜 설치 -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찍어야만 할 경우 팔을 고정시키고 카메라의 줌 기능은 사용하지 않음 ii) 사전에 촬영 테스트 실시 - 실제 촬영하기 전에 그 장소에서 촬영 테스트를 해본 후 재생을 통해 확인 * 화질 상태 확인 * 화면 비율은 16:9 나 4:3 권장 * 어르신의 얼굴이 명확하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 * 음성 녹음 확인 iii) 본 촬영 - 촬영 중에 카메라는 반드시 고정시키고 이야기를 차분히 듣는데 집중

단계	내용
	- 인터뷰어의 질문을 넣고 싶을 때는 마이크를 향해 확실하게 큰소리로 질문 - 5분 정도로 완결된 인터뷰 동영상 한 개의 파일로 잘 만들어졌다면 편집할 필요는 없음. 녹화 개시/종료 버튼을 눌러 이야기 주제별로 파일 구분 - 사전에 결정해 놓은 제목을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보다 더 순조로운 촬영 가능 (예: “그러면, 『처음 텔레비전을 보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촬영 개시. 이야기가 일단락되면 종료 버튼)
	↓ ↓ ↓
5단계 동영상 파일 준비와 투고 준비	• 파일 형식 자유 • 파일명은 알파벳 소문자, 숫자를 혼용, 띄어쓰기는 하지 않음 • 화면 비율은 4:3(640×80) 나 16:9(1280×720, 1920×1080). 현재 메모로 동영상 재생 윈도우는 16:9 비율 • 한 편의 동영상은 5분 전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동영상 투고 가능 • 인터뷰하는 사람의 음성 삽입 가능 • 편집 시 인터뷰하는 사람의 구두질문을 자막으로 처리하거나, 보충사항의 자막 제공 또는 어르신이 제공한 사진을 별도의 화면으로 넣거나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오프닝 타이틀, 화자의 이름과 생년을 첫 화면에 수록
	↓ ↓ ↓
6단계 동영상 파일 투고	• 로그인 한 후 동영상 파일을 투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투고 • 투고 화면에서의 「태그」관련 사항 - 태그는 동영상 검색을 위한 관련 단어들 - 이야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어도 동영상과 관련되는 단어를 포함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단어를 태그에 넣어 주는 것이 검색하기 좋음

출처: 이상준 외(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43-45쪽, <표 III-3>.

동영상 촬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기억 수집가는 메모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후, 어르신의 귀중한 기억을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 어르신에게 잘 설명해야 하는데, 기억 수집가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이야기하시는 어르신으로부터 메모로 활동에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준 외, 2015: 38). 이를 위해 기억 수집가는 가급적 적극적이고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섭외하고,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기억의 내용으로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산이 되는 ‘옛날의 추억거리’로써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미래에 연결시킬 만한 내용을 선정한다(이상준 외, 2015: 38). 아울러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는 동영상이므로,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상준 외, 2015: 38).

특히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은 ‘촬영물 배포동의서’에 어르신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이상준 외, 2015: 38). 메모로의 ‘촬영물 배포동의서’는 투고된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메모로가 투고된 영상물을 배포하고 활용할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의미한다(<표 IV-10> 참조).

이야기 거리의 내용은 5분 정도의 동영상 길이에 맞도록 기억 수집가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이야기 거리의 범위와 주제를 한정해야 한다(이상준 외, 2015: 38). 메모로에서 권장하는 이야기 거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예시가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9 메모로 이야기 거리의 범위

주제	구체적 이야기 거리
음식	음식/ 음료/ 레시피/ 그 외
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 외
역사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일제 강점기/ 이산가족/ 경제성장/ 재해, 재난/ 그 외
장소	고향/살았던 곳/ 여행지/ 그 외
사회·생활	생활(의·주)/ 가족/ 동료, 친구/ 연애, 결혼/ 취미, 오락/ 전통/노래, 민요/ 문화/ 교통기관, 교통수단/ 병/ 사회적인 사건/ 그 외
직업	사라져가는 직업/ 가업/ 근로자/ 그 외

출처: 이상준 외(2015). p.39 <표 III-1>.

메모로 촬영물 배포 동의서

- 1) 메모로 활동은 메모로의 취지와 의의를 이해하고 동의해 주신 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 메모로에 투고된 인터뷰 영상물은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3) 메모로 동영상 촬영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언제 태어난 분이신지, 어느 때의 기억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인터뷰 대상자의 출생 연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4) 제3자가 제작한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자료 등을 영상 소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 작자의 허가가 꼭 필요합니다.
- 5) 인터뷰를 하는 중에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나 위법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메모로에 투고된 인터뷰 영상물을 메모로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메모로에 있습니다.
- 7) 메모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전자우편	

2015. . .

서명 _____

출처: 이상준 외(2015), p.139.

표 IV-11 메모로 '기억의 은행' 촬영 메모지

메모로 「기억의 은행」 촬영 메모지

인터뷰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인터뷰 대상자에게 「촬영물 배포동의서」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습니까?

※ 반드시 승낙을 받은 후에 촬영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인터뷰 대상자의 성명	
인터뷰 대상자의 생년월일 (투고할 때 필수 입력사항)	
인터뷰 대상자의 프로필	
기억의 가제(1)	
(메모) 이야기 도중 등장하는 고유명사, 잘 모르는 단어 등을 확인합니다.	
기억의 가제(2)	
(메모) 이야기 도중 등장하는 고유명사, 잘 모르는 단어 등을 확인합니다.	
기억의 가제(3)	
(메모) 이야기 도중 등장하는 고유명사, 잘 모르는 단어 등을 확인합니다.	

출처: 이상준 외(2015). p.140.

(2) 메모로의 편집과 공개

1단계에서 기억수집가가 메모로 사이트에 동영상상을 투고하면, 메모로 사무국에서 편집과 공개 작업을 진행한다. 기억수집가가 투고한 동영상 및 음성은 해당 국가의 메모로 사무국에서 메모로의 취지와 특징, 조건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여타 필요한 작업을 거친 다음 해당 국가의 메모로 사이트에 공개한다.

메모로 홈페이지에서는 상술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콘텐츠에 대해 ‘계승된 기억’이라는 항목의 숫자를 부여한다. 이는 동영상의 재생시간을 지칭하는데, 어떤 유저가 올린 동영상을 누군가 보게 되면 그 어르신의 기억이 동영상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승된다는 발상에 기초한 개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수록 ‘계승된 기억’의 숫자는 증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에 게시된 ‘계승된 기억’ 숫자가 16시간 48분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인 어르신의 기억이 그 시간만큼 다른 세대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메모로 프로그램의 특징³⁵⁾

메모로는 유튜브(You Tube)등 다른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첫째, 메모로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옛 기억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다. 둘째, 메모로 투고 영상은 ‘어르신’의 얼굴이 반드시 나오는 인터뷰 영상이어야 하며, 화자(話者)인 어르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은 투고할 수 없다. 셋째, 메모로 투고 영상은 이야기하는 어르신의 태어난 해를 입력하지 않으면 투고가 어렵다. 어르신의 출생연도가 표시되어야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해당 기억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의 길이는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길게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1부, 2부로 짧게 편집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고된 영상은 일단 해당 국가의 메모로 사무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한다. 취지에 맞지 않는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동영상은 ‘촬영물 배포동의서’를 통해 2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승낙을 받은 후 공개하게 된다(<표 IV-10> 참조).

35) 이 내용은 이상준 외(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pp.51-52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 국내 메모로 활동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이지만 메모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메모로 활동은 2013년 참여 준비에 착수하여 2014년 시범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일부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로 활동은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10대 청소년층이 주된 기억수집가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고교 교육과정과 메모로 활동 연계: 서울 S여고

서울 소재 S여고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메모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교 기반(school-based) 세대통합교육 사례로 의미가 있다. S여고에서는 2014년 9월부터 메모로를 통한 세대통합교육을 도서관 협력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14학년도에는 2학년 사회·문화시간에, 2015학년도에는 1학년 기술·가정과 2학년 윤리와 사상 수업시간에 메모로를 교과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고, 2016년에도 1학년 기술·가정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이덕주, 2016: 99).

S여고에서 이처럼 메모로 활동을 동아리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참여 범위 확대와 확대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로 제한되므로, 이 같은 참가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 그것도 교과수업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이상준 외, 2015: 66).

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협력수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면 선생님이 어르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인터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인터뷰는 주로 학교 근처 아파트의 노인회, 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 동네 도서관의 노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이상준 외, 2015: 52).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은 2학년 문과반 총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주당 3차시 수업 중 ‘1.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중에서 ‘1.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단원에서 메모로 활동을 실시하였다(이상준

외, 2015: 69). 총 5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서울S여고 2015학년도 고교2학년 ‘윤리와 사상’ 교과와 연계한 메모로 운영 사례

차시	주요 내용
1차시	• 세대공감교육 메모로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 메모로 활동 운영 방법 소개 • 조 편성 및 앞으로 만날 어르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 주제 정하기 – 4인 1조 편성으로 1개 학급당 총 6개조가 편성되도록 운영 – 따라서 1개 학급당 참여하시는 어르신도 총 6명
2차시	• 인터뷰 할 어르신들에게 어떤 주제로 질문을 할지 상세한 계획 짜보기 • 필요한 경우, 미리 배경지식에 대해 공부하고 자료 수집 • 인터뷰할 때의 자세와 질문방법 등 형식과 내용에 대한 사전 학습 및 준비활동 실시
3차시	•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준비한 질문들을 하면서 인터뷰 장면을 녹화 • 어르신들을 수업시간에 초청하여 수업시간에 인터뷰 진행
4차시	•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제작 및 정리
5차시	• 조별로 제작한 영상물을 함께 보면서 소감 나누기

출처: 이상준 외(2015). pp.69-70에 기술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

S여고의 메모로 활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어르신, 지역사회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경우, 평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르신들이 다시 보였다는 소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이덕주, 2016: 100).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학생들과 정해진 주제에 대해 대등하게 소통함으로써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다(이덕주, 2016: 100).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되었다. 메모로 활동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S여고에서 좋은 교육활동을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이상준 외, 2015: 53). 또한 학생들은 집안의 할머니·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생활했고 일하셨는지 알게 되는 등 윗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이상준 외, 2015: 53-54).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된 프로그램이 세대 간의 공감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통로로 기능한 것이다(이상준 외, 2015: 53-54).

(2) 청소년시설과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사례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은 2016년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메모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사례는 정부의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사업 확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① 운영 체계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협력하여 2016년 메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재원으로 메모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만안청소년수련관 리플렛 참조).

여기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사업기획 및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세대문화 다양성 발굴 및 교류 프로젝트-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사업의 일환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하였다(안양문화예술재단 보도자료, 2016.07.08.).

그 결과, 현재 사업의 재원 및 운영 체계는 국고 지원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주최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사업 운영을 주관하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메모로 코리아가 협력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안양문화예술재단 보도자료, 2016.07.08.).



출처: 만안청소년수련관 내부자료.

【그림 IV-3】 만안청소년수련관 2016년 MEMORO 홍보 리플렛

② 프로그램 내용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2016년 실시하는 메모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가 어르신 세대를 만나 5분 내외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한다는 점은 메모로의 큰 틀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례는 인근 지역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의 유관 학과 대학생들을 ‘세대문화교류 기획자’로 양성하여 사업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메모로 사업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기획자를 양성하여 실제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학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20여명을 모집하여, 관련 교육을 제공한 후 자유학기제 강사로 위촉했다(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공지사향 공고문(2016.4.12)). 이들은 실제로 2016년 2학기 관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강사로 파견되어 메모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그림 IV-4] 참조).

- 세대문화 교류 프로젝트 - 세대교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행 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보면 매우 급진적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급속한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사회 전반의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와 노인세대간의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진행 할 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할 캐비저자들을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총 14회기)
- 활동장소 :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 활동시간 : 금요일 오후 14:00 ~ 17:00 (해당 일자)
- 참가대상 : 청소년학 또는 사회복지 전공 2, 3대학생 20명
- 활동혜택
 -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 명의 수료증 발급
 - 16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메모리 프로젝트" 감사위촉 및 활동 (경력증명)
 - 봉사활동 시간 발급
- 활동내용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

- 대상자 이해교육
- 문화다양성의 이해
-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이해
- 세대문화교류 워크숍
- 세대통합 무지개 파티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강사 활동

- 메모리 운영 준비
- 메모리 프로그램 운영(5회기)

후메모로란? 200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17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활동이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과 지혜를 인터뷰 동영상으로 활동 후 온라인을 통해 세대의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활용도가 높은 활동이다.

- 신청기간 : 2016. 4 11(월) ~ 4. 22(금) 14시까지
- 선정방법 : 모집인원보다 2배수 이상 접수 시에는 4. 30(토) 면접 실시 예정
(2차 면접 심사 : 적극성과 의지력, 활동 이해도 등 평가)
2배수 이하일 시에는 서류심사 평가 후, 합격자 발표
- 신청방법
 - ① 만안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류 다운로드 <http://manan.ayf.or.kr/>
 - ②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작성 및 제출
 - ③ 담당자 E-mail 제출
※ 제출 파일명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ex : 김기문.hwp)
- 결과발표
2016. 5. 2(월)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 문의사항 : 만안청소년수련 2주 사무실 활동사업팀

출처: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공지사항 공고문(2016.4.12.). "[모집] 2016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세대교류 프로젝트"에서 2016.10.18.인출.

【그림 IV-4】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과정 모집 공고문

-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학교와의 연계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인근의 S중학교 및 Y중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메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2학기에 적용되지만 개별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해, 3월 중에 수련관에서 관내 학교에 프로그램 신청 공문을 보내고,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만안청소년수련관 담당자 자문회의, 2016.10.17.). 프로그램 운영 차시는 학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S중학교에서는 7학급을 대상으로, 1차시에 2시간씩 총 4회 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Y중학교에서는 12학급을 대상으로 1회 차에 2시간씩 총 3회 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세대문화교류 기획자’로 양성된 대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강사로 투입되어 운영하는데, 1개 학급 당 2~3명의 강사가 배치된다(만안청소년수련관 담당자 자문회의, 2016.10.17.).

5)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지금까지 살펴본 메모로 활동 사례에 대한 성과 및 시사점은 메모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포착된 시사점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메모로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상호이해의 부족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메모로 활동은 조부모나 부모의 ‘옛 기억’을 들음으로써,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거세대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실제로 메모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과거 이야기보다 어르신들로부터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을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도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만안청소년수련관 담당자 자문회의, 2016.10.17.). 일선 학교에서 메모로 활동을 지도한 지도교사들 역시 메모로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사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활동임을 밝히기도 했다(서울S여고 담당자 자문회의, 2016.10.20.).

둘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현실에서 조부모, 부모세대의 과거 삶과 체험을 구전역사(Oral History)라는 형식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모습에 공감하고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유대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홍영란, 2014.11.4). 셋째, 국가나 지역의 발전이 노년 세대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젊은이들이 자각하도록 돕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 계승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메모로 활동은 대학의 강의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표 IV-13>과 <표 IV-14>에 제시된 메모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활동 소감은 상술한 프로그램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표 IV-13 메모로 활동에 대한 학생 소감

촬영 내용	소감
일제 강점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일제 시대에 대해 역사책에 몇 줄 정도 쓰여 있는 우리 국민들의 옛날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준 분들이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경심이 생겼다”
할머니 학창시절의 추억	“찢어지게 가난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뒷산 아카시아 씨앗을 따서 뽕은 뒤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었으며,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의 기억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 세대 어르신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되었다”

출처: 세계일보(2015.03.20.), [뉴스인사이드] 기억의 은행, ‘메모로’를 아십니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20/20150320002992.html?OutUrl=naver> 에서 2016.7.11.인출하여 표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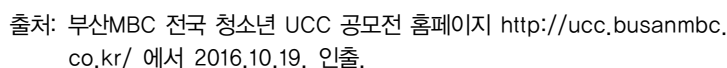
표 IV-14 메모로 활동에 대한 교사 소감

교사 소감
“학생들이 이 수행학습에 만족하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교과와도 연결하면서 어르신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은 없을 것 같다.” “메모로 프로젝트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기억을 영상에 담는 것만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벌어져있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촬영해 온 동영상에는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사가 담겨있어 교사에게도 매우 흥미로웠다.”

출처: 내일신문(2015.12.02.), [영상 기록 프로젝트 ‘당신의 기억을 메모로’]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청소년과 노년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738 에서 2016.7.14.인출하여 표로 재구성.

제 IV 장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157

(2) 시사점

메모로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하여 운영한 서울 S여고와 안양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S여고는 도서관 협력수업의 일환으로 메모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안양 S중학교 및 Y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메모로 프로그램을 적용 중이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로 프로그램은 인성교육과 자유학기제에 모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메모로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단지 직접 운영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기획자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2차 확산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프로그램 확산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기획자 혹은 운영자 양성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청년 세대인 대학생들 기획자로 양성하는 방안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기획자로 참여한 청년 세대에게도 세대 간 교류 및 세대통합에 관한 감수성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안양시 사례는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자체(안양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안양문화예술재단), 지역 사회 청소년 활동시설(만안청소년수련관), 지역 내 대학(성결대학교) 및 중학교(S중학교 및 Y중학교)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시니어 분들을 섭외하여 메모로 사업의 시니어 참가자 모집에 도움을 주었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대학생 기획자 양성 및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였다. 대학은 기획자로 활동할 대학생 모집에 도움을 주었는데, 기획자로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강사로 위촉된 경력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을 얻었다. 이러한 운영 모델은 세대통합에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5.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세대 공감 활동, 「동네한바퀴in종로구」³⁶⁾

1) 배경 및 목적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2013년 가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던 「동네한바퀴in성남」을 발전시킨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가 추진하는 세대 공감 사업 중 하나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도록 돕는 세대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동네한바퀴in성남」이 2013년 추진되었다(허새나, 2016: 7-8). 이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세대 간 교류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와 개선점을 적용하여 확대 발전시킨 것이 「동네한바퀴in종로구」이다(허새나, 2016: 8).

「동네한바퀴in종로구」사업은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을 매개로 이슈를 선정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희망제작소, 2014: 8). 지역 자원의 발견과 지도의 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달성해가면서 세대 접촉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희망제작소, 2014: 8).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허새나, 2016: 8). <표 IV-15>에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5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업목적

사업목적	세부내용
세대 공감 확산	• 일방적, 시혜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 ‘세대공감’문화 확산 •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 확산
지역사회 참여 기회제공	•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진입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공익 활동의 다양화
공동체성 회복	•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회복 •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공공성 확보

출처: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9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36) 이 절은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희망제작소 측 해당 보고서 저자의 동의를 얻어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지리, 위치 등 시니어가 가진 지역사회 정보와 그곳에서 체득한 역사적 경험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방법을 활용해 시니어와 함께 동네 지도를 완성해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세대교류 활동이다(허새나, 2016). 커뮤니티 매핑은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참여, 공유하는 활동으로,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일종의 시민참여형 지도 만들기를 일컫는다(커뮤니티매핑센터 웹사이트; 허새나, 2016: 9에서 재인용).

(1) 준비 과정

① 대상 설정 및 참가자 모집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시니어 세대와 주니어 세대인 청소년을 참여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 특히 청소년에 주목한 이유는 청소년 세대가 지역사회 문제나 세대공감 이슈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며(희망제작소, 2014: 10),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기 때문이다(희망제작소 관계자 자문회의 내용, 2016.9.21.). 커뮤니티 매핑 콘텐츠는 중·고생 모두 참여 가능한데, 주니어 세대 중에서는 중학생이 학업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 의욕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 14~19세를 참여 연령대로 설정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초등학생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한편 시니어 연령대는 40~60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참가자는 40~70대까지 폭넓게 구성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15-18). 시니어와 주니어 참가자는 종로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였고, 시니어 대 주니어 비율은 1:1.5 이상으로 설계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15). 주니어 비율을 50%가량 더 높게 설정한 이유는 GIS실습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상 1:1보다는 1:1.5 이상의 비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희망제작소, 2014: 15-17).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홍보 포스터, 브로셔 및 참고 영상 등이 활용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16). 먼저, 주니어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종로구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관련 청소년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안내 책자 전달 등이 이루어졌고,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는 종로구 마을 커뮤니티 단체, NPO 관계자,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 센터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다(희망제작소, 2014: 16). 아울러, 이 사업의 전신으로 추진되었던 「동네한바퀴in성남」의 동영상도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홍보 자료로 활용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16).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시니어 14명, 주니어 20명 등 총 34명이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었다(<표 IV-16> 참조).

표 IV-16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가자

세대	참가자 조건
시니어 (14명)	• 종로구에 거주하는 40~70대 시니어 • 종로구에 근무하며, 사회참여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시니어 → 남성 7명, 여성 7명/40대 이하 4명, 50대 5명, 60대 이상 5명 참여 (최고령 참가자 77세)
주니어 (20명)	• 종로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종로구 거주 만 14~19세 청소년 →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5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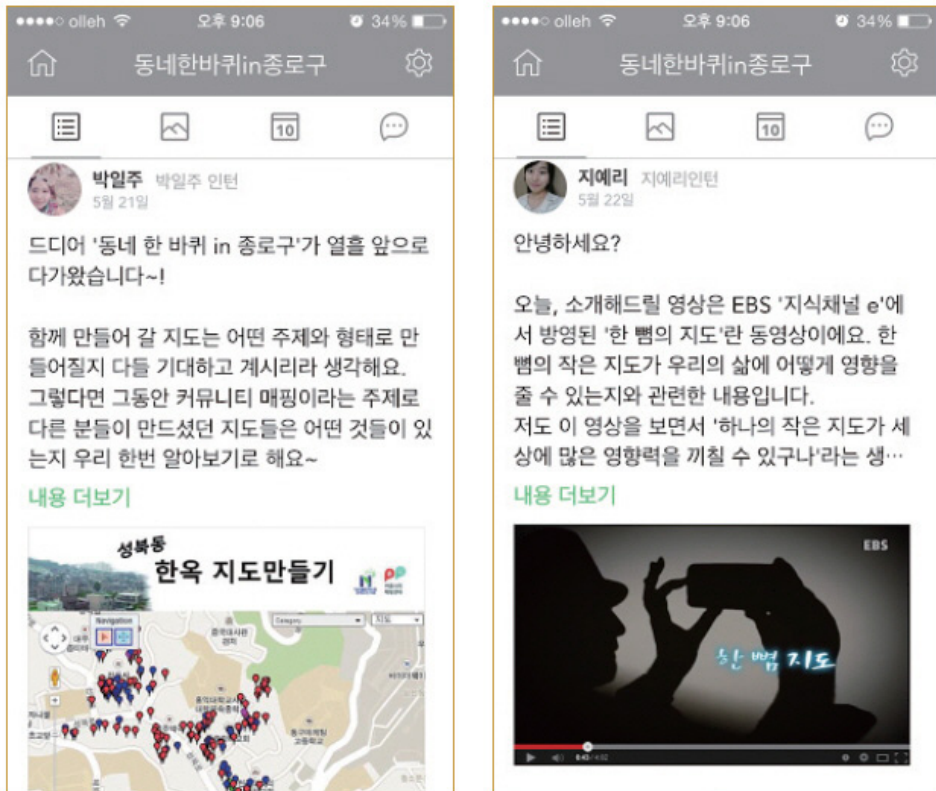
출처: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15쪽 및 17~19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② 지역 선정

이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시 안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적용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 종로구가 고려되었는데, 종로는 서울의 중심구로 북촌과 서촌 등 역사적 자원이 풍부하여 지리적 정보를 담아 지도를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희망제작소, 2014: 11), 이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었다.

③ 사전 신청자 관리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한 신청자들의 참여 욕구를 높이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니어들도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N사의 '밴드')을 활용하였다. 이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21; [그림 IV-6] 참조).



출처: 희망제작소(2014).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21쪽.

【그림 IV-6】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동네한바퀴in종로구」 사전참가자 관리

④ 팀 구성

팀 구성은 5명을 1개조로 편성하였다. 한 팀의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한 것은 모든 인원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희망제작소, 2014: 22). 즉, 이 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그간의 사업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팀원 혹은 소외되는 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두가 어떤 역할이든 부여받을 수 있도록 5명 1조로 편성하였다(희망제작소 관계자 자문회의 내용, 2016.9.21.)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신청 시, 조원 선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서 근무한 시니어를 각 조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지역의 스토리텔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21). 또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니어, 주니어 각 1명 이상씩 배치하여 커뮤니티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21. 아울러, 만들고 싶은 지도의 주제와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편성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21-22).

(2) 프로그램 운영³⁷⁾

「동네한바퀴in종로구」프로그램은 2014년 5월 31일~6월 1일,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 IV-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7 「동네한바퀴in종로구」 프로그램 구성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설명
1일차	09:30	OT/인터뷰	• 인사말(스토리텔링 인터뷰 진행)
	10:00	아이스 브레이킹	• 몸 풀기와 인사 나누기
	11:00	강의	• 세대와 지역을 잇는 ‘커뮤니티 발견’
	12:30	식사	• 점심식사
	13:30	강의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이해: ‘커뮤니티 매핑’이 궁금하다!
	15:00	Team Building	• 시니어, 주니어 더하고, 나누기 (주제, 범례, 장소, 역할 선정)
	17:00	1일차 마무리	• 2일차 일정 안내
2일차	09:30	2일차 안내	• 주사위를 굴려라
	10:00	강의/워크숍	• Celebrate Difference!
	12:00	식사	• 점심식사(미션 전달)
	13:00	현장 실습	•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15:00	실습 공유	• 완성된 지도 공유
	15:10	결과물 정리	• 이그나이트 준비
	16:10	이그나이트	• 결과물 발표하기
	17:00	프로그램 마무리	• 맺음말 및 수상팀 발표(스토리텔링 인터뷰 진행)

출처: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23쪽 및 29쪽 표를 통합하여 재구성.

37) 여기 제시된 내용은 희망제작소(2014). 「동네한바퀴in종로구」 24쪽~34쪽 내용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① 1일차 프로그램

• 아이스 브레이킹(몸 풀기와 인사 나누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스킨십을 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작성해 짧은 시간에 일대일로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 간 친밀도를 제고한다(희망제작소, 2014: 24). 이 시간을 통해 시니어는 주니어에 대해, 주니어는 시니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참가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시니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주니어도 있고, 부모님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주니어도 있었다(지예리, 2014.06.10.).

• 강의: 세대와 지역을 잇는 ‘커뮤니티 발견’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제공되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세대 간의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 등이 소개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24). 이 강의는 작은 것이라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공동체가 함께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였다(지예리, 2014.06.10.).

• 강의: ‘커뮤니티 매핑’이 궁금하다!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만나 커뮤니티 매핑 방법을 이용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요체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1일차에는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소개 강의를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이용해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했던 사례와 커뮤니티 매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25).

• 팀 빌딩 및 역할분담: 시니어와 주니어, 더하고(+) 나누기(÷)

1일차의 주요한 마지막 일정은 팀 빌딩과 팀원 간 역할분담이다. 팀 빌딩에는 지도의 주제와 각 팀원의 역할 선정, 팀명과 팀 구호 만들기 등이 이루어진다. 이 때, 각자 만들고 싶은 주제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상호 이야기를 나눈 후, 제한된 시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지도의 주제를 팀원들끼리 토론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희망제작소, 2014: 25). 그리고 팀원 간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데, 운영팀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사전에 총 5개의 역할을 선정하였다. 5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길을 지배하는 자(길잡이), 맵을 지배하는 자(매플러 활용), 기록을 지배하는 자(사진 촬영 및 밴드 등록), T를 지배하는 자(활동지원비 관리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시간 체크).(희망제작소, 2014: 26). 이처럼 5개 역할을 선정하고 5명의 팀원을 구성함으로써 팀 내에서 모든 팀원들이 1개의 역할을 부여받도록 팀이 구성되었다.

② 2일차 프로그램

• 주사위를 굴려라

본격적으로 2일차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질문에 서로 답하며 팀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제고한다([그림 IV-7] 참조).



출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동네한바퀴in종로구」후기 <http://www.makehope.org/14세-중학생과-77세-할머니의-지도-만들기/> 에서 2016.10.15.인출.

【그림 IV-7】 「동네한바퀴in종로구」 ‘주사위를 던져라’ 활동 사례

• 강의/워크숍: Celebrate Difference!

세대 간 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으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의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심리분석 도구의 일종으로 인간의 행동 특성을 4가지 모델로 설명하는 테스트 기법인 DISC 관계 전략을

적용하여, 각자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배우게 된다(희망제작소, 201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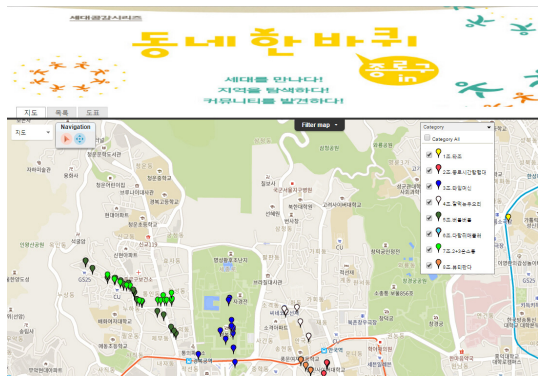
- 커뮤니티 매핑 실시: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2일차에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커뮤니티 매핑을 직접 실습해보게 된다. 실습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따라서 매핑 주제 역시 2시간 내에 가능한 주제가 선정되도록 스텝들이 주제 선정 시 지원한다. 또한 간단한 미션을 부여해서 매핑을 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이루어진 팀 내에서 팀워크도 강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희망제작소, 2014: 30). 매핑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스텝들은 온라인에 업데이트 되는 각 팀들의 사진과 매플러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한다(희망제작소, 2014: 30).



출처: 희망제작소(2014). 30쪽.

【그림 IV-8】 커뮤니티 매핑 실습 사례



출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mapplerk.com/town1060/> 에서 2016.10.15. 인출.

【그림 IV-9】 커뮤니티 매핑 결과물

- 결과물 발표 및 수상팀 선발

매핑 실습이 완료된 후, 팀별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결과물은 총 15장의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한 슬라이드당 20초씩 총 5분 내에 발표하도록 안내한다(희망제작소, 2014: 31). 결과물 발표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완성한 지도를 공유하고, 팀별로 커뮤니티 매핑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희망제작소, 2014: 31). 아울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조를 선정하여 '커뮤니티 빌더상'과 '세대공감상'을 전달하는 수상의 시간도 갖는다(지예리, 2014.06.10.).

(3) 사후 모임

「동네한바퀴in종로구」 프로젝트는 5.31~6.1 양일 간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 공유와 프로그램 참여자 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사후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움직임과 평가지에서 제기되었던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니어와 시니어 세대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정리해서 공유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지도를 그려 지역의 자원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희망제작소, 2014: 33). 「동네한바퀴in종로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성북구에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지리 정보를 등록해 공동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자체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희망제작소, 2014: 33).

3)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①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참가자들의 후기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사후 인터뷰 내용을 비교한 결과, 시니어 세대와 주니어 세대 모두 이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주니어 세대는 시니어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로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희망제작소, 2014: 39).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동일한 지적이라도 부모가 하면 이를 흘려듣거나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아닌 다른 시니어 세대로부터 같은 지적을 듣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부모 세대, 더 나아가 시니어 세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희망제작소 관계자 자문회의 내용, 2016.09.21.).

표 IV-18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가자 인터뷰 내용

구분	프로그램 참가 전	프로그램 참가 후
주니어	• 시니어는.... “고리타분하다. 과거의 권위에 집착한다. 지하철 자리를 빼앗는다.” “시니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시니어랑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친구하고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순응하게 되고 제 말에 따라주시는 시니어 분들 때문에 아주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남을 위한 배려를 잘해주신다. 스마트폰 없이도 길을 잘 찾으시며 많은 일들을 하신다. 주니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주니어 또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폭이 넓다.”
시니어	• 주니어는...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사춘기라는 선입관이 ‘대화가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통을 해볼 기회도 없어 아쉬웠습니다.”	“2일간이지만 여러 주니어와 융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끼리 자주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번뜩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함께 활동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과제 수행에 적극적이어서 좋았음.”

출처: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40-41쪽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②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참가자들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며, 실제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실습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희망제작소, 2014: 38).

(2) 시사점

「동네한바퀴in종로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접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서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주니어 세대와 시니어 세대는 공동의 미션을 두고 갈등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후기에서는 팀에서 주제를 정할 때, 시니어가 하고 싶은 주제와 주니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다보니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니어는 주니어를 위해 양보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지예리, 2014.06.10.).

둘째, 프로그램 안에서 주니어와 시니어 세대가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희망제작소 담당자 자문회의, 2016.9.21.). 커뮤니티 매핑에서 시니어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주니어는 커뮤니티 매핑 앱을 이용한 정보 등록 등의 역할을 맡는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데는 각각의 세대가 가진 지식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 설정은 서로 다른 세대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상호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비교적 정교하고 세심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참가자 관리를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호기심과 참여 동기를 갖도록 지원했던 노력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팀 내에서 소외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의 수만큼 팀원을 배치함으로써 참가자 모두 1인 1역할을 맡도록 기획한 점도 세심한 프로그램 기획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교류와 통합이 요구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로효친(敬老孝親)이나 효(孝)사상의 회복 등 도덕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세대가 만나며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지역사회라는 일상적 공간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한 것은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의 접점을 찾는 데도 지역사회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단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해 편익(benefit)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맑음, 2010.10.22.).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제각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이를 활용하여 서로 발전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맑음, 2010.10.22.).

둘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 및 노인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와 실천을 견해 온 영국 베스존슨재단이 설명하는 세대통합 개념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스존슨재단은 세대통합이란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결속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김맑음, 2010.10.22.). 즉, 세대통합 활동이 지역사회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세대통합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김맑음, 2010.10.22.).

물론 세대통합 프로그램에는 대단히 다양한 소재들이 콘텐츠로 적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소재로 평가된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는 ‘지역사회’에서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이슈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설정에서부터 참가자 모집, 사전 관리, 그룹 편성과 역할 분담까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물론, 적용 대상의 선정, 모집, 평가, 성과 확산

등 제반 단계에서 대학, 학교, 관련 전문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상술한 주요 시사점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이 <표 IV-19>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IV-19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
①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지역 및 대상 선정	- 프로그램 적용 대상 및 지역의 선정 -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빈곤수준이 높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	-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단계에서, 운영지역 및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진 기관(예: 지자체, 학교 등)과의 연계 필요
	- 프로그램에 협조할 학교 섭외 - 학교측의 협조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 준비 단계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학교에 대한 이해 필요	- 연계할 학교에 대한 면밀한 파악 필요 - 학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학교측의 수요를 파악해야 함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운영 인력	-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 -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비롯 학교와의 연계 방법 등 실무적 측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스태프들이 코디네이터로 참여	-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필요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합한 인력 Pool 확인 -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스태프 양성 필요
	- 학교 내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 -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시니어뿐만 아니라 주니어 세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춘 학교 내 지원 인력이 있어야, 참가자 모집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	- 세대통합교육 활성화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됨 → 공식적 교육과정에 반영 → 세대통합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실시
참가자 모집	-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사 또는 활동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	- 참가자 모집 전략 수립 및 홍보자료 활용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필요 - 지역사회 사정에 능통한 활동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 마련 필요 → 지역사회협의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
프로그램 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마을의 장단점, 마을지도 그리기, 마을 사진 찍기, 지역사회 문제점 확인 및 해결책 모색 등 서로 다른 세대가 모여서 지역사회에 대해 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콘텐츠 내용으로 '지역사회'적극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총 15회 차로 구성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격주로 실시되었음. - 따라서 세대 간 만남이 이루어진 기간은 총 4~5개월에 달함.	-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라포(rapport)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 →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적정 규모의 그룹 규모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그룹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5명이 적당.	- 그룹 당 인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 4~5명 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획
연계·협력	-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 - 지역사회 활동가의 네트워크 활용 -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추후 유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 참여(예: 학교운영위원회 등)하는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 - 원활한 협력을 위해 공식적인 연계 통로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②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업 주체	- 연방 정부(美 농무부) 및 주정부, 카운티 정부의 지원을 받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가 사업 추진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연구자료 제작 및 공유 등 허브 역할 수행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대통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세대통합 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대학을 대상으로 중점연구소 지정을 통해 세대통합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허브 구축 →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다년간 연구 사업으로 세대통합 관련 연구 지원 방안 검토
프로그램 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다양한 세대가 협업하도록 설계 - 헤리티지 서클은 지역사회 역사와 문화유산을 둘러싼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설계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기획 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콘텐츠로 지역사회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소재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
	- 세대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다양한 세대가 논의하도록 설계	
	• 노인 세대의 전문성 활용 - 세대통합 환경교육의 경우, 노인 세대가 지닌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 활용 - 헤리티지 서클의 경우,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니어 세대 참여	•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돌보거나 지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나서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프로그램 운영	• 반복적 운영 - 세대통합 환경교육의 경우, 4일 동안 6회 차에 걸쳐 집중적인 워크숍 진행 - 기술을 이용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운영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1달에 2~3회, 연간 6~11회, 매일 운영 순으로 파악되었음.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만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
	• 특정 세대가 주도하지 않도록 주의 - 기술을 이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세대가 상호 협력하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	• 프로그램 운영 시, 세대 간 역학관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할 필요
연계·협력	•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 - 환경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 환경단체와 연계 - 세대통합포럼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최대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 -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③ 메모로(MEMORO)		
프로그램 내용	• 기존의 다수의 세대 간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한 데 비해, 메모로는 시니어 세대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기록유산으로 남기는 데 집중함.	• 보다 바람직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양 세대의 장점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프로그램 운영	• 서울 S여고 사례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정규 교과수업 내용에 메모로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함.	• 세대통합교육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수업과의 연계가 가장 효과적 - 교과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필요, 적용 시 유의할 사항 등 현장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
	안양시에서는 대학생들을 세대문화교류 기획자로 양성하여 자유학기제 강사로 위촉함으로써 자유학기제 메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운영자/기획자 양성 방안 모색 필요 - 관련 학과 대학생을 기획자로 양성하는 모델 적극 고려 필요
연계·협력	이탈리아 페로니 및 에넬, 일본 세콤과의 협력 사례는 메모로 활동이 기업의 CSR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줌.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업의 CSR 사업과 연계하여 확산하는 방안 모색 필요
	일본 토시마구 사례는 메모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와 NPO, 시민들의 연계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성공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 시민단체, 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관 간 연계가 요구됨
	한국의 적용 사례는 메모로가 도서관 협력수업,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학교를 통한 확산 방안 모색 필요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안양시 사례는 지자체, 청소년시설, 학교 간 연계 모델을 보여줌.	성공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 시민단체, 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관 간 연계가 요구됨
④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세대공간활동, '동네한바퀴in종로구'		
지역 선정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도, 마을 내 역사적 자원이 풍부하여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역 선정	커뮤니티 매핑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 다만 이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참가자 모집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신이 되었던 타 지역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활용	원활한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알려주는 방법이 효과적
프로그램 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 도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콘텐츠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단지 서로 다른 세대가 접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과업 수행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세대통합 프로그램 설계 시에는 단순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접촉'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사회 적용 방안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사전 관리를 위해, 시니어 세대도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이해 증진 및 참여 동기 유지를 돕는 적절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팀 구성 시,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해 시니어:주니어 비율을 1:1.5로 설계	프로그램 내에서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을 세심하게 고려한 팀 구성 및 팀원 배치 필요
	- 팀내 필요한 역할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역할의 수만큼 팀원을 구성 - 모든 팀원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도록 설계	프로그램 운영이 특정 세대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설계 필요
	시니어 세대가 지역사회에 대한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고, 주니어 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티 매핑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특정 세대가 프로그램을 주도하지 않도록 설계	- 서로 다른 세대의 역할과 능력, 강점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 프로그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

제 V 장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 V 장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인식을 살펴보고,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적용한 표본추출을 통해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⁹⁾

2) 설문의 구성 및 문항 개발

(1)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청소년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세대갈등, 세대통합 및 사회통합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 등 문헌자료를 포함하여 내용 관련성이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사회통합조사 등)의 조사표, 관련 통계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 등)의 조사표를 광범하게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 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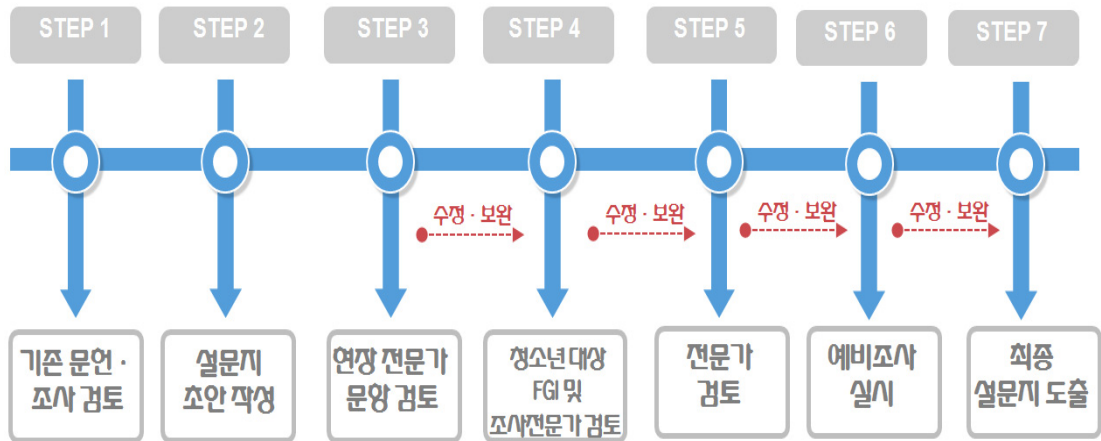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39) 표본추출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장(章)의 제3절 '3)표본 설계'에 제시하였다.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한 유사 조사의 문항도 검토되었다.

기존 문헌 및 질문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현장 전문가 및 조사 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 검토는 청소년시설에서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 초안에 포함된 문항 및 선택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응답의 난이도와 설문지 구성이 조사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지 확인하고 각 문항별 선택지 검토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초안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조사 분야 전문가가 설문지 초안 내용에 대해 영역별 문항 배치 및 질문의 분량, 문항 길이 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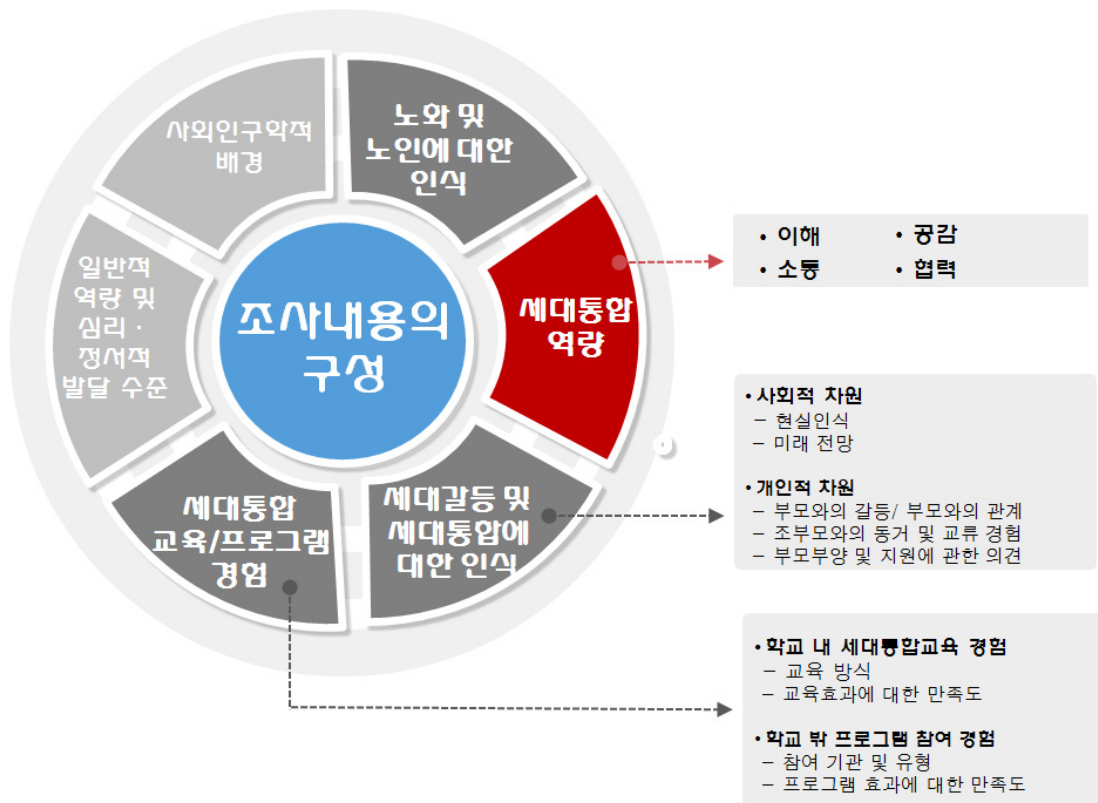
현장 전문가 및 조사분야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대상 FGI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초안에 대한 1차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수정안에 대해 세대통합 분야 연구자 및 학교교육·정책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2차 수정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중학생 1~3학년 및 고등학생 1~2학년 중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낀 일부 문항 및 표현, 어휘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2)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개발

앞서 설명한 설문 개발 절차를 거쳐 최종 도출된 설문지는 [그림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은 <표 V-1>에 제시되었다.



【그림 V-2】 설문 내용의 구성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설문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 노인으로 간주하는 연령대 • 노인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 노화에 대한 인식 • 미디어에 반영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미디어를 통한 노인 인식 개선 • 대중교통 자리양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세대통합역량		• 세대이해 역량 • 세대공감 역량 • 세대소통 역량 • 세대협력 역량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원	• 노인에 대한 거리감 • 세대차이 원인 • 한국사회 세대갈등의 심각성 • 미래사회 세대갈등 추세 전망 • 세대통합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
	개인적 경험	• 부모님과과의 세대차이 경험 및 대응 방법 • (친/외)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 (친/외)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소통·교류 • 부모 부양 부담에 대한 의견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 •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경험(참여 여부, 종류, 만족도) • 세대통합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학교 밖 실시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경험(참여 여부, 종류, 만족도) •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의향
일반적 역량 및 심리·정서적 발달 수준		• 시민성, 사회참여, 관계형성 역량 • 자아존중감 •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이용 빈도
사회인구학적 배경		• 성별 • 가족구조 •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보호자 학력, 경제적 수준) • 학업성적 •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 노화와 노인에 관한 인식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을 측정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노인으로 규정짓는 연령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미디어에서 접하는 노인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 세대통합역량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세대통합역량 측정을 위한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홍영란 외, 2014)에서 개발한 세대통합성 측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홍영란 외(2014)의 연구는 세대통합성을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으로 정의하고(홍영란 외, 2014: 193), 세대통합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세대이해, 세대공감, 세대소통, 세대협력의 4가지를 제시하고, 총 30개 문항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대통합역량이 이 같은 세대통합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세대통합역량의 구성 요소 역시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기존 30개 문항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등을 검토하여, 해당 요인을 보다 잘 반영하는 문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한편,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기 개발된 문항 가운데 일부 문항의 경우, 구성 요소를 반영하는 데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본래 질문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당 문항은 삭제하고, 이를 대체할 문항을 연구진이 신규 개발함으로써 세대통합역량 측정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기존 문항 수정·보완 및 일부 문항 신규 개발 과정을 거쳐, 세대이해 역량 5개 문항, 세대공감 역량 5개 문항, 세대소통 역량 5개 문항, 세대협력 역량 5개 문항 등 총 20개 문항을 활용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표 V-2> 참조).

표 V-2 KEDI 세대통합성 측정 문항 및 본 연구의 세대통합역량 측정 문항 비교

측정요소	KEDI 세대통합성 측정 문항(청소년용) ¹⁾	NYPI 세대통합역량 측정 문항	비고
이해	•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	삭제
	• 내가 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	삭제
	•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삭제
	• 나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	• 나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유지 (표현수정)
	•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 나는 노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유지 (표현수정)
	•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삭제
	-	• 나는 노화의 특징 또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신규개발
	-	• 나는 노인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신규개발
	-	• 나는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신규개발
공감	•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수정
	•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	삭제
	•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	삭제
	•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	삭제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에 공감한다	유지 (표현수정)
	•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삭제

측정요소	KEDI 세대통합성 측정 문항(청소년용) ¹⁾	NYPI 세대통합역량 측정 문항	비고
	•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	삭제
	•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다	유지 (표현수정)
	-	• 노인들이 아프면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신규개발
	-	•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신규개발
소통	•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이 불편하다	유지 (표현수정)
	•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삭제
	• 노인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	삭제
	• 나는 노인들과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	삭제
	•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	삭제
	•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를 통해 노인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 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유지 (표현수정)
	•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에서 노인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	• 나는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규개발
	-	• 나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신규개발
	-	•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신규개발
협력	•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곤 한다	-	신규개발
			삭제

측정요소	KEDI 세대통합성 측정 문항(청소년용) ¹⁾	NYPI 세대통합역량 측정 문항	비고
	• 직장 업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한 기간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의한 승진이 필요하다	-	삭제
	•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	삭제
	• 나는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	삭제
	•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생각이 있다	-	삭제
	• 나는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린다	•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유지 (표현수정)
	• 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고 싶다	• 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유지 (표현수정)
	•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수정
	•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삭제
	-	• 나는 내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개발

출처: 1) 홍영란 외(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p.383-384.

○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영역의 조사 내용은 크게 사회적 차원에서 느끼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과 개인적 차원(경험)에 기초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으로 대별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사회에서 예측되는 세대갈등 전망,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현재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수준과 미래 전망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및 세대 간 소통·교류 수준을 점검하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일군의 연구자들은 세대통합에서 ‘가족’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e.g. 박경숙 외, 2013; 최유석, 2014). 이와 관련하여

박경숙 외(2013)는 그간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주의적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상호 공감의 기회를 갖는 데도 가족은 중요한 장(場)이 될 수 있다(최유석,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가족’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세대통합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e.g. 홍영란 외, 2013, 2014,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핵심 지원 방안으로 간주하고, 세대통합교육 관련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관련 실태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참여 경험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유형, 주관적인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 청소년의 일반적 역량 및 심리·정서적 발달 수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시민성/시민의식과 사회적 역량, 자아정체감 등 일반적 역량 및 심리·정서적 발달 수준에 관한 문항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이들 문항은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시 설명변인이자 통제변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사회인구학적 배경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영역에서는 통계분석 및 응답자의 기본 특성 파악을 위해, 성별, 가족구조, 가정배경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설문 조사에 사용한 문항의 개발 근거는 <표 V-3>과 같다.

표 V-3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

내용 영역	문항	개발 근거
노화 및 인식	문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대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에 포함된 문항의 선택지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보완
	문2. 노인에 대한 인식/고정관념	• 문2-1, 문2-2, 문2-4, 문2-5, 문2-9는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항 사용 • 문2-3, 문2-6, 문2-8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3. 노인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및 TV를 통한 노인 인식 개선	• 문3-1, 문3-2, 문3-3은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문항 사용 • 문3-4, 문3-5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5.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양보 하는 것에 관한 인식/태도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에 포함된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보완
	문30. 노화에 대한 인식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1).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세대통합 역량	문4. 세대통합역량	• 문4-4, 문4-5, 문4-6, 문4-7, 문4-9, 문4-10, 문4-13, 문4-18, 문4-20은 홍영란 외(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문4-1, 문4-2, 문4-3, 문4-8, 문4-11, 문4-12, 문4-14, 문4-15, 문4-16, 문4-17, 문4-19, 문4-20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원)	문6. 노인에 대한 거리감	•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갈등」에 포함된 문항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보완 ※ 절대적 거리감 및 상대적 거리감 파악을 위해, 타 집단에 대한 거리감도 함께 측정
	문7. 세대차이를 느끼는 경우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에 포함된 문항의 선택지를 일부 수정·보완
	문8. 한국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세대갈등 포함)	• 김미곤 외(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문항 사용
	문9.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갈등」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
	문10.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문항 및 선택지와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항 및 선택지를 참조하여 수정·보완

내용 영역	문항	개발 근거
	문11.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24. 세대통합방안에 관한 의견	•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되, 일부 문항은 표현을 수정하고, 5), 6), 7), 8) 등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에 대한 인식 (개인적 경험)	문12.~문12-1. 부모님과 세대차이 경험 및 대응 방법	• 문12는 screening을 위한 문항으로 연구진이 작성 • 문12-1은 박경숙 외(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문항을 참조하여 일부 선택지를 수정하여 사용
	문13.~문13-2. (친/외)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여 선택지, 표현 등 일부 내용 수정·보완
	문14. (친/외)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15.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소통·교류	• 이수연 외(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여 선택지, 표현 등 일부 내용 수정·보완
	문16. 부모 부양 부담에 대한 의견	• 이삼식 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손자녀세대 문항을 참조하여 선택지 수정·보완
	문1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	• 박경숙 외(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노후대비 자금 희생에 관한 문항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문18. 부모와의 관계	• 홍영란 외(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전략 연구」(청소년용) 문항 사용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경험	문19.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 김기현 외(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문항 사용
	문20.~문20-3.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경험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21. 세대통합교육 실시의 필요성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22.~문22-4. 학교 밖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경험	• 연구진이 자체 개발
일반적 역량 및 심리· 정서적 발달 수준	문23.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의향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25. 일반적 역량(시민성)	• 김창환 외(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문항 사용
	문26.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이용 빈도	• 홍영란 외(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전략 연구」(청소년용) 문항을 참조하여, 일부 선택지 표현 수정 및 문항 추가

내용 영역	문항	개발 근거
	문27. 일반적 역량(시민성: 사회참여)	• 김창환 외(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문항 사용
	문28. 일반적 역량(관계형성 역량)	• 성은모·백혜정·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문항 사용
	문29. 일반적 역량(자아존중감)	• 홍영란 외(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전략 연구」(청소년용) 문항 사용

3) 표본 설계⁴⁰⁾

(1) 모집단 및 모집단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통합조사’⁴¹⁾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응답난이도를 고려해 중·고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모집단 규모는 중학생 1,573,960명(47.0%), 고등학생 1,775,690명(53.0%) 등 총 3,349,650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표 V-4>와 같이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V-4 표본설계를 위한 고등학교 유형 구분

구분	해당 고교 유형
유형1(일반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 일반고, 종합고
유형2(자율고)	자율고
유형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유형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40) 이 절은 2016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표본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압축하여 제시하였음. 통합조사의 표본설계 내용은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동으로 수록하였음.

41)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를 개별 과제단위에서 수행할 때 발생하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만한 조사 결과 산출을 위해 여러 개의 조사를 몇 개 단위로 묶어서 공동 조사하는 방법을 일컫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3. 2016년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제안요청서).

(2) 표본 설계 및 추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학교-학년을 층화변수로 고려해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층화 변수인 지역 구분은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 학교는 중학교, 고교유형1, 고교유형2, 고교유형3, 고교유형4 등 총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년은 3개 학년으로 구분하였다. 단, 고등학교 유형 중 유형2(자율고)와 유형3(특성화고)은 16개 광역 시·도별로 층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층화하였다. 또한 유형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적용하지 않았다.

표본 배분은 단순비례배분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층의 과소 배분 혹은 과대 배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이때, 각 학년별로 지역(16개 시·도) 및 학교급(중·고등학교)을 고려해, 43개 층에 최소 1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하고,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표본 크기는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 등 6,00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조사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추출법을 적용해,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선정된 학교측의 거절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일한 층(strata)에 편성된 학교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조사 전, 학교 섭외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 된 학급은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지역별·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와 학급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처럼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는 조사 방식에서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성별 분포의 편향은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조정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해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집단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상술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지역별 조사대상 학교수 및 학생수는 <표 V-5>에 제시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V-6>과 같다.

표 V-5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수 및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46 (21)	186 (6)	93 (3)	156 (6)	132 (6)
경기	780 (30)	372 (12)	93 (3)	78 (3)	
인천	156 (6)	93 (3)			
강원	78 (3)	93 (3)	93 (3)	78 (3)	
충북	78 (3)	93 (3)			
충남	156 (6)	93 (3)			
대전	78 (3)	93 (3)			
경북	156 (6)	93 (3)	93 (3)	156 (6)	
경남	234 (9)	93 (3)			
부산	156 (6)	93 (3)			
대구	156 (6)	93 (3)			
울산	78 (3)	93 (3)	93 (3)	78 (3)	
전북	156 (6)	93 (3)			
전남	78 (3)	93 (3)			
광주	78 (3)	93 (3)			
제주	78 (3)	93 (3)			
합계	3,042 (117)	1,860 (60)	465 (15)	546 (21)	

주: 괄호 안은 학교수를 의미함.

표 V-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6,653	100.0
성별	남학생	3,469	52.1
	여학생	3,184	47.9
학교급/ 교고 유형	중학생	3,126	47.0
	고등학생	3,527	53.0
	└ 일반고	2,499	37.6
	└ 자율고	277	4.2

구분		사례수(명)	비율(%)
	└ 특성화고	693	10.4
	└ 특목고	58	0.9
	서울	1,123	16.9
학교 소재지	수도권(경기, 인천)	2,065	31.0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1,447	21.7
	기타 시·도	2,018	30.3
주관적 학업성적	잘함	1,926	28.9
	중간	2,749	41.3
	못함	1,944	29.2
가정의 경제수준	좋은 편	603	9.1
	보통	5,792	87.1
	낮은 편	222	3.3

2. 분석 결과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분석한 결과는 [그림 V-3]과 같은 흐름에 따라 제시되었다. 먼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②세대갈등의 심각성이나 주된 원인, 향후 전망 등 ‘한국사회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③부모와의 세대차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고령자와의 소통·교류 경험 등 ‘세대 간 소통·교류의 경험과 수준’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④세대갈등 완화 및 세대통합역량 증진의 주요 방법으로 거론되는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⑤세대통합역량 실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⑥세대통합 관련 정책 욕구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V-3】 설문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1)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1)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략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를 조사해보았다. 65-69세라고 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64세(32.1%), 70-74세(22.6%)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별 비교해보면,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중학생 32.6%, 고등학생 26.4%로 나타나, 70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의 소통 기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대통합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인 세대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표 V-7> 참조).

표 V-7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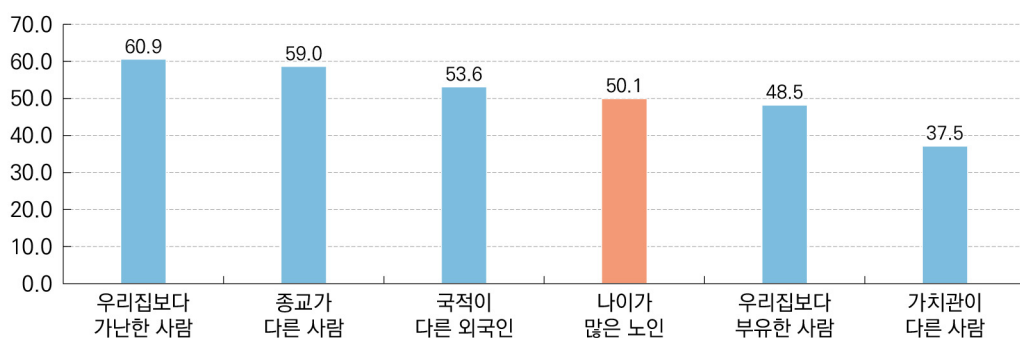
(단위: 명(%))

내용/구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χ^2
전체		103(1.6)	194(2.9)	2,116(32.1)	2,253(34.1)	1,492(22.6)	443(6.7)	-
학교급	중학교	52(1.7)	106(3.4)	984(31.8)	940(30.4)	749(24.2)	260(8.4)	60.841*** (d.f=5)
	고등학교	51(1.5)	88(2.5)	1,132(32.3)	1,313(37.4)	743(21.2)	183(5.2)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51(1.3)	113(2.9)	1227(31.6)	1,288(33.2)	900(23.2)	299(7.7)	22.008*** (d.f=5)
	활발하지 않음	52(1.9)	82(3.0)	889(32.6)	965(35.4)	592(21.7)	144(5.3)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29(1.4)	60(2.9)	594(28.9)	693(33.7)	496(24.1)	186(9.0)	37.068*** (d.f=5)
	없음	74(1.6)	130(2.9)	1,517(33.5)	1,555(34.3)	996(22.0)	256(5.7)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37(1.6)	59(2.6)	661(28.6)	855(37.0)	547(23.7)	151(6.5)	25.461*** (d.f=5)
	없음	65(1.5)	135(3.2)	1,444(33.9)	1,387(32.6)	942(22.1)	288(6.8)	

* $p<.05$, ** $p<.01$, *** $p<.001$

(2) 고령자에 대한 친밀감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세대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을 제시하고 각 집단을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가깝게 느낀다’(약간 가깝게 느낀다+매우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시된 집단 가운데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다르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 많은 노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50.1%)은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반면,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전혀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별로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약 50%를 차지하였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낮게 도출된 점은 눈길을 끈다([그림 V-4] 참조).



주: 제시된 비율은 각 집단에 대해 ‘가깝게 느낀다’(약간 가깝게 느낀다+매우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그림 V-4】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친밀감

<표 V-8>에는 이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에 대한 친밀감 인식 수준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학교급의 경우,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중학생은 52.7%, 고등학생은 47.9%로 나타나 중학생이 노인에게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와 상이한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친밀감은 접촉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나이 많은 세대와의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지 여부, 가족 외 노인들과의 소통기회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학교 안팎에서 교육 또는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들과 접촉 경험이 있거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관되게 친밀감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학생들(58.6%)은 소통·교류가 없는 학생들(37.9%)에 비해 20%p 이상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 외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64.3%)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43.6%)에 비해 역시 20%p 가량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분명해서,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58.3%)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45.7%)에 비해 노인들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8 노인에 대한 친밀감 인식 수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	약간 가깝게 느낀다	매우 가깝게 느낀다	χ^2
전체		332(5.0)	2,972(44.8)	2,776(41.9)	546(8.2)	—
학교급	중학교	164(5.3)	1,312(42.1)	1,337(42.9)	305(9.8)	28.831*** (d.f=3)
	고등학교	168(4.8)	1,660(47.3)	1,439(41.0)	242(6.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136(3.5)	1,477(37.9)	1,869(47.9)	417(10.7)	298.987*** (d.f=3)
	활발하지 않음	197(7.2)	1,495(54.8)	907(33.2)	129(4.7)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75(3.6)	666(32.1)	1,036(50.0)	296(14.3)	303.664*** (d.f=3)
	없음	258(5.7)	2,299(50.7)	1,732(38.2)	247(5.4)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78(3.4)	887(38.3)	1,102(47.5)	251(10.8)	111.974*** (d.f=3)
	없음	254(5.9)	2,073(48.4)	1,663(38.9)	289(6.8)	

* $p<.05$, ** $p<.01$, *** $p<.001$

(3)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① 긍정적 이미지

청소년들이 노인 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세대 간 갈등 및 통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항과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문항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에게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노인은 건강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47.3%가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52.7%를 차지했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조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른 노인들과 접촉 기회가 있을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노인은 건강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과 소통·교류하는 청소년일수록 이러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함을 보여준다(<표 V-9> 참조).

표 V-9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I)노인은 건강하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0(2.0)	3,365(50.7)	2,924(44.0)	219(3.3)	—
학교급	중학교	48(1.5)	1,390(44.6)	1,529(49.0)	152(4.9)	126.080*** (d.f=3)
	고등학교	82(2.3)	1,975(56.1)	1,395(39.6)	67(1.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63(1.6)	1,836(47.1)	1,848(47.4)	154(3.9)	66.044*** (d.f=3)
	활발하지 않음	67(2.4)	1,529(55.9)	1,076(39.3)	65(2.4)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43(2.1)	893(43.1)	1,040(50.2)	96(4.6)	77.138*** (d.f=3)
	없음	87(1.9)	2,463(54.2)	1,877(41.3)	121(2.7)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35(1.5)	1,150(49.6)	1,063(45.8)	72(3.1)	7.255 (d.f=3)
	없음	95(2.2)	2,197(51.2)	1,852(43.2)	143(3.3)	

* $p<.05$, ** $p<.01$, *** $p<.001$

‘노인은 지혜롭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동의하는 반응을 나타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81.3%, 고등학생은 74.5%가 노인이 지혜롭다고 답해, 중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할수록, 가족 외 노인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수록, 그리고 세대통합 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이 지혜롭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노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청소년들이 노인의 지혜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V-10> 참조).

표 V-10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2)노인은 지혜롭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16(1.7)	1,372(20.6)	4,209(63.3)	950(14.3)	—
학교급	중학교	38(1.2)	548(17.6)	1,993(63.9)	542(17.4)	74.937*** (d.f=3)
	고등학교	77(2.2)	823(23.4)	2,216(62.9)	408(11.6)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58(1.5)	651(16.7)	2,543(65.1)	652(16.7)	119.063*** (d.f=3)
	활발하지 않음	58(2.1)	721(26.3)	1,666(60.7)	298(10.9)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34(1.6)	343(16.5)	1,315(63.3)	386(18.6)	63.700*** (d.f=3)
	없음	81(1.8)	1,024(22.5)	2,883(63.4)	562(12.4)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31(1.3)	411(17.7)	1,530(65.8)	352(15.1)	23.509*** (d.f=3)
	없음	84(2.0)	952(22.2)	2,663(62.1)	592(13.8)	

* $p<.05$, ** $p<.01$, *** $p<.001$

그에 비해, ‘노인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진술의 경우,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하는 응답 비율이 39.1%에 그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60.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서도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조부모 또는 가족 외 노인과 소통 경험이나 기회가 없는 학생보다는 소통·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표 V-11> 참조).

표 V-11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3)노인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524(7.9)	3,522(53.0)	2,294(34.5)	304(4.6)	—
학교급	중학교	222(7.1)	1,487(47.7)	1,208(38.7)	202(6.5)	113.364*** (d.f=3)
	고등학교	302(8.6)	2,035(57.7)	1,086(30.8)	101(2.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257(6.6)	1,927(49.4)	1,517(38.9)	201(5.2)	102.381*** (d.f=3)
	활발하지 않음	267(9.7)	1,595(58.2)	777(28.3)	103(3.8)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49(7.2)	979(47.2)	823(39.6)	125(6.0)	58.006*** (d.f=3)
	없음	375(8.2)	2,529(55.6)	1,469(32.3)	176(3.9)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71(7.4)	1,199(51.6)	843(36.3)	109(4.7)	5.768 (d.f=3)
	없음	348(8.1)	2,309(53.8)	1,443(33.6)	190(4.4)	

* $p<.05$, ** $p<.01$, *** $p<.001$

‘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의 경우에는 67.6%가 도움이 된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32.4%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1/3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노인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없는 청소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청소년일수록 노인들의 기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V-12> 참조).

표 V-1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4)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4(2.0)	2,013(30.4)	4,068(61.4)	411(6.2)	—
학교급	중학교	62(2.0)	921(29.6)	1,874(60.2)	258(8.3)	43.069*** (d.f=3)
	고등학교	72(2.1)	1,092(31.1)	2,194(62.5)	154(4.4)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64(1.6)	1,010(26.0)	2,526(64.9)	292(7.5)	111.516*** (d.f=3)
	활발하지 않음	70(2.6)	1,003(36.7)	1,542(56.4)	120(4.4)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38(1.8)	501(24.2)	1,353(65.4)	178(8.6)	73,895*** (d.f=3)
	없음	95(2.1)	1,505(33.2)	2,707(59.7)	231(5.1)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30(1.3)	580(25.0)	1,561(67.3)	149(6.4)	63,553*** (d.f=3)
	없음	103(2.4)	1,423(33.3)	2,491(58.3)	258(6.0)	

* $p<.05$, ** $p<.01$, *** $p<.001$

② 부정적 이미지

<표 V-13>부터 <표 V-16>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는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4%에 그쳤다.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학교급, 노인 세대와의 소통, 세대통합 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차이 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표 V-13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03(3.1)	2,607(39.3)	3,526(53.2)	291(4.4)	—
학교급	중학교	96(3.1)	1,209(38.9)	1,650(53.1)	153(4.9)	4,082 (d.f=3)
	고등학교	106(3.0)	1,397(39.7)	1,876(53.3)	138(3.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116(3.0)	1,552(39.9)	2,038(52.4)	184(4.7)	4,368 (d.f=3)
	활발하지 않음	87(3.2)	1,055(38.5)	1,488(54.3)	108(3.9)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69(3.3)	789(38.1)	1,105(53.4)	108(5.2)	6,976 (d.f=3)
	없음	134(3.0)	1,812(39.9)	2,411(53.1)	180(4.0)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80(3.5)	939(40.5)	1,215(52.4)	84(3.6)	7,633 (d.f=3)
	없음	123(2.9)	1,653(38.6)	2,299(53.8)	202(4.7)	

* $p<.05$, ** $p<.01$, *** $p<.001$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0.0%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70.0% 보다 훨씬 낮게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실제로 노인들과 접촉하고 소통·교류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더 낮게 파악되었다.

한편, 제Ⅱ장에서 살펴본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20대 이하 연령대 응답자 가운데 8.6%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사 대상, 연령 분포, 조사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2010년에 실시된 WVS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젊은 층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나 복지예산 분배를 둘러싼 상당수의 논의가 신규(新舊)세대 간 갈등의 프레임 안에서 전개되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표 V-1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762(11.5)	3,879(58.5)	1,867(28.2)	122(1.8)	—
학교급	중학교	437(14.0)	1,849(59.4)	769(24.7)	58(1.9)	58.779*** (d.f=3)
	고등학교	325(9.2)	2,030(57.7)	1,098(31.2)	64(1.8)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535(13.7)	2,344(60.2)	960(24.7)	54(1.4)	97.416*** (d.f=3)
	활발하지 않음	227(8.3)	1,535(56.1)	906(33.1)	68(2.5)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309(14.9)	1,194(57.7)	526(25.4)	40(1.9)	38.992*** (d.f=3)
	없음	452(10.0)	2,674(58.9)	1,334(29.4)	82(1.8)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318(13.7)	1,323(57.1)	644(27.8)	30(1.3)	21.129*** (d.f=3)
	없음	443(10.3)	2,538(59.3)	1,214(28.3)	88(2.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노인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0.5%가 동의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앞서 살펴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중학생(45.0%)에 비해 고등학생(55.3%)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족 안팎에서 노인들과 직접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일수록 이 같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더 낮게 파악되었다.

표 V-1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3)노인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77(7.2)	2,809(42.3)	3,033(45.7)	317(4.8)	—
학교급	중학교	295(9.5)	1,417(45.5)	1,258(40.4)	144(4.6)	92.844*** (d.f=3)
	고등학교	182(5.2)	1,392(39.5)	1,774(50.4)	173(4.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330(8.5)	1,703(43.7)	1,722(44.2)	142(3.6)	56.404*** (d.f=3)
	활발하지 않음	146(5.3)	1,106(40.4)	1,311(47.9)	175(6.4)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212(10.2)	942(45.5)	843(40.7)	75(3.6)	70.548*** (d.f=3)
	없음	265(5.8)	1,858(40.9)	2,181(48.0)	242(5.3)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203(8.7)	1,050(45.2)	968(41.7)	100(4.3)	32.606*** (d.f=3)
	없음	273(6.4)	1,748(40.8)	2,051(47.9)	212(4.9)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2%가 동의하는 반응을 나타내, 다수의 청소년들이 노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지금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이 같은 세대 간 가치관의 간극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없는 청소년일수록 노인 세대와 가치관의 괴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6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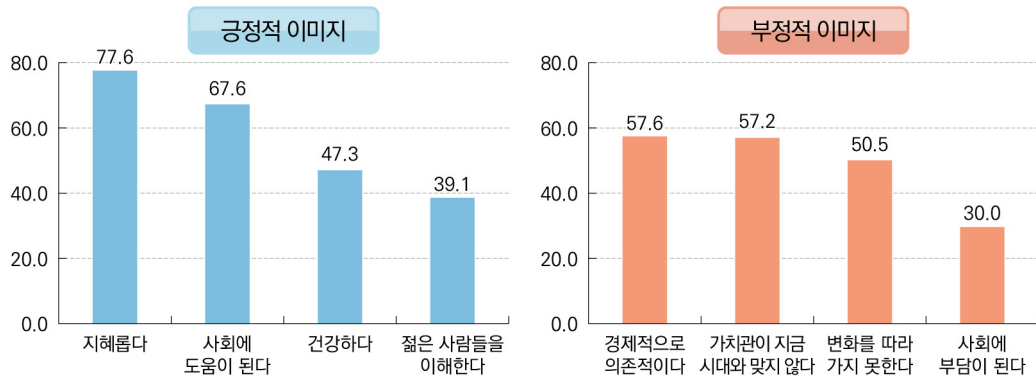
(4)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29(6.5)	2,412(36.3)	3,241(48.8)	557(8.4)	—
학교급	중학교	264(8.5)	1,190(38.2)	1,418(45.5)	244(7.8)	57.062*** (d.f=3)
	고등학교	166(4.7)	1,222(34.7)	1,823(51.7)	313(8.9)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300(7.7)	1,523(39.1)	1,796(46.1)	280(7.2)	72.723*** (d.f=3)
	활발하지 않음	129(4.7)	889(32.4)	1,445(52.7)	277(10.1)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94(9.4)	834(40.2)	889(42.9)	157(7.6)	74.751*** (d.f=3)
	없음	236(5.2)	1,571(34.6)	2,341(51.5)	399(8.8)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59(6.8)	923(39.7)	1,056(45.5)	185(8.0)	20.931*** (d.f=3)
	없음	271(6.3)	1,478(34.5)	2,171(50.7)	36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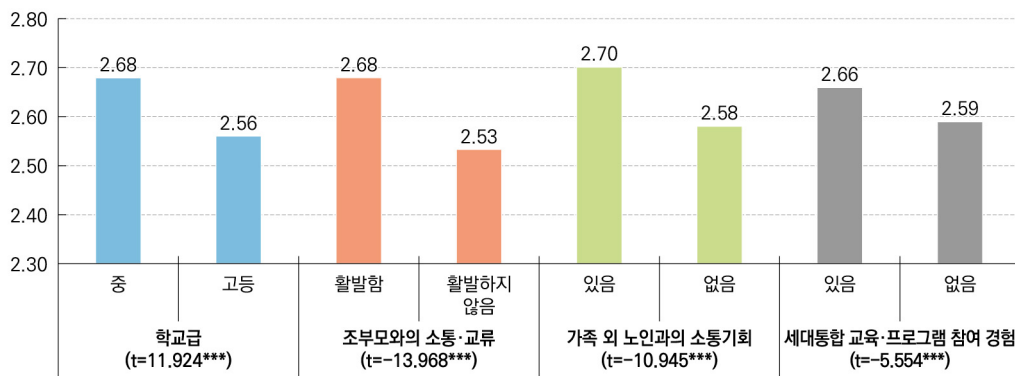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그림 V-5]에서 [그림 V-7]은 앞서 살펴본 8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압축하여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노인 세대가 지혜롭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고, 가치관이 지금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그림 V-5> 참조).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은 노인 세대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평소에 (외)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연락을 하거나 찾아뵙는 등 소통 및 교류가 활발할수록,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할 기회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노인들과 접촉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V-6> 참조).



주: 제시된 비율은 각 문항별로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응답자 비율임.

【그림 V-5】 노인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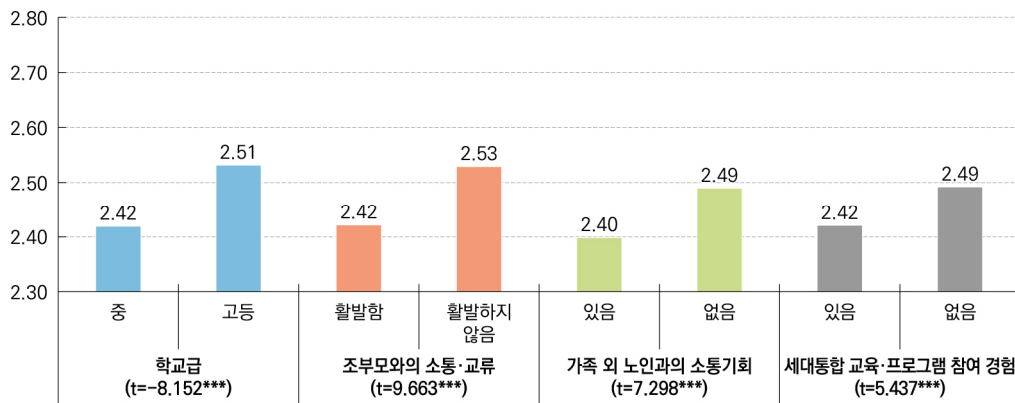
주: 제시된 수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V-6】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그림 V-7]에는 학생의 주요 특성별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노인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안팎에서 노인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회심리학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중 하나인 사회접촉가설(social 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집단 간 접촉 및 교류 부족에 따른

정보의 제한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비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Wilder, 1978; 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접촉가설을 세대 문제에 적용해보면, 노인 세대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노인 세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Caspi, 1984; 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에서 재인용) 막연하게 세대 간에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제시된 수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V-7】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4) 대중교통 자리양보에 대한 인식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노인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16%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에 달했다. 그리고 부정적 의견 중에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SNS에서 언급된 갈등 요인 중 33.9%가 자리 양보와 관련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동아일보, 2015.12.21.).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인’에 대한 주요 키워드로 부각된 것은 무례한 태도로 자리 양보를 강요하거나 대중교통

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노인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노인 세대와 접촉·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와 대면하는 주된 공간이 대중교통인 셈인데, 여기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노인 세대에 대한 주된 이미지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서 노인에 대한 자리 양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소 노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개괄해보았다. 조사 결과, 경로석이 아니더라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지만, 자리 양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 비율도 38.0%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응답은 학교급과 노인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로석이 아니라면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거나 당연하지는 않다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 비율이 중학생은 31.6%인 반면 고등학생은 43.5%로 약 12%p 더 높게 파악되었다. 또한 평소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응답자(34.5%)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응답자(43.0%)가,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가 있는 응답자(29.4%)에 비해 소통 기회가 없는 응답자(41.8%)가 좀 더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표 V-17> 참조).

표 V-17 대중교통 자리양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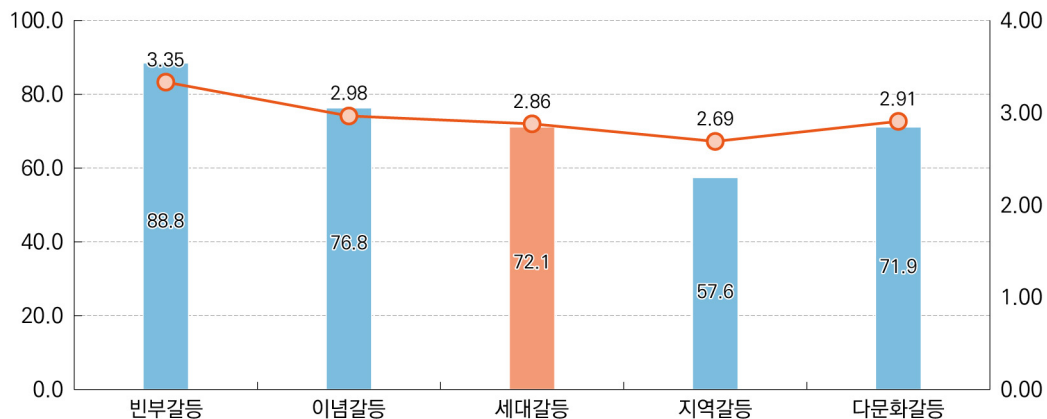
내용/구분		경로석이 아니라도,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로석이 아니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로석이 아니라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χ^2
전체		3,931(62.0)	2,257(35.6)	149(2.4)	—
학교급	중학교	2,009(68.4)	867(29.5)	62(2.1)	94.274*** (d,f=2)
	고등학교	1,922(56.5)	1,390(40.9)	87(2.6)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2,436(65.6)	1,217(32.8)	62(1.7)	56.492*** (d,f=2)
	활발하지 않음	1,495(57.0)	1,040(39.7)	87(3.3)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381(70.6)	545(27.9)	29(1.5)	90.567*** (d,f=2)
	없음	2,544(58.2)	1,709(39.1)	120(2.7)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426(63.3)	780(34.6)	48(2.1)	2.494 (d,f=2)
	없음	2,488(61.4)	1,465(36.1)	100(2.5)	

* $p<.05$, ** $p<.01$, *** $p<.001$

2) 한국사회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1) 세대갈등의 심각성

앞 절에서 노화와 노인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괄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점검해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1%(약간 심각하다 56.6%+매우 심각하다 15.5%)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지역갈등(57.6%)이나 다문화갈등(71.9%)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보다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청소년의 대다수가 세대갈등을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V-8] 참조).



주: 막대그래프는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 점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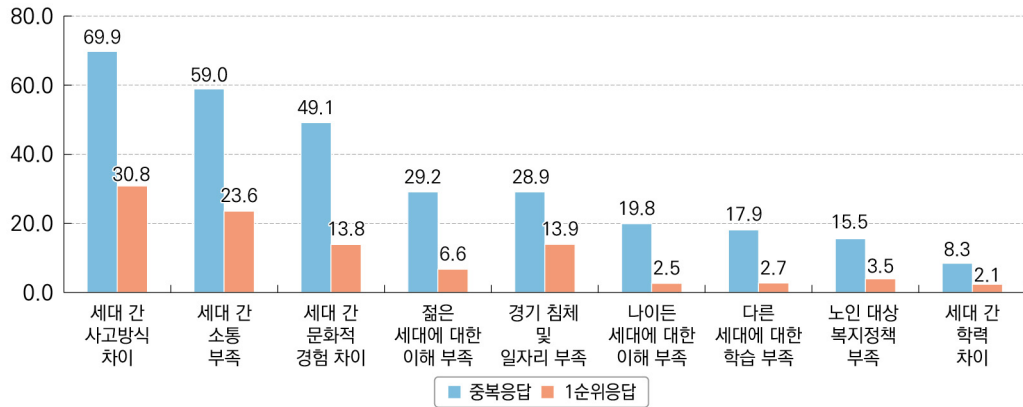
【그림 V-8】 세대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

(2) 세대갈등의 원인

청소년의 대다수가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이처럼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먼저, 가장 주된(1순위)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라고 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세대 간 소통 부족’ 23.6%,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 13.9%, ‘세대 간 문화적 경험 차이’ 13.8%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사고방식 차이나 소통 부족, 문화적 경험 차이 등은 모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것일 수 있다. 그에 비해, 아직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진입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기 침체나 일자리 부족을 3위의 원인으로 거론한 점은 이색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 들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청(老靑)갈등을 논의의 프레임으로 제기하며 보도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한 결과를 모두 종합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가 69.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세대 간 소통 부족’ 59.0%, ‘세대 간 문화적 경험 차이’ 49.1%,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29.2%,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 28.9%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상이한 삶의 경험을 가진 세대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갈등의 해소와 통합은 이 같은 집단 간 차이를 어떻게, 얼마나 인정하느냐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인정에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청소년들은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잘 몰라서’ 세대갈등이 유발된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한 데 비해,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 몰라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응답은 29.2%로 10%p 가량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세대갈등이 촉발되는 데는 나이든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V-9] 참조).



【그림 V-9】 세대갈등의 원인(단위: %)

앞서 현재 시점에서 세대갈등의 심각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미래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향후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그로 인한 세대 간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표 V-18>과 <표 V-1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을 하려는 노인들이 자꾸 증가해서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8%가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입장을 나타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37.2%)보다 훨씬 우세했다.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0%가 동의하는 입장(그렇다 59.1%+매우 그렇다 14.9%)을 나타내, 동의하지 않는 입장(전혀 그렇지 않다 3.1%+그렇지 않다 22.9%)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미래에 세대갈등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앞서 살펴본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경제적 요인에 대한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적 영향력의 세대 간 불균형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세대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동의(그렇다 59.0%+매우 그렇다 13.1%)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표 V-18

일자리 배분,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 전망

(단위: 명(%))

내용/구분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을 하려는 노인들이 자꾸 증가해서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11(6.2)	2,056(31.0)	3,487(52.5)	682(10.3)	—
학교급	중학교	212(6.8)	940(30.1)	1,653(53.0)	313(10.0)	5.332 (d.f=3)
	고등학교	199(5.7)	1,115(31.7)	1,834(52.1)	369(10.5)	
내용/구분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5(3.1)	1,520(22.9)	3,916(59.1)	990(14.9)	—
학교급	중학교	101(3.2)	716(23.0)	1,874(60.2)	422(13.6)	9.175* (d.f=3)
	고등학교	104(3.0)	804(22.9)	2,042(58.0)	568(16.1)	
내용/구분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7(3.1)	1,640(24.7)	3,913(59.0)	869(13.1)	—
학교급	중학교	132(4.2)	766(24.6)	1,791(57.6)	422(13.6)	26.534*** (d.f=3)
	고등학교	75(2.1)	874(24.8)	2,121(60.3)	448(12.7)	

* $p < .05$, ** $p < .01$, *** $p < .001$

저출산·고령화는 개인 차원에서는 노부모 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이슈는 모두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늙은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0%가 동의(그렇다 60.0%+매우 그렇다 1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는 노부모 부양 문제가 추후 부모-자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응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를 나타내, 중학생은 71.8%가 동의한 데 비해 고등학생은 81.6%가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상술한 결과는 부모부양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나이

어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좀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 부양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은 부모를 누가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노인이 되면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 스스로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절반 혹은 그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에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추후 그것이 부모-자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문제로 인해 국가의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5%가 동의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은 68.7%가 동의한 데 비해 고등학생은 7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문항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부모 부양 및 노인복지비용 증대로 인한 세대갈등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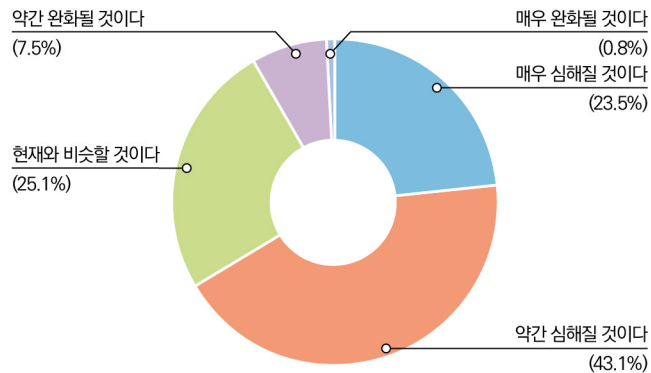
내용/구분		늙은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67(4.0)	1,256(18.9)	3,982(60.0)	1,130(17.0)	—
학교급	중학교	184(5.9)	694(22.3)	1,729(55.5)	509(16.3)	108.055*** (d,f=3)
	고등학교	83(2.4)	562(16.0)	2,253(64.0)	621(17.6)	
부모부양비용 부담	부모가 더 부담	55(5.5)	206(20.6)	582(58.1)	158(15.8)	14.281* (d,f=6)
	반반씩 부담	25(2.9)	168(19.2)	545(62.3)	137(15.7)	
	자녀가 더 부담	188(4.0)	877(18.5)	2,840(59.9)	833(17.6)	
내용/구분		노인문제로 인해 국가의 복지예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84(2.8)	1,640(24.7)	3,768(56.8)	1,041(15.7)	—
학교급	중학교	122(3.9)	852(27.4)	1,684(54.1)	456(14.6)	55.991*** (d,f=3)
	고등학교	62(1.8)	788(22.4)	2,084(59.2)	585(16.6)	

내용/구분		노인문제로 인해 국가의 복지예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부양비용 부담	부모가 더 부담	34(3.4)	218(21.8)	559(55.9)	189(18.9)	29.313*** (d.f=6)
	반반씩 부담	18(2.1)	180(20.6)	522(59.8)	153(17.5)	
	자녀가 더 부담	132(2.8)	1,236(26.1)	2,676(56.5)	694(14.6)	

* $p < .05$, ** $p < .01$, *** $p < .001$

(3) 세대갈등 심화에 대한 전망

앞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체적인 세대갈등 양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66.6%로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했고,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나머지 25.1%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23.5%를 차지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세대갈등을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V-10] 참조).



【그림 V-10】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3)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경험

앞 절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 수준과 그 원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좀 더 미시적 수준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와 어떠한 소통·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 이들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개인적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세대 차이 인식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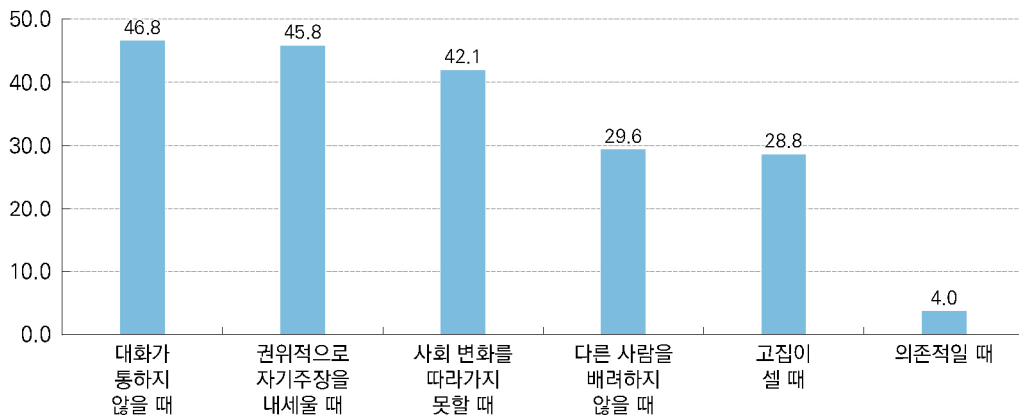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상대와는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격적으로 나이든 세대와의 소통·교류 경험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소년들은 주로 언제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나이든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나이든 사람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라는 응답도 24.9%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는 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학생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29.8%),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23.5%),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18.3%) 순으로 파악된 반면, 고등학생은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라는 응답이 32.7%로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20.6%,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1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V-20> 참조).

표 V-20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1순위) (단위: 명(%))

내용/구분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고집이 셀 때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의존적 일 때	χ^2
전체	1,633(24.9)	872(13.3)	1,698(25.9)	847(12.9)	1357(20.7)	61(.9)	—
학교급	중학교	916(29.8)	417(13.6)	563(18.3)	376(12.2)	721(23.5)	215.417*** (d.f.=6)
	고등학교	716(20.6)	455(13.1)	1,134(32.7)	471(13.6)	636(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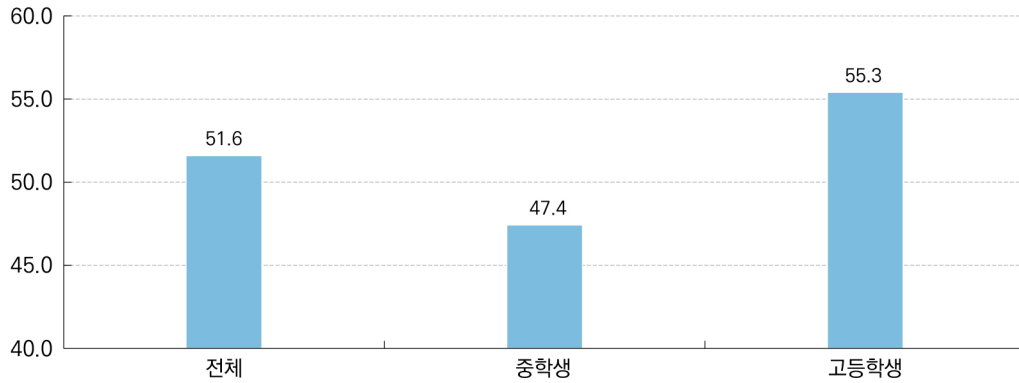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그림 V-11]에는 1~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중복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46.8%), ‘나이든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45.8%), ‘나이든 사람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42.1%) 주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라는 응답 결과는 청소년이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미 있는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이든 세대에 대한 거리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11】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중복응답)(단위: %)

청소년들이 평소 경험하는 세대 차이에 대해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고자, 부모님에게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51.6%가 부모님에게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중학생은 47.4%, 고등학생은 55.3%가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내, 학교급이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12] 참조).



주: 학교급별 차이 검증 결과 $\chi^2=40.790(p<.001, d.f.=1)$.

【그림 V-12】 부모에게 세대 차이를 느낀 경험(단위: %)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는 의견이 33.8%, ‘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29.6%, ‘내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21.5%, ‘대화를 피한다’는 의견이 12.2%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대응 방법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자신의 의견대로 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표 V-21> 참조).

표 V-21 부모와 세대 차이를 느낄 때 대응 방법

(단위: 명(%))

내용/구분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	내 의견대로 하는 편	대화를 회피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	χ^2
전체		1,005(29.6)	728(21.5)	413(12.2)	1,145(33.8)	—
학교급	중학교	490(33.5)	267(18.3)	192(13.1)	477(32.6)	29.986*** (d.f.=4)
	고등학교	515(26.7)	462(24.0)	221(11.5)	668(34.6)	

* $p<.05$, ** $p<.01$, *** $p<.001$

(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형태였던 3세대 가족의 비율은 1980년 17.6%에서 2010년 8.2%로 9.4%p 감소하고, 가족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평균 가구원수 역시 1980년 4.5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3.23.).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가 줄어든 것이다.

다른 집단과의 실제적인 접촉과 상호작용 경험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3세대 가족의 감소는 어린 세대로 하여금 노인 세대와의 접촉 기회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기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2.5%,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7.5%로 파악되었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은 도농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으나, 서울, 광역시와 여타 시·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V-22> 참조).

표 V-2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단위: 명(%))

내용/구분		있다	없다	χ^2
전체		2,747(42.5)	3,717(57.5)	-
학교급	중학교	1,283(42.0)	1,774(58.0)	.661 (d.f=1)
	고등학교	1,464(43.0)	1,943(57.0)	
지역	서울	479(44.6)	594(55.4)	4.043 (d.f=2)
	광역시	642(40.7)	934(59.3)	
	기타 시·도	1,626(42.6)	2,189(57.4)	

* $p<.05$, ** $p<.01$, *** $p<.001$

세대 간에 친밀감과 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소통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대면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정적 경험을 했던 청소년들은 그것이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4.1%가 긍정적인 반응(대체로 만족 46.3%+매우 만족 37.8%)을 보였고, 부정적인 반응(매우 불만족 1.8%+대체로 불만족 14.1%)을 보인 응답자는 15.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청소년들은 대부분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과 세대통합교육·활동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세대통합 관련 교육·활동을 해 본 청소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표 V-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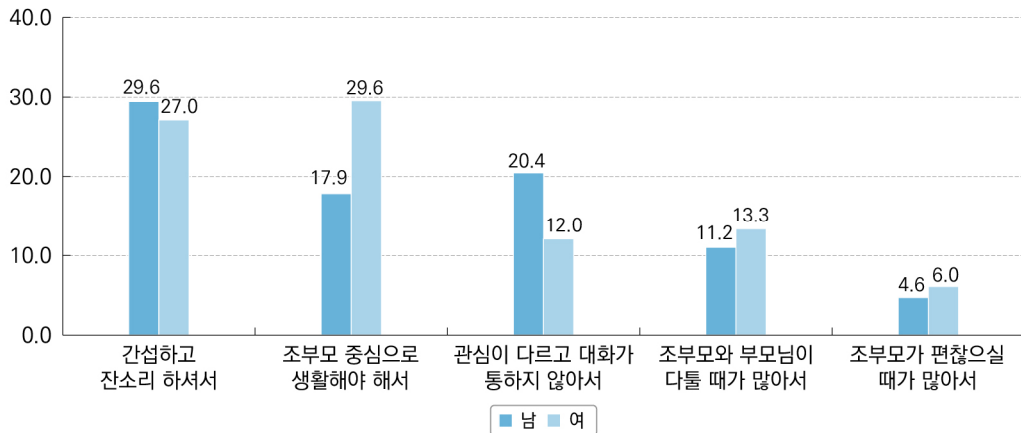
표 V-23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내용/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50(1.8)	386(14.1)	1,264(46.3)	1,032(37.8)	—
학교급	중학교	27(2.1)	154(12.1)	574(44.9)	523(40.9)	15.644** (d.f=3)
	고등학교	23(1.6)	232(16.0)	690(47.5)	509(35.0)	
지역	서울	8(1.7)	59(12.4)	241(50.5)	169(35.4)	6.774 (d.f=6)
	광역시	11(1.7)	82(12.9)	292(45.8)	252(39.6)	
	기타 시·도	31(1.9)	246(15.2)	731(45.2)	611(37.7)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22(2.0)	134(12.4)	475(43.9)	450(41.6)	13.578** (d.f=3)
	없음	27(1.6)	252(15.3)	788(47.8)	581(35.3)	

* $p<.05$, ** $p<.01$, *** $p<.001$

앞서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은 간섭하고 잔소리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이유가 29.6%로 가장 높게 파악된 반면, 여학생은 할머니·할아버지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다. 관심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불만이였다는 응답은 여학생은 12.0%에 그친 반면 남학생은 20.4%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도출되었다([그림 V-13] 참조).



주: 성별 차이 검증 결과 $\chi^2=13.229(p<.05, d.f.=5)$.

【그림 V-13】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불만족한 이유(단위: %)

(3) 노인 세대와의 소통 및 교류 경험

① 조부모와의 소통 및 교류

여기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와 평소에 얼마나 소통·교류하는지, 그리고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중심으로 노인 세대와의 소통 및 교류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부모와의 소통 및 교류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V-2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에 응한 6,653명의 응답자 가운데 ‘(친/외)할머니/할아버지가 모두 안 계신다’고 답한 268명과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71명을 제외한 6,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와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하다(약간 활발하다+매우 활발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1.9%를 차지했고, 활발하지 않다(전혀 활발하지 않다+별로 활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38.1%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2/3 가량은 스스로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1/3 가량은 별로 소통·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은 성별, 학교급, 세대통합 관련 교육·활동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소통·교류도 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4 (친/외) 할머니/할아버지와 소통이나 교류 수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별로 활발하지 않다	약간 활발하다	매우 활발하다	χ^2
전체		643(10.2)	1,762(27.9)	2,453(38.8)	1,457(23.1)	—
성별	남	368(11.2)	939(28.5)	1,295(39.3)	697(21.1)	18.775*** (d.f=3)
	여	275(9.1)	824(27.3)	1,158(38.4)	760(25.2)	
학교급	중학교	264(8.8)	746(24.8)	1,161(38.7)	832(27.7)	83.426*** (d.f=3)
	고등학교	379(11.4)	1,016(30.7)	1,292(39.0)	625(18.9)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82(8.3)	559(25.5)	855(38.9)	600(27.3)	44.526*** (d.f=3)
	없음	452(11.1)	1,197(29.3)	1,589(38.9)	851(20.8)	

* $p<.05$, ** $p<.01$, *** $p<.001$

②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및 교류

<표 V-25>에는 평소에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함께 대화나 활동할 기회가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는 응답이 68.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함께 할 기회가 있다(약간 있다+자주 있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특히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24.5%로 전체 응답자의 1/4에 달했다. 이 같은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및 교류 기회는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세대통합 교육 또는 활동 참여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학생은 가족 이외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 기회가 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한 반면, 고등학생은 27.4%에 그쳤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고등학교일수록 노인 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소에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대화나 활동 기회도 더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친/외)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소통·교류가 활발하다고 답한 청소년은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 기회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7%에 달한 반면,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청소년은 그 비율이 15.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와의 접촉에서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노인 세대와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안팎에서 그러한 경험을 더 많이,

더 자주 갖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가족 내에서도 또 가족 밖에서도 노인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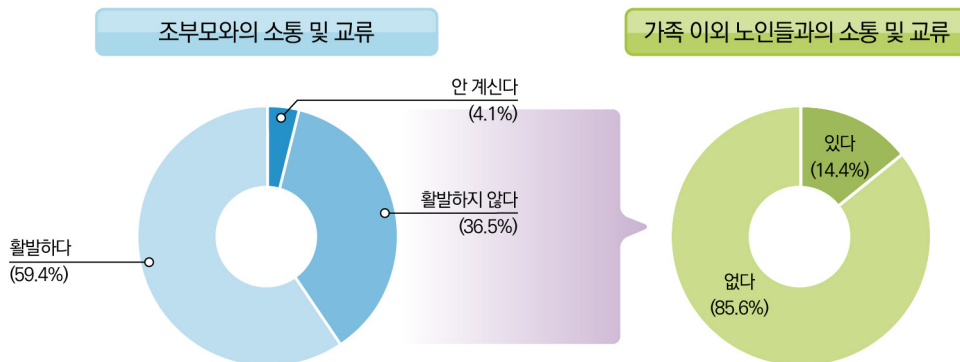
표 V-25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의 대화나 활동 기회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자주 있다	χ^2
전체		1,623(24.5)	2,930(44.2)	1,489(22.4)	592(8.9)	—
학교급	중학교	604(19.4)	1,397(44.8)	785(25.2)	330(10.6)	100.630*** (d.f=3)
	고등학교	1,019(29.0)	1,534(43.6)	704(20.0)	262(7.4)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607(15.5)	1,631(41.7)	1,146(29.3)	525(13.4)	740.336*** (d.f=3)
	활발하지 않음	1,016(37.3)	1,299(47.7)	343(12.6)	67(2.5)	

* $p<.05$, ** $p<.01$, *** $p<.001$

[그림 V-14]에는 평소 가족 내에서 노인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 가족 밖에서 나이든 세대와 얼마나 소통·교류하는지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조부모가 안 계시거나 평소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활동할 기회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14.4%만이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답했고, 85.6%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4.7%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노인들과 함께 소통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14】 조부모 및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소통 및 교류

4)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홍영란 외(2015: 205)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교육 경험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대에 걸쳐 세대통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세대통합교육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사회구성원 전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15: 2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주된 경로를 ‘학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과 학교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

①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 여부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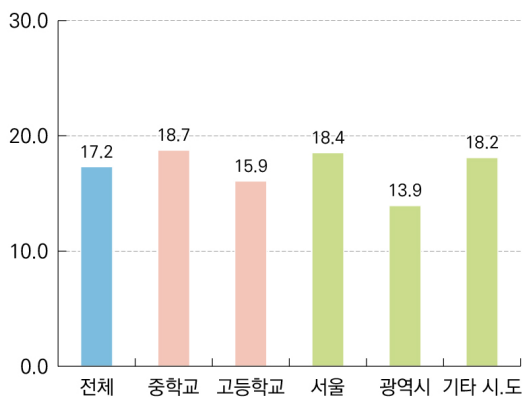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경험은 ‘학교’와 ‘학교 이외 다른 기관’에서 참여한 경험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가 [그림 V-15]에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⁴²⁾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7.2%가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학교를 통한 세대통합교육은 활성화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에 학교급이나 지역 규모와 같은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생 가운데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5.9%에 그친 반면, 중학교에서 18.7%로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이 늘어난 만큼, 세대통합 교육 관련 생애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집단에서 생애경험율이 더 높게 도출된 것은 최근 들어 초·중학교

42)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 세대의 특성,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공감·협력, 세대 간 갈등 극복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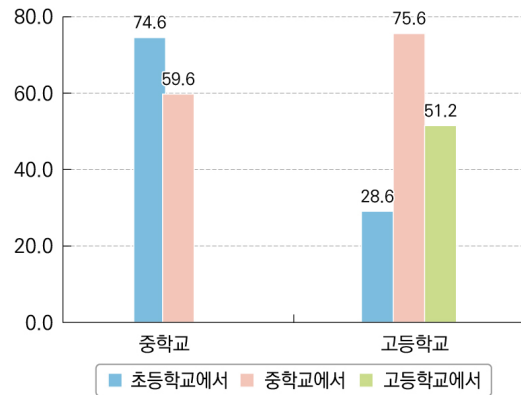
등 낮은 학교급에서 세대통합 관련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세대통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28.6%, 중학교에서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75.6%, 고등학교에서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51.2%로 파악된 반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74.6%, 중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9.6%로 파악되었다. 응답한 학생들의 학교급과 학년이 중1~고3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경험한 학교급은 초등학교밖에 없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28.6%→74.6%로 확대된 것은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에서 세대 간 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그림 V-16] 참조).



주: 학교급별 차이 검증 결과 $\chi^2=9.099(p<.01, d.f.=1)$
지역규모별 차이 검증 결과 $\chi^2=15.889(p<.001, d.f.=2)$

【그림 V-15】 학교에서의 세대통합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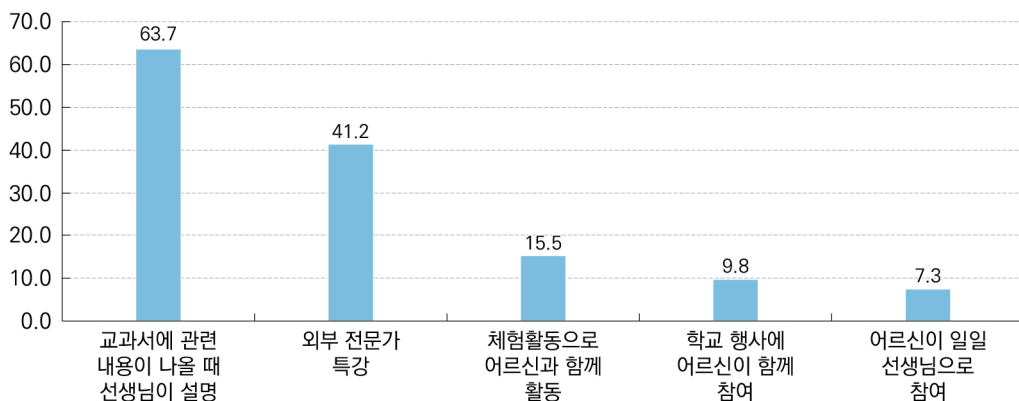
【그림 V-16】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시기(중복응답)(단위: %)

②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

선진국의 세대통합교육 우수 사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세대통합교육이 이론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가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함께 만나 접촉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e.g. 홍영란 외, 2013:

178-179). 이에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보았다.

조사 결과, ‘교과서에 노인 공경이나 세대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세대통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체험활동(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5.5%, ‘학교 행사(예: 운동회, 소풍 등)에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은 9.8%, ‘할머니/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이 일일 선생님이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7.3%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은 교사의 강의나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주종을 이루며, 노인 세대와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접촉하는 기회는 무척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V-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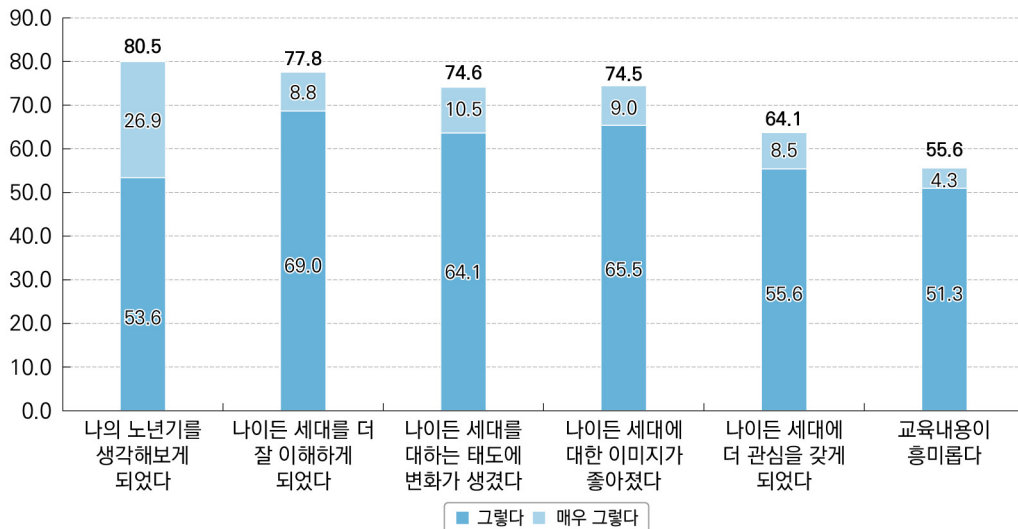


【그림 V-17】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중복응답)(단위: %)

③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의 효과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육을 받고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77.8%,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74.6%,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74.5%, ‘나이든 세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64.1%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교육내용이 흥미롭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55.6%가 동의하는 입장(그렇다 51.3%+매우 그렇다 4.3%)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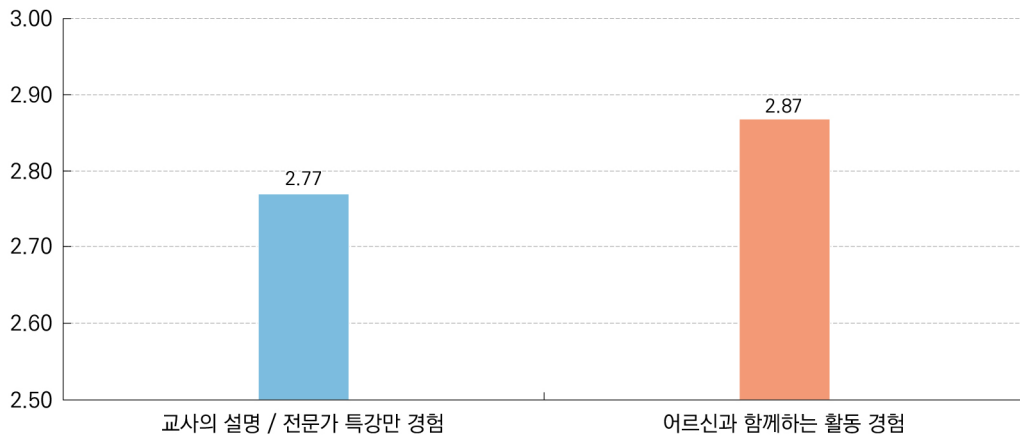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등 인지적 측면의 효과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의 주된 세대통합교육 방식이 교과서 내용 설명이나 특강 등 강의식 방식을 취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교육이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 변화나 이미지 개선, 관심 증대 등에도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높게 도출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교육내용의 흥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확대할 때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그림 V-18] 참조).



【그림 V-18】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효과(단위: %)

[그림 V-19]에는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 동안 경험했던 세대통합교육이 교사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나이든 세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나이든 세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교사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교육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6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2) 집단 간 검증 결과: $t=-2.385(p<.05)$

【그림 V-19】 교육방식에 따른 세대통합교육 효과 평균 비교

④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학교에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V-26>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74.6%에 달한 반면, 이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5.4%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기존에 노인 세대와 이미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또는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도출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평소에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청소년들은 78.2%가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69.5%가 이 같은 반응을 보여 두 집단 간에 약 9%p 가량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격차는 기존에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라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기존에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4.5%가 이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기존 교육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 비율(72.7%)보다 약 12%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표 V-26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χ^2
전체		252(3.8)	1,423(21.6)	4,026(61.0)	899(13.6)	—
학교급	중학교	114(3.7)	647(20.9)	1,873(60.5)	463(14.9)	9.506* (d.f=3)
	고등학교	138(3.9)	776(22.2)	2,153(61.5)	435(12.4)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124(3.2)	722(18.6)	2,437(62.7)	602(15.5)	76.706*** (d.f=3)
	활발하지 않음	127(4.7)	700(25.8)	1,589(58.6)	297(10.9)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65(3.2)	381(18.5)	1,275(61.9)	339(16.5)	34.825*** (d.f=3)
	없음	186(4.1)	1,038(22.9)	2,744(60.7)	556(12.3)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경험	있음	19(1.7)	150(13.7)	686(62.6)	240(21.9)	119.798*** (d.f=3)
	없음	232(4.2)	1,259(23.0)	3,321(60.8)	651(11.9)	

* $p<.05$, ** $p<.01$, *** $p<.001$

(2)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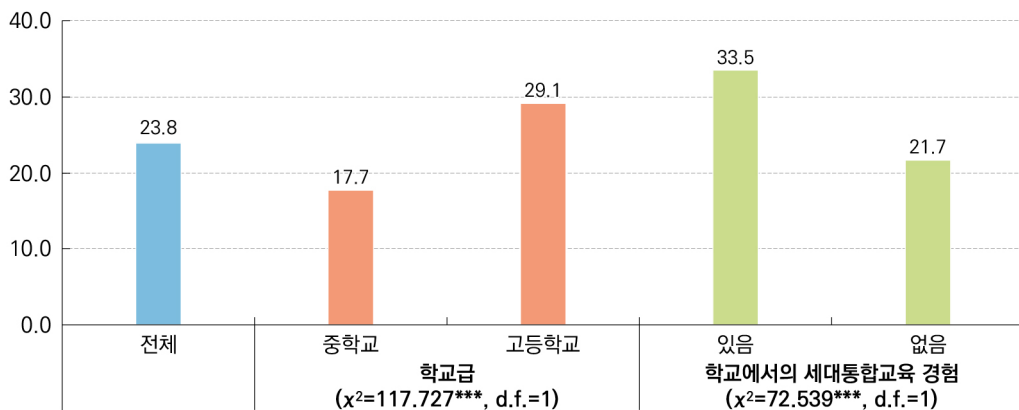
①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여부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활동)은 그 특성 상, 그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들에 대해서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학교 외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8%가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17.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서, 그간 세대통합교육이나 활동이 학교 보다는 학교 외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학교 외 기관에서의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은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17.7%)에 비해 고등학생(29.1%)의 경험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33.5%)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21.7%) 간에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세대갈등이나 세대통합,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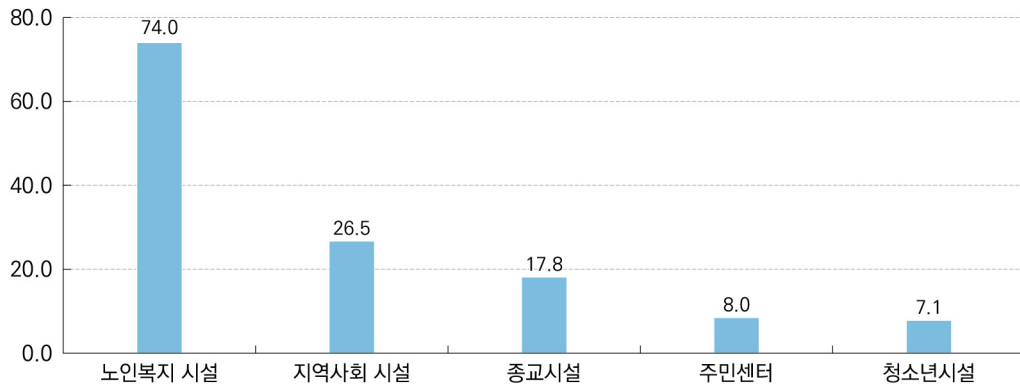


주: 제시된 수치는 학교 밖에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그림 V-20】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② 학교 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실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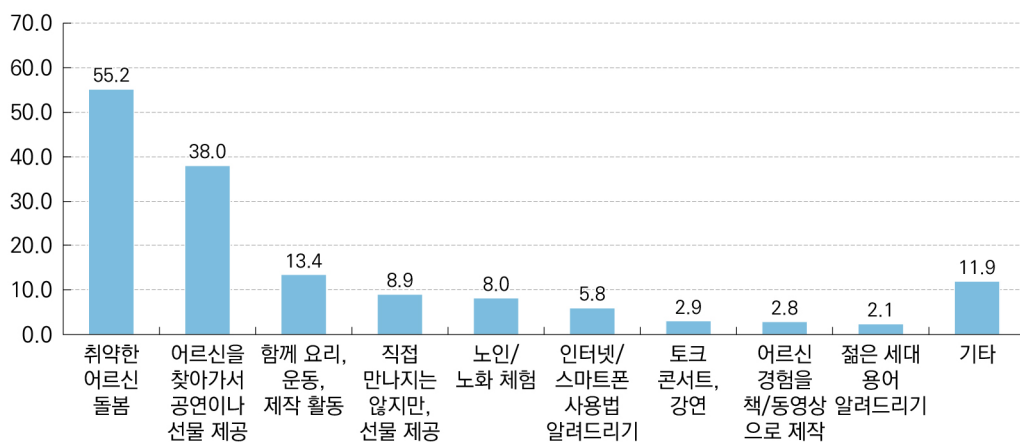
학교 이외 다른 곳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이루어진 기관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또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이라는 응답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이라는 응답이 17.8%, ‘동네 주민센터’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은 7.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이 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동등한 관점에서 함께 만나 활동을 하기 보다는, 노인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그림 V-21] 참조).



【그림 V-21】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관(중복응답)(단위: %)

③ 학교 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내용 및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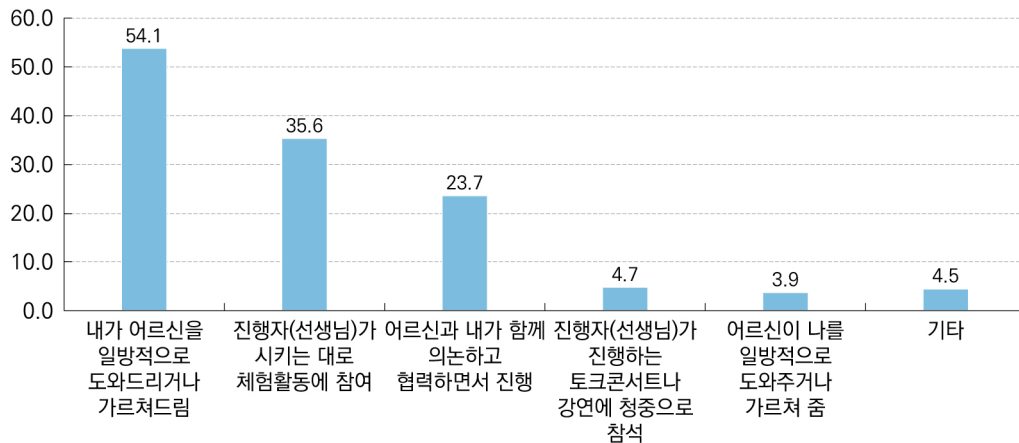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참여했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저소득층 노인이나 독거노인처럼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응답이 38.0%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같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응답은 13.4%를 차지했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그림 V-22] 참조).



【그림 V-22】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내용(단위: %)

앞서 확인된 결과는 참여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간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은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거나,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드리는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세대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상호 호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영란 외(2013: 179)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양한 세대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프로그램을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공경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상정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노인 세대의 연륜과 경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홍영란 외, 2013: 179).

상술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까지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양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그간 참여했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림 V-2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이 일방적으로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렸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차지했고, 선생님이나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35.6%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활동) 내용이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거나, 어르신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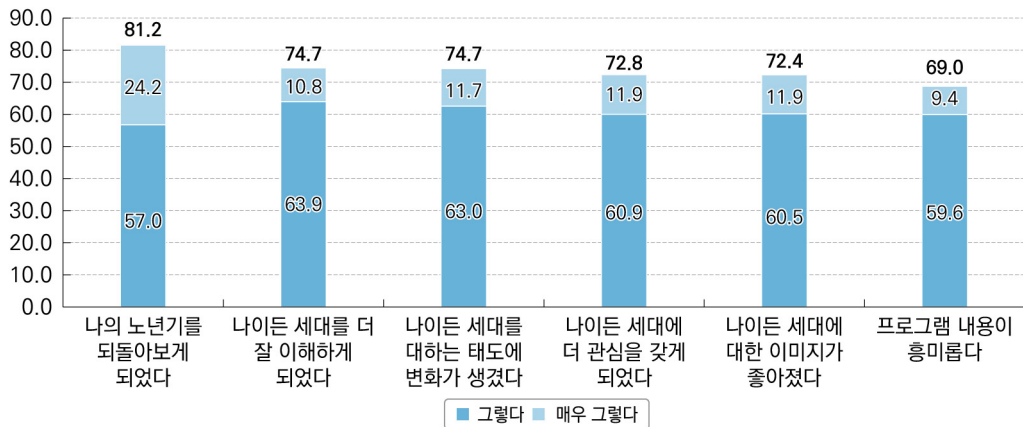


【그림 V-23】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방식(중복응답)(단위: %)

④ 학교 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효과

학교가 아닌 곳에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활동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그림 V-2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을 통해 ‘나의 노년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와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한 비율도 74.7%를 차지했다. 그 밖에 ‘나이든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72.8%, 72.4%에 달했다.

한편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다’는 응답이 6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내용이 흥미롭다’는 응답이 55.6%에 그쳤던 것에 비해 13%p 가량 높은 것이다.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은 선생님의 수업이나 전문가 특강 등 강의식 방법이 주종을 이루는 데 비해,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데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V-24】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단위: %)

아래 <표 V-27>에서 <표 V-29>에는 학교급 및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⁴³⁾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활동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문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다’는 평가에 대해, 중학생은 76.5%, 고등학생은 65.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답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의 경우, 일방적·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비해,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 훨씬 더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 혹은 진행자(선생님)의 진행이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훨씬 더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방적·수동적 방식의 경우, 내용이 흥미로웠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2.1%로 전체 응답자(69.0%)보다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상호 호혜적 방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응답 비율이 88.0%를 차지해 25.9%p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매우 흥미로웠다’는 응답의 경우 14.1%로, 일방적·수동적 방식(7.5%)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은 응답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것보다는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43)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에서 ‘내가 어르신을 일방적으로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림’, ‘어르신이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가르쳐줌’, ‘진행자(선생님)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나 강연에 청중으로 참석’, ‘진행자(선생님)가 시키는 대로 체험 활동에 참여’는 ‘일방적·수동적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어르신과 내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은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같은 분류는 이하 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임을 방증한다.

표 V-27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내용 흥미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6(3.2)	408(27.8)	876(59.6)	138(9.4)	—
학교급	중학교	15(2.9)	107(20.6)	327(63.0)	70(13.5)	30.787*** (d.f=3)
	고등학교	31(3.3)	301(31.7)	549(57.9)	68(7.2)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41(3.9)	359(34.0)	576(54.6)	79(7.5)	84.478*** (d.f=3)
	상호 호혜적 방식	3(0.9)	39(11.2)	257(73.9)	49(14.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나의 노년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문항의 경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80.1%)에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84.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21.4% vs. 32.9%로 두 집단 간에 11%p 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질문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고,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별로는 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69.3%에 그친 반면,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89.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약 20%p 가량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프로그램·활동의 효과를 평가한 여타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문항의 경우, 일방적·수동적 방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응답 비율이 70.0%로 나타난 반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7.3%에 달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응답은 8.9% 대(對) 20.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28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1)

(단위: 명(%))

내용/구분		나의 노년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5(3.7)	222(15.1)	839(57.0)	356(24.2)	—
학교급	중학교	16(3.1)	80(15.5)	287(55.5)	134(25.9)	2.065 (d.f=3)
	고등학교	38(4.0)	142(14.9)	551(57.8)	222(23.3)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45(4.3)	165(15.6)	619(58.7)	226(21.4)	22.901*** (d.f=3)
	상호 호혜적 방식	5(1.4)	50(14.5)	177(51.2)	114(32.9)	
내용/구분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8(2.6)	334(22.8)	939(63.9)	159(10.8)	—
학교급	중학교	14(2.7)	103(19.9)	330(63.7)	71(13.7)	9.057* (d.f=3)
	고등학교	24(2.5)	231(24.3)	609(64.0)	88(9.2)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34(3.2)	290(27.5)	633(59.9)	99(9.4)	56.227*** (d.f=3)
	상호 호혜적 방식	1(0.3)	37(10.7)	256(74.0)	52(15.0)	
내용/구분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3.2)	326(22.2)	925(63.0)	172(11.7)	—
학교급	중학교	16(3.1)	94(18.1)	329(63.5)	79(15.3)	14.364** (d.f=3)
	고등학교	31(3.3)	231(24.3)	596(62.7)	93(9.8)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42(4.0)	274(26.0)	644(61.1)	94(8.9)	64.084*** (d.f=3)
	상호 호혜적 방식	2(0.6)	42(12.1)	231(66.6)	72(20.7)	

* $p<.05$, ** $p<.01$, *** $p<.001$

‘나이든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문항 역시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70.5%)에 비해 중학생(76.9%)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의 경우, 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67.2%에 그친 반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동의 비율이 87.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약 20%p 가량 차이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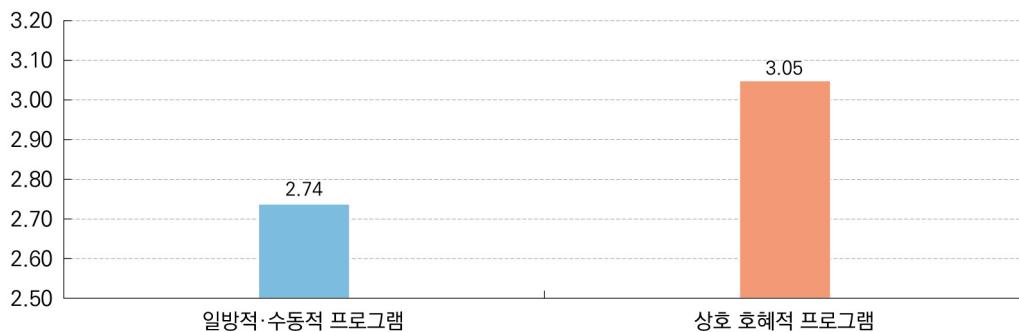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통해 ‘나이는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문항에서도 학교급별,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본 여타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69.6%)에 비해 중학생(77.8%)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고, 참여 했던 프로그램이 일방적·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경우, 나이는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6.4%인 데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이었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7.8%로 21.4%p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V-29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2) (단위: 명(%))

내용/구분		나이는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8(3.2)	352(24.0)	894(60.9)	175(11.9)	—
학교급	중학교	20(3.9)	99(19.2)	322(62.4)	75(14.5)	13.441** (d.f=3)
	고등학교	28(2.9)	252(26.5)	572(60.1)	99(10.4)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41(3.9)	304(28.8)	600(56.9)	109(10.3)	51.389*** (d.f=3)
	상호 호혜적 방식	3(0.9)	42(12.2)	248(71.9)	52(15.1)	
내용/구분		나이는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4(3.0)	361(24.6)	888(60.5)	176(11.9)	—
학교급	중학교	17(3.3)	98(18.9)	323(62.4)	80(15.4)	19.096*** (d.f=3)
	고등학교	27(2.8)	263(27.6)	566(59.5)	96(10.1)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방식	일방적·수동적 방식	38(3.6)	316(30.0)	592(56.2)	108(10.2)	63.554*** (d.f=3)
	상호 호혜적 방식	3(0.9)	39(11.3)	242(69.9)	62(17.9)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일관되게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에 따라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25]에는 상술한 6개 문항을 압축하여 재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참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 방식이 일방적·수동적인 경우와 서로 다른 세대가 의논하고 협력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된 경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눈에 띄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6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2) 집단 간 검증 결과: $t=-9.785$ ($p<.001$)

【그림 V-25】 운영 방식에 따른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 평균 비교

⑤ 학교 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확인해보기 위해, 앞으로 나이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62.8%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다'(약간 참여하고 싶다+매우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다'(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7.2%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비교적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 그리고 학교 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에 따라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확연한 차이가 감지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한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의 경우, 참여한 적 없는 청소년은 60.9%만이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70%를 넘는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교사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과 같은 강의·특강 형식으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향후 참여 의향이 71.7%인 데 비해 노인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77.7%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다 눈에 띄는 차이는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관찰된다. 그리하여 학교 밖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58.1%만이 앞으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학교 밖 다양한 기관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무려 91.0%가 앞으로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는데, ‘매우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긍정 응답도 31.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세대통합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할 때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남’을 갖는 데만 의미를 두거나, 혹은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 V-30> 참조).

표 V-30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의사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참여 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참여 하고 싶다	매우 참여 하고 싶다	χ^2
전체		285(4.3)	2,178(32.9)	3,462(52.3)	694(10.5)	—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 참여 경험	참여한 적 없음	254(4.7)	1,874(34.4)	2,798(51.3)	524(9.6)	78.994*** (d.f.=6)
	참여함_강의·특강	18(2.3)	206(26.1)	466(59.0)	100(12.7)	
	참여함_함께 활동	8(3.2)	48(19.0)	145(57.5)	51(20.2)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한 적 없음	261(5.2)	1,844(36.7)	2,527(50.3)	393(7.8)	366.562*** (d.f.=6)
	참여함_일방적·수동적	17(1.6)	250(23.9)	613(58.6)	166(15.9)	
	참여함_상호 호혜적	2(0.6)	29(8.4)	207(60.0)	107(31.0)	

* $p < .05$, ** $p < .01$, *** $p < .001$

5) 세대통합역량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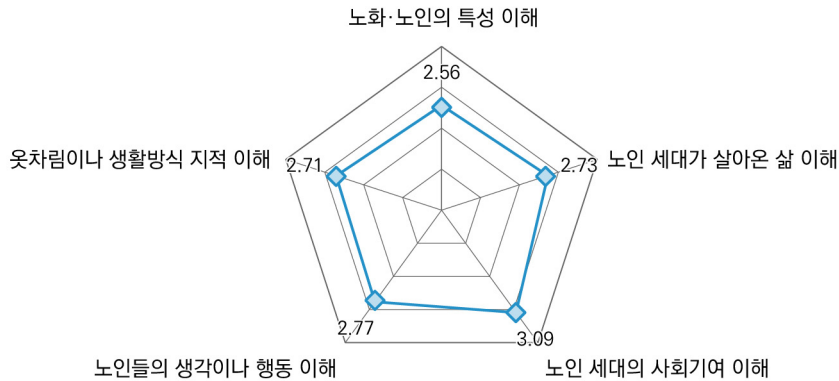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본 장(章)의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홍영란 외(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세대통합역량의 구성 요소를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⁴⁴⁾ 이에 분석 결과도 4가지 구성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1) 세대이해역량

세대이해는 세대통합역량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상이한 경험과 특성을 이해하고 동(同)시대인으로서 갖는 인식을 의미한다(홍영란 외, 2014: 193-194). 본 연구에서 세대이해역량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회기여에 대한 이해가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화의 특징 또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2.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그림 V-26] 참조).

44) 세대통합역량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본 연구 제II 장의 3절(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참조하기 바라며, 세대통합역량 개념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 및 문항 개발 근거에 관한 내용은 본 장의 1절(조사 개요)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는 노인들이 겪는 노화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노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도 줄어든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의 세대이해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부터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26】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1)세대이해역량

<표 V-31>은 세대이해역량에 속하는 5개 하위문항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이해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노화·노인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성별,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여부, 세대통합교육·활동참여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조부모와 평소에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외 노인과 소통 기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화의 특징 또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 즉 ‘노인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 및 노인 세대의 사회기여에 대한 이해, 즉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여기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여타 변인들, 즉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노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학교급을 제외한 여타 변인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나의

표 V-31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이해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세대이해 역량에 대한 문항별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한 시사점은 노인 세대와 실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이해 역량에 속한 5개 문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세대통합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세대이해역량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의 세대이해역량 제고 가능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과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구분하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운영 방식별로 세대이해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가 <표 V-3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척 흥미로운데, 먼저, ‘노화·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노인 세대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 ‘노인 세대의 사회 기여에 대한 이해’ 항목에서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해 수준이 더 높고, 교육방식별로는 선생님의 수업/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 등 강의식 수업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세대이해역량은 인지적 특성이 반영된 요소이므로, 강의식 수업이 노화나 노인의 특성이나 노인 세대의 삶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이외 여타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세대이해역량을 측정하는 5개 문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특히 나이든 세대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다.

표 V-32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이해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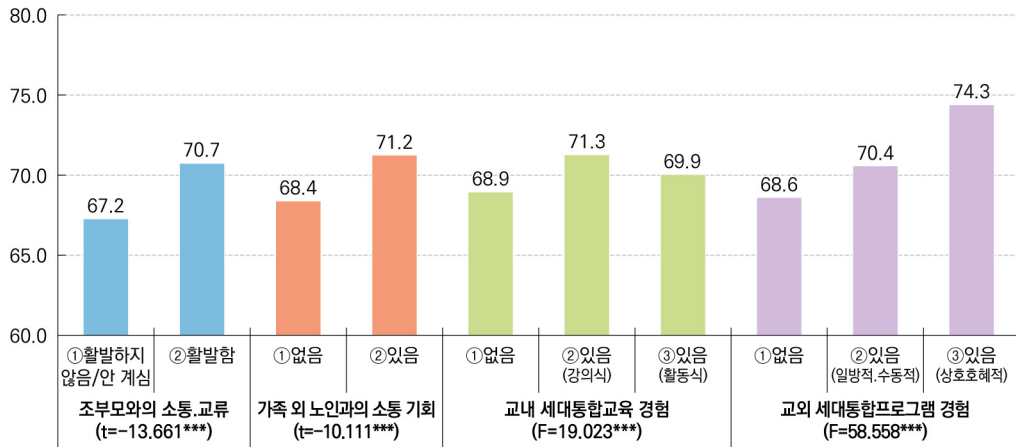
내용/구분		노화·노인의 특성을 알고 있음		노인 세대가 살아온 삶에 대해 알고 있음		노인 세대가 사회에 기여한 것을 알고 있음		노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함		웃차림이나 생활방식 지적하는 (조)부모를 이해함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3,713 (55.8)	—	4,447 (66.9)	—	5,705 (85.9)	—	4,680 (70.4)	—	4,052 (61.0)	—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 참여경험	없음	2,971 (54.3)	22.387*** (d.f.=2)	3,606 (66.0)	13.211** (d.f.=2)	4,657 (85.2)	14.628** (d.f.=2)	3,826 (70.0)	4.333 (d.f.=2)	3,308 (60.5)	3.004 (d.f.=2)
	강의·특강	502 (62.8)		578 (72.3)		721 (90.2)		575 (72.1)		509 (63.7)	
	함께 활동	152 (60.3)		173 (68.9)		218 (86.9)		189 (75.3)		152 (60.6)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2,655 (52.8)	92.939*** (d.f.=2)	3,253 (64.7)	48.131*** (d.f.=2)	4,237 (84.3)	37.316*** (d.f.=2)	3,448 (68.6)	37.134*** (d.f.=2)	3,044 (60.5)	6.793* (d.f.=2)
	일방적·수동적	662 (62.5)		754 (71.1)		959 (90.4)		772 (72.8)		638 (60.1)	
	상호 호혜적	263 (75.6)		280 (80.5)		319 (91.7)		289 (83.0)		234 (67.4)	

* $p<.05$, ** $p<.01$, *** $p<.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그림 V-27]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세대이해역량 5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를 도식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로든 노인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소통·교류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세대이해역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교 밖에서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여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상호 호혜적 활동으로 구성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무척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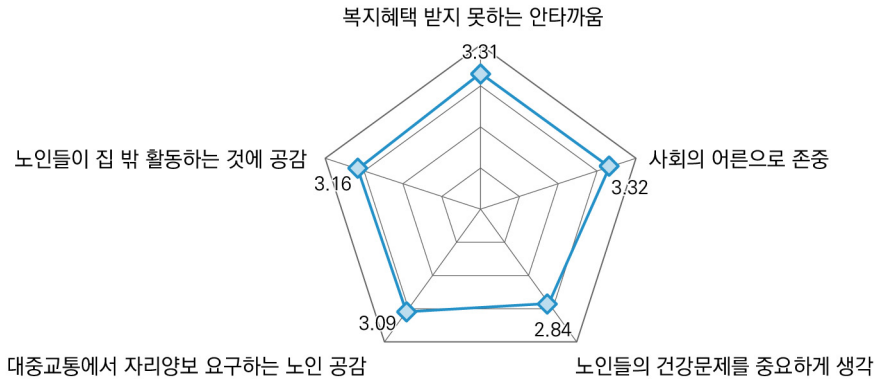
주: 1)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임.
 2) 교내 세대통합교육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②***
 3) 교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②<③***
 * $p<.05$, ** $p<.01$, *** $p<.001$

【그림 V-27】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이해역량 수준 비교

(2) 세대공감역량

세대공감은 세대통합역량의 정의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존중과 다른 세대에게 갖는 정서나 선호 등을 일컫는다(홍영란 외, 2014: 194). 본 연구에서 세대공감역량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총 5개 문항을 측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점 만점에 2.84점~3.32점의 분포를 나타내, 앞서 살펴본 세대이해역량의 문항별 평균 점수(2.56~3.09)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에 비해 공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세부 문항별로는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점이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문항이 3.3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에 비해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3.09점)이나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마음(2.8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V-28] 참조).



【그림 V-28】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2)공감역량

<표 V-33>은 세대공감역량을 측정하는 5개 하위 문항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여학생, 고등학생,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감 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항은 여학생,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외 노인과 소통기회가 있는 경우,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들이 아픈 것을 노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학생, 중학생,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외 노인과 소통기회가 있는 경우,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다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과 관련해서는 남학생, 중학생,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외 노인과 소통기회가 있는 경우,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 같은 노인의 입장에 보다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한 부정적 동의, 즉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집에 있기보다는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여학생, 고등학생,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그리고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3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공감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안타까움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함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함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 요구하는 노인에 공감함		노인들이 집에 있기 보다는 활동하는 것에 공감함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6,123 (92.2)	—	6,266 (94.3)	—	4,582 (69.0)	—	5,467 (82.5)	—	5,578 (84.1)	—
성별	남학생	3,096 (89.5)	72.872*** (d.f=1)	3,194 (92.2)	57.300*** (d.f=1)	2,275 (65.8)	35.062*** (d.f=1)	2,884 (83.6)	6.012* (d.f=1)	2,777 (80.4)	74.543*** (d.f=1)
	여학생	3,027 (95.1)		3,072 (96.5)		2,307 (72.5)		2,583 (81.3)		2,801 (88.1)	
학교급	중학교	2,840 (91.1)	9.128** (d.f=1)	2,940 (94.2)	.102 (d.f=1)	2,223 (71.3)	14.509*** (d.f=1)	2,677 (86.0)	49.757*** (d.f=1)	2,565 (82.4)	12.853*** (d.f=1)
	고등학교	3,283 (93.1)		3,327 (94.4)		2,359 (66.9)		2,790 (79.4)		3,013 (85.6)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3,614 (92.6)	2.425 (d.f=1)	3,733 (95.6)	30.241*** (d.f=1)	2,790 (71.4)	27.055*** (d.f=1)	3,292 (84.6)	28.972*** (d.f=1)	3,337 (85.7)	17.119*** (d.f=1)
	활발하지 않음	2,509 (91.6)		2,533 (92.4)		1,792 (65.4)		2,176 (79.5)		2,241 (81.9)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896 (91.3)	3.835 (d.f=1)	1,991 (95.8)	12.508*** (d.f=1)	1,495 (71.9)	12.300*** (d.f=1)	1,783 (86.3)	29.789*** (d.f=1)	1,745 (84.1)	.010 (d.f=1)
	없음	4,212 (92.7)		4,260 (93.6)		3,076 (67.6)		3,670 (80.8)		3,817 (84.0)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2,177 (93.7)	10.536** (d.f=1)	2,227 (95.8)	14.235*** (d.f=1)	1,699 (73.1)	27.776*** (d.f=1)	1,949 (83.9)	4.719* (d.f=1)	2,040 (87.9)	35.672*** (d.f=1)
	없음	3,918 (91.4)		4,013 (93.6)		2,865 (66.8)		3,495 (81.8)		3,520 (82.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공감역량은 성별의 경우 대체로 여학생이 공감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 학교급별로는 문항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하고, 가족 외 노인들과의 소통 기회가 있으며,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험에 비해 나이든 세대에 대한 공감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세대이해역량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일관되게 공감역량을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했다. 이에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V-3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나타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은 청소년의 세대공감역량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노인 세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미세하나마 더 높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효과는 좀 더 분명하다. 그리하여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더 높고, 특히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공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V-34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공감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안타까움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함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함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 요구하는 노인에 공감함		노인들이 집에 있기 보다는 활동하는 것에 공감함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6,123 (92.2)	—	6,266 (94.3)	—	4,582 (69.0)	—	5,467 (82.5)	—	5,578 (84.1)	—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 참여경험	없음	5,034 (92.2)	5,766 (d.f.=2)	5,145 (94.1)	3,351 (d.f.=2)	3,730 (68.3)	7,898* (d.f.=2)	4,471 (82.0)	7,667* (d.f.=2)	4,583 (84.0)	1,584 (d.f.=2)
	강의·특강	746 (93.5)		765 (95.7)		581 (72.9)		681 (85.6)		684 (85.7)	
	함께 활동	223 (88.8)		237 (94.4)		180 (71.7)		215 (85.7)		209 (83.6)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4,597 (91.5)	14,499** (d.f.=2)	4,715 (93.7)	15,960*** (d.f.=2)	3,396 (67.5)	29,413*** (d.f.=2)	4,115 (82.1)	2,343 (d.f.=2)	4,145 (82.6)	35,722*** (d.f.=2)
	일방적·수동적	997 (94.1)		1,020 (96.1)		763 (72.0)		884 (83.4)		938 (88.7)	
	상호 호혜적	332 (95.7)		339 (97.4)		278 (80.1)		293 (84.7)		315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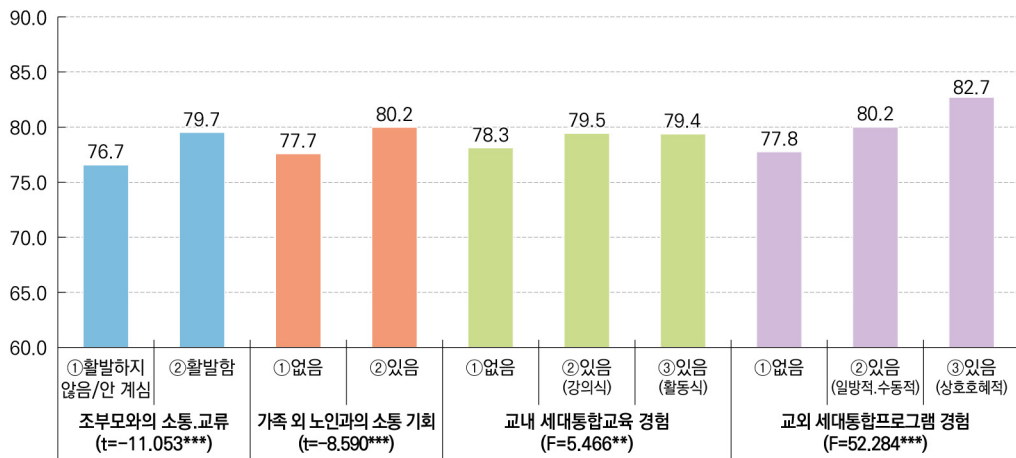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그림 V-29]에는 세대공감역량 5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나이든 세대와 실제로 상호작용한 경험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80점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에서도 나이는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세대공감역량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임.

2) 교내 세대통합교육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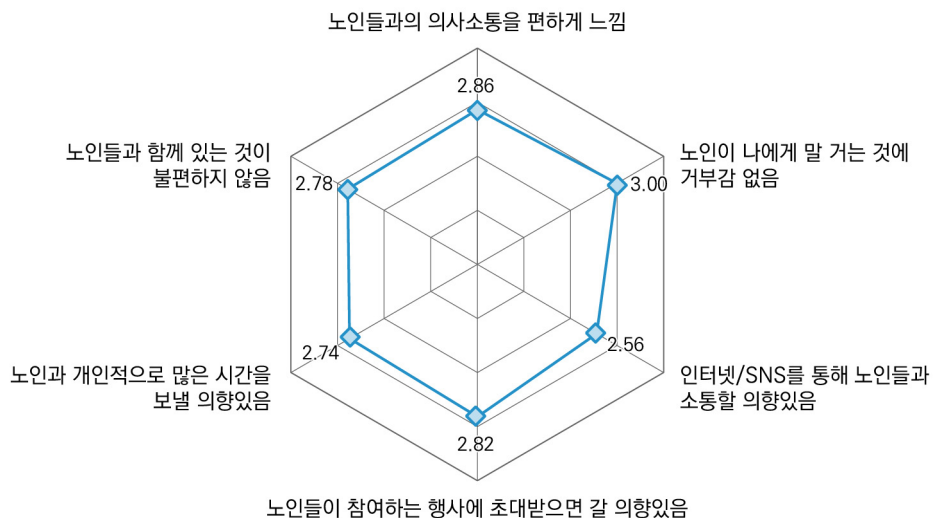
3) 교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②***, ①<③***, ②<③**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29】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공감역량 수준 비교

(3) 소통 역량

세대공감역량의 하위 요소 중 세대소통역량은 세대통합에 관한 언어적·비언어적(태도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홍영란 외, 2014: 194)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세대소통역량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이 3.00으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값이 2.56으로 가장 낮게 파악되었다. 여타 문항들은 4점 만점에 2.7~2.8점 수준을 나타내, 청소년들의 노인세대에 대한 소통역량이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V-30] 참조).



【그림 V-30】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3)소통역량

세대소통역량을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별로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노인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6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다른 세대와의 소통역량에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5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소통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느낌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에 거부감 없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소통할 의향 있음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전체		4,608(69.3)	—	5,191(78.2)	—	3,642(54.9)	—
성별	남학생	2,329(67.3)	14.447*** (d.f=1)	2,622(75.7)	25.010*** (d.f=1)	1,768(51.1)	40.199*** (d.f=1)
	여학생	2,279(71.6)		2,569(80.8)		1,874(58.9)	
학교급	중학교	2,157(69.1)	.124 (d.f=1)	2,430(78.0)	.128 (d.f=1)	1,761(56.5)	6.437* (d.f=1)
	고등학교	2,451(69.5)		2,761(78.3)		1,881(53.4)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2,977(76.3)	214.759*** (d.f=1)	3,244(83.2)	139.362*** (d.f=1)	2,396(61.4)	165.559*** (d.f=1)
	활발하지 않음	1,631(59.4)		1,946(71.0)		1,245(45.5)	

내용/구분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느낌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에 거부감 없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소통할 의향 있음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625(78.2)	112.777*** (d.f=1)	1,774(85.5)	96.486*** (d.f=1)	1,359(65.6)	139.358*** (d.f=1)
	없음	2,968(65.2)		3,401(74.8)		2,273(50.0)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727(74.3)	42.561*** (d.f=1)	1,953(84.0)	71.696*** (d.f=1)	1,435(61.8)	68.622*** (d.f=1)
	없음	2,854(66.5)		3,215(75.0)		2,193(51.2)	
내용/구분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초대받으면 갈 의향 있음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의향 있음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음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4,610(69.4)	—	4,141(62.5)	—	4,328(65.1)	—
성별	남학생	2,195(63.5)	119.611*** (d.f=1)	1,989(57.6)	73.872*** (d.f=1)	2,234(64.5)	1.281 (d.f=1)
	여학생	2,415(75.9)		2,152(67.8)		2,095(65.8)	
학교급	중학교	2,107(67.6)	9.502** (d.f=1)	1,938(62.2)	.154 (d.f=1)	2,047(65.6)	.547 (d.f=1)
	고등학교	2,503(71.1)		2,204(62.7)		2,282(64.7)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2,899(74.3)	105.628*** (d.f=1)	2,756(70.8)	276.788*** (d.f=1)	2,844(72.8)	247.831*** (d.f=1)
	활발하지 않음	1,711(62.5)		1,385(50.7)		1,485(54.1)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569(75.6)	54.770*** (d.f=1)	1,517(73.1)	146.888*** (d.f=1)	1,561(75.1)	134.062*** (d.f=1)
	없음	3,025(66.5)		2,610(57.6)		2,752(60.5)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793(77.2)	100.738*** (d.f=1)	1,638(70.6)	99.772*** (d.f=1)	1,643(70.6)	47.302*** (d.f=1)
	없음	2,797(65.3)		2,489(58.2)		2,667(62.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그에 비해 실제로 노인 세대와 접촉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부모와 평소애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이외에 노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는 경우, 세대통합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세대와의 소통역량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세대 간 소통역량을 증진하는 데는 실제로 다른 세대와 만나고 교류할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표 V-35> 참조).

상술한 것처럼 세대통합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라 소통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책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세분화 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V-3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무척 분명하다. 즉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교육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와의 소통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부분의 문항에서 선생님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 등 강의식 교육만 경험한 응답자에 비해, 어떠한 형태로든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해 본 청소년들이 노인들과의 소통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좀 더 두드러진 차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관찰되었다. 학교 밖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나이든 세대와의 소통역량을 묻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10~20%p 이상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4%가 노인이 말을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8.6%만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응답 양상은 여타 문항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나이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상호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 역량을 제고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표 V-36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소통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느낌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에 거부감 없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소통할 의향 있음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전체		4,608(69.3)	—	5,191(78.2)	—	3,642(54.9)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	없음	3,769(69.0)	8.054* (d.f.=2)	4,224(77.3)	18.574*** (d.f.=2)	2,932(53.7)	22.589*** (d.f.=2)
	강의·특강	555(69.5)		665(83.3)		486(61.0)	
	함께 활동	195(77.4)		210(83.3)		158(63.5)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3,353(66.6)	75.113*** (d.f.=2)	3,821(76.0)	64.157*** (d.f.=2)	2,624(52.2)	82.356*** (d.f.=2)
	일방적·수동적	790(74.6)		882(83.2)		632(59.7)	
	상호 호혜적	299(85.9)		317(91.4)		261(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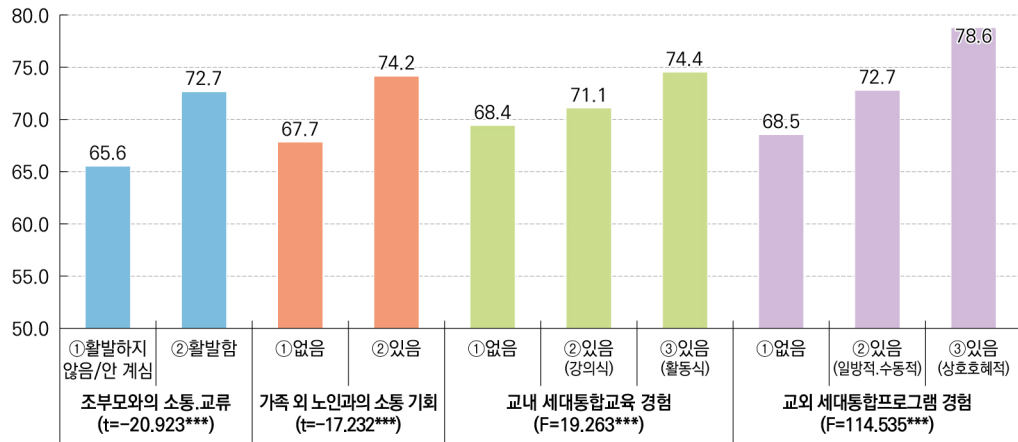
내용/구분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초대받으면 갈 의향 있음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의향 있음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음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4,610(69.4)	—	4,141(62.5)	—	4,328(65.1)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	없음	3,727(68.2)	21,828*** (d.f.=2)	3,353(61.5)	21,777*** (d.f.=2)	3,545(64.8)	13,320** (d.f.=2)
	강의·특강	597(75.1)		526(66.2)		511(64.0)	
	함께 활동	193(76.6)		187(74.2)		191(75.8)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3,343(66.6)	102,743*** (d.f.=2)	2,963(59.1)	118,728*** (d.f.=2)	3,139(62.4)	86,966*** (d.f.=2)
	일방적·수동적	801(75.5)		751(70.8)		750(70.7)	
	상호 호혜적	311(89.4)		289(83.0)		294(84.2)	

* $p<.05$, ** $p<.01$, *** $p<.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그림 V-31]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세대소통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세대이해, 세대공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 여부,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경험 등 나이든 세대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세대 간 소통역량이 더 높고, 그 차이도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78.6점으로 가장 높은 세대소통역량 수준을 보여주었다. 노인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이든 세대와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이 나이든 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완화하고,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임.

2) 교내 세대통합교육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②**, ①<③***, ②<③**

3) 교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 ②<③***, ①<②***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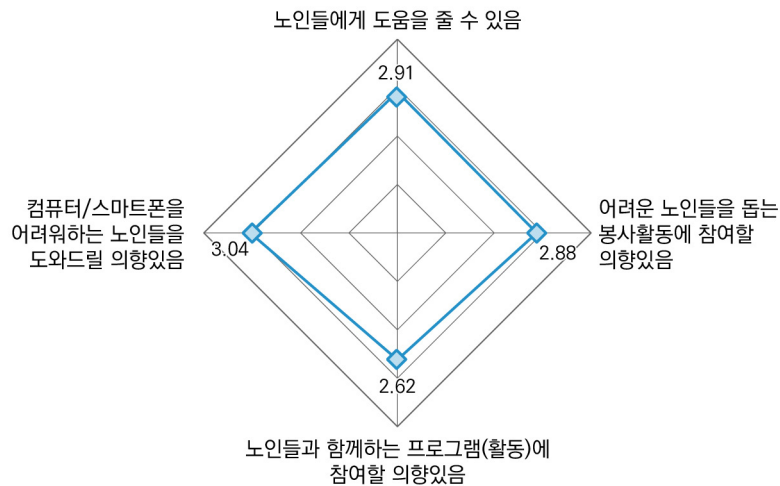
【그림 V-31】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소통역량 수준 비교

(4) 세대협력역량

세대통합역량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대협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세대협력은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행위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홍영란 외, 2014: 194)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세대협력역량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응답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2.62점으로 가장 낮게 파악되었다. 그 밖에 ‘나는 내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91점,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88점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의향은 있지만,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한 협력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해 본 세대통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주로 노인들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세대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도 크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동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V-32] 참조).



【그림 V-32】 세대통합역량 하위 문항별 수준: (4)협력역량

<표 V-37>에는 세대협력역량에 속하는 4개 하위문항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나이는 세대와의 협력에 대해 좀 더 긍정적·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남학생(66.3%)에 비해 여학생(82.2%)이 15.9%p 더 높게 파악되었고,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남학생(49.0%)에 비해 여학생(63.8%)이 14.8%p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별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나이는 세대와 직접 접촉하거나 소통·교류한 경험은 다른 세대와의 협력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외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대 간 협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학교 안팎에서 세대통합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 역시 세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7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세대협력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 의향 있음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활동 참여 의향 있음		컴퓨터/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도와드릴 의향 있음	
		명(%)	χ^2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5,228 (78.7)	—	4,908 (73.9)	—	3,728 (56.1)	—	5,527 (83.2)	—
성별	남학생	2,628 (76.0)	31.756*** (d.f=1)	2,294 (66.3)	216.565*** (d.f=1)	1,697 (49.0)	146.993*** (d.f=1)	2,700 (78.0)	138.887*** (d.f=1)
	여학생	2,600 (81.7)		2,614 (82.2)		2,031 (63.8)		2,827 (88.8)	
학교급	중학교	2,426 (77.9)	2.708 (d.f=1)	2,302 (73.9)	.000 (d.f=1)	1,737 (55.7)	.404 (d.f=1)	2,630 (84.3)	5.154* (d.f=1)
	고등학교	2,802 (79.5)		2,606 (73.9)		1,991 (56.5)		2,897 (82.2)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함	3,256 (83.5)	125.859*** (d.f=1)	3,086 (79.1)	130.840*** (d.f=1)	2,472 (63.4)	201.319*** (d.f=1)	3,411 (87.4)	119.694*** (d.f=1)
	활발하지 않음	1,972 (72.0)		1,822 (66.5)		1,256 (45.8)		2,116 (77.2)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있음	1,772 (85.4)	79.528*** (d.f=1)	1,695 (81.6)	92.775*** (d.f=1)	1,394 (67.1)	148.218*** (d.f=1)	1,822 (87.6)	43.125*** (d.f=1)
	없음	3,440 (75.7)		3,200 (70.4)		2,322 (51.1)		3,690 (81.1)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1,967 (84.7)	73.472*** (d.f=1)	1,882 (80.9)	89.829*** (d.f=1)	1,541 (66.3)	148.443*** (d.f=1)	2,049 (88.2)	62.048*** (d.f=1)
	없음	3,245 (75.7)		3,009 (70.2)		2,175 (50.7)		3,462 (80.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경험과 다른 세대와의 협력 역량 간의 관계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본 결과가 <표 V-38>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협력 역량을 측정하는 4개 문항에서 모두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일관되게 협력역량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교육방식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어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에서 모두 노인들과 함께 하는 형태의 세대통합교육을 경험해 본 청소년들이 강의식 교육만을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협력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교 밖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세대협력 역량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세대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제시된 4개 문항에서 81~93% 수준의 긍정적 응답 비율을 나타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노인들과 상호 협력하는 경험을 해 본 청소년들이 세대 간 협력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8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세대협력역량 차이 검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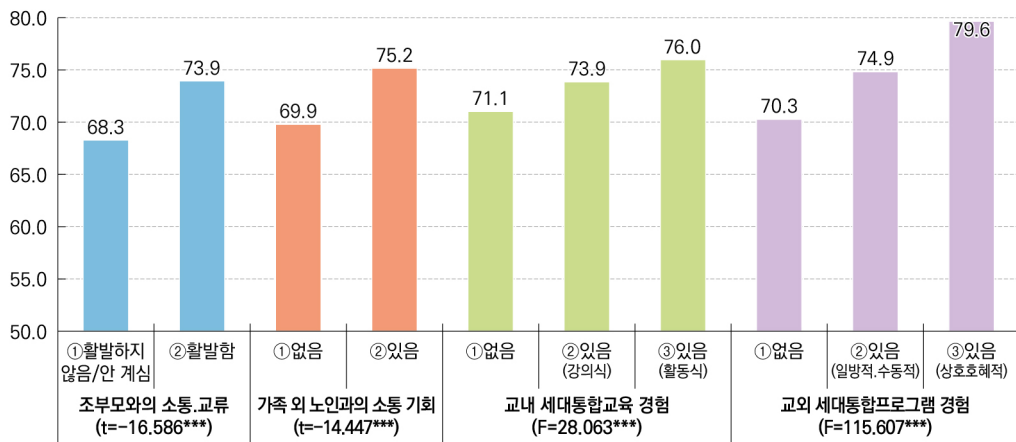
내용/구분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 의향 있음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활동 참여 의향 있음		컴퓨터/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도와드릴 의향 있음	
		명(%) ¹⁾	χ^2 ²⁾	명(%)	χ^2	명(%)	χ^2	명(%)	χ^2
전체		5,228 (78.7)	—	4,908 (73.9)	—	3,728 (56.1)	—	5,527 (83.2)	—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참여 경험	없음	4,263 (78.0)	15.658*** (d.f=2)	3,991 (73.1)	18.591*** (d.f=2)	2,982 (54.6)	42.742*** (d.f=2)	4,497 (82.3)	25.985*** (d.f=2)
	강의·특강	668 (83.7)		620 (77.7)		500 (62.7)		707 (88.5)	
	함께 활동	205 (82.7)		209 (82.9)		179 (71.3)		225 (89.3)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	3,844 (76.5)	69.340*** (d.f=2)	3,560 (70.8)	115.269*** (d.f=2)	2,600 (51.7)	189.886*** (d.f=2)	4,104 (81.6)	54.744*** (d.f=2)
	일방적·수동적	899 (84.8)		867 (81.8)		719 (67.8)		937 (88.6)	
	상호 호혜적	313 (91.0)		319 (91.7)		283 (81.6)		323 (92.8)	

* $p<.05$, ** $p<.01$, *** $p<.001$

주: 1) 제시된 비율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χ^2 검증은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과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개 범주에 대해 실시되었음.

[그림 V-33]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다른 세대와의 협력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를 도식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해, 공감, 소통역량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노인 세대와 직접 접촉하고 상호 교류해 본 경험이 다른 세대와 협력하는 역량과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은 이 같은 역량을 함양하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임.

2) 교내 세대통합교육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 ②<③***

3) 교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 집단 간 사후분석(Scheffe-test): ①, ②<③***, ①<②***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33】 응답자 주요 특성별 세대협력역량 수준 비교

6)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세대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세대통합 방안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제시된 대응 방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이 모든 문항에 걸쳐 72~93%로 나타나, 여기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문항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12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최근의 세대 문제는 단지 살아온 시대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일각의 분석이 무척 설득력 있는 것임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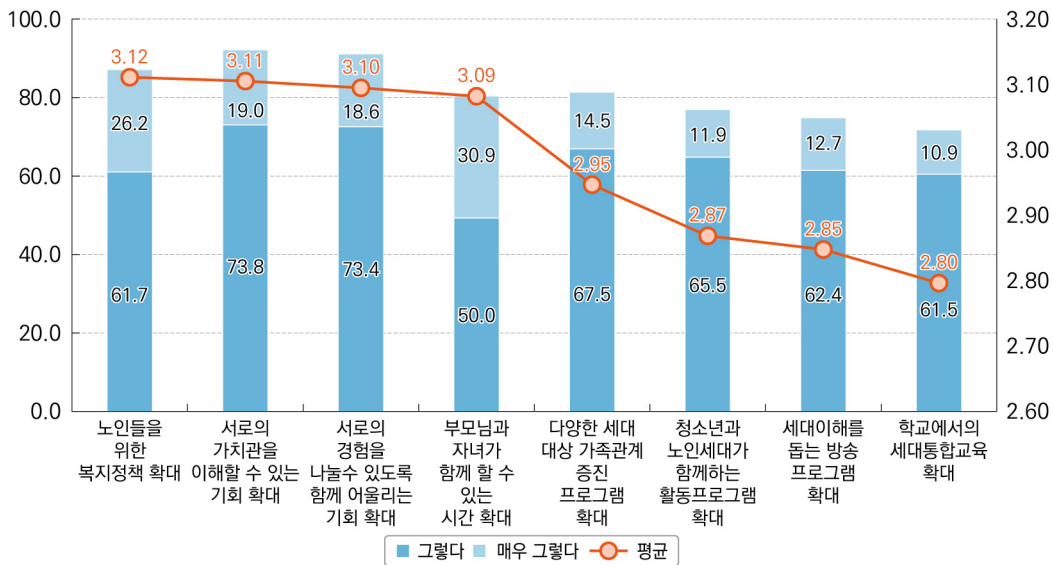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세대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3.11점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92.8%의 청소년들이 긍정하는 의견(그렇다 73.8%+매우 그렇다 19.0%)을 표명했다. 또한 ‘각 세대가 서로의 경험, 지식, 기술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데도 92.0%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입장(그렇다 73.4%+매우 그렇다 18.6%)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나이든 세대와 함께 소통·교류하고 어울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세대 간 소통·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무척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3.09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의견이 30.9%로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세대 간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 80.9%의 청소년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이 같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세대의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 손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밖에,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는 데는 77.4%의 청소년들이 동의(그렇다 65.5%+매우 그렇다 11.9%)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75.1%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입장(그렇다 62.4%+매우 그렇다 12.7%)을 나타냈다.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는 데는 72.4%의 청소년들이 동의(그렇다 61.5%+매우 그렇다 10.9%)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V-34] 참조).

절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처럼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70%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상대적 견지에서 보면, 제시된 8가지 대안 가운데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미 학업부담이 가중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세대통합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세대 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V-34】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

7)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앞서 다양한 문항들을 토대로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세대통합 역량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에는 앞서 실태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231개교 학생 6,65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1) 변수

①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세대통합역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4년 수행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홍영란 외, 2014)에서 개발한 세대통합성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20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세대통합역량은 이해(5개 문항), 공감(5개 문항), 소통(6개 문항), 협력(4개 문항)의 4가지 하위 영역별로 구분되는데⁴⁵⁾, 여기에서는 전체 세대통합역량과 더불어 각 하위 영역별 측정치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세대통합역량 점수는 문항별로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을 각 영역별로 합산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②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생수준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노인·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들이 1단계에서 투입되었고, 학교 안팎에서 실시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이 2단계에서 투입되었다. 학교수준에서는 학교급과 학교 소재지 규모에 관한 변인이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투입된 변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표 V-39>에 제시되어 있다.⁴⁶⁾

표 V-39 투입 변인의 구성

변수명	설명
개인 특성	
성별	• 남학생 준거집단, 여학생=1
자아존중감	•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5) 세대통합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영역별 문항은 본 보고서 제V장 제1절(1. 조사의 개요)의 <표 V-2>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6) 각 문항의 구체적인 출처는 본 보고서 제V장 제1절(1. 조사의 개요)의 <표 V-3>을 참조하기 바란다.

변수명	설명
관계형성역량	4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시민의식	4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학급회의와 학급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복도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줍는다
노화에 대한 인식 및 노인과의 접촉 경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노인은 건강하다, 노인은 지혜롭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 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노인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부모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 젊은 층이 체감하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 변수 구성: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부모님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개 범주(부모님이 스스로 전부 부담, 부모님이 주로 부담하고 내가 조금 도와드리,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부담, 내가 전부 부담)으로 측정된 것을 활용하여, ‘반반씩 부담’으로 응답한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삼아 ‘부모님이 전부 혹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자녀가 전부 혹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
자녀 결혼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 부모세대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한 문항 - 변수 구성: 추후 본인의 결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부모님이 전액을 부담’,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이 부담’,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부담’, ‘내가 전부 부담(내 스스로 해결)’ 등 5개 범주로 측정된 것을 활용하여, ‘반반씩 부담’으로 응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부모님이 주로 부담’, ‘자녀가 주로 부담’으로 구분하여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
부모와의 세대차이 여부 및 대응 방식	- 부모에게 세대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반영하는 문항 - 변수 구성: 세대차이를 느낀 경험 여부와 세대차이를 느꼈을 때 대응 방법(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내 의견대로 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대화를 피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 기타)을 함께 고려하여, ‘세대차이를 느낀 적이 있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고 답한 집단과 ‘세대차이를 느낀 적이 있고 일방의 의견을 따르거나 대화를 회피한다’고 답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세대차이를 느낀 적이 없다’고 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각각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

변수명	설명
부모와의 관계	5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 측정문항: 부모님은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을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지를 함께 고려한 문항 - 변수 구성: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동거 경험이 있으나 불만족’, ‘동거경험에 대해 만족 등 2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 평소에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연락을 하거나 찾아뵙는 등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하지 여부를 반영하는 문항 - 변수 구성: ①전혀 활발하지 않다, ②별로 활발하지 않다, ③약간 활발하다, ④매우 활발하다, ⑤(친/외)할머니/할아버지가 모두 안 계신다 등 5개 범주로 측정된 것을 활용하여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안 계심’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활발하지 않다/안 계심’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활발하다’고 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	변수 구성: 평소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에 대해 ①전혀 없다, ②별로 없다, ③약간 있다, ④자주 있다 등 4개 범주로 측정된 것을 리코딩하여 ‘있다’, ‘없다’의 2개 범주로 재구성한 뒤,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가 없다’고 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있다’고 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학교 내 세대통합 교육경험	- 지금까지 학교(수업시간, 방학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한 문항 - 변수 구성: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강의식 수업(선생님 설명, 외부 전문가 특강)’과 ‘활동식 수업’으로 구분한 뒤 각각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학교 밖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한 문항 - 변수 구성: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어르신과 내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한 경우로 구분한 뒤, 각각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학교 특성	
학교급	중학교 준거집단, 고등학교=1
학교 소재지 규모	서울, 광역시, 기타 시·도로 구분한 뒤, 서울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광역시 및 기타 시·도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가 <표 V-40>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V-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0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종속변인)

요인	세대통합 역량(총합)	이해	공감	소통	협력
신뢰도 (Cronbach's α)	0.881	0.570	0.603	0.862	0.808

요인	자아존중감	관계형성 역량	시민의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모와의 관계
신뢰도 (Cronbach's α)	0.900	0.816	0.667	0.654	0.601	0.875

표 V-41 투입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M	S.D.
개인수준		
성별(남=0, 여=1)	0.54	0.50
자아존중감	2.96	0.64
관계형성역량	3.04	0.45
시민의식	2.86	0.46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2.63	0.4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45	0.46
부모 부양비용 인식_부모가 부담(반반씩 부담=0, 부모가 주로 부담=1)	0.14	0.35
부모 부양비용 인식_자녀가 부담(반반씩 부담=0, 자녀가 주로 부담=1)	0.72	0.45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_부모가 부담(반반씩 부담=0, 부모가 주로 부담=1)	0.07	0.26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_자녀가 부담(반반씩 부담=0, 자녀가 주로 부담=1)	0.75	0.44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의견존중 및 타협(세대차이 없음=0, 존중 및 타협=1)	0.17	0.38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일방적 조정 및 대화 회피 (세대차이 없음=0, 한쪽의 의견대로 하거나 대화를 회피=1)	0.35	0.48
부모와의 관계	3.27	0.61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_불만족(동거 경험 없음=0, 동거했으나 불만족=1)	0.06	0.24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_만족(동거 경험 없음=0, 동거에 대해 만족=1)	0.36	0.48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활발하지 않음/안 계심=0, 활발함=1)	0.60	0.49

변인	M	S.D.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없음=0, 있음=1)	0.32	0.46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경험_강의식(교육경험 없음=0, 강의식 교육 참여=1)	0.12	0.33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경험_활동식(교육경험 없음=0, 노인세대와 직접 접촉=1)	0.04	0.18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_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 (경험 없음=0, 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 참여=1)	0.17	0.37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 경험_상호호혜적 프로그램 (경험 없음=0,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참여=1)	0.06	0.23
학교수준		
학교급(중학교=0, 고등학교=1)	0.48	0.50
지역(서울=0, 광역시=1)	0.22	0.42
지역(서울=0, 기타 시·도=1)	0.61	0.49

(3) 분석 방법

① 분석 모형

본 연구의 표본은 1단계에서 시·도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 2단계에서 시·도에서 학교를 선정한 뒤,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선정되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해, 학교-학생의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세대통합역량이 연속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층모형 분석 방법 가운데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학생수준(1수준) 모형 :

$$Y_{ij}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cdots + \beta_{qj}X_{qij} + r_{ij} \quad (\beta_{qj}, q = 0, \cdots, N)$$

- 학교수준(2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gamma_{02}W_{2j} + \cdots + \gamma_{0Sq}W_{Sqj} + u_{0j}$$

$$\beta_{1j} = \gamma_{10}$$

...

$$\beta_{qj} = \gamma_{q0} \quad (Ws, s=1, \cdots, Sq)$$

학생수준 모형의 Y_{ij} 는 j번째 학교에 있는 i번째 학생의 세대통합역량을 의미하고, β_{0j} 는 절편값, $\beta_{1j} \cdots \beta_{qj}$ 는 개인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r_{ij}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평균 0과 분산 σ^2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학교수준 모형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의 세대통합역량에 대해 학교수준 변인들을 투입하여 설명하게 된다. 학교수준 모형의 수식에서 β_{0j} 는 학교마다 변하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의미하고, 학생수준 변인들의 효과는 고정효과(fixed effect)로 설정되었다. γ_{00} 는 전체 학생들의 세대통합역량의 총평균을 의미하며, $\gamma_{01} \cdots \gamma_{0sq}$ 는 각 학교변수들의 효과를 뜻한다. u_{0j} 는 평균 0과 2수준 분산 τ_{00}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며,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들 가운데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인들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는 HLM 6.08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② 모형의 구성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모델 I 은 다층모형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부 모형 추정 결과, 학교 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I는 개인의 특성 및 노화·노인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구성하였고, 모델 III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모델 IV는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V에는 학교수준 변인들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단계별 구성은 [그림 V-35]에 제시하였다.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무조건부 모형	●	—	—	—	—
개인 특성 및 노화·노인에 대한 태도와 경험		●	●	●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			●	—	●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	●
학교 특성					●

【그림 V-35】 청소년에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모형의 단계별 구성

(4) 분석 결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V-42> 및 <표 V-4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델Ⅱ에 투입된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 자아존중감, 관계형성역량, 시민의식이 세대통합역량 수준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세대통합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b=1.719, p<.001$),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관계형성역량, 시민의식이 양호할수록 다른 세대와의 세대통합역량도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화·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중에서는 노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세대통합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세대통합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활동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은 증가하는 현실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부모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세대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부모님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 비해 ‘부모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세대통합역량은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자녀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부모 부양비용에 대한 부담 의사와 세대통합역량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으로 부모를 지원할 의향이 강한 경우,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의 세대갈등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2016.08.25.).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의 확대 등 부모에게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부모-자녀 세대의 갈등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과 세대통합역량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차 학생의 결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부모님이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집단과 ‘내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세대통합역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 부모 부양 부담은 기피할수록 세대통합역량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세대통합역량은 경제적 요인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세대통합역량이 더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른 세대와 관계를 맺는 데도 광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도 세대통합역량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나이든 세대와의 이해·공감·소통·협력 역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세대와의 접촉 경험과 관련해서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변인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만족했던 경험은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소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할수록, 그리고 가족 외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있을수록 세대통합역량을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세대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경험이 세대통합역량을 함양하는 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델Ⅲ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여타 조건을 통제했을 때,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은 세대통합역량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델Ⅳ에서 살펴본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뚜렷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대통합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결과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 혹은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해, 노인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V에서는 학교급과 지역 규모 등 학교 특성이 반영되었는데,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는 이전 단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평균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에 비해 광역시 및 기타 시·도에 소재한 학교의 평균 세대통합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2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72,482***	.174	68,229***	.341	68,275***	.342	68,069***	.337	66,800***	.434
개인수준 변인										
성별(여=1)			1,719***	.211	1,714***	.210	1,576***	.209	1,603***	.210
자아존중감			.552**	.177	.584**	.177	.548**	.176	.598**	.179
관계형성역량			3,603***	.308	3,593***	.310	3,581***	.306	3,531***	.308
시민의식			3,721***	.298	3,665***	.299	3,582***	.299	3,565***	.297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5,658***	.277	5,709***	.283	5,732***	.277	5,800***	.279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4,440***	.240	-4,398***	.242	-4,362***	.243	-4,381***	.246
부모 부양비용 인식_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078	.345	-.122	.351	-.136	.344	-.211	.348
부모 부양비용 인식_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1,402***	.241	1,401***	.245	1,392***	.241	1,407***	.245
자녀 결혼비용 인식_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962*	.417	-1,032*	.419	-.967*	.419	-1,078*	.422
자녀 결혼비용 인식_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108	.240	.069	.239	.135	.240	.043	.242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서로 의견존중 및 타협			.695**	.262	.665*	.265	.668*	.266	.606*	.270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일방적 조정 및 대화 회피			.350 †	.207	.310	.209	.201	.210	.149	.211
부모와의 관계			.978***	.198	.997***	.198	.925***	.198	.926***	.198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불만족			-.606	.386	-.589	.388	-.658 †	.392	-.634	.398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만족			1,912***	.201	1,905***	.200	1,800***	.206	1,791***	.205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			1,626***	.190	1,590***	.193	1,640***	.188	1,656***	.188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1,554***	.205	1,505***	.207	1,240***	.207	1,265***	.208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강의식					.291	.276	-	-	.284	.281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활동식					.802	.521	-	-	.352	.510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							1,594***	.263	1,418***	.268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2,271***	.391	2,168***	.394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b	se	b	se	b	se	b	se	b	se
학교수준 변인										
학교급(고등학교)									1.056***	.226
지역(광역시)									.966**	.306
지역(기타 시·도)									1.018**	.280
분산										
개인간 분산(σ^2)	89.010		51.039		51.019		50.593		50.651	
학교간 분산(τ_{00})	3.867		1.545		1.562		1.264		0.949	
전체	92.877		52.584		52.581		51.857		51.600	
집단내 상관(ICC)	0.042		0.029		0.030		0.024		0.018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427		0.427		0.432		0.431	
학교수준			0.600		0.596		0.673		0.755	
전체			0.434		0.434		0.442		0.44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V-43>에는 세대통합역량을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4개 하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 그 영향요인을 구명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학생은 공감, 소통, 협력의 3개 영역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지만, 이해 영역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은 나이든 세대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데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인지적 측면에서 나이든 세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여학생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 부양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즉 부모 부양비용은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역량이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모와 세대차이가 있을 때 일방의 의견을 따르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것도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공감, 협력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세대와의 접촉·교류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꺼릴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경험하는 다른 세대와의 이해, 공감, 소통, 협력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효과의 경우,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중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강의식 수업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 공감, 협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4개 하위 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이 일방적·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 어르신 세대와 상호 의논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학교 수준 변인의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공감을 제외한 이해, 소통, 협력에서 모두 고등학교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보여주었고, 지역 규모의 경우, 공감 및 소통 영역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표 V-43>에 정리되어 있다.

표 V-4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하위역량별 다층모형 분석 결과

	이해		공감		소통		협력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67.905***	.537	73.066***	.580	61.539***	.734	64.697***	.698
개인수준 변인								
성별(여=1)	-1.150***	.271	1.630***	.258	2.033***	.330	3.915***	.323
자아존중감	.573*	.228	.349	.217	.310	.271	1.144***	.290
관계형성역량	4.507***	.377	2.951***	.342	2.767***	.443	3.919***	.499
시민의식	2.351***	.349	2.582***	.371	3.536***	.445	5.541***	.46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4.582***	.359	4.881***	.330	6.724***	.450	6.983***	.447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374***	.318	-4.117***	.305	-8.070***	.418	-2.965***	.372
부모 부양비용 인식 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736 †	.436	-.741	.469	.142	.576	.477	.557
부모 부양비용 인식 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075	.330	2.475***	.348	1.661***	.445	1.558***	.392
자녀 결혼비용 인식 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1.078*	.540	-.909	.571	-1.266*	.638	-1.007	.670
자녀 결혼비용 인식 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148	.307	.054	.311	.250	.406	-.27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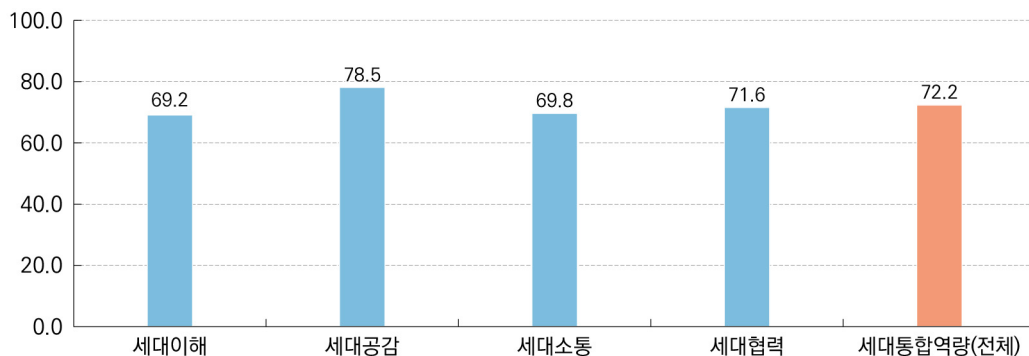
	이해		공감		소통		협력	
	b	se	b	se	b	se	b	se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서로 의견존중 및 타협	.021	.327	.641 †	.342	.334	.467	1.448***	.389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일방적 조정 및 대화 회피	-.681*	.271	.913**	.274	-.474	.360	.833*	.332
부모와의 관계	1.449***	.232	.579*	.238	.772*	.323	.897**	.308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불만족	-.614	.523	.138	.537	-1.208 †	.653	-.845	.623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만족	.654*	.266	1.607***	.256	3.100***	.315	1.804***	.311
조부모와의 소통·교류_활발	1.290***	.238	.635*	.263	2.870***	.315	1.829***	.275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582*	.252	.205	.272	2.509***	.347	1.741***	.335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강의식	.796*	.349	.128	.353	-.336	.481	.552	.435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활동식	-.384	.623	-.503	.691	1.035	.809	1.262	.807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	.758*	.307	.750*	.358	1.729***	.409	2.440***	.428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2.097***	.532	1.128*	.516	2.906***	.611	2.523***	.612
학교수준 변인								
학교급(고등학교)	1.532***	.280	-.072	.270	1.963***	.364	.785*	.342
지역(광역시)	.088	.414	1.789***	.438	1.723**	.548	.267	.469
지역(기타 시·도)	.069	.331	1.989***	.380	1.491**	.482	.511	.429
분산	무조건부 ¹⁾	분석모형	무조건부 ¹⁾	분석모형	무조건부 ¹⁾	분석모형	무조건부 ¹⁾	분석모형
개인간 분산(σ^2)	105.427	80.677	111.930	86.783	194.530	129.050	180.756	125.846
학교간 분산(τ_{00})	3.130	1.241	4.184	0.907	6.126	2.496	7.105	1.615
전체	108.557	81.918	116.114	87.69	200.656	131.546	187.861	127.461
집단내 상관(ICC)	0.029		0.036		0.031		0.038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235		0.225		0.337		0.304
학교수준		0.604		0.783		0.593		0.773
전체		0.245		0.245		0.344		0.322

주: 1) 이해, 공감, 소통, 협력 4개 역량 모두 무조건부 모형 추정 결과, 학교 간 분산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8)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통합역량 수준은 평균 72.2점을 나타내 청소년들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소통·협력하는 역량이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역별로는 공감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고, 이해와 소통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의 특징, 노인세대가 살아온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노인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이해부터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V-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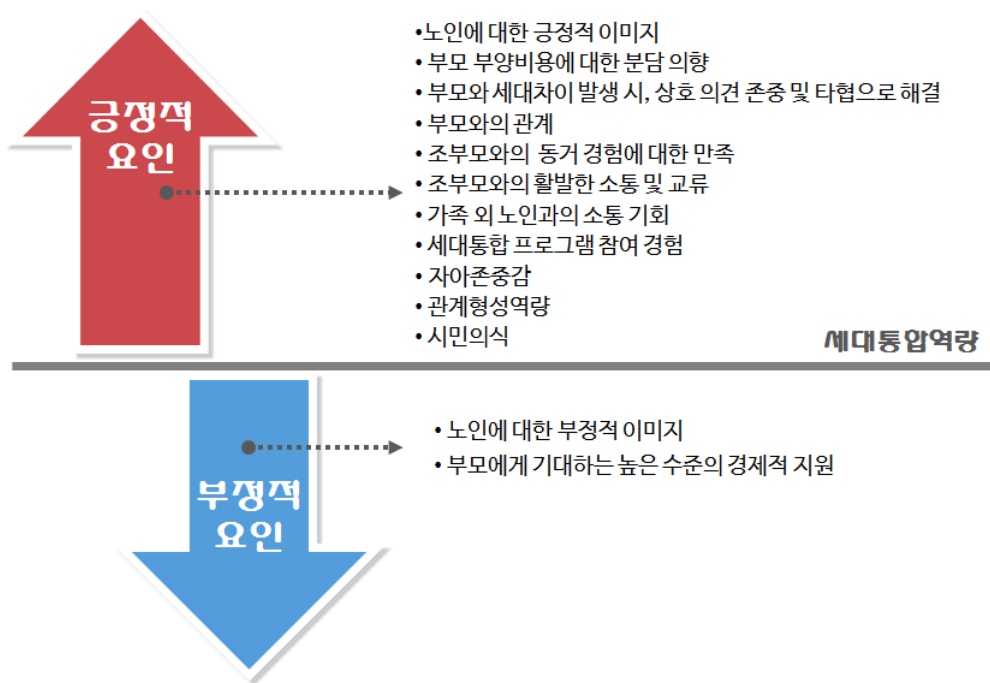


주: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그림 V-3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역별 비교

다음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성별과 같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인 요인으로 [그림 V-37]과 같은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예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도록 돕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노인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주요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기 보다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경험이 청소년 세대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마음 등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들의 인생을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모 세대의 노년 준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올바른 가족관계 정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V-3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

<표 V-44>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수준, 그리고 그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의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함의 및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44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①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한 경우, 가족 이외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있는 경우,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노인 세대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인 세대에 대한 이질감 완화에 도움이 됨.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고령자에 대한 친밀감	- 노인들을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청소년(58.6%)은 소통·교류가 없는 청소년(37.9%)보다 20%p이상 높음. -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에 따른 차이 역시 64.3% vs. 43.6%로 격차가 큼.	청소년이 노인 세대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1/3 가량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평소에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하거나,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기회가 있거나,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인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있을수록 긍정적 이미지는 높고 부정적 이미지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편견이나 고정관념,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 기회 제공 필요 -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필요
② 한국 사회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세대 갈등의 원인	-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1순위 원인)에 대해,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고, ‘세대 간 소통 부족’ 23.6% 등이 높게 나타남. - 중복응답 분석 결과 역시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가 69.9%, ‘세대 간 소통 부족’ 59.0로 수위를 차지함.	청소년들은 세대갈등의 주된 원인을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 및 ‘세대 간 소통부족’에서 찾고 있음. 이는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유효한 세대 간 갈등 완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들에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향후 ‘일자리를 둘러싸고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62.8%가 동의했고,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해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74.0%가 동의함.	경제적 요인에 의한 세대갈등보다 정치적 요인에 따른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영향력의 세대 간 불균형이 향후 젊은 세대로 하여금 세대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③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경험	세대갈등 심화에 대한 전망	향후 한국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6.6%에 달함. 특히 매우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23.5%를 차지함.	→ 세대 간 정치적 영향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 청소년들은 세대갈등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세대차이 인식 및 대응	청소년들이 언제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차이를 느끼는지 중복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든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 45.8%, ‘나이든 사람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42.1%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와 함께 의미 있는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이든 세대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상호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소통·교류 기회 제공 필요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학교급별 비교 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세대 간 소통·교류 경험 확대를 위한 개입 시기와 관련하여, 노인 세대와 거리감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급적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④ 세대 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및 교류 기회	- 평소에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함께 대화나 활동할 기회가 없다는 응답(68.7%)이 있다는 응답(31.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특히 ‘전혀 없다’는 응답이 24.5%로 전체 응답자의 1/4을 차지	3세대 가족의 비중이 감소하고 핵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평소 노인 세대와 접촉할 절대적인 기회 자체가 없음 → 청소년이 다른 세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교육 참여 경험	지금까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7.2%에 불과했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학교를 통한 세대통합교육 확대 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교육 참여 경험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했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의 특강’이라는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었음. 반면 실제로 노인 세대와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세대통합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 고려 필요 →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함께 만나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설계 필요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학교 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동) 참여 경험	-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교육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우세 - 단, 교육내용의 흥미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교육이 청소년이 나이든 세대에 대한 거리감을 완화하고 이해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됨. - 향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교육 설계 시,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 일반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강의식 교육보다는 나이든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에 따라 효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강의식 교육보다는 활동식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이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세대통합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남.	-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실시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비율이 학교에서의 교육경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바, 그간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보다는 학교 외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 → 학교를 통한 교육 확대와 더불어, 기존에 운영되었던 학교 외 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성 제기
	- 학교 외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센터/요양원 등)이라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시설(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이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남. - 반면, 청소년시설은 7.1% 수준에 그침.	-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참여했다는 응답 결과는 그간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이 서로 다른 세대가 동등한 관점에서 상호교류하기보다는, 취약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복지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방증 →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전환 필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내 프로그램에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확충 필요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프로그램(활동)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55.2%로 과반에 달했고, ‘어르신을 찾아가서 공연이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38.0%로 2순위로 나타남. • 프로그램(활동)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어르신을 일방적으로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렸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차지했고, ‘진행자(선생님)가 시키는 대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5.6%를 차지함. - 반면, ‘어르신과 내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며 진행했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 • 프로그램(활동)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그 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내용 흥미도 분석 결과, 일방적·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더 흥미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의향 조사 결과, 참여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62.8%,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7.2%로 나타나,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 - 특히 기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참여 의사가 대단히 높게 도출됨.	•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청소년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접촉도 의미가 있지만, 자칫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건강하지 못하고 의존적))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 노인복지적 프로그램 외에,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필요 • 프로그램(내용)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참여 집단이 모두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음 •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확대 필요
[5] 세대 통합 역량	세대이해 역량	• 노인들이 겪는 노화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여타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노화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예방할 수 있음.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실태 분석		노인 세대와 실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제고됨.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 경험 확대 필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특히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해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이 같은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세대공감 역량	노인 세대와 실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공감 수준이 제고됨.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 경험 확대 필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세대소통 역량	노인 세대와 실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소통 수준이 제고됨.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 경험 확대 필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소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세대협력 역량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응답은 3.0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2.62점으로 낮게 나타남.	-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의향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할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함. →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성 제기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협력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특히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협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이 같은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⑥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인식	• 효과적인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음. 그 밖에 ‘각 세대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함께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냄. - 반면,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청소년들은 최근의 세대문제를 단순한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 → 경로효친, 노인에 대한 공경 등 기존의 세대통합 논의의 관점과 프레임으로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접근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관점과 접근 방법의 전환이 요구됨. • 세대 간 소통·교류의 필요성을 광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이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설계 및 운영 방식 마련 필요
⑦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는 세대통합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의 세대차이 발생 시, 상호의견 존중 및 타협하는 경험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됨. • 조부모와의 활발한 소통·교류, 가족 외 노인과 접할 기회 확대 등 노인 세대와의 상호 교류 경험을 증진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함 •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은 여타 조건을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도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함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필요 → 노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 및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가정 차원의 노력으로, 가정 내에서 구성원 간 의견 충돌 발생 시 일방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을 실시할 필요 • 다양한 경로로 노인 세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 접촉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학교 밖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평소에 노인세대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제 VI 장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관점과 방향
2. 정책과제

제 VI 장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관점과 방향

여기에서는 제Ⅱ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 제Ⅲ장에서 제시한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에서 검토한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제Ⅴ장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세대갈등·세대통합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실태조사 결과 및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관점과 방향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1) 기본 관점

(1)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관점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예(禮)나 효(孝)와 같은 도덕적 가치의 회복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수의 고령세대와 함께, 다(多)세대의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노인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 함께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세대통합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분열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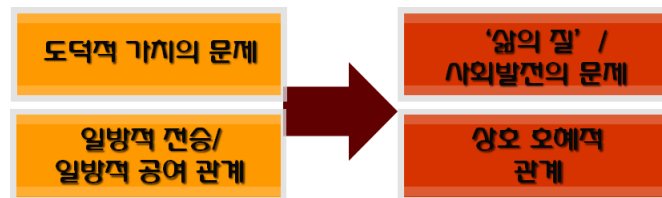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측면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소통·공감·협력하는 태도와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2) 일방적 공여·전승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세대관계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세대문제와 세대통합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도덕적 가치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세대통합에서 지향해야 하는 세대 간 관계는 일방적 전승이나 공여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라고 보았다. 세대문제를 경로효친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어린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서는 두 세대의 역할이 수혜자와 공여자로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어린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일방적으로 공경하거나, 혹은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승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허새나 외, 2016: 12).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다(多)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도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세대통합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세대 간 관계는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희생이나 수혜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VI-1】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대비 본 연구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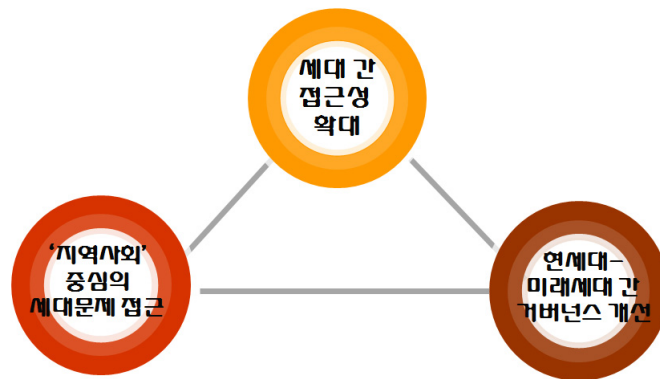
2)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세대 간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접근성 확대는 주니어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시니어 세대와의 접촉 기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로 만나서 교류해야 또 다른 만남도 진행될 수 있고, 만남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접촉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 간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제안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세대 간 만남과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의 만남이 단순 접촉에 그치지 않고 세대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책 설계, 운영, 자원 확보, 피드백의 제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VI-2]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VI-2】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방향

상술한 기본 관점과 방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에 대해 12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12개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2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 및 구조도가 <표 VI-1>과 [그림 VI-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1 정책과제의 도출 근거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책추진과제 도출
선행연구 검토 및 2차자료 분석	• 사회구성원 다수가 세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세대갈등의 주된 원인은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 차이	→ •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이 노인에게 갖는 인식은 실제 경험보다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도덕적 당위 측면이 강함 → 젊은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면 급변할 가능성	→ • 상호 호혜적 관점의 세대 간 관계 설정 • 상호 호혜적 관점의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 세대 간 갈등은 과거의 문화적, 관념적 형태에서 배분적 갈등으로 변모	→ • 세대 간 문제에 대한 현실적 차원의 접근 필요 → 생활밀착형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확인 -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긍정적 효과 도출	→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 효과적 확산을 위해 학교교육과의 연계 필요
법령 및 정책 분석	• 청소년 관계 법령에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음	→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관계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도입·운영하는 데 유리한 환경 조성	→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 반영
	• 청소년분야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 소략 • 시행계획 분석 결과,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 간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사업 미흡	→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세대통합 관련 내용 반영
	• 현실적인 정책추진 방안으로, 학교교육과 연계 강화 필요	→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 자유학기제와 연계
사례 분석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 • 학교와 연계 시, 교사 역할의 중요성 확인	→ • 교원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확인	→ • 지역사회 중심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필요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세대통합 프로그램 효과 담보 가능	→ •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기반 강화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 프로그램 설계 시 유의사항 - 적정 규모의 조 편성 필요	→ • 프로그램 기획·설계 시, 소외되는 참가자 없이 모두 참여하도록 역할 부여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책추진과제 도출
	-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 기존 제도의 개선·보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활용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 신규 제도 도입 - 세대통합포럼(가칭) 운영 방안 제시
	- 학교 수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반영이 필요함 -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반영 -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세대문화교류기획자 양성하여 자유학기제 강사로 활용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효과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기획 가능 - 시니어-주니어세대 간 대등한 관계 설정 가능	지역사회 중심 정책제안 기본방향 도출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 세대통합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 확인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 시니어 세대와의 접촉 기회 확대 필요
	정치적 요인에 대한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높음 → 세대 간 정치적 영향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세대 간 균형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관련 - 강의식 프로그램보다 활동식 프로그램이 효과적	시니어 세대와 직접 만나는 활동 중심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
전문가 자문	일방적 수혜나 공여보다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효과 높음	-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정책도출의 기본방향으로서 상호호혜적 관계 도출 - 상호 대등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 필요
	-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 - 교수학습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교사들의 세대통합에 대한 감수성 및 인식 부족 -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 교사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청소년지도사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청소년시설에서 학교와 연계하기가 어려움 →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적 체계 구축 필요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1.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1-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1-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 1-1-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세대통합 내용 반영
- 1-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1-2-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 2-1.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 2-1-1.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2-1-2.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2-2-1.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2-2-2.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제안
- 2-3.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2-3-1.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 2-3-2.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상 컨설팅 실시
- 2-4.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2-4-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2-4-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3.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3-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3-1-1.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연계
 - 3-1-3. 세대통합포럼(가칭)구성 및 운영
- 3-2.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3-2-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 3-2-2.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 4-1.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 4-1-1.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구 실시
 - 4-1-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세대통합 연구 실시
- 4-2.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 4-2-1.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5.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 조성

- 5-1.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 5-1-1. 학교-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5-2.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5-2-1.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그림 VI-3】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2. 정책과제

1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 제언 배경

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령, 구속력이 있는 정책계획,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이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세대통합역량과 같은 ‘인식’이나 ‘태도’가 법령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 추진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 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법령이나 구속력 있는 정책계획에 반영됨으로써 후속 정책들이 산출되고, 예산 지원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공식적인 교육과정(curriculum)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 세대갈등의 위험과 이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충분히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국가정책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세대통합 또는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내용이 없다. 교육 분야 법령 중에서는 최근 실시된 인성교육진흥법에 세대통합과 직결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인성교육진흥법 자체가 현장에 아직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의 31.8%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45.9%는 교육부가 수립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과반에 달하는 55.3%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중앙일보, 2016.7.19.).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정책 방향

이에 여기에서는 세대통합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법적 근거 정비는 법령, 법정계획,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법령의 경우, 학교를 통한 세대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전달체계를 통해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자문한 현장 교사들은 일관되게 교육과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세부 과제

(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과제	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부 과제	1-①-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1-①-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1-①-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2016.3.2 개정, 법률 제14068호)에 세대통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구분하고, 동법 동조 제4호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공동체의식을 길러주는 데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교류 못지않게 세대 간 교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지역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7.6%인 데 비해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721%가 공감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지역갈등보다 세대갈등을 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교류활동에 “세대 간” 교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세대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은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청소년분야 국가정책에서 세대통합에 부여하는 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 세대 간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8.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개정>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세대 간,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8. <생략>

1-①-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 직접 반영된다.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각론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며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재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으로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했는데, 해당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 역량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15.9).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것에 더하여, 사회구성원들과 상호 이해, 존중, 공감, 소통, 협력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단,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는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세대 간 갈등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통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역량’으로 명시하였다.

표 VI-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반영 방안

구분	현행	개정 안
I -1. 핵심 역량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바. <생략>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신설> <u>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협력하는 통합적 역량</u>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가지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환경·지속발전 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9).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세대통합교육’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교과는 물론 체험학습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이고,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잘 부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대통합교육은 교실 안에서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개념 중심의 인지적 수업이 아니라, 직접 청소년과 어르신 세대가 함께 만나서 접촉·교류·소통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세대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경우, 이러한 방법적 측면이 교육과정에 분명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VI-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안
II-1. 법교과 학습	아. 법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발전 교육	아. 법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세대통합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발전 교육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추진 과제	②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세부 과제	1-②-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1-②-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1-②-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정책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참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세대 간 소통·교류, 세대통합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에 비해 다문화역량의 경우에는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중점과제 하에,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1-2-2.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1-2-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1-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등 다양한 세부과제들을 배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72.1%)은 다문화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 비율(71.9%)보다 더 높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향후 청소년정책은 세대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여기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1)」에 청소년들의 세대통합역량, 나아가 갈등관리 역량 함양에 관한 정책과제들이 개발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문제는 급속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통합적 역량(혹은 갈등관리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로 ‘세대통합역량 함양’, ‘세대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1-②-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및 추진성과 피드백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4066호, 2016.3.2. 일부개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2항).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동법 제14조 3항), 이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14조 4항).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해 정책추진→평가→피드백→반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분야에서 세대통합 관련 정책 사업을 확산하는 데는 대단히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1) 제언 배경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단히 일관되게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세대통합수준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e.g. 홍영란 외, 2013, 2014, 2015).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학교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를 통한 확산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OECD는 “다원화 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김기현 외, 2010: 25)이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성모 외, 2014: 34). 이처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역량이라면,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2.5%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고,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 기회가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31.3%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핵가족화와 일반화 된 지금,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르신 세대와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에게 세대 간 교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7.2%에 불과했다. 또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했다는 응답이 63.7%, ‘외부 전문가 특강’ 형식이었던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어 대부분 강의식으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체험활동으로 어르신과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 방식은 활동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학교교육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될 수 있다. 먼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자유학

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확산을 뒷받침하는 추진 전략으로 세대통합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 개선점을 보완해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확대되려면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간 세대통합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적용해 온 교사들은 학교급별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자료가 없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전문가 의견조사결과, 2016.10.) 따라서 교육콘텐츠 측면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질 관리도 요구된다.

3) 세부 과제

(1)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추진 과제	①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세부 과제	2-①-1.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2-①-2.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2-①-1. 정규 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교사 대상 의견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교육과정에 재구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의견조사결과, 2016.10.).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방법은 별도의 특별활동 형태로 실시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이상준 외, 2015: 66). 어떤 교과와 연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기술·가정’, ‘윤리’, ‘사회’ 교과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IV 장에서는 고교 2학년 ‘윤리와 사상’ 교과와 연계하여, 세대통합 활동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총 5차시에 걸쳐 메모로(MEMORO)를 중심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적용했다. 여기에서 수업설계 시 주로 고려했던 사항들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모델은 <표 VI-5>와 같다. 여기에서 제시한 모델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 기준이 참고로 제시되어 있다.

표 VI-5 교과수업과 메모로 활동을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모델

항목	내용	비고
적용 교과	윤리와 사상	• ‘1.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중 ‘1.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단원에 적용
대상 학교급	고등학생	• ‘윤리와 사상’ 교과를 배우는 학년
활동 내용	메모로(MEMORO)	• 어르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5분 내외 영상으로 기록
차시	5차시 구성	• 주당 3차시 수업이며, 총 5차시에 걸쳐 진행 - 1차시: 동기부여, 운영방법 소개, 조별 편성 - 2차시: 인터뷰 계획 짜기, 배경지식 공부, 인터뷰 준비 - 3차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 장면 녹화 - 4차시: 촬영한 영상물 편집, 제작 및 정리 - 5차시: 조별 영상물 공유하며 소감 나누기
운영방법	조별 활동(1조 당 4명)	• 어르신 1인마다 한 가족이 둘러앉는 분위기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명이 적당 - 그 이상이 될 경우, 어르신 이야기에 집중이 어려움
특징	어르신 섭외	• 어르신들을 학교로 모셔 와서 수업시간에 교내에서 진행 • 어르신 섭외는 교과 담당교사 및 사서교사가 담당 - 학생이 섭외할 경우 발생하는 애로사항 예방
평가	수행평가에 반영	※ [참고자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수행평가 성취기준 참조

자료: 이상준 외(2015: 69-70) 및 이덕주(2016)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표로 재구성.

[참고자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수행평가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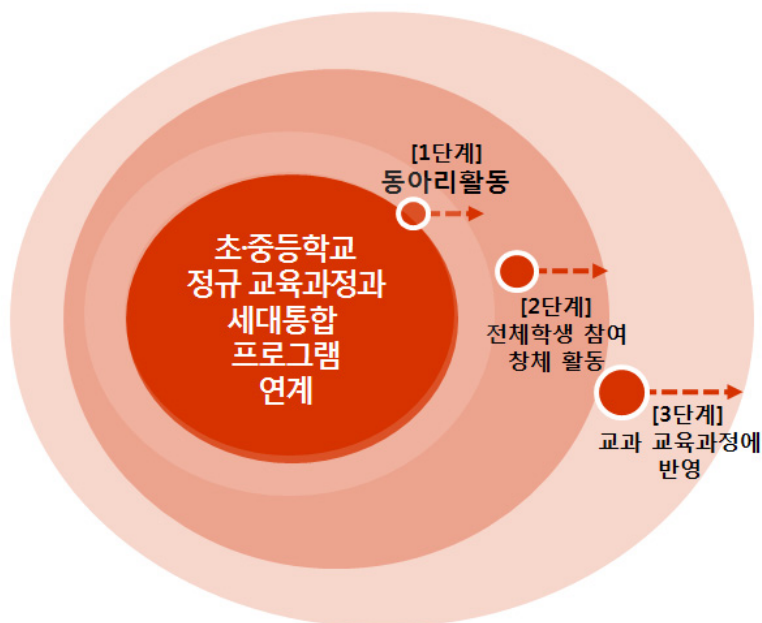
성취 기준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탐구 방법의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수준	상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탐구 방법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비교 분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의 도달정도를 평가하되 성취수준은 채점기준을 통해 반영하도록 한다.	
	중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탐구 방법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일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영역	모둠별 주제 탐구활동				
평가 문항	개인의 도덕적 성숙은 공동체의 성격과 관련되는가? _ 세대 소통 및 공감을 통해				
채점 기준	평가요소	상	중	하	배점
	조별 참여도 및 형식	조원들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하여,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형식(분량 및 제출 기한 준수)에 부합한다. (10점)	조원들의 역할일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거나 정해진 형식(분량 및 제출 기한 준수)에 부합하지 않는다. (8점)	조원들의 역할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으며, 정해진 형식(분량 및 제출 기한 준수)에 부합하지 않는다. (6점)	10점
	완성도 및 발표	인터뷰 내용이 유익하고 과정이 매우 성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창의적으로 발표하여 전달하였다. (10점)	인터뷰 내용이 유익하고 과정이 성실하게 진행되었으며, 내용의 중요 사항을 요약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8점)	인터뷰 내용이 유익했으나 과정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내용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6점)	10점
	소감문의 충실함	주제를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5점)	주제를 잘 이해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4점)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순한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3점)	5점
반영 비율	5%				

출처: 이상준 외(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p.71에서 발췌.

2-①-2.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것 외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세대통합교육을 접목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교과수업과의 연계 이전 단계의 모델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과 연계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아직까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세대통합교육을 학교 현장에 일단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교육,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으로 채워져 있어서, 새로운 교육활동을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상준 외, 2015: 55). 따라서 현실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도 동아리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것에 비해 소수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운영하는 초기 모델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VI-4】 정규 교육과정과 세대통합 프로그램 단계별 연계 방안

(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과제	②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 과제	2-②-1.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2-②-2.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제안

2-②-1.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주제선택 활동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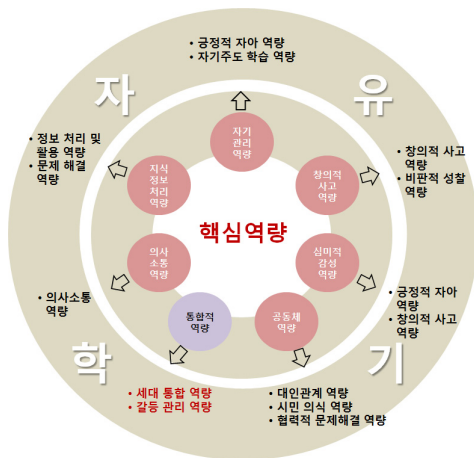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제 II 장에서 검토한 영국의 뉴캐슬언더라임 지역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 분석 결과는 학교와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수요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은 학교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운영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⁴⁸⁾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발간한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제선택 활동의 경우, “지식과 경쟁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창의 학습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50). 이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체험·활동형으로 운영’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앞서 제안한 것처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내 범교과학습 내용에 세대통합교육이 포함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 활동으로 추진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또한 해당 매뉴얼에는 현재 금융·경제교육이나 뮤지컬 활동이 주제선택 활동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대통합교육 사례도 제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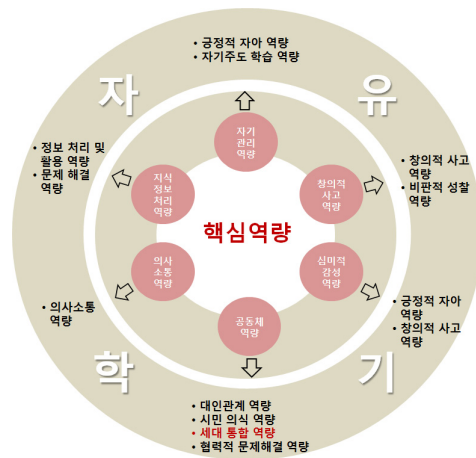
48)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 자유학기제 핵심역량에 세대통합역량 반영

또한,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세대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유학기 핵심역량에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발간한 ‘자유학기 핵심역량 반영 학생 평가 매뉴얼’에서는 2015 국가 교육과정 핵심역량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 ‘대인관계 역량’, ‘시민의식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가 교육과정 핵심역량에 ‘통합적 역량’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1안으로는 통합적 역량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세대통합역량’, ‘갈등관리역량’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안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핵심역량 수정이 용이치 않다면, 현재 ‘공동체 역량’과 연계된 자유학기 핵심역량으로 ‘세대통합역량’, ‘갈등관리역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세대통합역량 반영 방안(1안)



세대통합역량 반영 방안(2안)

출처: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자유학기 핵심역량 반영 학생 평가 매뉴얼, p.14 [그림 1-1]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VI-5】 자유학기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세대통합역량 반영 방안

2-②-2.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제안

자유학기제 세대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 시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표 VI-6>에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제안한 모델은 본 연구보고서 제Ⅳ장에서 검토한 안양만안청소년수련관의 자유학기제 연계 MEMORO 활동을 참고한 것으로,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가 2학기에 적용되더라도 단위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년초에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때문에, 연초에 연계할 학교를 공모하는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표 VI-6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항목	내용		
주최	• 지방자치단체		
주관	• 청소년수련관		
연계학교	• 지역사회 내 중학교		
연계학교 공모 시기	• 3월 중 실시		
운영 횟수	• 총 5차시 운영 (1차시 당 2시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일시	장소	내 용
	1차시	중학교	• 오리엔테이션 : 세대갈등의 이해 • 조 편성
	2차시	중학교	• 메모로 영상 상영 & 메모로의 이해
	3차시	중학교	• 촬영 및 인터뷰 기법 교육 & 실습 – 과제 : 대상자 선정하고 1차 인터뷰하기
	4차시	중학교	• 인터뷰 바탕 시나리오 작성 & 편집 교육 – 과제 : 촬영물배포동의서 & 메모로 촬영
	5차시	청소년 수련관	•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상영회 개최(예정)
담당 인력	• 지역사회 대학생들을 세대문화공감기획자로 양성하여 자유학기제 강사로 파견		

자료: 만안청소년수련관 담당자 자문회의(2016.10.17.) 내용을 표로 압축하여 제시.

(3) 세대통합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추진 과제	③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세부 과제	2-③-1.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2-③-2.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상 컨설팅 실시

2-③-1.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교육 시범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6.2.5.)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총 50개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공모를 거쳐 총 2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사업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시범학교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우수학교 및 시범학교 공모 시, 주제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언어순화, 독서활동, 또래관계개선(학교폭력 예방) 등의 프로그램이 많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9.13.).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일부 프로그램들이 간헐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효행활동’처럼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추후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시범학교 제도를 개선하여, 세대통합 부문에서 우수학교 또는 시범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사 기준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활동식 프로그램 권장), 운영 기간(지속적·반복적 프로그램 권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부 등을 포함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2-③-2.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상 컨설팅 실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시범학교를 비롯해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학교(또는 기관)에 대한 컨설팅은 2-3인 1조로 실시하되, 관련 분야 학식이 있는 전문가 외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및 전문가(청소년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가 함께 참여하여, 실무 위주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나 청소년시설 전문가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추진 과제	④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세부 과제	2-④-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2-④-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2-④-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세대통합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수·학습 모형과 자료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이상준 외, 2015: 121).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수·학습자료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자문한 초등학교 교사는 오히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교육 자료는 더러 찾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적용할만한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렵고, 그나마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전문가 의견조사, 2016.10). 이에 학교를 비롯, 청소년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 프로그램 교수·학습모형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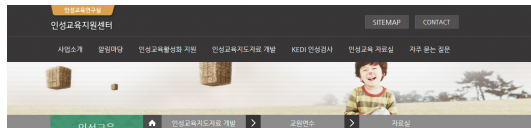
교수·학습모형 및 자료 개발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2-2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의 하나로 ‘인성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포함했다(교육부, 2016.2.5.).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과 연계하되, 공모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를 ‘학교’에 국한하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제 측면에서 ‘세대통합’ 부문을 신설하여 청소년과 중장년,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지도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여타 현장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처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세대통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2-④-2. 세대통합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공모를 통해 개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비롯해, 해당 프로그램에 활용된 학습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한다.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새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웹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혼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는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http://www.topt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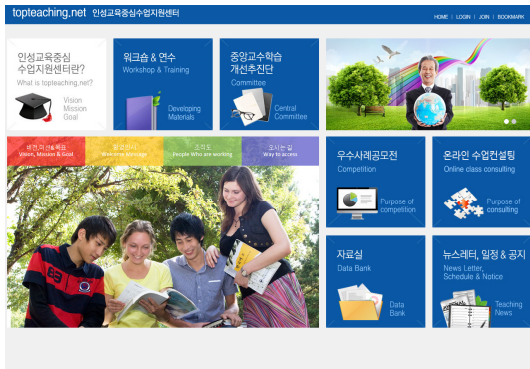
ing.net),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인성교육지원센터(<http://insung.kedi.re.kr>)가 있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 지원 사이트(http://freesem.moe.go.kr/page/new/page_new_main)도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시·도별 교수·학습지원 사이트들도 이용 가능하다.



[인성교육지원센터]¹⁾



[자유학기제 지원사이트]³⁾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²⁾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 사이트(서울시)]⁴⁾

- 출처: 1)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nsung.kedi.re.kr>에서 2016.10.27.인출.
 2)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 <http://www.topteaching.net/>에서 2016.10.27.인출.
 3) 자유학기제 지원 사이트. http://www.ggoomggi.go.kr/page/new/page_new_main에서 2016.10.27.인출.
 4) 서울교육포털. <http://www.ssem.or.kr/index.do?sso=ok>에서 2016.10.27.인출.

【그림 VI-6】 세대통합 교수·학습자료 공유 가능 사이트

이미 다양한 교수·학습지원 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공유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되, 제공되는 통로는 다양화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사이트에 '세대통합' 배너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노출도를 높이면서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기존의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대통합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배너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굳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교사'가 아닌 일반인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교사 외에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변 확대를 위해 접근의 제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1) 제언 배경

본 연구의 제Ⅳ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결과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지역사회'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에 바탕을 두고,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만나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참가자 모집, 운영, 평가, 성과 확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및 자원들을 활용하였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현장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한 요인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지자체, 학교, 노인복지시

설, 청소년시설, 그 외 기관 등)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관련 기관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현장전문가 의견조사, 2016.10.)는 것이다.

2) 정책 방향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에 활용 가능한 기구로 학교 차원에서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면 (가칭)지역사회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세부 과제

(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추진 과제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세부 과제	3-①-1.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3-①-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연계 3-①-3.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3-①-1.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역할을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이다(정건화 외, 2015: 13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구성은 교과전문가, 교원, 학부모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도록 위원(委員)의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통합교육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공식 기구에 지역사회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①-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이다(보건복지부, 2015: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본래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협의체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을 아우르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협의체와 학교 혹은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는데(보건복지부, 2015), 대표협의체 구성(예시)은 <표 VI-7>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자원 간 연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소년 지도사나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어르신 섭외’를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인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등 대상별 분과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섭외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더불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

표 VI-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예시)

구분		구성
임명직 위원	지자체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구분		구성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활센터,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출처: 보건복지부(2015). p.15에서 발췌.

이와 관련하여, 인천 성곡동에서는 성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곡동 주민센터, 경찰서 및 관내 6개 중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과 노인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로 구성된 명예경찰소년단 40명과 저소득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된다. 청소년과 어르신들 2:1로 매칭하여,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월1회 가정방문하여 집안일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산책하기 등을 진행하고, 주1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손자·손녀가 되어 드리는 프로그램이다(성곡동 주민센터 내부 문서, 2016.3.16.).

[참고자료] 성곡동복지협의체와 연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사업명	「명예경찰소년단과 독거노인 사랑의 손잡기」
2. 사업 개요	• 기간: 2016.3.~12. • 대상: (이용인원) 저소득 독거노인 20명, (활동인원) 명예경찰소년단 40명 • 내용: 손자·손녀 되어드리기 - 안부 확인, 집안일 돕기, 말벗서비스, 산책 동행 등 • 방법 - 결연식(소개, 교육, 다과회, 기념사진, 촬영) - 월1회 가정방문 및 주1회 이상 안부전화 - 상담일지 작성 및 자원봉사시간 인정 - 송년회(평가, 감사카드 전달, 다과회, 기념사진 촬영) • 협력기관 : 오정경찰서, 성곡동주민센터, 성곡동복지협의체, 관내 6개 중학교

3. 협력 체계	구분	주민센터	복지협의체	경찰서	6개 중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선발			○	○
	독거노인 참여자 선발	○			
	결연식·송년회	○	○	○	
	명예경찰소년단 활동관리			○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	○			
	평가 및 사후관리	○		○	

출처: 성곡동 주민센터 내부 문서(2016.3.16.). 「명예경찰소년단과 독거노인 사랑의 손잡기」계획을 표로 재구성.

물론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에게 청소년이 도움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수혜자-공여자 프레임 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세대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지역사회협의체와 관내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경찰서)가 연계하여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과거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4쪽 참조). 세대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사례처럼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①-3. (가칭) 「세대통합포럼」 구성 및 운영

본 연구보고서 제Ⅳ장에서 검토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사례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세대통합포럼을 운영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PSU 모델을 준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세대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칭)「세대통합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검토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래 목적과 기능이 세대통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가칭)「세대통합포럼」은 지역사회에 특화 된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VI-8 (가칭)세대통합포럼 운영 방안(안)

항목	내용
목적	•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기능	•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자원들이 참여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자원 연계 •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아이디어 도출
구성	• 지자체,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등 • 유아·아동 보육/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고용, 주거,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운영방안	• 아이디어 산출 및 세대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 제기된 이슈 해결에 적용 가능한 세대통합적 접근 방법 논의 - 특정 세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다양한 세대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지속적인 협력 방안 도출

(2)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추진 과제	② 세대 간 지역사회 자원 공유
세부 과제	3-②-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3-②-2.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3-②-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노인세대와 접촉·교류 경험은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만나서 함께 하는 물리적 경험이 전제되어야, 소통과 이해, 교류, 공감,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데는 공간의 공유(share)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허새나(2016: 4)는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접촉 양 늘리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대 간 질적 접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적 접촉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양적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허새나, 2016: 4). 이러한 연유로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돕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시니어 세대를 비롯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다(多)세

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소년과 중장년층, 나아가 시니어 세대가 소통·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데리고 부모 또는 조부모가 방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에 적합하다. 이 같은 청소년시설의 특성을 활용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나아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사 사례] 노인 이용시설을 다(多)세대 이용 시설로 전환

- 사례1(서울 광진구): 경로당을 지역민이 공유하는 소규모 복지센터로 전환
 - 서울 광진구에서는 경로당은 소규모 복지센터형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 구체적으로,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
 - 이를 통해 경로당이 특정 시니어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
- ※ 출처: 서울신문(2016.10.4.). “광진 ‘개방형 경로당’ 남녀노소 모두 즐겁네.”
- 사례2(서울 중랑구): 경로당을 ‘1·3세대 어울림 장소’로 활용
 - 서울 중랑구에서는 관내 아파트 경로당을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
 - 어린이들과 함께 EM 발효액을 만들거나 공예교실을 개최하는 등 ‘1·3세대 어울림 장소’로 활용
- ※ 출처: 아시아경제(2016.9.28.). “중랑구 경로당 세대 간 소통의 장 되다.”
- 사례3(경기도 광주): 경로당을 ‘온 세대 사랑마루’로 전환
 - 경기도 광주시 경로당도 ‘온 세대 사랑마루’라는 명칭으로 이름 변경
 - 농촌지역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볼력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세대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로 변모
- ※ 국제뉴스(2016.9.1.). “광주시 노곡리 경로당... ‘온 세대 사랑마루’로 탈바꿈.”

3-②-2.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자원목록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마을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개개인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자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보를 축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자원목록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마을결합형학교 모델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 같은 자원목록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정건화 외, 2015: 19). 개발된 목록은 지자체, 교육청(학교),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유하도록 한다.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1) 제언 배경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코디네이터, 즉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참가자 섭외에 필요한 노하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 자문한 현장 교사 및 청소년 지도사들은 세대통합에 대한 담당자들의 관심과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아직 세대통합 또는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내용이 공식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용지도서나 참고자료도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인식이나 전문성조차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되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사 및 청소년 지도자 등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통해 세대 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지원 인력에 대한 양성도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학교 교육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의 기회로 삼고자, 앞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강사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세부 과제

(1)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추진 과제	①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세부 과제	4-①-1.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4-①-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4-①-1.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공식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역량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면담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연한 기회로 세대통합교육을 교과 수업에 접목해보게 되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어르신과 함께하는 활동이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부로 이동하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학교로 찾아오시게 된다.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이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역시 세대 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원 대상 연수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 1단계: 인성교육 법정 연수와 연계

먼저, 교원들의 세대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세대통합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연수를 추진한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3항 참조). 이에 따라 학교 교원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인성교육 연수 내용의 일환으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운영한다.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2.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6.10.25. 인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광희 외(2015)가 개발한 중학교 교원 인성교육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성교육 연수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VI-9 중학교 교원 대상 인성교육연수 중 세대통합 내용 구성(안)

범주	영역	NO.	강좌명	합계
이론적 기초	인성교육의 일반 이해	1	인성교육의 이해	2
		2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중학생의 발달과 행동 특성 이해	1	중학생 발달적 특성과 학교 인성교육	5
		2	뇌과학 기반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3	중학생 시기,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까?	
		4	달라지는 아이들-수업중 문제행동의 이해와 대처-	
		5	여학생들 간 왕따 문화	
실천 방안	교과수업을 활용한 인성교육	1	수업으로 아이들의 행복 능력 기르기	7
		2	국어 시간을 활용한 소통과 공감 능력 키우기	
		3	Song과 Story를 통한 나눔과 공존의 길	
		4	학생에서 시민으로 : 역사 독서 디베이트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 교육	
		5	세대공감: 어른신의 기억, 후대의 자산이 되다	
		6	달라지는 체육시간 달라지는 아이들	
		7	인성교육,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인성교육	1	스토리텔링으로 달라지는 교실수업	4
		2	교육연극으로 말랑해지기	
		3	실버과학자와 함께 하는 생활 속 과학	
		4	책으로 꿈꾸는 아이들	
	학습경영에서의 인성교육	1	J.A.M 이 있는 학급운영 참여, 활동, 그리고 감동받는 학급 만들기	3
		2	긍정과 공감이 흐르는 학습 소통의 길	
		3	몸짓 언어로 공감과 소통능력 up!	
	학교-가정-지역 사회 연계 협력의 인성교육	1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가정이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진다.-	3
		2	인생톡톡 인생진로캠프 -가족 그리고 인생-	
		3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하는 커뮤니티 매핑	
실천 기반	민주적인 학교문화 및 학급문화 조성	1	학교장의 민주적인 리더십	2
		2	열린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성	
	교사의 감정관리 및 성장문화 조성	1	교사의 감정 코칭	4
		2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3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학생과의 관계 좋아져요!!	
		4	나를 찾기 위한 집단 상담 교실	

출처: 정광희 외(2015: 165)에 제시된 '〈표 VI-13〉 연구자료 개발 구성 내역'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 2단계: 세대통합에 관한 별도의 직무연수 실시

다음 단계에서는 ‘세대 간 문제’와 ‘세대통합’을 주제로 별도의 직무연수를 제공한다. 연수 내용은 교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광희 외(2015: 137)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은 연수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해 본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자료 출처(사이트 등)’, ‘인성교육 성과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세대통합 관련 직무연수의 내용은 교과와 연계한 수업 방법, 세대통합 교육의 수행평가 방안, 어르신과 함께 하는 활동 시 유의해야 하는 점(사전 당부사항 등), 세대통합 교육 우수 사례 및 교수·학습 자료 공유,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①-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학교보다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보다 광범하게 실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2%인 데 비해 학교 밖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8%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학교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학교 밖 기관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향후 세대 간 문제가 부각되고,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증대되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대공감이나 세대 간 소통, 세대통합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의 일환으로, 세대통합 문제를 다루는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성지도와 관련한 전문연수 과정은 소수 눈에 띄지만, 고령화나 세대 간 문제를 다룬 연수과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표 VI-10> 참조). 전문연수는 과정별로 17~40시간 내외로 이루어지는데, 초기에는 세대통합만으로 단독 과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원 연수와 동일한 전략을 채택하여, 초기에는 인성지도 연수과정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하고, 점차 단독 연수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VI-10 2016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연간일정

장소	유형	차수	연수기간	연수명	시간	인원
고흥	정규	-	11.23.~25.	제6차 우주과학 기초연수(모집형)	-	15명
중앙	정규	1차	1.18.~23.	모듬북 지도과정(초·중·고급)	41h	20명
중앙	정규	1차	1.18.~23.	청소년활동 사업기획과정	41h	20명
중앙	정규	1차	1.18.~23.	청소년 인성지도 과정	41h	20명
중앙	정규	2차	2.16.~18.	스피치 스킬 업 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3차	3.7~9.	손글씨를 활용한 감성 디자인 창작 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3차	3.7~10.	실무자 문서작성 스킬향상 과정	25h	20명
중앙	정규	3차	3.7.~10.	청소년 진로 및 인성지도 프로그램 실제 집중형 과정	25h	20명
중앙	정규	4차	4.11.~12.	응급처치 일반과정	12h	80명
중앙	정규	5차	5.23.~26.	응급처치 전문과정	30h	30명
중앙	정규	5차	5.23.~26.	비폭력대화 기반 인성교육과정	28h	30명
중앙	정규	6차	6.2.~3.	수상인명구조원 보수과정	12h	15명
중앙	정규	7차	7.4.~9.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강의스킬 향상과정	40h	25명
중앙	정규	7차	7.4.~9.	숲밧줄활동 지도과정	40h	25명
중앙	정규	8차	8.16.~1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운영능력 향상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8차	8.16.~18.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이해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9차	9.19.~21.	SNS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홍보역량 향상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9차	9.19.~21.	소통을 통한 리더십 스킬향상과정	17h	20명
중앙	맞춤	-	6.8.~10.	2016년 1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전문연수	16h	150명
중앙	맞춤	-	6.15.~17.	2016년 2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전문연수	16h	150명
중앙	맞춤	4차	하반기	기관 맞춤형 과정(공개모집)	17h	20명
중앙	맞춤	5차	하반기	기관 맞춤형 과정(공개모집)	17h	20명
중앙	맞춤	6차	하반기	기관 맞춤형 과정(공개모집)	17h	20명
중앙				23개 과정		
평창	정규	1차	2.1.~3.	청소년 야외활동 개인안전장비 전문과정	18h	20명
평창	정규	2차	3.7.~10.	청소년 오리엔티어링활동 지도과정	26h	20명
평창	정규	3차	3.7.~8.	청소년 오리엔티어링활동 보수과정	10h	20명
평창	정규	4차	4.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지도자 전문연수	35h	30명
평창	맞춤	-	7.6.~8.	2016년 3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전문연수	16h	90명
평창				5개 과정		
고흥	정규	-	6.11.~12.	제1차 우주과학 기초연수(연계형)	-h	30명
고흥	정규	-	7.21.~22.	제2차 우주과학 기초연수(연계형)	-h	30명
고흥	정규	-	9.10.~11.	제3차 우주과학 기초연수(연계형)	-h	30명

장소	유형	차수	연수기간	연수명	시간	인원
고흥	정규	-	10.7.~8.	제4차 우주과학 기초연수(연계형)	-h	30명
고흥	정규	-	10.24.~26.	제1차 덕흥천문대 전문연수(대학생)	-	20명
고흥	정규	-	10.28.~30.	제2차 덕흥천문대 전문연수(대학생)	-	20명
고흥	정규	-	11.21.~22.	제5차 우주과학 기초연수(연계형)	-	30명
고흥				7개 과정		
김제	정규	1차	7월 중	농업생명과학 교원연수	8h	60명
김제	정규	2차	8월 중	농업생명과학 교원연수	8h	60명
김제	정규	3차	9월 중	제1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농업생명 교원연수	19h	60명
김제	정규	4차	10월 중	제2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농업생명 교원연수	16h	60명
김제				4개 과정		
영덕	정규	1차	6.13.~17.	2016 인명구조요원 전문연수	40h	20명
영덕	정규	2차	6.21~24.	2016 레스큐다이버 전문연수 1차	28h	20명
영덕	정규	3차	7.4.~7.	2016 레스큐다이버 전문연수 2차	28h	20명
영덕	정규	4차	8.30.~9.2.	2016 에코다이버 전문연수 1차	28h	20명
영덕	정규	5차	9.6.~9.	2016 에코다이버 전문연수 2차	28h	20명
영덕				5개 과정		

출처: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s://yworker.youth.go.kr/usr/special/year.do> 에서 2016.10.27.인출.

(2)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추진 과제	②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세부 과제	4-②-1.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4-②-1. 유관 학과 대학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자유학기제나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세대교류기획자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Ⅳ장에서 검토한 만안청소년수련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근 대학의 청소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교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2016년 대학생 20명을 세대교류문화기획자로 양성하여 관내 2개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강사로 투입했다.

[참고자료] 만안청소년수련관 세대문화교류기획자 양성과정 워크숍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09:00~10:00	접수 및 등록	접수 및 등록
10:00~11:00	사업 안내 및 마음열기	메모로의 기술 “촬영 및 편집”
11:00~12:00	대상자 이해교육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14:00~15:00	문화기획 사례 및 실제	지역 명사 메모로 준비
15:00~16:00		세대통합을 위한 문화 기획 회의
16:00~17:00	세대문화 콘텐츠 ‘MEMORO’	휴식
17:00~18:00		회의결과 발표
18:00~19:00		저녁식사 및 평가회
19:00~2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재)안양문화예술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2016).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2016 세대문화교류 프로젝트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과정」 워크숍 자료집, p.9.

기획자 양성과정 사업성과에 대해 본 사업의 담당자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 강사로 위촉되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인이 되고, 학교 교사들에게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이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 특히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중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학생들과 교감이 쉽게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수월하게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만안청소년수련관 담당자 자문회의 내용, 2016.1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준용하여, 유관 전공 대학(원)생을 세대교류기획자로 양성하여, 학교의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학(원)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시수 이상 기획자로 활동한 경우에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1) 제언 배경

청소년이 다른 세대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소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까지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 간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단순 접촉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그램이나 정책방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완화하는 ‘인식’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의 세대 간 교류를 돕는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다른 세대와 활발하게 소통·교류함으로써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정책 방향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와 좀 더 활발하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문제를 조명한다. 첫째, 지금까지 제안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가 요구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대 간 소통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정 세대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세대는 이끌려 가는 상황에서 상호 대등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3) 세부 과제

(1)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추진 과제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세부 과제	5-①-1. 학교-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5-①-1. 학교-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앞서 학교와의 연계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강의식 수업처럼 인지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특성 상, 학교는 외부 자원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와 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실무자들은 학교와의 연계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교의 '벽'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를 원활히 하려면 학교-지역 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지역사회가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사회연계를 위해 좀 더 개방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과제	②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세부 과제	5-②-1.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5-②-1.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미래를 결정해놓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옳이 수용하라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갈등의 요소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삼·김순희(2016)는 충분히 예측되는 후세대의 문제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 사례들은 현재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한 바 있다.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김희삼·김순희, 2016: 1).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이 예측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김희삼·김순희, 2016). 이 방법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임의 속의과정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김희삼·김순희, 2016).

이와 관련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실시한 「2016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이 정한 의제로 상호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속의 토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6 국민대토론회」는 “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호남권, 강원·충북권, 영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총 4회 개최된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6.10.23.).

[참고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국민대토론회」: 청소년이 참여하는 속의 토론방식 사례

• 2016 국민대토론회 개요

구 분		일시	세부의제	인원
권역별 토론회	호남권	10.15(토)	【가족 부문】 자녀와 부모 간 인식차이 좁히기	150명
	강원·충북권	10.22(토)	【조직문화 부문】 조직문화 속의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 찾기	150명
	영남권	10.29(토)	【공공문화 부문】 공공문화에서의 미덕과 배려 찾기	150명
	수도권	11.05(토)	【사회·정치·경제 등】 세대 상생을 위한 행복 대한민국 만들기	150명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6.10.23.), 2016 국민대토론회: 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 2쪽 참조.

이러한 숙의(熟議) 방식을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과 같이 미래세대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VI-11>에는 지금까지 제시한 5개 영역 12개 정책추진과제 2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기간 및 예산(인력) 소요 규모 등 추진 전략과 관계 부처 등을 명시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1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영역	정책과제	추진 기간		예산(인력) 소요			관계부처
		단기	중장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없음	
①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				○	여성가족부
	1-1-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	교육부
	1-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	여성가족부 교육부
	1-2-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		○		여성가족부
② 학교 교육 연계	2-1.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2-1-1.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1-2. 창의적 체험활동 및	○				○	교육부

영역	정책과제	추진 기간		예산(인력) 소요			관계부처
		단기	중장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 없음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도교육청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2-1.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2-2.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제안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3. 세대통합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2-3-1.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3-2.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상 컨설팅 실시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4.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자원						
	2-4-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		교육부 시·도교육청
	2-4-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		교육부 시·도교육청
	3-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③ 지역 사회 협력 체제 구축	3-1-1.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				○	교육부 시·도교육청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연계	○			○		보건복지부 지자체
	3-1-3.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		○		지자체
	3-2.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3-2-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				○	여성가족부 지자체

영역	정책과제	추진 기간		예산(인력) 소요			관계부처
		단기	중장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없음	
	3-2-2.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				○	지자체 교육청
④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4-1.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4-1-1.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		교육부 교육청
	4-1-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		여성가족부
	4-2.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4-2-1.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⑤ 정책 결정 환경 조성	5-1.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5-1-1. 학교-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5-2.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5-2-1.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		○		지자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원택·한준·이명진·윤성이·가상준·최홍석·정정화·금재호·이주하(2014).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연구. 서울: 국민대통합위원회.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보도자료(2016.9.13.). 체험·실천 중심 인성교육 우수 사례 확산 : 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려·소통·협력 중심의 학교 문화 변화 기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4287&mode=view>에서 2016.10.23. 인출.
- 교육부(2015.9). 「2015 개정 교육과정」질의·응답 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encodeYn=N&pageSize=10¤tPage=0&boardSeq=60753&mode=view>에서 2016.10.11. 인출.
- 교육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http://www.moe.go.kr/web/110410/ko/board/view.do?bbsId=352&boardSeq=62204> 에서 2016.3.7.인출.
- 교육부(2016.2.5.).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http://www.moe.go.kr/web/110410/ko/board/view.do?bbsId=352&boardSeq=62205> 에서 2016.3.7.인출.
-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https://www.google.co.kr/?gfe_rd=cr&ei=q36HVortOYjD8AfMz7yAAw#에서 2016.10.25. 인출.
-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자유학기 핵심역량 반영 학생 평가 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2.30.). 사회갈등 악화 요인, 2년 연속 ‘여-야 정치 갈등’(대통합위,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http://www.pcnc.go.kr/content.do?cmsid=47&mode=view&page=9&cid=5882> 에서 인출.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7).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http://www.pcnc.go.kr/content.do?cmsid=118&sf_cat1=&cat1_0=&searchField=title&searchValue=%EA%B3%84%ED%9A%8D&y=0&x=0&mode=view&page=1&cid=3942 에서 2016.9.7. 인출.
-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1.). 노인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 분석. <http://www.pcnc.go.kr/content.do?cmsid=118&mode=view&page=&cid=5876>에서 2015.3.21. 인출.
-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6.10.23.). 2016 국민대토론회: 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 <http://www.pcnc.go.kr/content.do?cmsid=47&searchField=title&searchValue=%EA%B5%AD%EB%AF%BC%EB%8C%80%ED%86%A0%EB%A1%A0&y=0&x=0&mode=view&page=1&cid=7591> 에서 2016.10.27.인출.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2).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제뉴스(2016.9.1.). 광주시 노곡리 경로당... '온 세대 사랑마루'로 탈바꿈. <http://www.guk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713>에서 2016.10.25.인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부록: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조(2003). 한국 세대담론의 심화를 위한 소고. 한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김상욱·강신욱·정영호·김안나·조명래·이주연·하태정(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 서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김창환·엄문영·박현정·노지윤·김기현·이광현·박레아·김종민·이상돈·박소연·박종효·황혜정(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삼 편(2015).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김순희(2016).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KDI FOCUS 통권 제68호.
- 내일신문(2015.12.02.). [영상 기록 프로젝트 '당신의 기억을 메모로']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청소년과 노년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738 에서 2016.7.14.인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9.).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http://precap.go.kr/news_repo_vw.lo?idx=747에서 2016.10.24.인출.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precap.go.kr/poli_basi1.lo에서 2016.10.24.인출.
- 동아일보(2015.12.21.). 젊은이도 힘든데 앓아 가야지... 배려가 양보로 돌아와.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277/1> 에서 2016.10.2. 인출.
- 동아일보(2016.1.5.). 베이비부머 vs. 밀레니얼세대... 선거관 흔드는 '老靑 충돌'. <http://news.donga.com/3/all/20151106/74628169/1>에서 2016.10.1. 인출.
- 류현숙(2012). 지속가능발전 조건으로서 세대간 정의. 이지순·서용석 편저(2012).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제1권):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52-72. 서울: 박영사.
- 문화일보(2016.08.25.). 20대 "쉽게 취직한 부모세대가 우리를 무시"...세대갈등 격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2501071121304001> 에서 2016.10.12.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5.4.1.). 세대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인생나눔 멘토봉사단'을 찾습니다: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인 250명 선발, 병영과 학교 등 250개소에서 활동.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137에서 2016.10.17.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재)안양문화예술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2016).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2016 세대문화교류 프로젝트 「세대문화교류 기획자 양성과정」 워크숍 자료집.
- 박경숙·서이중·김수중·류연미·이상직·이주영(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경제·문화·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다산출판사.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박길성·김선업·김상용(2009). **사이버 공간의 동학적 원리와 통신정책**.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시내·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0 상반기 연구보고서. http://kostat.go.kr/edu/sri_kor_new/1/1/index.action?bmode=read&p_idx=191&pageNo=1&search_mode=&keyword=베이비붐%20세대의%20현황%20및%20은퇴효과%20분석 에서 2016.3.10.인출.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재홍(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서울: 나남출판.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2009년 봄호 (통권 제81호), 10-34.
- 박재홍(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브레이크뉴스(2016.6.15.). “취업 불균형 현상.. 청년 실업률↑, 중·장년 취업률↑: 전체고용률 상승 반면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치 9.7%.”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47757§ion=sc3에서 2016.10.21.인출.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서울신문(2016.10.4.). 광진 ‘개방형 경로당’ 남녀노소 모두 즐겁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5015007§ion=seoul_local§ion2=&page=1&cp=go에서 2016.10.25.인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최창욱(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13-R50)**. 서울: 여성가족부.
- 세계일보(2015.03.20.). [뉴스인사이드] 기억의 은행, ‘메모로’를 아십니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20/20150320002992.html?OutUrl=naver> 에서 2016.7.11.인출.
- 세계일보(2016.9.23.). ‘소득불평등’ ‘세대갈등’ 다른 나라만의 문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2/20160922000889.html?OutUrl=naver> 에서 2016.10.9. 인출.
- 아시아경제(2016.9.28.). 중랑구 경로당 세대 간 소통의 장 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2722050780898>에서 2016.10.25.인출.
- 안양문화예술재단 보도자료(2016.07.08.). “노년의 기억으로 세대를 잇는 청년 기획자 양성: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과 2016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당신의 기억을 메모로> 운영. http://www.ayac.or.kr/commu/press_view.asp?BCATE=BD00002 &idx=4895&bidx=151 에서 2016.10.18. 인출.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공지사항 공고문(2016.4.12.). [모집] 2016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세대

- 교류 프로젝트 <http://www.ayf.or.kr/AYFPONOTIDispatch.do?method=getNoti ¬iSeq=000000009139¬iOrgan=1000¬iType=NOTICE¬iMenu=NOTICE&brdOrgan=&brdType=&brdMenu=&menu=&joinOrganization=1200>에서 2016.10.18. 인출.
- 여성가족부(2013a). **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b).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b).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유진·김미곤·김문길·정해식·우선희·김성아(2013).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홍준·김기현·오병돈(2014).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 **노동정책연구**, 14(3), 1-36.
- 이덕주(2016). 마을공동체와 함께 세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도서관. **서울교육**, 2016년 가을호 (통권 제224호). 98-101.
- 이삼식·장경섭·김선업·이병훈·송다영·박종서·김은정·최효진(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갈등**.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준·오승모·홍영란·이덕주·박영진·남효정·최한나(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철수 외 공저(2009.08.15.).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 정건화·박경현·엄경남·오경옥(2015).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방안 연구: 마을결합형 학교를 중심으로**. 2014 교육정책 연구과제보고서(서울교육 2015-4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정경희(2013).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4차 고령사회포럼 자료집, 3-49.

- 정경희·황남희·이선희·김주현·정순돌(2015).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광희·현주·박영숙·전종희·조덕주·임현정(2015).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Ⅲ): 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현숙(2013).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41.
- 조선일보(2016.6.27).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망쳤다... 브렉시트로 꺾 세대 갈등 폭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7/2016062700239.html 에서 2016.10.1. 인출.
- 중앙일보(2016.7.19.). 인성교육 하렘더니 두발 단속... 교사 32% “법 시행 몰라” . <http://news.joins.com/article/20325974> 에서 2016.10.27. 인출.
- 최유석(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37(4), 61-87.5)
- 충청일보(2016.9.8.).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탐색-충북문화재단, 인생나눔교실. <http://www.cc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970> 에서 2016.10.25.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5.7.8.).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7102&pageNo=6&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6.3.19.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6.3.23.). 2015 한국의 사회지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221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7%80%ED%91%9C 에서 2016.10.3.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6.7.21.).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517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5%EC%9B%94 에서 2016.10.21.인출.
- 한겨레(2015.2.10.).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골든 타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7762.html>.
- 한국경제(2015.12.1.). 경제현장서 뛰는 ‘50세 이상 인구’ 1천만 시대 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158248>에서 2016.2.17.인출.
- 한정란(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정란·이금룡·원영희(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함인희(2009).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포커스(2009.11·12월호).
- 함인희(2013).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세대 통합의 전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집, 47-69.
- 허새나(2016). 다(多)세대 사회의 세대통합: 세대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희망제작소 <세대공감 시리즈>를 중심으로. **희망이슈**, 제13호, 1-18.
- 홍영란(2014.11.4). '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아십니까.' http://hangyo.mediaon.co.kr/news/article_print.html?no=44289 에서 2016.8.20.인출.
- 홍영란·김미란·최두진·황여정(201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김태준·박종효·이현주·황여정·이지인(20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김태준·박종효·이현주·황여정·조민지(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I): 개선 방안 및 추진 전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희망제작소(2014) 세대공감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http://www.makehope.org/동네한바퀴in종로구> 에서 2016.8.30.인출.
- Bengston, V.L.(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 In V.L. Bengston & W.A. Achenbaum(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3-23.
- Binstock, R.H.(2010). From compassionate ageism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Gerontologist*, 50(5), 574-585.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n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47-80.
- Generation United(2004). Generation United fo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environmental-education/generations-united/generations-united-for-environmental-awareness-and-action/download>에서 2016.07.22.인출.

- Goerres, A. & Tepe, M. (2010) Age-based self-interes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older people's attitudes towards Public Child care in 12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 818-851.
- Hatton-Yeo, A. & Watkins, C.(2004). Intergener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A Practice Guide. Stoke-on-Trent, U.K.: Beth Johnson Foundation. <http://www.ifa-fiv.org/wp-content/uploads/2015/03/6-Beth-Johnson-Foundation.pdf>에서 2016.09.11. 인출.
- Kaplan, M., & Liu, S. (2004). Generations United fo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ction. Washington, DC: Generations United.
- Kaplan, M., Sanchez, M., Shelton, C., Bradley, L. (2013). Using technology to connect generations.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 Washington D.C.: Generations United.
- Kertzer, 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Manheim, K.(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lusky, Y.H.(1990).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A goal and a context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in the later years. in Sherron, H.R. and Lumsden, B.D.(Eds.). *Introduction to educational gerontology*, 59-83.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McCrea, J.M. & T.B. Smith(1997). Types and models of intergenerational programs. In S. Newman et al. *Intergenerational programs: Past, present, and future*, 81-93.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OECD(2011). Issue Paper Session 3: Paying for the past, providing for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ECD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policy, Paris. 2011.05.02.-03.
- Riley, M.W., Johnson, M.E., & Foner, A.(1972).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New York: Russell Sage
- Riley, M.W.(1985). Age strata in social systems. In R.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96-411. New York: VNR.
- Riley, M.W., Kahn, R.L.E., Foner, A.E., & Mack, K.A.(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John

- Wiley & Sons.
- Weber, M.(1968). *Economy and Society, Vol.1*, New York: Bedminster Press Inc.
- Wilder, D.A.(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법령 참고자료]

- 경기도인성교육지원등에 관한조례(2016.2.24.개정, 경기도조례 제516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_\(5167,20160224\)](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_(5167,20160224))에서 2016.10.24. 인출.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대통합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서 2016.10.24.인출.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2015.5.14. 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587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05876,20150514\)](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05876,20150514))에서 2016.9.29. 인출.
- 인성교육진흥법(2015.1.20. 제정, 법률 제1300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 에서 2016.10.18. 인출.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2015.12.10.제정, 교육부령 제8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시행규칙> 에서 2016.10.18. 인출.
- 청소년기본법(2016.3.2. 개정, 법률 제1406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16.9.27. 인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5.1. 개정, 대통령령 제2622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 에서 2016.9.27. 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2016.3.2. 개정, 법률 제1406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16.9.27. 인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0747&mode=view> 에서 2016.10.23.인출.

[국내 웹사이트 자료]

- 국가통계포털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에서 2015.05.23. 인출.
- 김맑음(2010.10.22.). 세대문제는 지역문제다: 한국 젊은이, 영국 시니어를 만나다(9). <http://www.makehope.org/세대문제는-지역문제다/>에서 2016.10.19.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2890&cid=42120&categoryId=42120> 에서 2016.10.18.인출.
- 메모로코리아 네이버 밴드 게시글(2016.9.6.). <http://band.us/#!/band/55661587/post/1264294503> 에서 2016.10.25. 인출.
- 메모로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memoro.org/kr-kr/>에서 2016.10.13. 인출.
- 부산MBC 전국 청소년 UCC 공모전 홈페이지. <http://ucc.busanmbc.co.kr/> 에서 2016.10.19. 인출.
- 서울교육포털. <http://www.ssem.or.kr/index.do?sso=ok>에서 2016.10.27.인출.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1).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http://kgss.skku.edu/?page_id=41에서 2016.6.7.인출.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C%BA%90%EC%8A%AC%EC%96%B8%EB%8D%94%EB%9D%BC%EC%9E%84> 에서 2016.10.15.검색.
-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 <http://www.topteaching.net/>에서 2016.10.27.인출.
-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nsung.kedi.re.kr>에서 2016.10.27.인출.
- 자유학기제 지원 사이트. http://www.ggoomggi.go.kr/page/new/page_new_main에서 2016.10.27.인출.
- 지예리(2014.06.10.). 14세 중학생과 77세 할머니의 특별한 지도 만들기. <http://www.makehope.org/14세-중학생과-77세-할머니의-지도-만들기/>에서 2016.10.15.인출.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s://yworker.youth.go.kr/usr/special/year.do> 에서 2016.10.27.인출.
- 커뮤니티매핑센터 홈페이지. <http://cmckorea.modoo.at/?pc=1>에서 2016.10.15.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3.).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제안요청서.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5PAq17HB&brd_id=BDIDX_8IVu162ox5qsT7617y57BG&cont_idx=1093&edomweivgp=R&srch_ctgry_idx=CTIDX00043

에서 2016.10.1. 인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동네한바퀴in종로구」후기. <http://www.makehope.org/14세-중학생과-77세-할머니의-지도-만들기/> 에서 2016.10.15.인출.

[해외 웹사이트 자료]

미국 Generation United 홈페이지. <http://www.gu.org>에서 2016.08.25.인출.

미국 Generation United (2006). "Fact Sheet: Environmental Health for All Generations." <http://www.gu.org/LinkClick.aspx?fileticket=itkytMumazE%3d&tabid=157&mid=606>에서 2016년 08월 30일 인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xtension Program) 홈페이지 <http://extension.psu.edu>에서 2016.8.30. 및 2016.10.18.인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tergenerational Program) 홈페이지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에서 2016.8.30.인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 지역사회 계획 및 비저닝 소개 사이트.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에서 2016.8.30.인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 헤리티지 서클(Heritage Circle)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heritage-circles>에서 2016.08.30.인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 세대통합포럼(Intergenerational Unity Forums)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program-areas/community-planning-visioning/intergenerational-unity-forums>에서 2016.8.30.인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홈페이지.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Contents.jsp>에서 2016.09.30.인출.

[기타 자료]

만안청소년수련관 내부자료. 「MEMORO 기억의 은행」 리플렛.

만안청소년수련관 메모로 담당자 자문회의(2016.10.17.) 자료.

서울S여고 메모로 담당자 자문회의(2016.10.20.) 자료.

성곡동 주민센터 내부 문서(2016.3.16.). 「명예경찰소년단과 독거노인 사랑의 손잡기」 계획.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2016.10 진행) 자료.

희망제작소 세대통합 프로그램 담당자 자문회의(2016.9.21.) 자료.

부 록

1.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
2.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조사 안내문

(중·고등학생)

연구과제명 : 청소년의 사회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안내문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문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 또는 "9. 조사관련 문의"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이 조사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과 '사회참여'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의 결과는 통계분석 과정을 거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발간되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조사참여 대상

- 이 조사는 전국의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 등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3. 조사참여 방법

- 학생이 이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같이 배부해 드린 조사동의서를 작성한 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
- 설문지 작성을 마친 다음에 설문지와 함께 조사동의서를 선생님께 제출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4. 조사 시간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낼 수 있습니다.

5. 조사 불참 또는 중단 시의 불이익

- 학생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중단하고 싶다면 조사원이나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십시오.
-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조사내용과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

- 이 조사는 학생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학생의 응답 내용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 조사 참여에 따른 이득

-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간단한 선물 이외에는 어떠한 직접적 이득은 없습니다.
- 그러나 학생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의 보장

-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이 조사의 연구진에 의해서 다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

- 1)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2)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통계분석을 할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 변환하여 처리됩니다.
-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조사결과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4) 이 조사의 연구진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위원은 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과정과 절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학생이 조사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조사 관련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사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8 / hyj@nypi.re.kr
 -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04 / jskim@nypi.re.kr
 - 조사담당자 :곽수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02-3702-2191 / sykwak@gallup.co.kr
- 만일 조사 참여자로서 학생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 연락처 : 044-415-2100/yiwon@nypi.re.kr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조사 동의서

(중·고등학생)

연구과제명 : 청소년의 사회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서명일 : 2016년 _____월 _____일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부록 2.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12

Gallup 2016-163-006 청소년의 사회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중/고등학생)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과 '사회참여' 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7. 울산 13. 전북	2. 부산 8. 세종 14. 전남	3. 대구 9. 경기 15. 경북	4. 인천 10. 강원 16. 경남	5. 광주 11. 충북 17. 제주	6. 대전 12. 충남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중학교 구분 * 중학교만 기입	1. 일반	2. 특성화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1. 일반	2. 자율	3. 특성화	4. 특수목적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학 년 / 반	()학년		()반			
반 유 형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사 완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객수연 차장 || ☎ 02-3702-2191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있다면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복수 응답

문항에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응답 갯수가 지정된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7.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 나이든 사람에게 세대차이를 느끼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②	2순위	④
-----	---	-----	---

① 나이든 사람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② 나이든 사람들이 고집이 셀 때

③ 나이든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

④ 나이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⑤ 나이든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I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실태조사

▶ 다음은 노화와 노인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1. 학생은 몇 세부터를 '노인'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54세 ② 55~59세 ③ 60~64세 ④ 65~69세 ⑤ 70~74세 ⑥ 75세 이상

문2. 다음은 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은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노인은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3) 노인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4) 노인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5)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①	②	③	④
(6) 노인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7)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8) 노인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9)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3. 다음은 노인을 다루는 TV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에 나오는 노인들은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2) TV는 대체로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①	②	③	④
(3) 노인을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4)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TV프로그램(예: 꽃보다 할배)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5) 노인 문제(빈곤, 외로움 등)를 다루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4.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화의 특징 또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노인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6)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7)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노인들이 아프면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에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내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문5.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경로석이 아니더라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② 경로석이 아니더라도 노인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③ 경로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경로석이 아니라면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6. 학생은 다음에 제시된 사람들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	약간 가깝게 느낀다	매우 가깝게 느낀다
(1) 우리 집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①	②	③	④
(2) 우리 집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①	②	③	④
(3)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4)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	①	②	③	④
(5)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6) 나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	①	②	③	④

문7.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 나이는 사람에게 세대차이를 느끼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나이는 사람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② 나이는 사람들이 고집이 셀 때
 ③ 나이는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
 ④ 나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⑤ 나이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⑥ 나이는 사람들이 의존적일 때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8.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래와 같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빈부 갈등	①	②	③	④
(2)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	①	②	③	④
(3)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세대 갈등	①	②	③	④
(4)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사이의 지역 갈등	①	②	③	④
(5) 다문화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문9.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을 하려는 노인들이 자꾸 증가해서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늙은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과 생각이 다른 젊은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문제로 인해 국가의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10. 학생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
- ② 세대 간 소통 부족
- ③ 세대 간 학력 차이
- ④ 세대 간 문화적 경험의 차이
- 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부족
- ⑥ 다른 세대에 대해 학습할 기회나 내용의 부족
- ⑦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 ⑧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 몰라서
- ⑨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잘 몰라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1. 학생은 10년 후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심해질 것이다
- ② 약간 심해질 것이다
-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약간 완화될 것이다
- ⑤ 매우 완화될 것이다

▶ 다음은 가족 간의 세대문제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12. 학생은 부모님에게 세대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13」으로 가십시오

문12-1. (문12에서 1번 응답자만) 부모님과 세대차이를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언제나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 ② 비교적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 ③ 비교적 내 의견대로 하는 편이다
- ④ 언제나 내 의견대로 하는 편이다
- ⑤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한다
- ⑥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3. 학생은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3-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14」로 가십시오

문13-1. (문13에서 1번 응답자만) 학생은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문13-2」로 가십시오
- ② 대체로 불만족 → 「문13-2」로 가십시오
- ③ 대체로 만족 → 「문14」로 가십시오
- ④ 매우 만족 → 「문14」로 가십시오

문13-2. (문13-1에서 1, 2번 응답자만) 만족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나한테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셔서
- ② 관심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 ③ (친/외)할머니/할아버지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서
- ④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엄마/아빠가 다툼 때가 많아서
- ⑤ (친/외)할머니/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가 많아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4. 학생은 평소에 (친/외)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연락을 하거나 찾아뵙는 등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합니까?

- ① 전혀 활발하지 않다
- ② 별로 활발하지 않다
- ③ 약간 활발하다
- ④ 매우 활발하다
- ⑤ (친/외)할머니/할아버지가 모두 안 계신다

문15. 학생은 평소에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자주 있다

문16. 학생은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부모님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부모님 스스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
② 부모님이 주로 부담하고, 내가 조금 도와드려야 한다
③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④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⑤ 내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문17. 학생은 장차 학생의 대학등록금, 결혼비용, 주택구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내용	① 부모님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②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③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④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⑤ 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내 스스로 해결)
(1) 대학 등록금	①	②	③	④	⑤
(2) 결혼비용	①	②	③	④	⑤
(3) 주택구입 비용	①	②	③	④	⑤

문18.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부모님은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을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9.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함께 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일 한다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2)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3)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5) 함께하는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6) 함께하는 식사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20.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세대의 특성,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공감·협력, 세대 간 갈등 극복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① 있다 → 「문20-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문20-1. (문20에서 1번 응답자만) 그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에서

② 중학교에서

③ 고등학교에서

문20-2. (문20에서 1번 응답자만) 그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교과서에 노인 공경이나 세대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

② 할머니/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이 일일 선생님이로 참여

③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의 특강

④ 학교에서 하는 행사(예: 운동회, 소풍 등)에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함께 참여

⑤ 체험활동(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20-3. (문20에서 1번 응답자만) 학교에서 받은 세대통합 교육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2)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나이는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나이는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나이는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5)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나이는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6)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1. 학생은 학교에서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문2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3」으로 가십시오

문22-1. (문22에서 1번 응답자만)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서
- ②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또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
- ③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 ④ 동네 주민센터에서
- 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22-2 (문22에서 1번 응답자만) 학생이 참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경험한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예: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을 돌보아 드리는 프로그램
- ②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드리는 프로그램
- ③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
- ④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같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 ⑤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책이나 동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 ⑥ 어르신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 ⑦ 어르신들에게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 ⑧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나 강연
- ⑨ 노인의 몸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노인체험/노화체험 프로그램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22-3. (문22에서 1번 응답자만)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내가 어르신을 일방적으로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림
- ② 어르신이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가르쳐 줌
- ③ 어르신과 내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
- ④ 진행자(선생님)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나 강연에 청중으로 참석
- ⑤ 진행자(선생님)가 시키는 대로 체험 활동에 참여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22-4. (문22에서 1번 응답자만)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트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트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트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5)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트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6)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3. 앞으로 나이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은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 ③ 약간 참여하고 싶다
- ④ 매우 참여하고 싶다

문24. 다음은 세대통합 방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각 세대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각 세대가 서로의 경험, 지식, 기술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다양한 세대의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예: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 손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이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들이 나이든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25.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에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2)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3) 학급회의와 학급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보는 사람이 없어도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5) 복도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줍는다	①	②	③	④

문26. 학생은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매일 이용한다
(1) TV 방송	①	②	③	④
(2) 종이신문, 잡지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4)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①	②	③	④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①	②	③	④

문27. 학생은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팎에서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가끔 참여한다	자주 참여한다
(1) 자원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등)	①	②	③	④
(2) 캠페인 활동(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①	②	③	④
(3)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①	②	③	④

문28.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문29.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문30. 학생은 세월이 흘러 학생이 노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예시 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미혼의 큰형은 표시합니다.

- | | |
|--------------------------|------------|
| ① (친/외)할아버지 | ② (친/외)할머니 |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⑩ 없음 |

배경문항 3.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구분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4.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5. 학생의 학교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6. 부모님(보호자)은 학생이 어느 학력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2~3년제)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석사과정 ⑤ 대학원 박사과정 ⑥ 잘 모르겠다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by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predi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in the face of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aging society. To achieve the goal, it was designed to develop the policy areas and policy issues that can help the adolescents improve their capability of integrating with other generat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a more effective way, several methods were taken, including a pilot study, statistical analysis,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ies, analysis of legislation and policies, case analysis, and so on. First, the study started with understanding the theory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study about conflicts and integr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to get a basic perspective.

Second, quadratic analysis was implemented to compare the recognition of the different age groups, adolescents, middle-aged people, the elderly, etc., and international analys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ociety, which has begun to experience conflict among the different generations and needs to devise a way of harmonizing the different age groups.

Third, analysis of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on integrating the generation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egal basis as well as the system and to review not only the performance but also the limitations of the policies.

In addition, after selecting representative ca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adolescents' capability of integrating with older generations,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promotion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UK, the US, and South Korea. The adolescents were engaged in the survey to gauge their awareness of the conflicts and integration among the generations and examine the level of their capability of integration. The major questions were concerned with awareness of the aging population and elderly people, awareness of the conflicts

and integration among the different generations, the level of their capability of achieving integration, education on the way of integrating the generations, and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related programs.

Finally, policy issues were drawn after the experts were involved to give some ad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above, and a policy council was held to establish the basic direction to promote the adolescents' capability of harmonizing with older generations. The policy issues are classified into five areas:

First, a plan for establishing polic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integrating different generations.

Second,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proposed a plan to connect school education with programs designed for diverse age groups, as it is expected that adolescents could develop and improve their capability of harmonizing with older generations through these programs.

Third, under the premise that the issue of integrating the generations calls for cooperation with the local society, a plan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is suggested.

Fourth, the results propose a plan for securing and training professionals to lead the programs for integrating different generations.

Last,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policies are made, a plan for governmental reform is proposed to extend the opportunity for future generations to take part in policy-making in order to maintain a balance among the generations.

Key words: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policy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유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자·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자·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홍 영 란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백 병 부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교육연구1팀장)
신 혜 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박사과정)

◆ 협력·자문위원 ◆

김 기 문 (인천만안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도사)
김 주 영 (일산 백마고등학교·교사)
박 윤 정 (흥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도사)
백 병 부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교육연구1팀장)
이 덕 주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사서교사)
이 성 희 (인천 안남중학교·교육복지사)
이 재 건 (대구 달산초등학교·교사)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장)
최 유 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최 호 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팀장)
허 새 나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연구원)
홍 영 란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16년 12월 24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12-7 (93330)



연구보고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127
ISBN 979-11-5654-112-7